

연구보고 2016-08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권미경 박원순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양육’은 힘들지만 가치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다시하기 어려운 소중한 경험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양육’은 보람이나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만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이유로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슬로건 아래 기관 보육 지원과 가정 내 양육지원으로 대표되는 육아지원 정책 또한 기관 보육 위주로 확대되어 온 경향이 뚜렷하다. 또한 정부의 가정 내 양육지원은 제도는 많지만 실제 정책 대상인 영유아 부모의 체감 정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양육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정책의 균형을 찾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관에서 질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과 같이 가정 내에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의 보장과 양육자의 역량 제고가 필수적임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양육지원이 어떠한 시각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 양육지원의 목표 및 가치, 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다차원적 특성을 지닌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가정 내 양육지원이 실질적으로 정책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으로 체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전략 및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이 ‘양육’을 부담으로 여기는 보다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행복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가정 내에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기대하며, 끝으로 그동안 본 연구 과정에 참여하여 주신 학계 전문가, 정책실무자,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5
4. 연구범위 및 용어의 정의	24
5. 선행 연구	27
II. 가정 내 양육 어려움 및 지원 요구	35
1.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	35
2. 제 특성별 양육지원 요구	44
3. 소결	53
III.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계획 및 내용	55
1. 지원 정책 추진 계획	55
2. 지원 정책 추진 내용	62
3. 소결	94
IV.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사례	96
1. 국내 사례	96
2. 국외 사례	114
3. 소결	132
V.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이용 현황 및 개선요구	134
1. 가정 내 양육 현황	134
2. 양육지원 정책 이용 및 개선 요구	152
3. 양육지원 정책 평가 및 지원 방안	237
4. 소결	246

VI.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내실화 방안	250
1. 바람직한 양육지원에의 방향	251
2. 정책추진 전략	254
3. 내실화 방안	257
참고문헌	277
Abstract	286
부록	289
부록 1. 면담 질문지	291
부록 2. 서울시보육반장사업 육아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310
부록 3. 부모대상 FGI(재분석 자료) 면담 질문지 및 면담자 특성	311
부록 4.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설문지	315
부록 5. 회귀분석 결과표	334

표 차례

〈표 I-3- 1〉 양육지원 실무자 및 저소득층 어머니 심층면담 내용	16
〈표 I-3- 2〉 FGI 면담 집단의 구성	17
〈표 I-3- 3〉 지역 규모별 자녀 연령별 모집단 현황	19
〈표 I-3- 4〉 설문조사 대상 표본 구성	19
〈표 I-3- 5〉 설문 내용	20
〈표 I-3- 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2
〈표 I-3- 7〉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내용	23
〈표 I-3- 8〉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24
〈표 II-1- 1〉 아버지 양육과 관련된 주요 주제어	39
〈표 II-2- 1〉 제 특성별 주요 주제어	45
〈표 III-2- 1〉 연도별 양육수당 지급 기준(2009~2016)	63
〈표 III-2- 2〉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현황(2010~2015)	64
〈표 III-2- 3〉 양육수당 지급 영유아 현황(2015)	65
〈표 III-2- 4〉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	67
〈표 III-2- 5〉 0~2세반 맞춤형 보육	68
〈표 III-2- 6〉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유형별 현황(2015)	69
〈표 III-2- 7〉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70
〈표 III-2- 8〉 2015년 지역별 아이돌보미 양성 현황	70
〈표 III-2- 9〉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11~2015)	71
〈표 III-2-10〉 가정특성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현황(2015)	72
〈표 III-2-11〉 아동특성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15)	72
〈표 III-2-12〉 2015년 시도별 시간제 서비스 이용아동 현황	73
〈표 III-2-13〉 2015년 시간제 서비스 시간대별 이용 현황	74
〈표 III-2-14〉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11~2015)	75
〈표 III-2-15〉 연도별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정 현황	75
〈표 III-2-16〉 2015년 가정유형별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정 현황	76
〈표 III-2-17〉 2015년 시도별 영아종일제 서비스 연계가정	77
〈표 III-2-18〉 연도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예산	77

〈표 III-2-19〉 시간제보육료 지급 기준	79
〈표 III-2-20〉 시간제보육 이용현황	80
〈표 III-2-21〉 시간제보육 지원 예산	80
〈표 III-2-2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지원액	86
〈표 III-2-2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표준 서비스 내용	87
〈표 III-2-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88
〈표 III-2-25〉 공동육아나눔터 현황(2010~2015)	90
〈표 III-2-26〉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사업 연도별 이용 현황	93
〈표 IV-1- 1〉 우리동네 보육반장 및 전문보육코디네이터 자격 기준	99
〈표 IV-1- 2〉 서초구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내용	105
〈표 IV-1- 3〉 부모교육 지자체 조례	110
〈표 IV-1- 4〉 부모교육 지자체 조례 비교	111
〈표 V-1- 1〉 연령별 주된 이용 기관	135
〈표 V-1- 2〉 긴급하게 대리양육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기관)	136
〈표 V-1- 3〉 돌봄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138
〈표 V-1- 4〉 지원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139
〈표 V-1- 5〉 양육 정보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140
〈표 V-1- 6〉 정책 인지 및 활용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141
〈표 V-1- 7〉 양육역량에의 영향 요인	143
〈표 V-1- 8〉 양육역량에의 영향 요인(양육 부담 추가)	144
〈표 V-1- 9〉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145
〈표 V-1-10〉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146
〈표 V-1-11〉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	147
〈표 V-1-12〉 양육부담에의 영향 요인	149
〈표 V-1-13〉 양육부담에의 영향 요인(양육 역량 추가)	149
〈표 V-1-14〉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육아 정보	150
〈표 V-1-15〉 육아정보 제공처	151
〈표 V-2- 1〉 비용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153
〈표 V-2- 2〉 가정양육수당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153
〈표 V-2- 3〉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155
〈표 V-2- 4〉 가정양육수당 개선 요구	156

〈표 V-2- 5〉 가정양육수당 증액 요구 사유	157
〈표 V-2- 6〉 가정양육수당 증액 시 가정양육수당 이용 의향	158
〈표 V-2- 7〉 가정양육수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59
〈표 V-2- 8〉 0~2세 보육료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161
〈표 V-2- 9〉 3~5세 누리과정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162
〈표 V-2-10〉 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지원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163
〈표 V-2-11〉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정책 개선요구	164
〈표 V-2-12〉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정책 미이용 이유	165
〈표 V-2-13〉 돌봄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166
〈표 V-2-14〉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167
〈표 V-2-15〉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169
〈표 V-2-16〉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	170
〈표 V-2-17〉 시간제 보육 이용 빈도	171
〈표 V-2-18〉 시간제 보육 개선요구	172
〈표 V-2-19〉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73
〈표 V-2-20〉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174
〈표 V-2-21〉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복수응답)	175
〈표 V-2-22〉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177
〈표 V-2-23〉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요구	178
〈표 V-2-24〉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179
〈표 V-2-25〉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181
〈표 V-2-26〉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대한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182
〈표 V-2-27〉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장 유용한 것	183
〈표 V-2-28〉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개선요구	185
〈표 V-2-29〉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86
〈표 V-2-30〉 부모교육을 제공 받은 곳(복수응답)	187
〈표 V-2-31〉 부모교육 실시 정보를 접한 경로(복수응답)	188
〈표 V-2-32〉 부모교육 교육내용(복수응답)	189
〈표 V-2-33〉 부모교육 활성화 개선요구	191
〈표 V-2-34〉 부모교육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	192
〈표 V-2-35〉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반	193

〈표 V-2-36〉 부모교육 의무화에의 찬성 이유	194
〈표 V-2-37〉 부모교육 의무화에의 반대 이유	195
〈표 V-2-38〉 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기	196
〈표 V-2-39〉 부모교육 방법 선호 형태_(1) 매체이용	197
〈표 V-2-40〉 부모교육 방법 선호 형태_(2) 집단크기	198
〈표 V-2-41〉 부모교육 방법 선호 형태_(3) 접근 방법	200
〈표 V-2-42〉 부모교육 방법 선호 형태_(4) 1회 적정 시간	200
〈표 V-2-43〉 부모교육 방법 선호 형태_(5) 교육내용 구분 방법	201
〈표 V-2-44〉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	203
〈표 V-2-45〉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정책내용 인지 정도(복수응답) ..	204
〈표 V-2-46〉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정책 개선요구	205
〈표 V-2-47〉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06
〈표 V-2-48〉 영유아 건강 관련 지원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208
〈표 V-2-4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	208
〈표 V-2-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209
〈표 V-2-51〉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이유	211
〈표 V-2-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요구	212
〈표 V-2-53〉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13
〈표 V-2-54〉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의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214
〈표 V-2-55〉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215
〈표 V-2-56〉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개선요구	216
〈표 V-2-57〉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17
〈표 V-2-58〉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218
〈표 V-2-59〉 국가예방접종지원에 대한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219
〈표 V-2-60〉 국가예방접종지원 개선요구	220
〈표 V-2-61〉 국가예방접종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221
〈표 V-2-62〉 양육지원 종합 서비스 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	223
〈표 V-2-6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223
〈표 V-2-64〉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225
〈표 V-2-65〉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지원 센터의 서비스별 이용 및 만족도	226

〈표 V-2-66〉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 지원센터 개선요구	228
〈표 V-2-67〉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229
〈표 V-2-68〉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230
〈표 V-2-69〉 출산 전·후 휴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231
〈표 V-2-70〉 배우자 출산휴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232
〈표 V-2-7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	233
〈표 V-2-72〉 육아휴직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234
〈표 V-2-73〉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제도가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235
〈표 V-2-74〉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236
〈표 V-3- 1〉 자녀양육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동의 정도	238
〈표 V-3- 2〉 부모가 경험하는 정책체감도가 낮은 이유	240
〈표 V-3- 3〉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필요도가 높은 제도	241
〈표 V-3- 4〉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만족도가 높은 제도	242
〈표 V-3- 5〉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	243
〈표 V-3- 6〉 자녀양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245

그림 차례

[그림 I-2- 1] 가정 내 양육지원 요구에 따른 대안과 제도	13
[그림 I-2- 2]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모색 연구 개요	15
[그림 I-4- 1] 양육지원정책의 대상(기관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26
[그림 III-1-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6
[그림 III-1- 2] 1, 2,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비전과 목표	61
[그림 III-2- 1]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현황(2010~2015)	65
[그림 III-2- 2] 연령별 양육수당 지급 영유아 현황(2015)	66
[그림 III-2- 3] 양육수당 지원 예산 추이(2009~2016년)	67
[그림 III-2- 4] 연령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현황	73
[그림 III-2- 5] 2015년 시간제 서비스 시간대별 이용 현황	74
[그림 III-2- 6] 연도별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76
[그림 III-2- 7]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추이	78
[그림 III-2- 8]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중점추진 과제	81
[그림 III-2- 9] 대한민국 부모학교 홈페이지	83
[그림 III-2-10]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오픈	84
[그림 III-2-1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85
[그림 III-2-12]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추진 체계	86
[그림 III-2-13] 공동육아나눔터 연간 이용자 수	91
[그림 III-2-14] 공동육아나눔터 전국 설치 현황	92
[그림 III-2-14]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사업 연도별 이용자 수	93
[그림 IV-1- 1] 전문보육코디네이터 및 우리동네 보육반장 역할	97
[그림 IV-1- 2] 자치구별 육아지원 안내서 예시	98
[그림 IV-1- 3] 보육반장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절차	99
[그림 IV-1- 4] 보육반장 육아정보제공 절차	100
[그림 IV-1- 5] 세종시 보건소 출산장려정책사업	101
[그림 IV-1- 6] 서초구 보육정책 10대 추진과제(보육 십계명)	104
[그림 IV-1- 7] 세살마을 소개: 비전과 미션	107
[그림 IV-2- 1] 독일 가족센터 운영모델	116

[그림 IV-2-2]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체계	119
[그림 IV-2-3] 지역 청소년청의 행정 체계	120
[그림 IV-2-4] 호주 복지 시스템(센터링크)	126
[그림 IV-2-5] 이스라엘 홀론(Holon)시 팁-태프(Tip-Taf)센터	128
[그림 IV-2-6] 2016년 엄마상자 구성	131
[그림 V-1-1] 연령별 주된 이용 기관	135
[그림 V-1-2] 돌봄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138
[그림 V-1-3] 지원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140
[그림 V-1-4] 양육 정보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141
[그림 V-1-5] 정책 인지 및 활용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141
[그림 V-1-6]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146
[그림 V-3-1] 자녀양육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동의 정도	238
[그림 V-3-2] 자녀양육지원정책 개선 방안(1+2+3순위 합산)	245
[그림 VI-1-1] 가정 내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 개념도	250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부모대상 FGI 면담 질문지	311
〈부록 표 2〉 부모대상 FGI 면담 부모 특성	313
〈부록 표 3〉 돌봄역량에의 영향 요인	334
〈부록 표 4〉 돌봄역량에의 영향 요인(양육 부담 추가)	334
〈부록 표 5〉 지원역량에의 영향 요인	335
〈부록 표 6〉 지원역량에의 영향 요인(양육 부담 추가)	335
〈부록 표 7〉 양육정보역량에의 영향 요인	336
〈부록 표 8〉 양육정보역량에의 영향 요인(양육 부담 추가)	336
〈부록 표 9〉 정책인지 및 활용역량에의 영향 요인	337
〈부록 표 10〉 정책인지 및 활용역량에의 영향 요인(양육 부담 추가)	337
〈부록 표 11〉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의 영향 요인	338
〈부록 표 12〉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의 영향 요인(양육 역량 추가)	338
〈부록 표 13〉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의 영향 요인	339
〈부록 표 14〉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의 영향 요인(양육 역량 추가)	339
〈부록 표 15〉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에의 영향 요인	340
〈부록 표 16〉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에의 영향 요인(양육 역량 추가)	340
〈부록 표 17〉 경제적 부담에의 영향 요인	341
〈부록 표 18〉 경제적 부담에의 영향 요인(양육 역량 추가)	341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정 내 양육 내실화를 지원 정책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내실화를 도모하는 본 연구는 양육지원 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다차원적 특성을 지닌 자녀를 기르는 일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가정 내 양육지원이 실질적으로 정책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으로 체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전략 및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현행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된 가정 내 양육지원 요구 검토
 - 영유아 가정의 양육 현황, 양육 어려움이나 지원 요구를 자녀 연령, 맞벌이 등 가구특성,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심층 조망
-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현황 및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
 - 비용 지원, 돌봄 지원, 교육과 정보제공, 물품지원, 건강관련 지원, 거점형 종합서비스 지원, 일가정 양립 등 관련 지원
- 가정 내 양육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내의 우수한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 내 양육지원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자녀 양육 현황과 다양한 가정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가정 내 양육지원 이용 실태 및 개선 요구를 파악

- 바람직한 가정 내 양육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모색
- 가정 내 양육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
 - 개선안은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마련을 제안하기보다, 정책과 이용자 간 접근성 강화, 홍보 방안 등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분석, 현황 및 통계자료 분석, 정책사례 분석
- 심층면담 실시 및 선행자료 FGI 재분석
 - 양육지원 실무자,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7회 실시
 - 영유아 가구의 양육지원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 FGI 전사자료 재분석 (77명 면담자료, 근거이론 기반 코딩 후 의미분석, Weft QDA 1.0 사용)
- 영유아 어머니 1,302명 대상 설문조사
 - 자녀의 기관이용 현황, 자녀 양육 현황 및 자녀양육 역량,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이용 및 개선 요구, 향후 지원 개선방안
-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정책세미나 개최

라. 연구범위 및 용어의 정의

- 본 연구는 ‘가정 내 양육’을 기관 이용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를 기르는 일’로 정의함
- ‘가정 내 양육 내실화’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일을 잘 하기 위한 양육자의 다면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둠.
-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가정 내 양육 내실화’를 도모함은 새로운 정책의 발굴 보다는 현행 정책의 수요자 접근성 및 효율성 증진 방안 모색을 뜻함.

2. 가정 내 양육 어려움 및 지원 요구

가.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

- 양육 어려움의 원인은 육아와 가사를 분리하기 어려운 점, 자녀를 소홀히 돌볼 수 없는 모(부)성에, 소자녀 출산으로 인한 미숙한 육아 기술, 고령 출산으로 인한 부모의 체력 저하와 아버지의 낮은 양육참여 등으로 나타남.
- 결과적 현상으로 부모의 수면 부족과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 정서적인 고통과 양육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현상을 확인함.

나. 제 특성별 양육지원 요구

- 지역별 양육지원 요구에서 무엇보다 농어촌지역은 직장 여건 및 사회 문화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 병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부족함.
- 자녀연령별 지원요구(임산부, 영아자녀, 유아자녀)에서는 영아 부모가 다른 연령의 부모에 비하여 대부분의 주제에서 더 많은 요구가 있음. 특히 아버지 양육참여 요구, 대리양육 요구, 수면 부족 문제, 전업주부 어머니가 병원 조차 가기 어려운 여건 등을 확인함.
- 취업모의 경우, 다양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및 사회에서 육아를 병행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며, 가정에서도 부인이 남편에 비해 더 많은 육아 및 가사를 부담함으로 인한 체력과 수면 부족 등의 문제를 겪음.
- 육아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특정 집단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함을 확인함.
 - 양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집단은 영아 가구, 농어촌 거주 가정임. 이들을 위한 보다 심화된 지원이 필요함.
 - 농어촌지역은 아버지 양육참여가 제고를 위한 아버지 부모교육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들 역시 영아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내용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취업모 남편이 보다 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직장환경과 유연근로제도를 취업모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도록 사회전반의 노력이 필요함.

3.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계획 및 내용

- 양육지원 정책 내용의 검토를 통해 현재의 정책과 제도들이 수요자의 의견 조사를 토대로 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상당히 다면적으로 추진 중임.
 - 문제는 정책 이용자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임. 현재 운영 중인 정책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실무자의 관점에서 구체화하여 양육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함.
- 정부의 정책과 구조적인 제도의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일에 대한 과정적인 질을 보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양육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견지되어야 함.
- 정책의 변화는 부모의 양육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양육지원 정책의 개선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을 더욱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수요자의 요구에 따르는 추수적 접근을 벗어나 추동적 입장에서의 정책방향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이는 영유아의 발달을 더욱 적절히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양육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방향이어야 할 것임.

4.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사례

- 국내사례로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세종시 보건소 사업, 서울시 서초구 양육지원 사업, 가천대 '세살마을' 사업, 부모교육 지자체 조례 등을 살펴봄.
 - 정책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접점을 만들어 안내하는 정책추진이 활발함. 지자체를 포함한 정책 및 사업주체의 목표 인식과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며,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함.
- 국외사례로 독일사례(가족센터, 청소년청, 헤바페), 호주 센터링크, 이스라엘 텃-태프 센터, 핀란드 엄마상자 등을 살펴봄.
 - 양육지원은 영유아와 가정을 중심으로 생태체계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양육에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 사회가 지닌 사회문화적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침. 따라서 양육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함.

- 영유아발달에 따른 실제적 필요를 반영하여 양육자 역량강화를 지원해야함.
 - 특히, 영아기 부모의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세종시 보건소 사업, 가천대 세 살마을, 독일 헤바메), 양육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이스라엘 팁-태프 센터 등이 시사점을 줌.

5.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이용 현황 및 개선요구

가. 가정 내 양육 현황

- 긴급하게 대리양육 필요 시 도움처는 조부모가 70.0%로 가장 높았고, 교육·보육기관(9.5%)과 친인척(6.2%)의 도움이 비교적 크며, 돌봄지원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1.8%)와 일시보육(0.5%)은 저조하게 나타남.
- 자녀양육과정에 요구되는 돌봄 역량, 지원 역량, 양육 정보 역량, 정책인지 및 활용 역량 등에 대해 어머니들은 그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가정에서의 양육 주체인 어머니의 양육 역량감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요인으로 자녀 수와 자녀 연령이 설명력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과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로 역량강화 기회가 필요함.
- 양육부담에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체력적인 역량감이 떨어지고 신체적 부담의 정도가 높게 나타남.
 - 영아 부모를 중심으로 육아에 잠시 휴식을 줄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활용이나 함께 양육 경험을 나누고, 양육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등への 접근 기회 확대를 모색 필요

나. 양육지원 정책 이용 및 개선 요구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비용 지원 금액의 상향 조정 요구가 높은 가운데,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현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에의 요구가 높은 특징을 보임.

- 국가 지원에 수반되는 재원의 확보가 쉽지 않음과 양육지원에의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 방안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비용지원, 돌봄지원, 정보 및 교육제공, 물품지원, 건강지원, 종합서비스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및 누리과정 비용지원, 영유아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정책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반면, 돌봄지원 및 종합서비스지원 정책은 인지 및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정책들이 있어 주요 원인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 인지도가 낮은 정책(모름 응답): 건강가정지원센터(67.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47.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39.8%), 육아종합지원센터(35.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5.7%), 시간제보육서비스(25.7%), 아이돌봄서비스(21.6%) 등
 - '이용률'이 낮은 정책(이용 응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7%), 건강가정지원센터(3.2%), 아이돌봄서비스(6.8%), 시간제보육서비스(7.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2.6%), 육아종합지원센터(22.8%), 육아휴직제도(23.2%), 배우자 출산휴가(36.6%) 등
 -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의 경우, 알고 있으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공기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용 기회를 확대 필요
 - 육아종합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나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편임. 이 경우 가정 내 양육지원에의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충분한 기관의 수가 확보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이용률이 매우 높았음. 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정보제공 뿐 아니라 지원 정책에서의 신청까지 연계함을 통해 지원정책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양육지원 사업과 연결을 강화하고,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거점 종합포털서비스로 발전시킨다면 지원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임.

-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관련 정보의 제공과 소통의 통로 확보와 활성화가 필요함.
-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현황에서 영영아와 영아 집단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경험이, 유아 집단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음.
 - 이는 부모교육 제공 시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기관을 선택함이 효과적임을 시사함.
 - 또한 몰라서 참여 못하는 경우가 절반을 상회한다는 결과는 부모교육 기회를 마련하면서 안내와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함을 시사함.
 -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 78%의 응답자가 찬성하였고, 그 이유 중 '자녀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이는 부모들 스스로가 역량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줌.
 - 희망 방법은 자녀가 영유아일 때, 교육장소로 부모가 찾아가서, 5명 정도의 면대면 소집단 교육으로, 1회기는 약 30분 정도로, 교육내용은 자녀의 연령특성에 따라 구성되는 것을 선호함.
-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는 인지도(79.3~91.3%)와 이용률(23.2~41.8%)로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도적 기초는 마련되어있음.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용률(2.7%)이 현저히 낮아 개선이 필요함.
 - 미이용 사유도 '이용하기에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인다'이고 개선요구도 '이용할 때 직장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문화'로 수렴됨. 이는 가족 친화적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제도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함.
- 다양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들의 인식도, 이용률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영영아 가구, 자녀가 1명인 가구, 저소득 가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 양육자 자신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에 '제도를 잘 모름',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함'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각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가 몰라서 미이용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또한 정책에 대한 노출이 적은 영유아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함.

- 첫째 자녀 출생신고와 정책정보 제공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푸시 서비스를 통한 정책안내가 필요함. 특히, 저소득 가구가 정책을 몰라서 혹은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기간이 짧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방지 필요
-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은 다양하나 그 이용과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현황을 확인함.
 - 이는 이제는 하나 하나의 미시적 정책 수준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의 큰 틀에서 퍼즐을 맞추듯 정책 간의 형평과 효율, 기능의 효율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가에 주목해야함을 시사함.

다. 양육지원 정책 평가 및 지원 방안

- 영유아 어머니는 정부가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2.6/4.0점), '정부가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부담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며(3.1/4.0점)',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으로 세금이 증가한다면 기꺼이 수용(2.5/4.0점) '한다는 것에 동의 정도가 높았음.
 - 그러나 '정부에서 마련한 양육지원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1.7점/4.0점)'이라는 데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 양육지원정책은 이용자에게 잘 안내되고 있다(2.0/4.0점)'는 것도 동의정도가 낮음.
- 지원정책에 대한 체감이 저조한 이유로 '정책 설계에서부터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47.5%)가 가장 높았고, '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이용하기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27.4%)',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서(14.6%)'의 순으로 응답하여, 수요자 고려, 공급의 불충분성, 홍보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 필요도, 만족도, 개선필요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비용지원'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의 순으로 나타남.
- 지원정책 개선방안(1+2+3순위)으로는 적정 양육수당 지원(63.9%), 시간제 보육/아이돌보미 이용 편리성 개선(42.3%),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질 관리(36.0%), 영아는 부모의 가정양육 지원, 유아는 기관이용 지원 활성화(34.7%),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28.9%)의 순으로 나타남.

6.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내실화 방안

가. 바람직한 양육지원에의 방향

- '부모'에서 '영유아'로 지원 관점의 전환
 - 지원의 관점이 부모의 편의보다는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영유아가 누려야 할 돌봄의 수준'이 정책의 목표 수준이 되어야 함.
-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양육 가치 회복
 - '즐거움, 행복함, 보람'으로 양육 가치를 회복하고, 부모/양육/모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 문화 조성
- 함께 키워가는 육아문화 지향
 - 양육의 주체인 부모, 그 과정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국가와 사회가 실현되도록 부모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우는 사회를 지향

나. 정책추진 전략

- 생태체계적 접근
 - 가정 양육지원은 영유아와 부모를 둘러싼 생태체계적 맥락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
- 중장기 기본계획 틀 고려(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택과 집중
 - 보편 지원의 틀 안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의 소외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특화하는 전략 필요, 이는 실제적인 양육 취약성 해소에 기여
- 양육자 역량강화에 중점
 - 양육주체로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넓히고, 부모의 돌봄역량, 지원역량, 정보습득 및 활용에 대한 역량 등 포괄적 역량을 강화
- 자발적 동기부여
 - 정부주도의 접근을 뛰어넘어 유희자원의 활용과 민간 주도적 접근을 유도

다. 내실화 방안

□ 현재의 정책 개선방안

- 비용지원(소득수준 고려한 차별지원 방안 모색, 선택적 시간에 대한 부모 자부담, 비용 지원과 부모교육 연계)
- 돌봄 지원(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비용 현실화, 아이돌보미 전문화 및 다양화, 노인인력 활용 돌봄서비스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 홍보 안내,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제고 등)
- 정보 제공 및 부모 교육(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육아정보 거점화 및 정책신청 일원화, 온라인 육아정보 플랫폼 구축, 부모교육 시행 법적 기초 마련, 부모교육 의무화와 지원정책 연계 등)
- 실물지원 정책(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소득기준 실질화, 지원물품 금액의 지속적 모니터링)
- 건강 지원정책(검진병원 모니터링, 영유아건강검진 시 양육지원 정책 안내)
- 거점형 종합서비스(공통사업내용 개발, 농어촌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 일·가정양립지원(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선도적 역할 부여)

□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인지도 제고 방안

- 전국민 공익홍보 기회확대(대중매체 이용, 검색포털 활용, 모바일 앱 등)
- 양육 안내서 구성·보급(국가 수준 양육안내서 지속 발간 등)

□ 영아가정 양육지원 강화 방안

- 육아 서포터즈(가천대 세 살마을 사업 확산)
- 거점형 영아 양육지원 센터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 접근성과 이용편리성 증진 방안

- 주민센터 내 양육지원 거점 설치
- '양육 지원 요원' 주민센터 배치
-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정 양육지원의 거점으로 활용
- 농어촌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된 생활공동체로 자녀양육과 사회화라는 주 기능으로 다음 세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렇듯 중요한 가정의 자녀 '양육'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더불어 사회로의 역할 분담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 밖의 일에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대한 가치는 평가 절하되는 경향을 보이며, '양육'이 보람이나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저출산 극복을 이유로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슬로건 아래 기관 보육 지원과 가정 내 양육지원으로 대표되는 육아지원정책 또한 기관 보육 위주로 확대되어 온 경향이 뚜렷하다.

가정에서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양육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정책의 균형점을 찾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가정 내 양육'을 과연 어떻게 범위 지을 것인지 부터 시작해야한다. 우선 '가정 내 양육'을 기관 보육과 상응하는 개념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으며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을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이정원·이윤진, 2008;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 2012)되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자녀 양육지원의 다차원적 특성 중 돌봄 분담에 치중하게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은 '가정 내 양육'을 보다 넓게 보아 자녀를 기르는 일 전반으로 이해하며, 기관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양육 전반을 포괄하는 범위로 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가정 내 양육'을 '기관 보육'과 상응하는 양육 형태로 개념화하기보다는,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이나 영유아 시기 자녀양육에의 요구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기본전제 하에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를 기르는 일로 이해한다. 또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은 육아지원정책 전반 중

기관보육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연구 범위로 삼고자 한다.

이제까지 정부의 가정 내 양육지원은 양육수당을 포함한 비용지원, 아이돌보미 제도와 같은 서비스 지원, 시간제보육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서비스 지원, 부모상담 및 교육, 건강관련 지원 등 이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수요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요구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예산의 투입으로, 제도는 많은데 실제 정책 대상인 영유아 부모의 체감 정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까지의 요구 대응적인 접근에서 멈추어 서서 양육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정책 용어를 차용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추수적 입장(追隨的)을 넘어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 수요자를 이끌어가갈 수 있는 추동적(推動的) 입장의 정책 방향성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정 내 양육의 내실화의 목적은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양육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을 통한 가정 양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일에 대한 과정적인 질을 보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양육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견지되어야 한다. 양육 역량 강화는 부모교육이나 정보의 제공만이 아닌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나 지원, 서비스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등 양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양육지원 정책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실화는 또한 이미 마련된 것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내 양육 내실화를 지원 정책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도모하는 본 연구는 양육지원 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다차원적 특성을 지닌 자녀를 기르는 일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가정 내 양육지원이 실질적으로 정책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으로 체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전략 및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육아지원정책 중 기관보육지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을 포함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이용자와 제공자가 체감하는 개선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자의 요구에 기반하여 그 대안으로 마련된 양육지원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양육지원 요구와 그 대안,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2-1]과 같다.

양육 지원 요구	대안	제도화된 지원 정책
경제적 부담	조세감면 양육 비용 지원	세금 환급 제도 양육수당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	파견 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사업(종일제)
갑자기 맡길 곳 없음 내 시간이 없음	긴급 돌봄서비스 육아의 심포 Refreshment 기회	아이돌보미 사업(시간제) 시간제보육 서비스
혼자 키우는 어려움(독박육아)	가정 내 역할 분담 양육 경험의 공유	아버지 교육, 아버지 육아휴직 공동육아나눔터
공동 돌봄 공간, 장난감·도서 대여 등 필요	거점형 원스톱(one-stop) 양육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장난감도서관)
양육 자신감 부족 양육 관련 정보 필요	부모교육 양육정보 제공 양육상담	부모교육 기회제공(대한민국 부모학교) 임신출산육아 포털 운영(아이사랑포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맞벌이 가정 양육 및 돌봄 위한 시간 필요	일가정 양립 제도	지역 기반 맞춤 정보 제공 (우리동네 보육반장, 보육맘) 육아휴직, 육아기 시간 단축 근로제

주: 본 연구진이 정리한 자료임.

[그림 1-2-1] 가정 내 양육지원 요구에 따른 대안과 제도

영유아 가정의 양육 현황, 어려움, 지원 요구 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 2016; 김은정·이진숙·최인선, 2014; 양민석·안현미·서영주·임양미·윤상미, 2012;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 2012)이 이루어졌고, 이미 연구 결과의 많은 부분이 지원정책으로 반영된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화된 지원 정책의 추진 및 이용 실태, 개선요구를

영유아 부모와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파악하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된 가정 내 양육지원 요구를 검토한다. 영유아 가정의 양육 현황, 양육 어려움이나 지원 요구를 자녀 연령, 맞벌이 등 가구 특성,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심층 조망한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미 진행됨을 고려하여 새롭게 조사하기보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하고, 관련 자료를 재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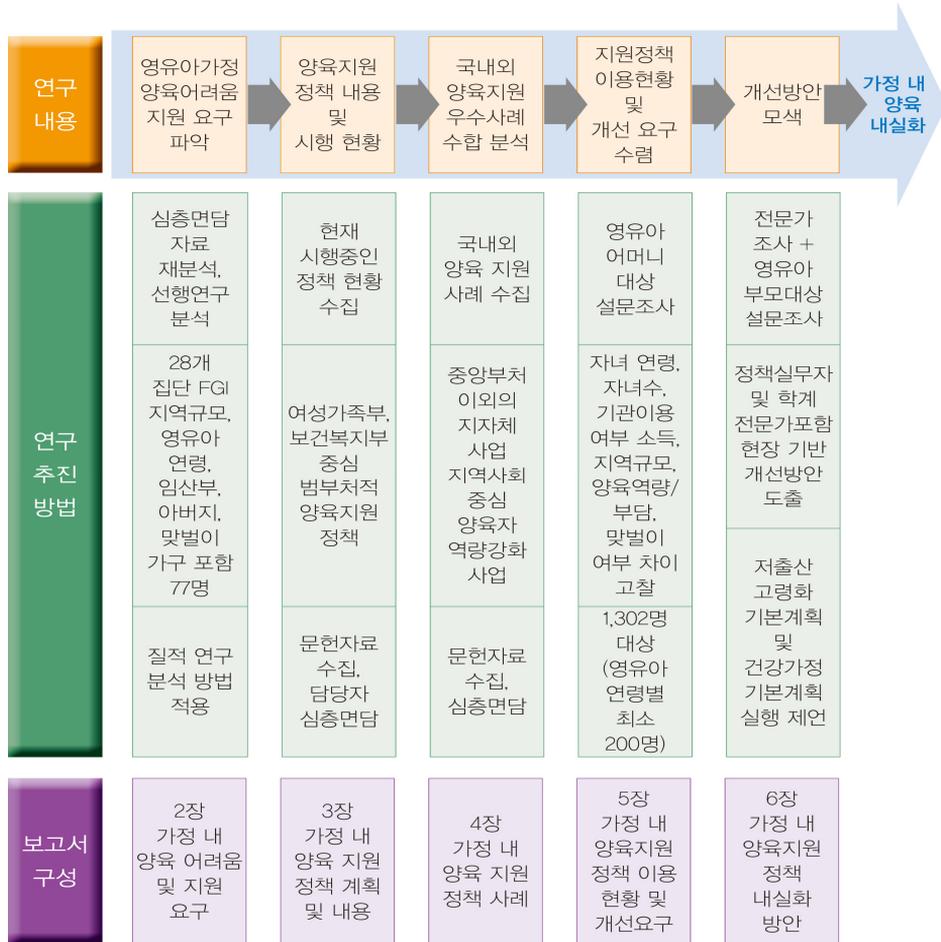
둘째,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현황 및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의 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한다. 이는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비용 지원, 아이돌보미나 시간제보육 등 돌봄 지원, 교육과 정보제공, 물품지원, 건강관련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거점형 종합서비스 지원, 일가정양립 등 관련 지원을 포함한다.

셋째, 가정 내 양육지원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우수한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가정 내 양육지원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내의 경우 중앙정부 수준의 제도를 제외하고, 지자체 수준에서 활발히 추진되거나, 특색을 살려 진행되고 있는 양육지원 사업을, 국외 사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양육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두고 고찰한다.

넷째, 자녀 양육 현황과 다양한 가정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가정 내 양육지원 이용 실태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한다. 영유아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지역규모, 자녀 연령, 자녀 수, 맞벌이 여부, 가구 소득 등)과 양육자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하면서 다면적인 가정 내 양육지원 제도의 활용 실태와 가정 내 양육지원의 만족도 등을 살핀다. 또한 양육지원 개선요구 및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그 개선안을 모색한다.

다섯째, 바람직한 가정 내 양육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여섯째, 가정 내 양육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개선안은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마련을 제안하기보다, 정책과 이용자 간 접근성 강화, 홍보 방안 등 시행 중인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그림 1-2-2]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모색 연구 개요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다음의 연구 내용을 고찰한다. 첫째, 가정 내 양육 실태, 가정 내 양육지원 제도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가정 내 양육 관련 정

책 이용률 등 현황 및 통계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셋째,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제도에 대한 사례를 수합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 심층면담 및 FGI(Focus Group Interview)

1)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총 6회에 걸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양육지원 실무자,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3-1〉 양육지원 실무자 및 저소득층 어머니 심층면담 내용

구분	개최시기	대상	내용
제1차	2016. 4	서울시 G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무자 1인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현황 및 개선요구 파악
제2차	2016. 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팀장 1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 내 양육지원 사업 현황 및 개선요구 파악
제3차	2016. 4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서울시 가정 내 양육지원 사업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현황 및 개선요구 파악
제4차	2016. 5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사업담당 실무자 1인	부산시 보육맘 사업 현황 및 개선요구 파악
제5차	2016. 9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서면),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1인,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2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 양육지원 사업 현황, 시간제 보육서비스, 부모교육 의무화, 양육정보 제공, 부모역량 강화 방안,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부모요구도 결과에 대한 논의
제6차	2016. 9	서울시 3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2인 및 국장 1인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 양육지원 사업 현황, 추진계획,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사업, 부모교육 의무화, 양육정보 제공, 부모역량 강화 방안,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부모요구도 결과에 대한 논의
제7차	2016. 9	저소득층 영유아 어머니 4인	지녀양육의 어려움, 양육지원정책 이용경험 및 개선요구,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심층면담은 90분 ~ 150분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피면담자는 면담이 이루어지기 수일 전에 연구자들이 제공한 면담 프로토콜을 제공받았으며 면담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부록 1 참조). 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면담 내용은 전사하여 활용하였다.

2) 영유아 부모 FGI(Focus Group Interview)

영유아 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추진했던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권미경 외, 2016)’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로 권미경 외(2016)는 연구를 위하여 영유아 가구 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육아의 어려움, 자녀의 기관 이용, 육아 정보, 육아지원정책 인지 및 이용 경험 등을 주로 질문하였으며 자세한 면담 프로토콜은 <부록 3, 표 1>과 같다. FGI는 총 2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회기별로 2~3명이 참여하여 전체 77명과 면담이 이루어졌다(권미경 외, 2016). 집단의 구성은 출산 전 주부, 만 0~1세 영아의 전업모, 만 2세 영아의 전업모, 만 3~4세 유아의 전업모, 만 5세 유아 자녀를 둔 전업모와 취업모, 그리고 양육참여 경험이 있는 아버지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도시와 농어촌으로 나누어서 수도권과 경남지역에서 각각 면담하였다(권미경 외, 2016). 면담 대상에 대한 요약은 다음 <표 1-3-2>과 같고, 그 구체적인 질의 내용과 면담자 특성은 <부록 3>으로 제시하였다.

<표 1-3-2> FGI 면담 집단의 구성

구분	전업주부										취업모		양육참여 경험아버지	
	출산 전		만0~1세		만2세		만3~4세		만 5세		취업모		양육참여 경험아버지	
	수도	경남	수도	경남	수도	경남	수도	경남	수도	경남	수도	경남	수도	경남
대도시	3	3	3	3	2	2	2	2	3	3	3	3	3	2
농어촌	3	3	2	3	3	3	3	3	3	2	3	3	3	2

자료: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p.8 <표 1-3-3> 재구성

28회에 걸친 FGI의 내용은 모두 컴퓨터로 전사되어 A4 595쪽 분량으로 면담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어 저장되었다. 면담 자료가 본 연구를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아니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지식, 정보, 어려움 등을 비교적 자세히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 자료에서 생성되는 주제들을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코딩하였다(Charmaz, 2000). 과정은 먼저 코딩을 실시하기 전에 면담의 내용을 충분히 수차례 읽은 후, 양육지원 정책

에 따라 비용부담관련, 시간 지원관련, 정보제공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1차 코드를 선정하고 이를 전사 자료에 코딩하였다. 코딩을 실시하는 과정 중 새로운 코드가 생성되면 새로 생성된 코드로 다시 코딩을 반복하여 수차례의 읽기가 반복되며 1차 코딩이 완료되었다. 연구자들은 1차 코딩을 통하여 생성된 코드별로 자료를 재분류하여 각각의 코드에서 지역별, 자녀의 연령별, 양육의 형태별로 의미를 살피고 1차 코드의 내용별로 다시 수차례 읽기를 반복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1차 코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 이를 일반적인 주제로 묶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를 분명히 특징지을 수 있는 2차 코드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2차 코드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면담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코딩을 보완하고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무료 소프트웨어인 Weft QDA 1.0²⁾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다. 설문조사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이용과 개선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7월 20일 ~ 8월 30일 사이 리서치업체가 보유한 패널³⁾을 이용하여 전국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1,30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유아 가구의 자녀양육 현황과 양육역량 및 양육 부담 파악,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비용, 돌봄, 정보 및 교육제공, 물품지원, 건강지원, 종합서비스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정책내용 인식, 미이용 이유, 개선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1) 모집단 및 조사대상

영유아 자녀 어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모집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만0~5세까지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2016년 5월 기준⁴⁾)를 사용하여 지역규모별, 자녀 연령별 모집단 현황을 살펴보면 <표 I-3-3>과 같다.

2) Weft QDA 는 면담내용, 현장기록 등 문서화된 질적 자료의 분석을 위해 쉽게 무료로 제공되는 도구이다(<http://www.pressure.to/qda/> 2016년 10월 17일 인출함).

3) 한국리서치 MS패널은 2016년 기준으로 약 34만명 규모로 운용 중인 전국 단위 표본임.

4)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2016년 6월 16일)

〈표 1-3-3〉 지역 규모별 자녀 연령별 모집단 현황

단위 : 명

지역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
대도시	171,566	182,250	178,501	190,573	190,890	194,189	1,107,969
중소도시	171,517	185,374	185,061	201,576	204,115	209,160	1,156,803
읍면지역	68,303	74,099	73,608	80,242	80,660	82,807	459,719
합계	411,386	441,723	437,170	472,391	475,665	486,156	2,724,491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5월 기준 자료) 연령별 전체 읍면동 월간인구현황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2016년 6월 16일)

2) 표본추출

설문조사 표본은 지역규모별 0~5세 자녀연령별 비례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지역구분은 행정구역 동읍면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행정구역 상 동읍면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동' 지역은 '대도시'로, '읍면' 지역은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도지역의 '동' 지역은 '중소도시'로, '읍면' 지역은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자녀연령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6년 5월 기준 연령별 전체 읍면동 월간인구현황 자료'⁵⁾를 사용하여 0~5세까지의 연령별 비례 배분하였다. 또한 저소득 계층의 표본이 전체표본에 일정 수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온라인 웹 조사임을 감안하여 전체표본(1,300명)의 10%이상이 저소득층(월 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이 되도록 강제 할당하여 취약계층을 150가구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다.

〈표 1-3-4〉 설문조사 대상 표본 구성

단위 : 명

지역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
대도시	82	87	85	91	91	93	529
중소도시	82	88	88	96	97	100	551
읍면지역	33	35	35	38	39	40	220
합계	197	210	208	225	227	233	1,300

3) 설문내용

설문문항은 영유아 자녀의 기관이용 경험 및 향후 기관이용 계획, 자녀 양육 현황 및 자녀양육 역량(긴급 대리양육 도움제공자, 양육의 어려움, 돌봄/지원/

5)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2016년 6월 16일)

양육정보/정책인지 및 활용에 대한 중요도, 현재 나의 역량, 양육 부담, 육아정보 제공처 및 내용),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이용 및 개선 요구(정책별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정책내용 인식, 개선될 점, 이용/미이용 이유 등), 향후 지원 개선방안(필요도 높은 제도, 만족도 높은 제도, 개선 필요 제도, 정책개선 우선 순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지원 정책으로는 비용지원 정책(양육수당, 보육료/누리과정 비용지원, 맞춤형 보육), 돌봄지원(시간제 보육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정보 및 교육 지원(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부모교육), 물품 지원(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종합서비스 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제도) 등을 살펴보고, 설문내용의 구성은 다음 <표 I-3-5>와 같다.

<표 I-3-5> 설문 내용

구분		비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특성	거주지역, 부모의 학력, 취업여부, 가구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	
	자녀특성	자녀 수, 자녀 연령 및 성별, 현재까지 연령별 기관 이용 유형, 향후 연령별 기관 이용 유형	
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이용 및 개선요구	자녀 양육	양육현황	긴급 대리양육 필요시 도움처, 영유아 자녀 양육의 어려운 점, 양육의 부담 정도, 가장 필요한 육아정보, 육아정보 제공처
		중요도 및 역량 인식	돌봄/지원/양육정보/정책인지 및 활용에 대한 중요도 및 현재 나의 역량
	비용 ¹⁾ 지원	양육수당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정책내용 이해, 개선될 점, 증액의견 이유, 미이용 이유, 보육료/교육비 지원 금액 동일 시 양육형태 선택
		0~2세 보육료/3~5세 누리과정 지원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정책내용 이해, 개선될 점, 미이용 이유
	돌봄 지원	일시보육/시간제 보육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정책내용 이해, 이용 이유, 이용 빈도, 개선될 점, 미이용 이유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정책내용 이해, 이용 이유, 개선될 점, 미이용 이유
정보 및 교육제공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정책내용 이해, 가장 유용한 점, 이용 중단이유, 개선될 점, 미이용 이유	

(표 I-3-5 계속)

구분		비고	
자녀 양육지원 정책의 이용 및 개선요구	정보 및 교육 제공	부모교육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부모교육 제공처, 부모교육 실시정보 습득경로, 교육내용,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할 점, 미이용 이유,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반의견 및 이유, 부모교육의 효과적 시기, 대한민국부모학교 선호 교육방법(매체이용, 집단크기, 접근방법, 1회 적정시간), 교육/정보제공의 선호형태	
	물품 지원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정책내용 이해, 개선될 점, 미이용 이유	
	건강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정책내용 이해, 이용 이유, 개선될 점, 미이용 이유
		영유아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종합 서비스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서비스별 이용여부, 만족도, 개선될 점, 미이용 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전/후 휴가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개선될 점, 미이용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휴직제도			
향후 지원 개선 방향	자녀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정부의 관심도, 부모요구 다양성, 정책홍보, 이용 편리성, 충분성, 저출산 극복에 도움정도, 정책의 발전도, 정책의 도움정도, 국가부담정도에 대한 의견, 세금증액에 대한 수용도, 정책체감도가 낮은 이유	
	향후 지원 개선 방안	가장 필요도가 높은 제도,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도, 가장 개선/보완이 필요한 제도, 정책개선의 우선순위	

주: 비용지원 중 '0~2세 보육료 지원'과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은 정확히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돌봄 지원'의 범주로 고려할 수도 있으나, 정부의 비용 제공에 초점을 두어 비용지원 정책으로 범주화함.

4) 예비조사

설문지 1차 작성 후 외부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았다. 또한 조사대상자 10명 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구성, 질문의 연구 목적에의 타당성, 문항의 이해도, 추가 질문 필요성, 오류 등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전문가의 검토 의견 및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하였다.

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는 영유아 어머니 총 1,302명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I-3-6 참조).

〈표 I-3-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	(1,302)
지역규모	대도시	40.7	(529)
	중소도시	42.5	(553)
	농어촌지역	16.9	(220)
자녀 나이	영영아	15.1	(197)
	영아	32.3	(420)
	유아	52.6	(685)
자녀 나이2	만0세	15.1	(197)
	만1세	16.2	(211)
	만2세	16.0	(209)
	만3세	17.3	(226)
	만4세	17.5	(227)
	만5~6세	17.8	(2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0	(677)
	맞벌이 아님	48.0	(625)
자녀 수	1명	53.5	(696)
	2명	37.1	(483)
	3명 이상	9.5	(123)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15.0	(195)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28.7	(374)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8.1	(367)
	500만원 이상	28.1	(366)
나의 역량	상	47.5	(619)
	하	52.5	(683)
양육부담	상	68.9	(897)
	하	31.1	(405)
기관 이용여부	기관 미이용	27.6	(360)
	기관 이용	72.4	(94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임.

지역규모로는 대도시(40.7%), 중소도시(42.5%), 농어촌지역(16.9%)가 응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은 영영아가 15.1%, 영아 32.3%, 유아 52.6%이며, 각 연령별로

약15~17%로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52.0%가 맞벌이 가구이며, 자녀의 수는 1명이 53.5%로 가장 많았고, 2명이 37.1%였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여부(기관 이용 여부)는 미이용 27.6%, 이용 72.4%로 나타났다(표 I-3-6 참조).

나의 역량은 돌봄과 지원, 양육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에 있어 자가응답한 나의 역량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전체응답자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상집단으로,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하집단으로 코딩한 결과이며, 나의 역량 상집단이 47.5%, 하집단이 52.5%로 나타났다. 양육부담은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 경제적 부담, 정서적 부담, 경제적 부담을 나의 양육부담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전체응답자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상집단으로,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하집단으로 코딩한 결과이며, 양육부담 상집단은 68.9%, 하집단은 31.1%로 나타났다(표 I-3-6 참조).

라.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내용과 조사항목을 조정하며, 설문지 검토 및 추동적 정책방향 도출 및 정책 제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방향의 설정과 연구내용 검토 및 연구설계 자문을 위해 4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아이돌봄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를 2회 실시하였다.

〈표 I-3-7〉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내용

구분	개최시기	참석자	내용
제1차	2016. 3	아동학과 교수 1인, 인천시청 공무원 1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연구방향 논의
제2차	2016. 4	여성가족부 사무관	아이돌봄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제3차	2016. 4	여성가족부 사무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가정내 양육지원사업(공동육아나눔터 등) 현황 파악
제4차	2016. 6	아동학과 교수 1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설계 점검 및 설문조사 계획 검토
제5차	2016. 7	아동학과 교수 2인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설계 점검 및 설문조사 계획 검토
제6차	2016. 8	독일거주 아동학 전공 심리치료사 1인	육아지원 독일사례 자문

또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구조화된 서술형 질문을 구성하여 전문가와 정책실무자 18명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서면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양육 여건 개선과 가정 내 양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추동적 정책의 방향성을 타진하고,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유관 학계 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를 참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질문지는 <부록 1, '아'>에서 제시하였다.

〈표 1-3-8〉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구분	형태	시기	분야					내용	
			아동/ 보육	유아 교육	복지	가족	계		
1차	면담	2016. 9	2명	1명	-	-	3명	바람직한 가정 양육지원 정책 방향 육아의 주체, 정부 양육지원의 범위 부모 양육지원 정책의 지향점, 강조점 보편적 양육지원 정책 방향 국가주도 부모교육 내용, 활성화 방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구체화 방안	
2차	면담	2016. 9	2명	1명	-	-	3명		
3차	면담	2016. 9	-	1명	1명	1명	3명		
4차	서면	2016. 9	5명	2명	1명	1명	9명		
계								18명	

주: 면담 질문지는 <부록 1> '아'항목에 수록

마. 정책 세미나 개최

연구 완료 시점인 11월 이후 가정 내 양육의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하여 연구 결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6년 12월 13일 '육아선진화 포럼'을 통해 관련 학계와 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결과와 실행방안을 공유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결과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에서의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내용을 공유·확산한다.

4. 연구범위 및 용어의 정의

사전적 의미로 내실화(內實化)는 '내적인 가치나 충실성을 다짐'으로 정의된

6) 2016년 11월 5일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함.

다.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가정 내 양육 내실화'를 지향하는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현재 마련하여 운영 중인 정책의 효율성 증진,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한 현 정책의 가치 증진, 충실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

'가정 내 양육'을 어떻게 범위 지을 것인가. 좁게 보면 기관 보육에 대한 대칭 개념으로, '가정 내 양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으며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정원 등(2012, p.29)은 '가정 내 양육'을 '기관'에서의 집단적 양육에 대비한 개념으로 어린이집과 같이 아동이 종일제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가정 내 양육'을 넓게는 자녀를 기르는 일에 초점을 두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미라 등(2013, p.185)도 진정한 양육지원은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을 보호해 주고 그 역량을 강화 시켜주는 것으로 인식해야함을 강조하며 양육지원의 의미를 '자녀를 기르는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포괄적으로 개념화 하였다.

연구범위의 도출을 위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가정 내 양육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내용을 구체화해보았다. 좁은 의미로 양육수당 수혜 가구 중심으로 기관 미이용 가구의 양육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연구는 양육 수당의 적정성, 주양육 담당자에 따른 유형별 요구와 대안, 기관 보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정 내 양육 여건의 개선 등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다. 이 경우 다음의 어려움이 있다. 첫째,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0세와 1세 영아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영아 가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다룬 선행연구(이정원 외, 2012, 서문희·최혜선, 2007)와의 차별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둘째, 이 기준으로 보면 다음 <그림 I-4-1>과 같이 양육지원 정책의 대상이 양육수당이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와 가정 양육 가구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를 통해 제안하게 되는 개선안으로의 정책이 가정 양육 가구 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그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영아 중심의 가정양육 가구를 토대로 구성된 정책의 대안이 실제 정책 대상 중 일부만을 포함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7)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2016년 6월 11일 인출함.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B%82%B4%EC%8B%A4%ED%99%94&query=%EB%82%B4%EC%8B%A4%ED%99%94&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양육 지원 정책		정책 대상	
		기관 이용가구	기관 미이용가구
비용 지원	양육수당		•
	0~2세 보육료	•	
	3~5세 누리과정 지원	•	
	맞춤형 보육	•	
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	•
	시간제보육 서비스	•	•
정보 및 교육 제공	부모교육 기회제공(대한민국 부모학교)	•	•
	임신육아종합포털 운영(아이사랑포털)	•	•
	지역 기반 맞춤형정보 제공(보육반장, 보육맘)	•	•
물품 지원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 조제분유사업	•	•
건강 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
	영유아 건강검진	•	•
	국가예방접종지원	•	•
종합서비스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	•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플라자, 장난감도서관)	•	•
	육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원	•	•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전/후 휴가	•	•
	배우자 출산휴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
	육아휴직제도	•	•

주: 본 연구진이 정리한 자료임.

[그림 1-4-1] 양육지원정책의 대상(기관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넓은 의미로는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 단위로, 주 양육자에 초점을 두는 ‘가정 내 양육 내실화’는 가정에서의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가정 내 양육 역량 강화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의 범위는 현재 운영 중인 육아지원정책 내용에는 적절하나, 기관(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지원이나 교육을 제외한 양육지원 정책 전반으로 연구의 범위가 넓어져 연구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정책 연구이므로 결과인 제언이 전체 육아지원정책 기조에 준할 때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넓은 의미에서 연구범위를 설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육아지원에의 요구 조사보다는 양육지원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에의 추동성을 동기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정책의 이용 현황과 개선요구에 초점을 둔 실제적 효율성 증진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려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가정 내 양육’을 기관 이용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를 기르는 일’로 정의한다. ‘가정 내 양육 내실화’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일을 잘 하기 위한 양육자의 다면적 역량 강화에 중심을 둔다. 또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가정 내 양육 내실화’를 도모함은 새로운 정책의 발굴보다는 현행 정책의 수요자 접근성 및 효율성 증진 방안 모색을 뜻한다.

5. 선행 연구

가. 가정 내 양육(육아) 실태 및 지원 정책 연구

육아지원 정책이라는 포괄적 연구의 일부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서문희·최혜선, 2007; 양민석·안현미·서영주·임양미·윤상미, 2012). 서문희 외(2007)는 영아 양육지원 관련제도와 정책 검토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아 양육지원의 기본 인프라를 보육시설 이용과 가정 내 보육서비스 이용, 보육서비스 미이용이라는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 모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그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보육의 내실화와 가정 내 자녀양육지원강화, 양육지원금 지원제도의 도입, 세제지원의 개선, 보육정보 및 상담기능의 강화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양민석 외(2012)가 수행한 서울시의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서는 서울시의 육아지원정책을 기관보육과 가정내 양육 및 육아지원서비스로 이원화 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제안하였다. 현 정책 현황 조망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의 검토를 통해 중앙과 서울시의 육아지원정책 모두에서 기관보육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대비 기관보육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양민석 외, 2012:71)을 지적하였다. 양민석 등이 제시한 서울시 보육정책 매트릭스(p. 77~78)와 기관보육 유무별 지원정책 매트릭스(p. 81)는 연령별, 가정 특성별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유용하다. 독일의 사례 분석을 통해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의 양육을 3세 이상의 경우는 기관보육을 활성화함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고려한 육아지원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육아돌봄의 사회적 확산과 제도화를 통해 '가족-육아지원기관-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실현할 수 있는 육아돌봄 공동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가정 내 양육을 시설보육이나 기관이용에 대비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가정 내 양육에 초점을 둔 연구들(강민정, 2015; 이정원·이윤진, 2008;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 2012)이 이루어졌다. 이 중 이정원 외(2008)는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파악 및 유치원·보육시설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 현황, 국내외 관련 지원 정책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미이용 아동의 육아유형을 순수가정 육아형, 개별교육형, 학원대체형, 중복이용형으로 유치원·보육시설 미이용 이유, 유치원·보육시설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이용만족도 파악, 미이용 가구의 육아 애로사항 및 요구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영유아 가구의 기관 이용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미이용 아동 육아지원 방안 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민정(2015)의 연구는 기관 미이용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의 지역중심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의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강민정(2015)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의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그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인근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그리고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오전 11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수준 제고를 위한 일 가정 양립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이정원 외, 2012)에서도 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방안이 다루어졌다. 2012년 당시는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영유아의 기관이용이 급증하던 상황에서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정원 외(2012) 연구에서는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 파악, 기관 이용 시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부모 선택권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여 기관 이용 가구에 대비한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 내 양육이라 통칭되나 주양육자에 따라 특성과 요구가 상이함에 주목하여 가정 내 양육형태를 부모양육가구, 혈연양육가구, 비혈연양육가구, 기관병행이용 가구로 구분하여 육아의 애로사항, 만족도, 가정 내 양육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실태 분석함이 특징이다. 한편 고선주(2012)의 연구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내 돌봄지원정책을 조사하였는데, 가정 내 양육지원은 아이돌봄지원사업과 남성대상교육을, 지역 내 양육지원을 위한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살펴보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 사업은 서비스 이용가정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87%에 이르러서 높은 호응을 샀음을 밝히고 있다(고선주, 2012) 그러나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조사에서는 2009년 남녀 간의 육아참여시간의 격차는 1999년에 비해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남성의 육아 참여율 제고가 가정 내 양육의 양적 질적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고선주, 2012).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녀의 육아 참여율 격차가 늘어난 이유는 남성의 육아참여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육아시간의 증가가 남성의 육아시간 증가를 앞질러서 일어난 결과였다. 즉 현대 사회가 더 많은 가정 내 육아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 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는 세대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가정내 양육이 주로 영아기에 집중된다는 관점에서 영아기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관련한 선행 연구들(강민정, 2015;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또한 본 연구에 가정 내 양육지원 요구를 파악하는 틀 구성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미라 등(2013)은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12명의 영아기(27개월~30개월) 어머니 대상 면담분석을 통해 양육지원 요구를 양육지원 제공처(가족과 남편, 외부인, 기관 및 매체, 온오프라인 모임), 양육지원내용(함께 기르기, 위로받기, 경제적 도움받기, 정보 얻고 배우기), 양육지원 요구(자아실현과 육아병행, 좋은 부모되기, 다양한 국가정책)로 유목화하여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육아지원 정책 유형화 연구

정책의 구분은 연구 목적이나 연구자의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권미경 외, 2016).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가정 내 양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고찰을 위해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신윤정 등(신윤정, 박세경, 최성은, 김필숙, 최은영, 2007)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위한 양육비용 부담경감에 초점을 두어, 직접적 양육비용의 경감(아동수당, 양육수당, 세제혜택, 소득공제)과 여성경제활동 참여지원(보육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성휴가) 등으로 양분하였다.

발표년도를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지(2009)의 연구는 국가 간 정책 비교를 위해 국가별로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좌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에서는 육아지원정책을 출산 및 육아휴직, 0-2세 보육, 남성의 육아휴직 등은 노동 지원 정책으로 양육휴가, 양육수당, 3-5세 보육양육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에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국가가 육아지원정책의 비교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원인을 육아지원이라는 특성에 따른 정책의 다차원적 속성, 다면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정책 분류와 범주가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육아지원 정책의 매트릭스 분석하였다(양민석, 안현미, 서영주, 임양미, 윤상미, 2012). 연구에서는 육아지원 정책 매트릭스를 작성하면서 가정 내 양육지원과 기관 보육지원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가정 내 양육지원과 기관 보육지원 각각의 하위 범주로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거점센터 통한 지원, 건강서비스 지원으로 다시 구분하여 육아지원 정책을 입체적으로 유목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고찰하고자 하는 가정 내 양육지원이 큰 틀에서 육아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기관 보육을 제외한 정책 전체를 포괄한다는 이해의 틀을 제시하였다.

다른 연구에서 신윤정 등(2013)은 자녀 양육지원 정책을 휴가 정책, 현금지원 정책, 현물지원 정책으로 구분하는 OECD 기준에 준하여(신윤정 외, 2013. p. 20), 국내 제도를 시간지원인 육아휴직 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비용지원인 조세 감면 제도, 현금수당 제도, 서비스 지원인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 등 네 가지로 구분 제시하였다.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접점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방안을 모색한 정책 연구가 수행되었다(권미경 외, 2016).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중앙정부 수준의 육아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가정양육수당,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을 비용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원,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양육지원을 위한 종합서비스지원 사업으로,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부모의 직접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으로 유목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물품지원으로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사업, 건강관련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과 국가예방접종지원을 포함하였다.

다.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

1)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이용하는 아동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과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유해미 외 2011). 김은정(2014: 57)은 “전체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69%가 23개월 이하 영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3년 0~11개월 영아 382,327명은 주민등록 인구 '13년생 421,465명의 90.7%에 해당해 거의 대부분의 영아가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히며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김영미·류연규(2014)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양육 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보면 빈곤가정보다는 비빈곤가정이 기관양육이 아닌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모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가 영아일수록 기관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외, 2014). 한편 비취업 어머니의 경우에는 반대로 육아수당이 아이가 어릴수록 유사빈곤이 아닐수록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영미 외, 2014).

2) 아이돌보미

정민자 등(2006)은 자녀양육의 부담경감을 위해 가정 내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어떠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정책 제공자의 관점에서 아이돌보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프랑스, 일본, 미국, 스웨덴과 독일 등의 국외 가정 내 양육지원 제도 사례조사와 정책 수요 가구의 심층면담을 토대로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과 운영 매뉴얼을 개발한 연구로 현재 아이돌보미 사업의 기초 연구이다. 고선주(2012)의 연구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살펴보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 사업을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종일제 서비스는 2011년 11월 현재 90% 이상이 15개월 미만의 영아 가정이 이용하고 있어서 어린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비스 이용가정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시간제의 경우 86.9%, 종일제의 경우

84.3%가 대체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여 무응답을 제외하면 90%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3)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02년 3,763명, 2005년 10,700명, 2008년 29,145명, 2011년 58,137명, 2013년 69,616명으로 증가, 연 평균 26.4%씩 증가한 점과 출산전후휴가자 수 대비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비율이 2002년 16.6%에서 2008년 42.0%를 지나 2013년에는 74.3%에 이르러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사용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고용노동부, 2013; 안희란, 2015: 53에서 재인용)이다.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희란(2015: 70)은 “육아휴직제도는 법정 휴직기간의 충분성, 휴직기간의 자기조절성, 복직 후 부모권 실현성 면에서 부모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육아휴직이 어머니의 가정 내 양육으로 연결되기에는 기간과 육아휴직급여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문미경, 김복태, 김혜영(2015)은 지방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72.9%에 이르러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자유롭다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선택하기 어려우며, 특히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전체 육아휴직 경험자의 22.7%에 불과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경험을 연구한 김연진, 김수영(2015: 312)은 남성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동등하게 분배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유식 만들기, 재우기, 목욕시키기 등 일상적 형태의 살림을 수행하게 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육아휴직에 대한 연구들은 제도는 갖추어있으나 실제적 사용에는 간극이 있음을 밝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부부 공동 양육 참여의 관점에서 아버지 육아 휴직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4) 부모교육과 육아정보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 부상되면서 부모교육의 의무화까지 제의되는 상황에서 부모역량 강화를 통한 가정 내 양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정 내 양육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양육지원 방법 중 하나는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그에 부응하는 체계적 부모교육의 제공이다. 정미라 등(2013:185)은 그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양육지원이 ‘가정’의 양육을 보호하고 그 역량을 강화시킴으로 인식된다면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모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양육 정보의 부족은 영유아를 기르는 부모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정책 연구가 민정원 등(민정원, 권미경, 윤지연, 2014)에 의해 수행되었다. 민정원 등(2014)은 영유아기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을 통해 공공육아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양육정보관련 문제점으로는 정형화된 공공서비스의 한계와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혼란, 공공 육아정보에 대한 지역단위 서비스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자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아정보의 선별, 지역사회 육아정보 전달체계 개편,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제도 마련, 육아정보 오픈 행정 플랫폼 구현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아이사랑 보육포털’이 ‘아이사랑 포털’로 명칭을 바꾸고 종합적인 육아정보 포털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활성화함도 양육자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라. 시사점

선행연구를 종합하여보면 가정 내 양육 관련 연구에서는 기관 보육을 장려하는 관점에서 기관 미이용 이유 파악을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고, 나아가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도 지원 방안 마련 근거는 ‘기관 보육 이용 시의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의 차원으로 제시되었다. 가정 내 양육지원 방안 마련의 목적도 기관보육과 가정 양육 간의 ‘부모 선택권’ 제고에 있었다. 또한, 연구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가정 내 양육 현황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대상을 분류한 기준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 미이용의 이유를 찾고 이용 기회 확대를 모색하는 경우(이정원 외, 2008)에는 순수가정 육아형, 개별교육형, 학원 대체형, 중복 이용형으로 구분한 반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지원을 위한 연구에서는 부모 양

육가구, 혈연 양육가구, 비혈연 양육가구, 기관 병행이용 가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가정 내 양육의 범위로 보고 기관보육을 제외한 양육지원 정책 전반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연구대상도 기관이용 가구를 배제하지 않고 가정에서의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지원정책의 개선요구를 수렴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이나 연구자의 배경에 따라 다면적인 정책을 유형화하는 기준이 정해진다. 육아지원 또는 양육지원 정책 유형을 구분하였던 선행연구(권미경 외 2016; 양민석 외, 2012)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관 지원을 제외한 양육지원 전반을 고찰하고자하므로 권미경 외(2016) 연구에서의 분류를 수정하여 유목화 하였다.

Ⅱ. 가정 내 양육 어려움 및 지원 요구

본 장에서는 양육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근거가 되는 가정 내 양육지원에 대한 양육자의 요구를 심층면담 내용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현재 지원정책들은 이러한 정책 대상인 영유아 가구의 어려움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 요구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환경, 양육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부담,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⁸⁾를 통하여 수집된 영유아 부모 77명(28개 집단)⁹⁾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일반적 양육 현황과 더불어 거주 지역과 자녀의 연령(영아, 유아), 어머니와 아버지 등의 특성에 따라 양육 현황에 나타나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1.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인터뷰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에 양육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양육 어려움에 대한 의견 개진은 영아 집단의 어머니들에게서 또한 외별이 가구인 경우에 더욱 활발한 경향을 보였다.

양육 어려움의 원인은 먼저 양육자가 가사를 함께 돌보아야 하고, 자기 자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모(부)성, 소자녀 출산 경향으로 대부분 한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미숙한 육아, 고령 출산으로 인한 체력 부담 및 아버지의 낮은 양육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으로 인해 결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수면부족, 병원 진료의 어려움, 정서적 고통 및 양육스트레스 등이다. 양육 어려움의 원인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구분 제시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권미경 외, 2016)'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총 77명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얻은 전사 자료를 내용 분석함.

9) 참여한 영유아기 부모 77명 면담자의 특성 및 질의 내용은 <부록 3>으로 제시함.

가. 양육 어려움의 원인

1) 가사와의 병행

양육을 하는 부모는, 특히 주부는 양육만을 온전히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다. 양육에 더해, 가사를, 또 다른 자녀를, 배우자를 도와야 하며, 본인의 (직장) 업무와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도 모두 함께 돌보아야 하기에 24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때는 입덧들 안했는데 둘째 때는 심하게 해가지고 애 밥도 차려줘야 되고 하는데 아이한테 배달음식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밥을 차려줘야 하는데 제가 음식 냄새를 못 맡겠는 거예요. (모두 공감) 그래서 진짜 마스크하고 하고 초반에는 정말 심했는데 이제 괜찮아져서 괜찮고 첫째가 있으니까 계속 안아 달라고 하는데 배가 불러오니깐은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학부모N, 부산수도권 농어촌 출산전, 3867-4417¹⁰⁾)

아침에 1시간 정도 보고, 저도 퇴근을 한 4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하는데 아이가 10시, 11시 사이에 자니깐 음.. 뭐 갔다 오면 밥 먹고 씻고 그렇게 하면 육아 자체만 두면 평균 그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저는 아이가 자면 집안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깐 저는 잠자는 시간은 평균 2시? 1시? 2시?(모2,수도권 농어촌 취업모, 5051-5499)

영유아 자녀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이건 직장에 다니는 경우이건 대부분 육아와 더불어 가사를 겸해야 한다. 아이의 조모, 외조모를 통한 대리양육을 하는 경우라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육아를 담당하고, 가사 역시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육아와 가사를 겸해야하기에 육아가 체력적으로 힘든 것이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어머니들은 남편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이 그간 밀린 가사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도와줄 때 뭐 빨래 그런 거 못했던 거 쓰레기 같은 거 잠시 버리러 갔다 온다던지 (학부모G, 부산_대도시 3~4세, 3286-3468).

2) 적당할 수 없는 모(부)성

그런데 이런 가사와 육아가 충돌할 때, 그래서 만일 한 가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대부분 양육이 먼저이게 된다. 즉, 가사라고 해서 하지 않아도

10) 면담 내용에 제시된 번호는 본 연구의 내용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인 Weft QDA의 고유 행 번호임.

되는 일은 아니지만, 아이의 양육과 우선권을 다룰 때는 대개 양육이 먼저라는 것이다. 즉, 양육자의 모성, 혹은 부성으로 인해 내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당히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아이구. 저는 일, 이 백 주면 안 해요. (웃음) 이 일을 안하고 말죠. 아 참, 내 새끼니까 키우지” (학부모K, 부산_대도시 출산전, 30288-30386). 위의 예처럼, 남의 자식이라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지 않을 일이지만, 내 자식이니까 참고 하는 일이라고 부모들은 말하고 있다. 이 학부모 K는 또한, 첫째 아이는 경제적인 여건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육아에 신경을 써왔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첫째 때는 별로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썼는데 둘째, 셋째 되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와 닿더라고요” (학부모K, 부산_대도시 출산전, 8128-8265). 나아가 부모들은 체력이나 경제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자식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죄책감이 들어 자녀양육에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에 막 둘째는 즐려서 칭얼칭얼 대서 재워야 되는데 첫째는 옆에서 조용히 하지 않고 계속 떠든다거나 애를 만진다거나... 그러면 둘째도 못 재우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첫째가 자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첫째를 위해서 TV를 틀어줘요. 어쩔 수 없이 떼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도 제대로 케어가 안 될 때. 하나도 안 되고, 애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괜히 둘을 낳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못해주나.(모1,수도권 대도시 만0~1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8487-8980)

다른 일이라면 잠을 줄여서라도 미루고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요구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다자녀 가정인 경우 부모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육아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나면 당황하게 된다.

3) 미숙한 육아, 헛힘

특히 자녀 출산이 처음인 경우 부모는 처음 경험해보는 육아라 미숙함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헛힘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정보와 노하우의 부재,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의욕이 넘치는 가운데 헛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저는 첫째 때하고 둘째 때 많이 틀린 게 첫 아이 때는 (무엇이든) 좋다고 하면 그래? 막 그러면서 하구 책도 많이 읽으면 좋다고 해서 읽고... 울 엄마가 애 뭐

가 좋다더라 하면 알았어 하면서 열심히 읽으라 하니깐 열심히 읽고 이렇게 꼼작 꼼작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뜨개질도 많이 했어요. 손을 많이 움직이면 애들 두뇌가 좋다고 해서.(학부모M, 경남_농어촌 출산전, 15417-15962).

부모는 위의 예와 같이 둘째, 혹은 셋째 출산을 하면서는 시도하지 않을 일들을 첫째 때는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등 의욕에 넘쳐 시도한 일들이 제풀에 꺾여 지치기가 심상인 것이다. 자녀가 여럿인 부모들은 첫째 때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한 측면도 있지만 아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으나 아이가 자라며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양육행동들이 상당 부분 무의미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카페 뭐 이런 쪽에서 얻고.. 첫째 때는 육아 서적으로 많이 얻었고요. 둘째 때는 주변 엄마들 입소문이라고 하죠.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얻었고... 이제 셋째 낳은 엄마들은 거의 카페를 이용하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그럴 시간이 잘 없으니까. 그리고 소비 형태도 좀 달라진대요. 이제 큰 애 때는 육아 박람회 가거나, 백화점을 간다든지,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하고. 둘째 때는 이제 어디 게 좋다더라, 이런 입소문을 듣고 사고. 셋째 쯤 되면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주문을 하죠(웃음).(학부모K, 부산_대도시 출산전, 47787-48299)

다자녀 가정인 경우 부모들이 둘째, 셋째 아이들과 첫째 아이를 비교하며 위와 같이 자녀양육의 노하우, 혹은 타협지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당 평균 자녀수가 둘에 미치는 못하는 현 상황에서 많은 부모들은 외동이로 자라는 첫째의 양육에 지쳐 더 이상의 자녀의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 고령 출산

한편 갈수록 자녀를 출산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보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체력적인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었다.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적인 거랑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허리도 너무 많이 아프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이제 살림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이제 일 하다가 임신하면서 쉬게 된 건데, 이제 그러면서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일하면서 못했던 거. 근데 차마 해줄 수 없어요.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니까, 체력적으로.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안타깝고...(학부모L, 부산_대도시 출산전, 1627-2480)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출산 후 회복도

늦고, 더구나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고령출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 크다고 부모들은 걱정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모든 임신부들이 제일 많이 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둘째, 셋째 가지시면 대부분 다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다, 나는 이제 애한테 뭐 해주고 싶고, 놀러도 가주고 싶고, 뭐 예를 들면 맛있는 것도 설 때 해주고 싶고, 이렇게 한마디로 슈퍼맘이 되고 싶은데, 체력은 안 따라준다. (학부모K, 부산_대도시 출산전, 828-1557)

5) 아버지의 낮은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부모 면담내용을 코딩한 결과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서 선택사항, 즉 아버지가 도우면 고마운 정도로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담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농촌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농촌 아버지는 주로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돕고 있어서 직접 양육에의 참여는 낮았다. 많은 부모들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끔 돕거나 주말 나들이에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무래도 남자애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안그러는 데 아빠한테는 막 무조건 힘으로 들고 던지고 돌리고 그런 식으로 놀아줘야 하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고 목욕시킬 때도 가끔씩 제가 시킬 때도 있는데 저한테는 장난을 안 걸어요. 근데 아빠한테는 뭐.. 물 뿌리고 던지고 적시고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놀아줘야 되는 게..(모3,수도권 농어촌 만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4263-4605)

〈표 II-1-1〉 아버지 양육과 관련된 주요 주제어

단위: (집단 수), 개

구분	아버지양육(총 194회 코딩)							
	전체 (28)	도시 (14)	농촌 (14)	영아 (8)	유아 (8)	취업모 (4)	임신부 (4)	아버지 (4)
아버지 양육참여는 선택 거친 놀이/야외	65	25	40	19	10	11	1	24
아버지 가사 참여 역할분담	56	17	39	16	14	8	0	18
사회적 이해/직장문화 육아휴직/부모권	11	2	9	7	1	1	1	1
	7	2	5	3	1	1	0	2
	17	7	10	9	4	1	0	3
	9	4	5	2	0	3	3	1

주: 본 연구 과정에서 Weft QDA 프로그램 활용 분석 결과임.

아버지가 평일 늦게 퇴근하거나 주말에 직장에 가지 않을 때면, 주중 주간에 육아로 지친 어머니들의 요구에 하루를 정리하는 목욕시키기, 엄마랑은 하기 힘든 거친 놀이, 주말 나들이 동반과 같은 일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주된 이야기이다. 세세히 잘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양육행동은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 몫이다.

자녀의 유형에 따른 구분에서 영아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전반적인 양육참여의 문제, 거친 놀이, 아버지의 가사 참여 및 역할분담에 있어서 다양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영아 어머니는 “남편하고 문젠데 자기가 물론 자기도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때 한 번 애 한창 키울 때, 자기는 도와주는 그냥 자기가 주로 해야 되는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자기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학부모C, 부산_대도시 1세, 11289-11500) 라고 지적하며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표 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부모는 유아가 성장하며 활발해짐에 따라 아버지를 야외에서나 거친 놀이와 같은 특정한 맥락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버지와 함께 직장에 다니는 취업모조차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선택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아버지 스스로의 인식도 어떻게 육아에 참여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아.. 일단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또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못 쓴 거는 사실이에요. 그.. 그래도 뭐 그 이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또 모르니까, 애 엄마가 또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러니까 거의 많이 못 한다고... 중략... 네, 이제 놀이터나 한 번 데리고 가면 놀고, 저는 그냥 벤치에 앉아있고. 네. 하하하 그런 거죠.(부3,수도권 농어촌 양육참여 아버지, 3222-3488)

나. 결과적 현상

1) 부모의 수면부족

부모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육아환경의 어려움의 이유는 가사와의 병행, 적당히 할 수 없는 모성, 미숙함, 고령출산, 아버지의 낮은 양육참여 등으로 살펴 보았다. 한편 육아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먼저 부모의 수면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수면 부족 문제는 특히 영아 부모

들에게 있어서 더 두드러지는데 신생아의 경우 규칙적인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유를 위해 밤에도 수시로 깨고, 예민한 아이는 깊이 잠들지 못해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도 잠이 부족한 사태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영아 부모들이 이 수면부족을 많이 호소했는데, 이와 같은 자녀의 불규칙한 수면습관 등으로 인해 결국 부모는 양육이 낮 시간뿐 아니라 24시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양육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산지역의 취업모인 학부모 P는 “100일 전이라 하는 그 시기가 진짜 힘들죠. 그때가 잠도 못 자고, 저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학부모P, 부산_대도시 취업모, 19470-19571) 라고 말하며 잠이 부족해지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꼽았다. 영아 중에서도 아이가 특별히 어린 100일 전의 아이, 혹은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는 스스로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덩달아 양육자도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6시간을 잠투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기가 그냥 매일 매일 잠투정이 좀 심해서 재우는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한 10시부터 잠투정을 해서 4시정도 되면 자거든요. 그 시간들이 힘들어요. 차라리 놀면은 괜찮은데 놀지 않고 애는 계속 졸려하면서 잠을 안 자는거예요. 그래서 완전 계속 잠투정해서 조금 달래서 재워 놓으면 다시 깨고, 다시 재우고 깨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힘들긴한데, 이게 이제 일상이야 보니까.(학부모 B, 경남_농어촌 만0~1세, 13323-13845)

밤에 충분히 숙면을 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 부모는 낮에도 피로감에 쌓여 양육의 어떠한 다른 어려움보다 가장 힘든 일로 수면을 가장 많이 거론하였다.

2) 병원진료 어려움

자녀 양육의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부모, 특히 대리양육자가 없는 전업주부의 병원진료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를 위해서는 병원도 가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부산의 한 영아 어머니는 “정말 병원을 애 낳고 나서는 한번도 못갔어요... 중략 ... 한번도. 참아야 해요. 모유 수유하니까 또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려도 약도 못 먹고” (학부모A, 경남_농어촌 만0~1세, 4727-4920), 라고 말하며 모유 수유를 해야 해서 임신기뿐 아니라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문제로 어지간한 정도는 그냥 참고 견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비단 모유수유를 하는 영아의 어머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아이를 출산하고 몸이 허

약해진 산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병원 진료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집단이다. 그럼에도 육아는 누가 대신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스스로를 위한 병원 진료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봐야 되고 주변에도 올 사람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아프다고 아픈 내색을 못해요. 아이들 양육 때문에 큰 아이는 큰 아이 나름대로 있고 애는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있으니 내가 아플 겨를 없어요.(학부모B, 부산_대도시 1세, 10873-11097)

위의 부모는 본인이 “아플 겨를이 없다”는 말로, 또 다른 한 부모는 “울면서 애를 보는 거죠. 엄마가 아프는데, 의료가 필요한데” (학부모K, 부산_대도시 출산전, 32220-32284) 라고 이야기하며 어지간히 아픈 경우에는 그저 참고 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주변에 누군가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스스로 아이들을 이끌고 아이들의 짐까지 챙겨가며 병원까지 진료를 받기 위해 움직이기도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도 진료 받는 동안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선뜻 병원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골절이 됐었어요. 넘어졌는데 꼬리뼈 골절이 온 거예요. 이제 영양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애 낳고나서 잘 못 먹는 그거를 10개월을 했으니... 종락 ... 그래서 정말 기어가지고 밥을 차려주고. 꼬리뼈가 골절돼 있으니깐. 김스도 못하고, 입원도 못하고. 오로지 아프면 이제 진통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병원을 갔더니 안 움직여야 낫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뼈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6개월도 안 붙을 수 있으니깐 조심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학부모K, 부산_대도시 출산전, 37040-39353)

앞의 학부모 K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입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부득이 병원에 장기입원을 한 경우에도 병원에서 아이를 마땅히 돌볼 수 없어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음..... 아 병원을 가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제일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아닌 가 몰라요. 사실 내가 막내를 굳이 어린이집을 안 보내도 됐어요, 사실은... 너무 빨리 갔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애를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병원을 가도 어느 병원에서 (환자) 애를 봐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학부모A, 부산_대도시 1세, 47368-47805)

이와 같이 부모의 가사, 모(부)성, 익숙하지 않은 육아, 고령 출산 등으로 인해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족한 수면과 병원에 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은 시간지원의 대안을 물었을 때, 아이의 조모, 외조모 등 친척이 가까이 살지 않거나 도울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다.

3) 양육 스트레스 및 정서적 고통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또, 정서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그 중 가장 큰 스트레스 혹은 정서적인 고통은 다른 식구들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많은 다자녀 부모들은 막내가 태어나게 되면 큰 아이들을 이전처럼 챙기기 어렵다. 특히 출산 직후에는 특별히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손위의 자녀에게 큰 소리를 친 것이 미안해 정서적으로 고통이 된 경우도 있었다.

“엄마가 지금 너를 토닥토닥 못해주니깐 자장자장 못해주니깐 가서 자라라고 했어요. 계속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야 됐는데 그냥 욕하는 거기에 소리를 좀 질러 버렸어요. 그랬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모3,수도권 농어촌 취업모, 23197-23594)

또 어떤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를 떼어 놓기 위해 평소 교육적인 목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는 TV를 틀어준 것이 속상해하기도 했다.

그러면 둘째도 못 재우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첫째가 자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첫째를 위해서 TV를 틀어줘요. 어쩔 수 없이 떼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도 제대로 케어가 안 될 때. 하나도 안 되고, 애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괜히 둘을 낳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못해주나.(모1,수도권 대도시 만0~1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8487-8981)

특히 다자녀 가정인 경우 한 자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다른 자녀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것을 부모는 많이 힘들어 했다. 한 부모는 억지로 재우거나, 아픈 동생 병원 갈 때 야간에 자는 아이를 깨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만 할 때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필요한대 되나요? 하면은 온 콜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차도 너무 복잡하고 미리 뭐 가입했어야 됐고 승인 받아야 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큰 아이가 아팠어요. 아빠가 없는데. 그러면 큰 아이가 밤 11시 반에 아

프면 모든 아이들을 다 깨워서 가야되는 거죠. 잠자는 애를, 3살짜리 애를 재워 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개 하나 때문에 다 가야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 그리고 애들은 엄마가 집을 비우면 꼭 깨요.(모1,수도권 농어촌 취업모, 38952-39433)

또한 아직 적당한 나이가 아니라고 여겨져 어린이집에 보내기 싫었지만 동생을 돌보기 위해 자녀를 억지로 어린이집을 보낼 때를 힘들었다고 회상한 부모도 있었다.

애(막내)를 봐야 하니까. 첫째가 눈 밖에 나더라고요. 나는 우리 둘째가 자꾸 눈에 밝히고 그러니까 그때 보자. 아 그래가지고 3세가 됐는데 제가 (셋째) 임신을 하게 됐어요. 둘째를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게 됐어요.(학부모A, 부산_대도시 1세, 31166-31818)

아직 어린양을 부릴 나이인데도 어른처럼 굴기를 요구할 때, 또 아이가 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평소 안하던 행동을 할 때 부모는 다른 자녀에게 미안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저는 제가 능력이 되고 이러면 아기 기관 같은데 안보내고 어디 데리고 다니고 싶고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기가 어리니까 큰 애한테 전혀 못해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학부모F, 부산_대도시) 3~4세 [6085-6461]

영유아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은 가사와의 병행, 모성, 부모의 미숙함, 고령출산 등의 원인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부모의 수면부족, 병원진료마저 어려운 상황, 양육스트레스 및 정서적인 고통으로 드러났다.

2. 제 특성별 양육지원 요구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드러난 영유아 가정 양육의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한 부모들의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를 지역(도시와 농촌), 자녀 연령(임신모, 영아 부모, 유아 부모), 취업모, 아버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¹¹⁾는 수도권과 경남지역의 도시와 농촌, 4개 지역에서 0~1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3~4세 자녀를 둔 전업

11)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방안(권미경 외, 2016)’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총 77명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얻은 전사 자료를 내용 분석함.

주부, 5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그리고 출산 전 임신부인 전업주부, 취업모, 그리고 양육참여 경험이 있는 아버지 등 모두 7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8번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를 도시 지역 14개 집단과 농촌지역 1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또한 부모의 유형별로 영아 어머니(0~1세, 2세 어머니) 8집단, 유아 어머니(3~4세, 5세 어머니) 8집단, 임신부 4집단, 취업모 4집단, 아버지 4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총 28개 집단의 면담내용에 대한 의미 분석 결과, 도출되는 주제는 다음 <표 II-2-1>과 같다. 먼저 도농 간 비교를 보면, 농촌지역의 경우 ‘아버지 양육 참여’, ‘사회적 이해부족’, ‘건강, 안전, 영양’, ‘잠 부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응답 빈도가 도시보다 높았고, 도시지역에서는 ‘수퍼맘에 대한 부담’, ‘체력 부족’, ‘병원’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자녀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임신부는 출산 전이라 영아와 유아 집단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의 양상을 보이며 특히 체력적인 어려움에 대한 빈도가 높았다. 영아 부모의 경우에는 ‘아버지양육 참여’, ‘신뢰’, ‘대리양육’, ‘잠’, ‘병원’ 등 유아보다 어려움의 키워드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 양육의 어려움을 유아 자녀를 둔 경우 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취업모의 경우도 ‘직장문화’, ‘시간지원/기본생활’, ‘대리양육’ 등에 대한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아버지의 경우는 ‘아버지 양육참여’과 ‘대리양육’에의 빈도가 비교적 높았다.

<표 II-2-1> 제 특성별 주요 주제어

단위: (집단 수), 개

구분	전체 (28)	도농		자녀 연령			기타	
		도시 (14)	농촌 (14)	임신부 (4)	영아 (8)	유아 (8)	취업모 (4)	아버지 (4)
아버지 양육참여	194	80	114	6	67	49	32	40
사회적 이해/직장문화	98	34	64	7	22	30	28	11
시간지원/기본생활	108	53	55	11	38	35	23	1
대리양육	78	41	37	8	26	16	15	13
건강, 안전, 영양	79	33	46	9	23	18	21	8
정서적 고통/스트레스	80	37	43	15	20	28	10	7
신뢰	83	41	42	13	32	21	12	5
수퍼맘/체력 문제	51	31	20	26	4	6	11	4
잠	39	12	27	6	18	2	8	5
모병원	26	15	11	7	14	3	2	0

주: 본 연구 과정에서 Weft QDA 프로그램 활용 분석한 결과임.

가. 지역별 양육지원 요구

먼저 주요 주제어에 대한 도농 간의 비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주요 주제어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버지 양육참여”는 전체 주제어 중 가장 많은 194 단락이 코딩이 되었는데 그중에 114번은 농촌지역에서 코딩된 것이다. 그리고 직장문화를 포함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언급한 사례의 경우 도시에 비하여 농촌지역에서 거의 배 가까이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랑 같은 경우는 많이 도와주는 편이기는 한데 평일 같은 날은 퇴근이 좀 늦어요. 그래서 7시, 8시에 오면 같이 돌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엄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1~2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이 되요.(모3, 수도권 농어촌 만 3~4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2485-2695)

주말은 주말도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꼭 출근을 해야 돼요. 하하. 그러니까 7일 중에서 하루만! 하루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어디 신랑이 따로 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때는 많이 도와주는데 그 외의 시간은 제가 다 돌봐야 돼요.(모1, 수도권 농어촌 만0~1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3094-3340)

도시의 아버지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위의 예처럼 특히 수도권 농어촌 지역 아버지들은 평일에 늦게 퇴근할 뿐 아니라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결국 직장문화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도시보다는 수도권 농어촌 지역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더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도시와 농촌 간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 주제어는 “건강 및 안전과 영양”인데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 문제와 안전, 그리고 영양의 문제에 많이 걱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 저희는 이제 아플 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전 뭐 우리 애는 1년에 거의 6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보냈거든요. 쌍둥이고 또 셋이니까, 쌍둥이들은 이렇게 한번 아프면 이렇게 같이 아픈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입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에 오래 있었던 게 그게 가장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요.(부1, 수도권 농어촌 양육참여 아버지, 13820-14309)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도로나 병원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병원이 가까운 곳에 없어서 일단 한번 가는 것이 쉽지 않고, 영유아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더욱 그렇다.

저도 집이 수도권 농어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하고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병원에 가려면 진짜 마음먹고 가야되는데 진짜 한 시간은 기본으로 하고.. 예약을 하고 가도 40분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게 부담이 되긴 하는데 나중에 이게 출산하게 될 때 병원이 너무 멀어서 병원까지 가는 길에 혹시 놓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되더라고요.(학부모N, 경남_농어촌 출산전, 5048-5243)

농촌지역에서는 또한 도시지역보다 수면부족에 대한 호소가 배 이상 많았다.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양육자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난 것은 아무래도 수도권 농어촌 지역과 도시 아버지들의 양육참여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얘기를 하고 나가는데도 울더라고요. 애 아빠가 안고서 달래야 되는데 으박부터 질러요. 너 나가라고. 울 거면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같아요” (모2, 수도권 농어촌 만 5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12675-12900). 위의 예처럼 아버지가 밤에 잠에서 깬 아이를 달래서 재우기보다는 짜증을 내는 경우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고 결국 본인은 잠을 설치게 된 것이다. 또한 어떤 아버지의 경우에는 잠든 뒤에 깨지 못해 결국 어머니가 아이를 도맡아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아이들이 새벽에 깨서 보챌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번 깨면은 어떨 때는 한 시간 놓고 삼십분 놓고.. 큰애고 작은애고 자다가... 그 큰 애 때는 아파서 깨는 게 많았거든요. 중간 중간 꿈결에 깨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쁜 꿈 때문에.. 그러도 나면 애들이 보채고 하던데 큰 애 때는 애아빠가 실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둘 깨 때는 한 번도 안 깨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저 혼자 일어나서 막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애를 막 달리고 뭐하고 보듬고 그 다음에 자야 되고... 지금도 애가 새벽에 일어나거든요.(모2, 수도권 농어촌 만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25024-25853)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아버지들의 양육참여가 낮으면서 어머니들의 이와 같은 수면부족의 어려움이 더 늘어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자녀연령별 지원요구

1) 임신부 지원요구

임신부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빈번히 언급한 주제는 ‘정서적 고통 및 스트레스’, ‘수퍼맘/체력’, ‘어머니 병원진료’이다. 체력에 대해서는 임신부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몸이 더 불편하고, 또 잦은 검진 등으로 병원진료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또한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등의 이유로 정서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다만 임신부가 출산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특히 산후조리 기간에 온전히 몸조리를 하지 못하고 육아에 휩쓸려 가는 것을 걱정하는 임신부가 많았다.

회복 기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해서 회복이 더뎠다. 그래서 오는 우울증. 그러니까 이게 그 때 충분히 안 쉬어 줬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거나 체형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 때 충분히 쉬어주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조리 특별히 안 한다고 하지만, 여건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지 주변 상황을 많이 배제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사나 육아 이런 거를 다 아빠가 분담을 해준다든지, 이제 전문 기관이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오롯이 그 가정의 몫이거든요. 그 가정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조리도 상황에 맞춰서 다 다른 거예요. 케이스가.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뭐 연예인 같은 경우는 되게 럭셔리한 산후조리원 들어가 가지고 충분한 휴식기간도 갖고, 이제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빨리 돌아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일반인들은 아 이제 연예인과 나는 다르니까, 라는 그런 자괴감이 좀 들죠.(학부모K, 부산_대도시 출산 전, 10051-10905)

2) 영아 자녀를 둔 경우 지원 요구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요구의 차이를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영아 부모이다. 영아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한 요구도 많지만, 또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아버지도 영아 부모인 경우가 많다.

저희 아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육아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이제 바쁘기 전까지는 매일 목욕을 아이와 함께 해주고, 이렇게 잠 잘 때 이렇게 제가 가끔 피곤해 하면은 수유도 이렇게 밤에 해주고, 이렇게 가사일도 많이 도와주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모2,수도권 농어촌 만0~1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2149-2641)

아무래도 영아기에 아이들은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하고,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양육자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영아기에는 대리양육에 대한 면담 내용이 다른 부모님들보다 많았다. 영아기 부모들은 가까운 곳에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경우 평소 아이들의 양육을 부모님과 분담하거나, 긴급할 때 가까운 친지나 친척에게 자녀를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친지나 친척이 멀리

살거나, 낮에 아이를 돌봐주실 여건이 안 될 경우 쉽게 대리양육자를 찾기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저는 친정엄마한테 맡기는데.. 친정 엄마가 두 시간 거리에 사시기 때문에 미리 막 몇 주 전부터 저는 큰일은 부탁은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부탁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랑이 음.. 휴가를 내던가 방학을 내던가 해야지. 네.. 그렇게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가 어리니까 그냥 아무 엄마한테나 가 있지는 않거든요. 아빠가 아니고서는 네.. 없어요.(모3,수도권 농어촌 만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11471-11831)

그렇죠. 제 언니. 제 언니가 와서 해줬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뭐 간단하게 단기간은 실은 같은 라인에 제 직장 동료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와이프가.. 와이프는 전업주부를 하면서 그 분한테 저는 친목이 된 거예요. 입주를 하면서부터.. 같이 입주를 해서 그분에게 대신 도움을 받고 있어요.(모2,수도권 농어촌 만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11103-11392)

이처럼 대리양육이 가까운 친지가 아니면 맡기기 어려운 점에서는 불신의 문화가 기여하고 있다.

정말 믿을만한 곳이 있다면 조금 보내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믿을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나 이모한테 가끔 맡기고 그러고, 그런 곳이 생기더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이용을 못할 것 같아요.(학부모A, 경남_농어촌 만0~1세, 18251-18460).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기를 희망하는 시기를 물었을 때 대다수가 의사표현이 가능할 때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연일 언론에서 어린이집 등에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소식이 경쟁적으로 전달되면서 대다수의 기관이 그렇지 않음에도 자녀가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해도 부모가 모를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절충적으로 한 3살까지는 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첫째도 좀 일찍 갔거든요. 엄마가 너무 힘드시니까, 빌라 밑에 1층 가정어린이집에 갔는데, (하루는) 눈이, 시퍼렇게 찢어져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회사에 있었고, 저희 엄마는 6층에 집에 있었는데도, 선생님들이 애기가 응급실에 가는데도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데리고 가지도 않고, 원장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만 대학병원에 가고, 애가 3시간 4시간동안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난 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할머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통보하듯이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가 진짜 많이 뭐라고 했거든요.(학부모 C, 경남_농어촌 만0~1세, 21745-23067)

특히 영아 자녀를 둔 부모는 기관을 선택할 때 주변의 평판을 귀기울여 고심 끝에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때는 소문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동네 사시던 분이 원장님으로 계셔서 알고 지내지도 꽤 오래됐고 애들이 얼굴도 낯도 익혔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보낸 거고 큰애 유치원 간 거는 여기가 노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어요.(학부모D, 부산_대도시 2세, 15643-15918)

한편 영아부모들은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따라 다른 부모들보다 수면부족에 대한 호소가 많았으며 산후에 몸이 완전치 않은 상태임에도 어머니가 영아자녀를 돌보느라 병원을 잘 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 보면서 내가 아파도 아플 수가 없어요”(학부모B, 부산_대도시 1세, 10799-10860)라고 말하며 위독한 질병이 아니고서는 선뜻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영아기에는 모유 수유하는 어머니들이 있기에 병원에 가도 약을 처방받기를 꺼려해서 더욱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말 병원을 애 낳고 나서는 한번도 못갔어요 ...중략... 한번도. 참아야 해요. 모유 수유하니까 또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려도 약도 못 먹고. (학부모A, 경남_농어촌 만0~1세, 4727-4920).

3) 유아 자녀를 둔 경우 지원 요구

유아 부모는 다른 부모들보다 정서적 고통에 대한 의견이 두드러졌다. 유아의 발달 특성상, 유아 부모가 정서적으로 갈등을 겪는 부분은 먼저 아이들이 발달해 감에 따라 훈육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점차 많이 느끼고,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 자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이를 훈육했을 때 이러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욱하고, 욱해놓고 미안해하고 이런 정도죠. 한참 말 안들을 때니까”(모1,수도권 대도시 만 5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5521-5591).

또한 유아들은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집 안에서 가족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다양한 문제들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접해요. 학원에 학원 끝나고 데리러 가도 집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게임 한다고. 그러면 학원에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와버리거든요. 나중에 누나가 데리고 오죠, 결국에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성향적으로 키우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말고도, 아까 다른 엄마가 말했듯이, 병원. 아프면 무조건 (다른 도시로) 나가야하니까. 근데 차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불편하고. 모든 문화시설도 그렇고.(학부모K, 경남_농어촌 만5세, 13725-14204)

다. 취업모 양육지원 요구

취업모의 경우 다른 부모들과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먼저 사회적 이해 및 직장문화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당연히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양육자에 대한 직장과 사회의 배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수도권 농어촌지역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는 다른 직장에 비해서 어머니들에게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여겨지는 교사라는 직업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사람들이 교사는 편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데 제가 비면 제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깐 애가 아프면 옛날부터 기도한 게 제발 그냥 주말에만 아파라. 어떻게 된 게 주말만 되면 애가 아파요. 제가 맨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엄마 있을 때 아파, 엄마 없을 때 아프지 말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아플 때 힘들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되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나라는 존재가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은 거 그럴 때 힘이 들죠.(모2, 수도권 농어촌 취업모, 22238-22826)

어머니가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을 때, 주말에 아프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직장인 어머니의 애환이 잘 드러난 대목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농담같이 던진 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직을 했더니 높은 분이 너 다른 데로 부서 이동시킬까봐 나왔나? 이렇게 콧 찧러서 말씀하셨다” (모3, 수도권 대도시 취업모, 34518-34630)고 전한 어머니는 직장에서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를 드러낸다. 또한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해서도 한 어머니는 실제 사용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그게 고용인원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한정된 그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면 여직원 들끼리도 눈치를 서로 많이 주고 제 친구는 실제로 여직원들이 많은 카드회사에 다니는데 나가지 왜 나오지 애 가졌으면 육아휴직 쓰고 가라고 왜 우리한테 일

을 더 많이 주려고 저렇게 버티고 나오느냐고 이렇게 서로 간에 눈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닥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학부모 P, 부산_대도시 취업모, 36303-37158)

취업모는 또 한편으로 시간지원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졌다. 한 어머니는 자신을 “타임 푸어”(모2,수도권 농어촌 취업모, 21114-21171)라고 묘사하며 취업모는 직장, 가사, 육아를 견뎌야 해서 특히 시간지원 정책이 절실한 집단임을 알게 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시간지원 정책들은 대부분 예약을 기본으로 하는 일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작 긴급한 필요에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모 2: 시간제 보육도 사실 다 예약해야 되잖아요.

모 1: 맞아요.

모 2: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갑자기 아파가지고 만약에 응급실...

사회: 현장에서 접수하는 것도 있는데 현장접수도 많이 하는데

모 1: 현장접수, 저 한 번도, 이용 불가능 하던데요. 말이 현장 접수이지.

사회: 아니면 이미 벌써 다 찾기 때문에 현장이 안 되는 거죠.(수도권 농어촌 취업모, 38604-38760)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외에도 취업모들은 시간제 아이돌봄 제도와 같은 시간 지원 정책 역시 실제 취업모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아플 때 좀 전에 잠깐 돌보미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지만, 예약제고 내가 원하는 시간 때에 필요한 분이 오는 거를 컨펌 받기까지 날짜들이 걸리더라고요. 여기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센터에 또 여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안 된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진짜 아기는 갑자기 아프고 항상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정책적으로도 사람을 대기인원을 준 다는 건 로스이긴 하겠지만 진짜 필요할 때 딱 쓸 수 있는 어떤 도우미제도가 시간과 관계없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소 (아침)5시부터나 6시부터. 보통 모든 공기관들이 9시부터 9 to 5 이런 식이니까 진짜 필요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적더라고요.(학부모N, 부산_대도시 취업모, 35289-35912)

또한 취업모의 또 다른 어려움은 맞벌이 가정이 육아문제로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휴가를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근데 친정어머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니까 저녁을 챙겨주시는 건 가능한데, 어머니도 뭐, 엄마도 일을 하시니까 뭐 하루 휴가 요정돈 되요. 근데 보통 뭐 병원

에 입원한다고 하면 기본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뭐 폐렴이나 뭐 이렇게 입원을 하잖아요, 아이들아. 하룬데, 신랑도 뭐 휴가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일 특성상. 근데 저도 하루 정도 뿔 수 있는데 더는 안 돼죠, 이제 일이 그러니까.(모2, 수도권 대도시 취업모, 14258-14634)

대다수가 맞벌이 가정인 취업모의 경우 여전히 육아와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어머니여서 그로 인해 가중되는 부담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요구의 성격도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들의 요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가정 양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 동기이자 지원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목표인 영유아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원인과 그 결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지역별로, 자녀의 연령 및 부모의 특성별로 각기 어떤 요구가 있는 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 가정 양육의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육아와 가사를 분리하기 어려운 점, 자녀를 소홀히 돌볼 수 없는 모(부)성에, 저출산으로 인한 미숙한 육아 기술, 고령 출산으로 인한 부모의 체력 저하와 아버지의 낮은 양육참여 등의 원인과 이에 따라 부모의 수면 부족과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 정서적인 고통과 양육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이 모든 부모들에게 고르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육아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특정 집단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농어촌지역은 직장 여건 및 사회 문화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외에 병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영아 부모는 다른 연령의 부모에 비하여 대부분의 주제에서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버지 양육참여 요구, 대리양육 요구, 수면 부족 문제, 전업주부 어머니가 병원조차 가기 어려운 여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취업모의 경우 다양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직장 및 사회에서 육아를 병행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가정에서도 부인이 남편에 비해 더 많은 육아 및 가사를 부담함으로 인한 체력과 수면 부족 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면담내용의 분석결과를 통해 양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집단은 영아 자녀를 둔 가정과 농어촌 지역 거주 가정임을 시사한다.

각 집단별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와 양육 부담의 강도가 다른 만큼 이들 각 집단을 위한 보다 심화된 지원이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농어촌지역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저조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부장적 사회문화 및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양육을 지원하는 기관의 수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이동식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아기의 부모들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체감되는 양육의 어려움이 더 크다. 그러므로 가정양육수당이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는 것과 같이 전반적인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들 역시 영아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내용들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처음 부모가 된 경우도 그렇지만 영아 자녀의 발달상 특징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영아자녀를 기르는 부모이 양육지원은 보다 접근성 높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모의 경우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만을 전담하지 않기에 전업주부보다 육아나 가사의 부담이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가정에서도 남편의 적절한 가사 및 육아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모의 경우 일가정양립을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실제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들을 이용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고, 돌아와서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직장에서의 사용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시점이다. 취업모 남편의 직장에서 더 쉽게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시된 유연 근로 제도를 취업모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Ⅲ.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계획 및 내용

본 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구체화하여 본 양육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 수준의 중장기 기본 계획들을 고찰하고, 기관 보육 관련 정책을 제외한 양육지원 정책의 내용과 운영, 이용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은 다음을 포함한다. 비용지원인 양육수당과 교육·보육료지원을 비롯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인 아이돌보미 사업, 지역 내 육아지원 거점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남감 대여, 시간제보육 제공, 상담 서비스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 양육지원 사업, 양육정보제공을 위한 임신출산아이사랑보육포털 등이 대표적이다.

1. 지원 정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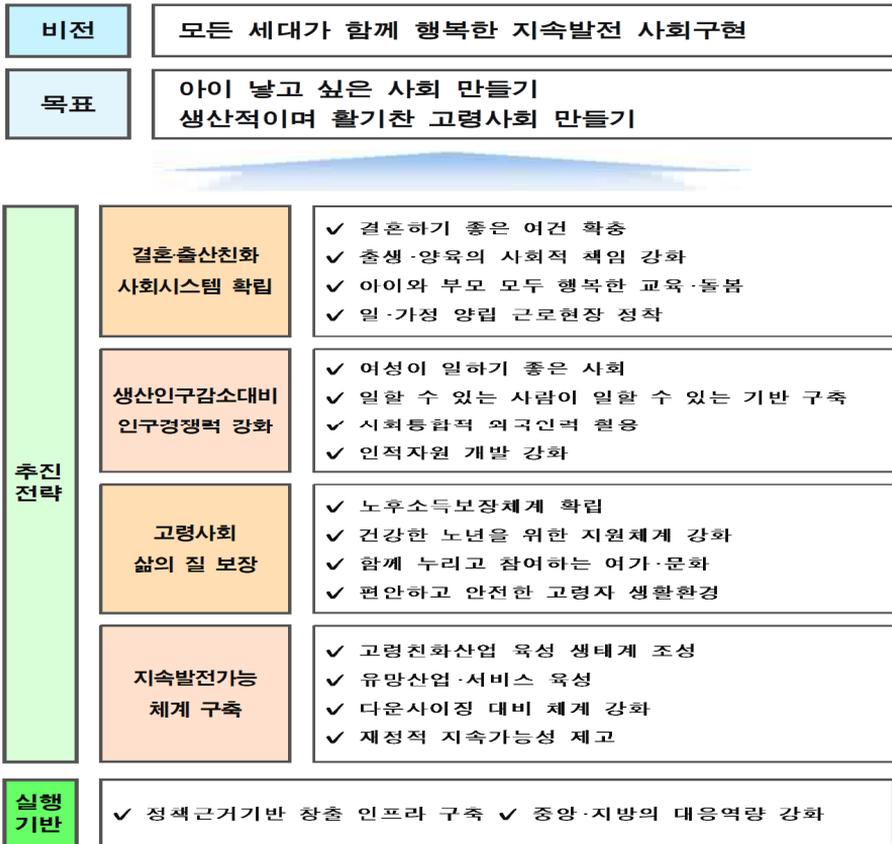
2016년을 기점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진수되었다. 이 계획들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수요자의 정책 요구를 이에 준하여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정책 실효성 제고에 관건이 된다. 이 두 가지 계획안에 포함된 가정 내 양육지원 내실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¹²⁾

정부는 출산율을 인구대체 수준까지 높이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22).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15년 10월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추진방향을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자료집”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https://precap.go.kr/news_noti_vw.lo?idx=646 2016년 2월 26일 인출)

<그림 III-1-1>과 같이 제시하였다. 저출산 극복의 방안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자료집 p.21 https://precap.go.kr/news_noti_vw.lo?id=646 2016년 2월 26일 인출

[그림 III-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결혼·출산·친화 사회시스템 확립 전략 중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돌봄’ 중 맞춤형 보육·유아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과제(3-2-나. 보건복지부)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64). 이를

위해, 첫째, 적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 부모가 임신·출산·육아정보 및 양육 상담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구축을 추진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64). 셋째,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한 Off-line 부모 종합서비스 지원(교육, 상담)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부모지원 인프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64).

2)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돌봄’ 중 돌봄지원 체계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과제(3-3-나: 여가부)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69). 이를 위해, 첫째, 영유아·부모를 위한 개방형 놀이 소통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여 가정 내 자녀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수를 2015년 현재 22.3만 명에서 2020년 25.8만 명까지 확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69).

3)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돌봄’ 중 돌봄지원 체계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과제(3-3-다: 여가부)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69). 이를 위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자녀에 대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69).

4)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질 관리 체계 구축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돌봄’ 중 돌봄지원 체계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질 관리 체계 구축’ 과제(3-3-다: 여가부/고용부/법무부)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69). 이를 위해, 첫째, 민간 아이돌보미도 지원센터에서 교육 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칭) 「가사근로자지원법」 제정 시 등록관리 대상에 아이돌보미 파견업체를 포함, 업체 질 관리와 처우개선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69). 외국인 육아도우미 지원프로그램, 정보제공시스템 내실화 및 홍보 강화로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참여와 도우미 수요 가정 체감도를 제고하며,

육아도우미 교육수료자의 합법체류, 건강 상태 등 정보를 구인희망자가 열람 가능(www.hikorea.go.kr)하도록 지원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69).

나. 건강가족기본계획(2016-2020)¹³⁾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되고 있다. 제1~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해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아이돌봄 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확대되는 등 가족정책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정책의 대상과 범주를 확대하고, 선제적 가족정책 대응하기 위함이다(관계부처 합동, 2016). 이 중 가정 내 양육지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가)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1-1)

가족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기능을 강화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19). 또한 찾아가는 가족교육을 활성화 하여, 군부대와 직장,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지역인프라와 연계하여 가족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19).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요자를 위해 온라인, 모바일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19). 저소득, 이혼,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시 자녀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강화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19).

나) 가족상담 활성화 (1-2)

지역사회 내 전문가 집단 연계 등을 통한 가족상담 전문성을 제고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22).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가족상담’ 등 가족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22).

다) 가족여가활동 확대 (1-3)

지역사회 생활권 내 가족여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 가족

13)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6~2020)”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함.

여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23). 남성들의 육아·가사·자조모임 공간 등을 제공하는 아빠캠프를 운영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23).

2)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가)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3-1)

맞춤형 보육·돌봄 서비스 개편

맞춤형 보육·돌봄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해서 첫째,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일반(12시간), 맞춤반(7시간)을 도입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6). 둘째,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6). 적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6). 임신·출산·육아정보와 양육상담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임신육아종합포털(예: 아이사랑)'을 구축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6).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교육 및 상담 등 부모 종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6). 셋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6).

보육·돌봄 서비스 질 관리

돌봄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부 및 법무부는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8). 민간 베이비시터가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시·도별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교육을 제공하고 이수증을 발급하여 질 관리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8).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시 적용범위를 아이돌봄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서비스의 질 관리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8). 외국인 육아도우미 지원프로그램, 정보제공시스템¹⁴⁾ 내실화 및 홍보 강화로 외국인 유아도우미의 교육 참여와 도우미 수요 가정의 체감도를 제고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8).

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3-2)

자녀돌봄 지역 인프라 확대

첫째,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유시설 중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14)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제공시스템 www.hikorea.go.kr(검색일: 2016. 5. 11)

설치를 확대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9).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시 운영비 지원을 인센티브로 검토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9). 둘째, 공동육아(육아품앗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9). 셋째, 지역사회 내 육아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돌봄지도로 작성하여 배포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9).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아과, 도서관 등의 다양한 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일·가정 톡톡’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49).

3)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가) 작은 육아문화 확산 (5-3)

소비주의적 육아실태 현황 파악을 위해 초호화 산후조리원, 고가 육아용품, 사교육 등 육아부담을 초래하는 육아관행 및 실태를 파악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71). 또한 대안적 ‘작은 육아문화’ 로의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표준적 육아 플랜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등 대안적 육아문화를 제시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71).

다. 시사점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향후 지향점을 제시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3차 건강가정지원계획 중 육아지원정책, 특히 기관보육지원을 제외한 가정 내 양육지원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두 계획 모두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정책이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과 ‘건강 가정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두 정책에서 제시한 가정 내 양육지원 강화 계획의 명칭은 다르나 그 내용은 적정 양육수당 지원,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한 Off-line 부모 종합서비스 지원(교육, 상담) 강화, 공동육아 나눔터 등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상당 부분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두 계획의 내용 검토를 통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동으로 추진할 만큼 가정 내 양육지원에 정책의 무게가 실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책비전	제1차('06~'10)	제2차('11~'15)	제3차('16~'20)
정책비전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가정의 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
정책과제	1. 가족돌봄의 사회화	1. 가족가치의 확산	1.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2. 직장·가정의 양립	2. 자녀 돌봄 지원 강화	2.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3. 다양한 가족의 역할 강화	3. 정부·가족·지역사회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4. 남성과 여성, 가정이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 실현
	5.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5.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5. 생애주기별 출신지역과 사회문화 조성
	6.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6. 가족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정비	6. 가족정책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1-1.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1-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3-1.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3-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3-3.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4-1. 가족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4-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4-3.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5-1.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 문화 조성 5-2.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6-1. 가족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정비 6-2.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1. 자녀 돌봄지원의 다양화 2-2. 부모역할 지원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포용화 5-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문화와 특성화	1-1. 맞춤형 가족돌봄 지원 1-2. 가족생활 활성화 1-3. 가족의가활동 확대 2-1. 맞벌이 가족 지원 2-2. 한부모 가족 지원 2-3. 다문화 가족 지원 2-4. 취약위기 가족 지원 3-1. 양이 귀유기 좋은 여권 조성 3-2.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 3-3. 가족돌봄 여건 조성 4-1. 일·가정 양립 제도 정착 4-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4-3. 가업의 일·가정 양립 실현 촉진 5-1. 고비용 고품질과 개선 5-2.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 5-3. 작은 우리마을 확산 5-4.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 6-1. 가족정책 및 제도 정비 6-2. 가족정책 전달체계 강화 6-3. 새로운 가족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주: 가정 내 양육지원과 관련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2016~2020), pp.6, 7, 11. 내용을 하나로 재구성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2016~2020), pp.6, 7, 11. 내용을 하나로 재구성함.

[그림 III-1-2] 1, 2,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비전과 목표

2. 지원 정책 추진 내용

이 절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육아지원 사업 중 기관 보육 지원을 제외한 영유아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정책별로 살펴보았다.

가. 비용 지원

1) 양육 수당

가) 정책 내용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가 지원대상이다(보건복지부, 2015a:284). 가정에서의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강민정, 2015:282).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전 계층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이 있다(보건복지부, 2015a:284).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은 지원 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a:284). 현재 지원액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이며, 연도별 양육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에 따르면 양육수당 지급은 2012년까지는 소득기준이 차상위 계층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었고, 0~1세에게 지급되었던 것이 2세까지로 2011년에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는 농어촌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신설되었다. 2012년에 영아 무상보육정책과 5세 누리과정 실시되고, 2013년에는 3~4세 누리과정까지 도입되면서 기관보육 이용율이 매우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기관이용을 지양하고, 보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양육수당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영아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을 0~5세로 확대하여 양육수당이 보편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표 III-2-1> 연도별 양육수당 지급 기준(2009~2016)

구분	소득기준	월령기준		지원액
2009년 7월 ~2010년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생계비 120%)	만 0~1세 (24개월 미만)		월 10만원
2011년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생계비 120%)	만 0~2세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36개월 미만	월 10만원
2012년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생계비 120%)	만 0~2세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36개월 미만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농업외 소득 4천미만)	만 0~2세	36개월 미만	연령별보육료 지원단가의 45%
	장애아동 (소득무관)	만 0~5세	24개월 미만 만 3세~만 5세(취학 전)	월 20만원 월 10만원
2013년 ~2016년	전 계층 지원 (소득재산 수준 무관)	만 0~5세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36개월 미만	월 10만원
			36개월 이상~만5세(취학 전)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소득재산 수준 무관)	만 0~5세	0~11개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7.7만원	
24~35개월			월 15.6만원	
장애아동 (소득재산 수준 무관)	만 0~5세	36~47개월	월 12.9만원	
		48개월~취학 전	월 10만원	
	장애아동 (소득재산 수준 무관)	만 0~5세	0~35개월	월 20만원
			36개월~취학 전	월 10만원

주: 2009~2014년 자료는 자료 1(유희정 외, 2014)에서 인용하고,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함.

자료: 1)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08 <표 II-73> 인용함.

2) 보건복지부(2015a).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3) 보건복지부(2016a).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나) 지원 아동 수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영유아 현황은 다음 <표 III-2-2>와 같다. 차상위 계층에
계 지원이 되었던 시기에는 2010년 약 5만명, 2011년 약 9만명, 2012년 약 10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 전 계층에 지원되기 시작한 2013년에는 대폭 늘어난 약
106만명이, 2014년과 2015년에는 약 101만명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2012년

부터는 미취학 유아까지 연령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유아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전체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기관 미이용 영아의 지원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2〉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현황(2010~2015)

단위: 명(%)

구분	전체	0~11 개월	12~23 개월	24~35 개월	36~47 개월	48~59 개월	60~71 개월	72개월 이상 미취학
2010	51,838 (100.0)	24,447 (47.2)	27,391 (52.8)	-	-	-	-	-
2011	89,756 (100.0)	36,662 (40.9)	38,450 (42.8)	14,644 (16.3)	-	-	-	-
2012	102,653 (100.0)	37,727 (36.7)	44,128 (43.0)	18,486 (18.0)	1,178 (1.1)	573 (0.6)	381 (0.4)	180 (0.2)
2013	1,060,484 (100.0)	385,585 (36.4)	346,952 (32.7)	145,049 (13.7)	63,164 (6.0)	38,360 (3.6)	40,445 (3.8)	40,929 (3.9)
2014	1,012,336 (100.0)	383,389 (37.9)	309,908 (30.6)	145,075 (14.3)	60,126 (5.9)	39,152 (3.9)	34,803 (3.4)	39,883 (3.9)
2015	1,009,346 (100.0)	386,361 (38.3)	310,212 (30.7)	132,195 (13.1)	66,546 (6.6)	40,139 (4.0)	37,894 (3.8)	35,999 (3.6)

주: 2010~2013년 자료는 자료 1(유희정 외, 2014)에서 재인용을, 2014~2015년 자료는 각년도 보육통계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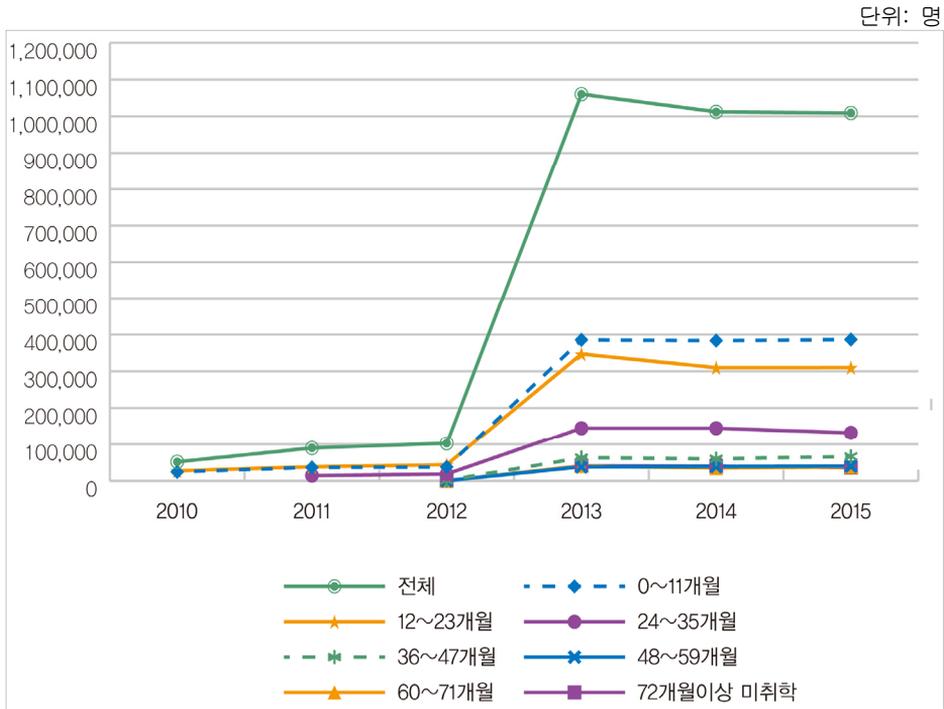
자료: 1)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09 <표 II-74> 인용함.

2) 보건복지부(2015b). 2014 보육통계. (2014년 말 기준)

3) 보건복지부(2016b). 2015 보육통계. (2015년 말 기준)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III-2-1>과 같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전체 지원아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2013년 양육수당 지급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층으로 확대된 정책 변화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특히 연령이 어린 영아에게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2013년 이래로 약 100 만명 내외의 영유아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출생연도별 아동 수의 큰 변화가 없다고 볼 때, <그림 III-2-1>을 통해서도 24개월 미만은 양육수당 이용이 많고, 36개월 이상에서는 기관 이용이 월등히 많음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자료: <표 III-2-2>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I-2-1]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현황(2010~2015)

2015년에는 <표 III-2-3>에서와 같이 총 1,009,346명의 영유아가 양육수당을 지급 받았고, 월령별로는 0~11개월 약 39만명, 12~23개월 약 31만명, 24~35개월 약13만명, 36~47개월 약 7만명, 48~59개월 약 4만명, 60~71개월 약 3만8천명, 72개월 이상 약 3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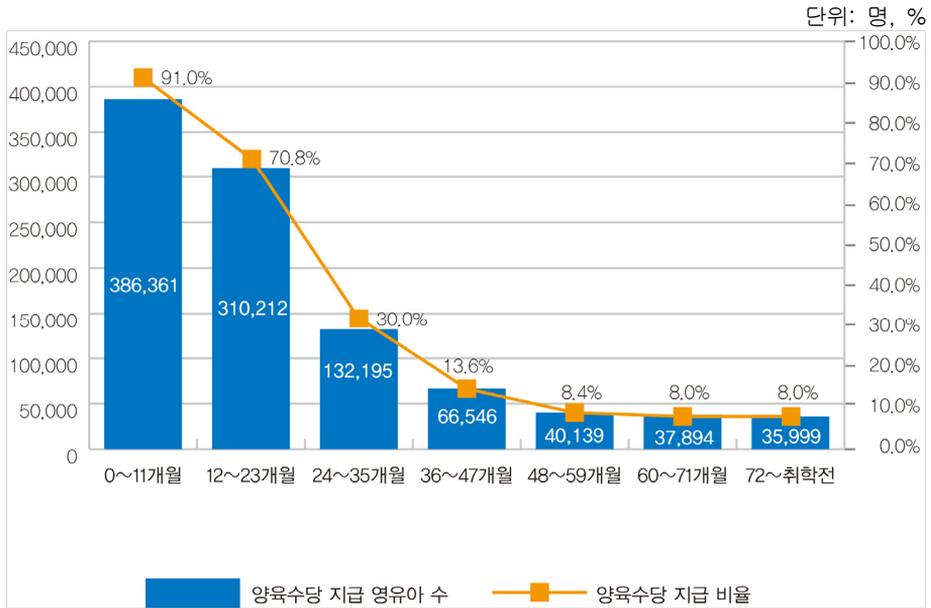
<표 III-2-3> 양육수당 지급 영유아 현황(2015)

단위: 명

구분	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71개월	72~취학전
전체	1,009,346	386,361	310,212	132,195	66,546	40,139	37,894	35,999
양육수당	1,004,154	385,309	308,916	131,197	65,717	39,698	37,570	35,747
장애아동 양육수당	2,169	9	242	528	513	365	286	226
농어촌 양육수당	3,023	1,043	1,054	470	316	76	38	26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5년 보육통계. p.250~253 재구성(2015년 말 기준)

2015년도 연령별 양육수당 지급 현황을 [그림 III-2-2]를 통해 살펴보면, 35개월 이하에서 지급받은 영유아 수가 매우 뚜렷이 많고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인원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주: 주민등록인구 대비 양육수당 지급 비율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6b). 2015년 보육통계. p.250~253 재구성(2015년 말 기준)
 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를 2016년 3월 15일 인출함.

[그림 III-2-2] 연령별 양육수당 지급 영유아 현황(2015)

다) 지원예산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사업 예산은 다음 <표 III-2-4>와 같다. 2009년에는 약 324억에서 2010년 약 657억, 2012년 약 1,026억으로 점차 증가해오다가 전 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2013년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758.2%로 양육수당 예산액이 약 8,810억이 되었고, 2014년 이래로 약 1조 2천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전체 보육예산 대비 비율로 2012년까지는 1.9~3.4%였던데 반해, 2013년부터는 21.3~23.4%로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III-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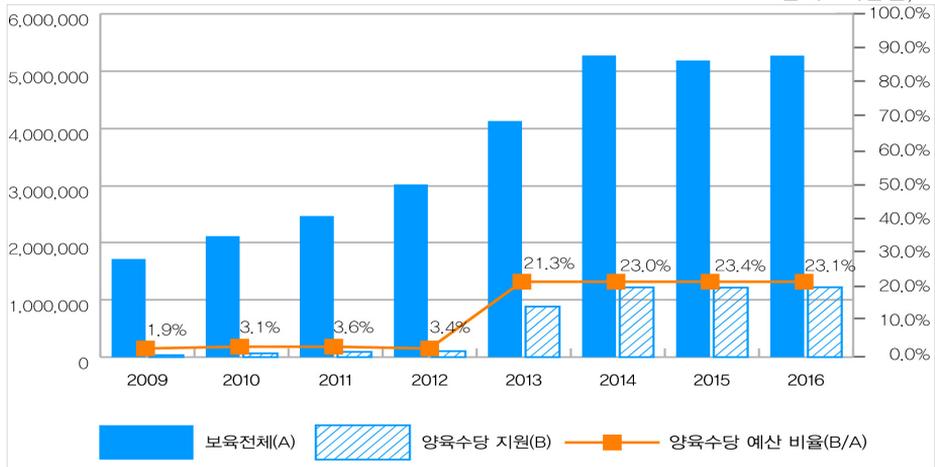
<표 III-2-4>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예산 전체(A)	1,710,430	2,127,510	2,478,380	3,028,567	4,131,345	5,273,819	5,186,136	5,270,824
양육수당 예산액(B)	32,390	65,664	89,794	102,646	880,950	1,215,319	1,211,510	1,219,200
보육예산대비(B/A)	1.9	3.1	3.6	3.4	21.3	23.0	23.4	23.1
전년대비증가율	-	102.7	36.7	14.3	758.2	38.0	-0.3	0.6

자료: 1)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11 <표 II-75> 인용함.
 2) 보건복지부(2016b). 2015 보육통계. (2015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자료: <표 III-2-4>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I-2-3] 양육수당 지원 예산 추이(2009~2016년)

2) 맞춤형 보육15)

맞춤형 보육정책은 '아이가 행복해지는 보육'16)을 지향한다. 맞춤형 보육정책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정책으로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야간, 휴일) 서비스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보육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4.25.). 이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4. 25)를 중심으로 정리함.

16)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검색일: 2016. 6. 30)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 외에 맞춤형(9시~15시 +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서비스가 도입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4.25.). 이는 그간 가구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12시간 종일반을 제공받아왔던 것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에게는 종일반을 제공하여 실수요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영아 가정에서는 종일반이 아닌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맞춤형(7시간 이용)을 이용하도록 실시되는 정책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4.25.).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은 가정 내 양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나,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 부모 자녀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에 ‘어린이집 이용율이 2011년 29.6%에서 2015년 34%로 증가되고, 주당 평균 이용시간도 OECD 평균 30시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8시간이라는 점’(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4.25.)에서 영아기 가정양육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016년 6월 현재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을 통해 홍보와 신청 접수 안내 및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홍보영상, 리플릿, 카드뉴스, 웹툰 등을 통해 다면적 정책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2-5〉 0~2세반 맞춤형 보육

구분	종일반	맞춤반
이용시간	7:30~19:30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원)
보육료	1인당 월 825천원 (0세기준)	1인당 월 660천원 (0세기준) ^{주1)}
이용대상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주2)} 등	종일반 이용 외 아동

주: 1) 맞춤형 보육료는 긴급보육바우처 포함 시 월720천원임.

2) 종일반 다자녀 이용기준은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4.25.).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6.30.).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

나. 돌봄서비스 지원

1) 아이돌봄 서비스

가) 정책 내용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양육공백이 있는 가

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5:13). 소득활동이나 다자녀양육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지원한다(권미경 외, 2016:24)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비용을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서비스 유형별 운영 현황은 <표 III-2-6>과 같다.

<표 III-2-6>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유형별 현황(2015)

구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서비스 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 ~ 만 24개월 이하 영아			
지원기준 (4인가구 월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50% 이하 (월248만원)	50~70% 이하 (월348만원)	70~100% 이하 (월497만원)	100%초과	50% 이하 (월248만원)	50~70% 이하 (월348만원)	70~100% 이하 (월497만원)	100%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6천원				시간당 6천원 (월 120만원)			
정부지원	4,500원	2,700원	1,500원	-	0세 84만원	72만원	60만원	48만원
					1세 78만원	66만원	54만원	42만원
본인부담	1,500원	3,300원	4,500원	6,000원	0세 36만원	48만원	60만원	72만원
					1세 42만원	54만원	66만원	78만원
기타	종합형 ²⁾ : 시간당 7,800원 야간·휴일: 시간당 3천원 추가				보육교사형 ³⁾ : 시간당 7,800원 야간·휴일: 시간당 3천원 추가			
아동추가	시간제: 1명당 3,000원 종합형 ²⁾ : 1명당 3,900원 야간·휴일: 시간당 1,500원 추가				영아종일제: 1명당 3,000원 보육교사형 ³⁾ : 1명당 3,600원 야간·휴일: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시간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1일 6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연간 480시간 이내				월 120~200시간 이내			

주: 1) 영아종일제의 연령기준은 0세(만3~12개월), 1세(만13~24개월)임.

2)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3) 보육교사형: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제공

자료: 1) “양민석·안현미·서영주·임양미·윤상미(2012).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p.142 표 IV-27”을 참고하여 내용을 2015년으로 업데이트함.

2)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1-2, 13-15 재구성함.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구분된다(여성가족부, 2015: 13). 시간제 돌봄은 시간당 6천원의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1회 2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정부가 연간 480시간 이내로 지원한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시간당 6천원의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1일 6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정부가 월 120~200시간 이내로 지원한다. 2014년 8월에는 서비스가 다양화되어 시간제 돌봄에 가사를 추가한 종합형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닌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 종일제 돌봄 보육교사형이 추가되었으나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나) 아이돌보미 제공 및 양성 현황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아이돌보미 양성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2-7>에서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 214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자수는 2015년 2,978명이다.

<표 III-2-7>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분	단위: 개소, 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비스제공기관 수	215	215	216	213	214
양성교육 이수자 수	4,729	3,149	6,692	3,021	2,978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2015년도 지역별 아이돌보미 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I-2-8>과 같다.

<표 III-2-8> 2015년 지역별 아이돌보미 양성 현황

구분	단위: 개소,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서비스제공기관 수	25	11	8	9	2	2	1	1	31	18	11	15	14	21	23	20	2	214
돌보미 양성기관 수	4	1	1	1	1	2	1	1	4	3	3	4	1	1	6	1	2	37
양성교육 이수자 수	428	297	92	246	100	79	123	36	524	102	103	114	155	122	219	186	52	2,978
아이돌보미 수 ^{주)}	2,615	1,392	791	868	586	705	729	116	3,283	852	571	765	916	883	1,155	1,115	211	17,553

주: 실활동 아이돌보미 수입.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표 III-2-8>에 따르면 전국 214개 서비스제공기관 중 서울(25)과 경북(23), 경

남(20)이 제공기관 수가 많은 편이며, 양성기관은 전국 37곳이 있고, 서울(4), 경기(4), 충남(4), 경북(6)이 양성기관 수가 많은 편이다. 2015년 양성교육 이수자수는 전국 2,978명이며, 경기(514), 서울(428), 부산(297) 순으로 많았다. 실제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는 전국 17,553명이었고, 경기(3,283), 서울(2,615), 부산(1,392)의 순으로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실 지원 가구를 2015년 36,800가구에서 2016년에는 41,2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6.1.20.:7).

다) 아이돌보미 이용 현황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현황을 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I-2-9>와 같다. 먼저 연도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은 2011년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 영유아는 53,827명이었고, 점차 늘어나 2015년에는 78,625명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가정양육 비중이 높은 어린 연령일수록 이용 비율이 높다.

<표 III-2-9>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11~2015)

구분	단위: 명(%)				전체
	만 0~2세	만 3~5세	만 6~8세	만 9~12세	
2011년	23,959 (44.5)	18,115 (33.7)	8,517 (15.8)	3,236 (6.0)	53,827 (100.0)
2012년	25,424 (42.5)	20,724 (34.7)	10,316 (17.3)	3,338 (5.6)	59,802 (100.0)
2013년	26,588 (37.5)	24,420 (34.4)	15,082 (21.2)	4,904 (6.9)	70,994 (100.0)
2014년	25,487 (33.7)	26,206 (34.7)	17,940 (23.7)	5,990 (7.9)	75,623 (100.0)
2015년	26,072 (33.2)	27,135 (34.5)	18,676 (23.8)	6,742 (8.6)	78,625 (100.0)

주: 시간제 실이용아동수는 중복이 없으며, A아동이 1년 중 1회라도 연계되었다면 실이용 아동수 1명으로 1번만 집계됨. (중복 없음)

자료: 1)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계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14, <표 II-79> 인용함.

2)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현황을 소득유형과 가정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III-2-10>과 같다. 소득별 지원기준에서는 전체 52,354가구 중에서 이용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장 큰 '가형'(4인가구 월소득 50%)이 38.5%, 전액 본

인부담으로 이용하는 '라형'(4인가구 월소득 100% 초과)이 39.8%로 이용자가 많았다. 가정유형별로는 맞벌이가정 53.0%, 한부모 17.3%, 일반가정 13.9%, 다자녀 12.4%의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다.

〈표 III-2-10〉 가정특성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현황(2015)

단위: 가정(%)

소득유형별		가정유형별			
전체 이용가정 수	52,354(100.0)	전체 이용가정 수	52,354(100.0%)		
가형(50%이하)	20,154(38.5)	맞벌이	27,732(53.0)	기타양육	1,408(2.6)
나형(50~70%이하)	6,306(12.0)	한부모	9,041(17.3)	장애부모	380(0.7)
다형(70~100%이하)	5,057(9.7)	일반가정	7,270(13.9)	조손	48(0.1)
라형(100%초과)	20,837(39.8)	다자녀	6,475(12.4)		

주: 4인가족 월소득 구분임. 가형 월 248만원, 나형 월 348만원, 다형 월 497만원임.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을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 III-2-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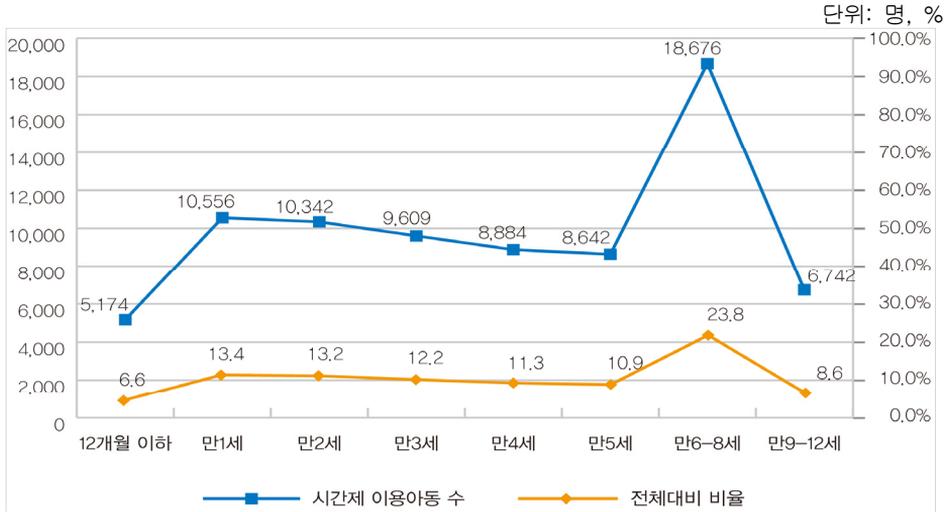
〈표 III-2-11〉 아동특성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15)

단위: 명(%)

성별		연령								합계
남	여	12개월 이하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8세	만9-12세	
40,918	37,707	5,174	10,556	10,342	9,609	8,884	8,642	18,676	6,742	78,625
(52.0)	(48.0)	(6.6)	(13.4)	(13.2)	(12.2)	(11.3)	(10.9)	(23.8)	(8.6)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전체 이용아동 78,625명 중에서 남아 52.0%, 여아 48%이며, 연령별로는 만6-8세 23.8%, 만1세 13.4%, 만2세 13.2%, 만3세 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의 돌봄 공백을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통해 채우는 경우가 많고, 영유아 연령대에서는 비교적 어린 연령에서의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표 III-2-11>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I-2-4] 연령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시도별 시간제 서비스 이용 아동 현황은 다음 <표 III-2-12>와 같다. 전체 78,625명 중 경기 20.5%, 서울 16.4%, 경남 6.9%, 경북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2> 2015년 시도별 시간제 서비스 이용아동 현황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2,924	4,978	2,994	3,105	2,325	2,516	2,549	413	16,081
(16.4)	(6.3)	(3.8)	(3.9)	(3.0)	(3.2)	(3.2)	(0.5)	(20.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403	2,628	3,399	4,298	4,234	5,290	5,400	1,088	78,625
(5.6)	(3.3)	(4.3)	(5.5)	(5.4)	(6.7)	(6.9)	(1.4)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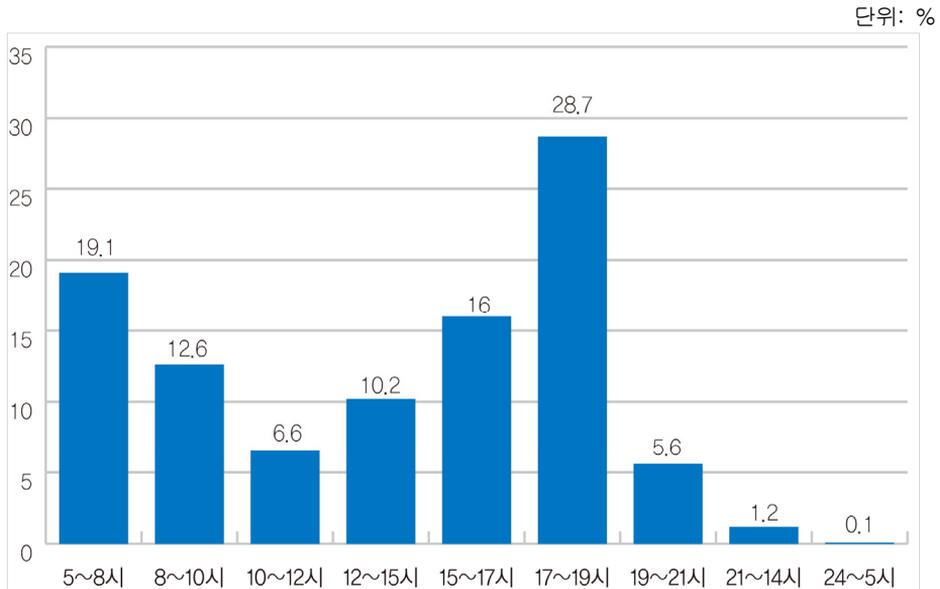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대별 이용 현황은 다음 <표 III-2-13>과 같다. 월별 이용가구의 누계치의 합산으로 전체 약383만 가정 중 이용가정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저녁 17~19시(28.7%)이고 그 다음으로 오전 5~8시(19.1%), 오후 15~17시(16.0%), 오전 8~10시(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의 돌봄 공백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2-13〉 2015년 시간제 서비스 시간대별 이용 현황

단위: 가정

오전			오후		저녁		심야		합계
5~8시	8~10시	10~12시	12~15시	15~17시	17~19시	19~21시	21~24시	24~5시	
733,281	482,396	251,020	390,296	611,041	1,097,251	213,636	45,470	5,127	3,829,518
(19.1)	(12.6)	(6.6)	(10.2)	(16.0)	(28.7)	(5.6)	(1.2)	(0.1)	(100.0)

주: 시간대별 시간제 서비스 이용가구는 월별로 연계된 가구의 누계치 합산치로, 매일 연계된 가구의 시간대별 연계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이며, 1년 동안 연계된 가구의 총수임. (중복 수치)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자료: <표 III-2-13>을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I-2-5] 2015년 시간제 서비스 시간대별 이용 현황

(2)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011년 이용 영아는 6,693명에서 2012년 14,02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용 영아 수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30,382명이 이용하였다. 월령별로는 6~18개월 미만의 이용비율이 비교적 높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연도별 이용현황은 다음 <표 III-2-14>와 같다.

<표 III-2-14>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현황(2011~2015)

단위: 명(%)

구분	3개월 미만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15개월	15~18개월	18~21개월	21~24개월	전체
2011년	115 (1.7)	1,400 (20.9)	1,733 (26.0)	1,615 (24.1)	1,121 (16.7)	459 (6.9)	202 (3.0)	48 (0.7)	6,693 (100.0)
2012년	42 (0.2)	1,634 (11.7)	3,057 (21.8)	3,310 (23.6)	2,482 (17.7)	1,662 (11.9)	1,109 (7.9)	726 (5.2)	14,022 (100.0)
2013년	121 (0.7)	2,848 (15.3)	4,812 (26.0)	4,820 (26.1)	3,523 (19.0)	2,382 (12.9)	-	-	18,506 (100.0)
2014년	78 (0.3)	2,355 (8.6)	4,053 (14.8)	4,894 (17.8)	5,270 (19.2)	4,817 (17.5)	3,513 (12.8)	2,475 (9.0)	27,455 (100.0)
2015년	99 (0.3)	3,015 (9.9)	4,853 (16.0)	5,264 (17.3)	5,086 (16.7)	4,686 (15.4)	3,834 (12.6)	3,545 (11.7)	30,382 (100.0)

주: 1) 종일제 이용아동수는 월별 이용아동의 합계 수치임. 영아는 매월 개월수가 변동되므로 월별로 집계하고 누계치를 합산한 값임. (중복 수치)
 2) 2010~2013년 자료는 자료 1(유희정 외, 2014)에서 인용하고, 2014~2015년 자료는 여성가족부 내부자료로 재구성함.
 자료: 1)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15, <표 II-80> 인용함.
 2)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각년도 연말기준)

<표 III-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별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정 현황도 2011년 1,204가정이 이용하였다. 이는 매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5,333가정이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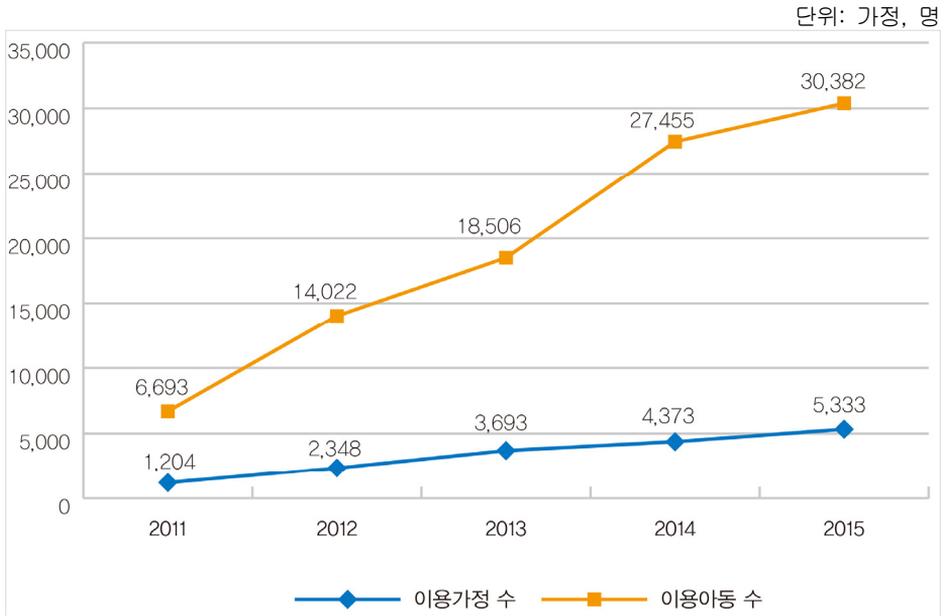
<표 III-2-15> 연도별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정 현황

단위: 가정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204	2,348	3,693	4,373	5,333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이용 아동과 이용 가정의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III-2-6]과 같다. 2011년과 비교하여 보면 이용 가정 수와 이용 아동 수가 약 5배가량 증가하였다.



자료: <표 III-2-14>와 <표 III-2-15>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I-2-6] 연도별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현황은 다음 <표 III-2-16>과 같다. 맞벌이가정이 전체의 79.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다자녀 가구 12.1%, 기타 양육 가정 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6> 2015년 가정유형별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정 현황

						단위: 가정(%)
맞벌이	다자녀	기타양육 가정	한부모	장애부모	조손	합계
4,238	644	264	168	17	2	5,333
(79.5)	(12.1)	(5.0)	(3.2)	(0.3)	(0.0)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시도별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가정 현황은 다음 <표 III-2-17>과 같다. 전체 29,220 가정 중에서 서울 지역이 20.9%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2%, 부산 8.4%, 경북 6.7%, 강원 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17〉 2015년 시도별 영아종일제 서비스 연계가정

									단위: 가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107	2,459	1,252	1,038	1,334	1,282	1,047	93	3,569	
(20.9)	(8.4)	(4.3)	(3.6)	(4.6)	(4.4)	(3.6)	(0.3)	(12.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777	955	1,270	1,570	1,565	1,972	1,683	247	29,220	
(6.1)	(3.3)	(4.3)	(5.4)	(5.4)	(6.7)	(5.8)	(0.8)	(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2015년 말 기준)

라) 지원 예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07년 395억에서 매년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전년도 대비 253.5% 증가하여 2,390억에 이르고, 2011년 6,250억에서 2012년에는 1조를 넘어서서 2015년에는 1조 2,280억이 편성되었다. 2007년과 비교하여 보면 2015년 예산은 약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영유아 가정에서의 돌봄 지원 요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에 대한 지원예산의 증액은 아이돌보미 사업이 돌봄지원정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부모에게 홍보되고 이에 대한 이용 요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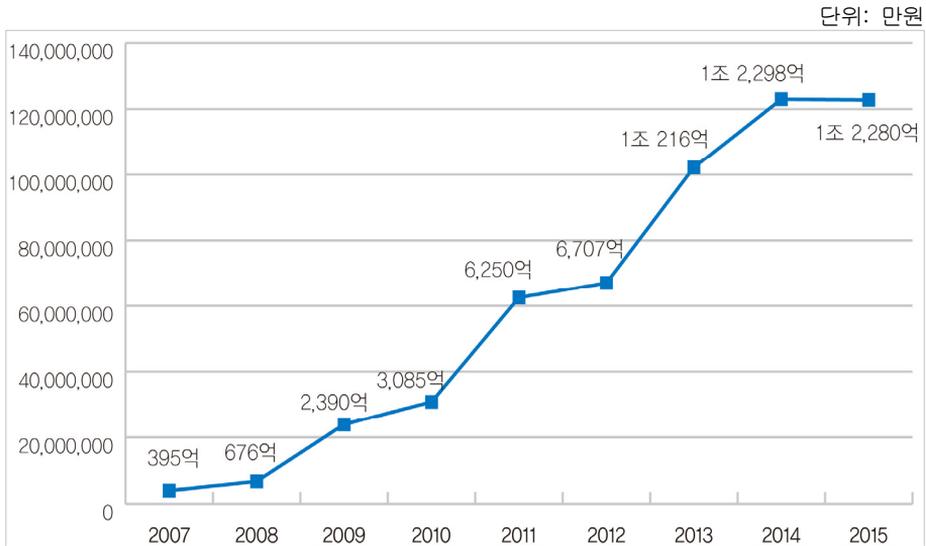
〈표 III-2-18〉 연도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예산

										단위: 천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3,952,684	6,760,000	23,896,364	30,849,114	62,498,468	67,066,976	102,159,325	122,976,672	122,802,660	
국비	2,600,452	4,108,000	15,502,000	19,705,000	39,711,000	42,894,000	66,060,000	78,516,000	78,716,000	
지방비	1,352,232	2,652,000	8,394,364	11,144,114	22,787,468	24,172,976	36,099,325	44,460,672	44,086,660	
증감률	-	71.0%	253.5%	29.1%	102.6%	7.3%	52.3%	20.4%	- 0.1%	

주: 기준보조율(서울 30%, 지방 70%)

자료: 1)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16, <표 II-82>를 인용함.

2) 여성가족부(2015). 2015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89



자료: <표 III-2-18>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III-2-7]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 추이

2) 시간제보육 서비스

가) 정책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 시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시간제보육은 가정 양육 시에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만큼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2016a:265). 이는 긴급한 돌봄 필요 상황 뿐 아니라 육아에 지친 가정 양육 어머니에게 육아의 쉽, refreshment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으면서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에서 36

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금 평일 9시~18시에 시간제보육제공 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고,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보건복지부, 2016a:265).

<표 III-2-19>에서와 같이 정부는 보육료 시간당 4천원 중 기본형 시간당 2천원, 맞벌이형 시간당 3천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 부담이며, 지원시간도 기본형 월 40시간, 맞벌이형 월 80시간이다. 지원시간을 모두 이용한 경우라도 정부지원금 없이 본인부담 100%로는 이용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6a:271).

양육수당을 수급 중이라면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기본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2016).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더라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2016).

<표 III-2-19> 시간제보육료 지급 기준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보육료	시간당 4천원	
정부지원금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지원시간	월 40시간	월 80시간

자료: 보건복지부(2016a).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p.271

나) 운영 및 이용 현황

시간제보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운영을 지원한다.

2015년 시간제보육 사업에 참여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75개소이고 그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접 운영한 곳은 총 44개소로 시도 6개소(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전남, 경북), 시군구 38개소이다. 센터에서 시간제보육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시간제보육 사업에 참여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31개소이며, 시도 9개소, 시군구 22개소이다. 2015년 시간제보육 사업의 이용 인원은 10,085명, 이용건수는 총 47,006건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 <표 III-2-20>과 같다.

〈표 III-2-20〉 시간제보육 이용현황

단위: 명, 건

구분	총계	시도센터						시군구센터
		소계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전남	
이용인원	10,085	383	68	79	83	58	95	9,702
이용건수	47,006	4,875	727	834	1,100	308	1,906	42,13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다) 지원 예산

〈표 III-2-21〉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을 위한 예산을 보여준다. 2015년도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예산은 약 75억이었고, 전체 보육예산 약 5조 1천8백억 중 약 0.14%였다. 2016년에는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59.3%가 증가된 약 120억으로 이는 2016년도 전체 보육예산 5조 2천7백억 중 약 0.23%의 금액으로 시간제보육 지원 예산이 양적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2016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사업인 맞춤형 보육 사업과 함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보육을 제공하고, 가정양육 가정에게 종일제 보육보다는 시간제 보육을 독려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표 III-2-21〉 시간제보육 지원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B)	2016 예산(B)	증감 (B-A)	%	세부명세
보육예산 전체(C)	5,186,136	5,270,824	84,688	(1.6)	
시간차등형보육 지원(D)	7,507	11,959	4,452	(59.3)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예산 비율(D/C)	(0.14)	(0.23)	-	-	

자료: 보건복지부(2016b). 2015 보육통계(2015년도 말 기준). p.255

다. 정보 및 교육 제공

1) 부모교육 기회 제공

가)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최근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역할 학습

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가 참여한 ‘부모교육 활성화 TF’를 설치하고, 2016년 3월 29일자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3.29).

기존에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학부모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모교육에 대한 대국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모교육을 ‘생애주기 및 가족유형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화’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6.3.29). 이번 대책에서는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② 취약가정 부모 중점 지원, ③ 부모교육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3가지 추진방향과 6개 분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담았다(관계부처 합동, 2016.3.29).(그림 III-2-8 참조).

중점 과제	세부 추진 과제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전) 결혼 전 정기적으로 부모교육 지원 • (임신·출산기) 보건소·산부인과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제공 • (자녀 영유아기) 어린이집·유치원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제공 • (자녀 학령기) 학교 내 각종 프로그램에 부모교육 포함
② 취약가정 부모 중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가정 부모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 취약가정 지원 서비스 연계로 부모교육 강화 • 고위험 부모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 1: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 시범 실시
③ 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업 강화 •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주말 교육프로그램 확대
④ 부모교육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표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활용 • 부모교육 전문가 체계적 관리
⑤ 부모교육 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관련 추진체계 강화 • 부모교육 총괄기능 강화 • 부모교육 관련 관계부처 TF 운영
⑥ 부모교육 사회적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홍보 강화 • 각종 정부서비스 제공시 부모교육 안내 • ‘부모교육 주간’ 신설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3. 29).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별첨자료, p.3에서 인용함.

[그림 III-2-8]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중점추진 과제

보도자료¹⁷⁾를 토대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생애주기별로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3.29). 둘째, 취약가정 지원서비스와 연계한 부모교육 제공으로 부모역량을 제고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3.29). 셋째, 접근성이 좋은 시설과 연계하여 부모 교육의 접근성을 높인다(관계부처 합동, 2016.3.29). 넷째,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과 강사DB 구축을 통해 전문성과 질을 높인다(관계부처 합동, 2016.3.29). 다섯째,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서 TF 등을 운영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3.29). 여섯째, 매체를 활용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부모교육 주관을 신설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3.29).

이에 2016년 여성가족부는 제1회 「부모교육주간」을 신설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길, 부모교육에서 시작!’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모교육 활성화 포럼, 부모 공감 토크콘서트 등 전문가들과 부모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6.5.4:1).

나) 대한민국 부모학교

부모가 교육의 대상이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사건이 줄이 어 발발함이 촉매가 되어 부모교육에 대해 국가 수준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2016년 5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동으로 추진하는 ‘참 좋은 부모되기 대한민국 부모학교’를 준비하였다.¹⁸⁾ 이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을 사업목적으로 한다.¹⁹⁾ 이는 부모의 책임에 대한 재인지, 아동발달에 따른 양육지원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에서의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예약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²⁰⁾

17)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6. 3. 29).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함.

18) 여성가족부홈페이지에서 2016년 5월6일 인출함.

<http://www.mogef.go.kr/popup/20160502popup.jsp>

19)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2016년 5월 6일 인출함.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5.jsp

2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2016년 5월 6일 인출함.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5.jsp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popup/20160502popup.jsp> 2016년 5월6일 인출.

[그림 III-2-9] 대한민국 부모학교 홈페이지

이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²¹⁾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가정 부모를 중점 지원하여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부모교육 필요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부모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아가사랑, 마음더하기,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합하여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정보’, ‘입소대기·보육료 결제·시간제보육 신청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오픈”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2.22.: 4).

2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기술함.

정부는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의 일환으로 부모가 임신·출산·육아정보 및 양육상담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결혼·출산친화 사회시스템 확립 전략의 세부과제로 추진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5: 64).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 핵심 개혁과제로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구축을 실행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2.22.: 10)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12.22.)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개최. p.10 “붙임 2. 2015년 핵심 개혁과제 성과” 그림 일부발취

[그림 III-2-10]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오픈

[그림 III-2-11]처럼 아이사랑 홈페이지는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 소통·참여 게시판, 상담실 등의 메뉴를 갖추고 있다. 지역별 어린이집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임신 출산과 관련한 상담/정보제공, 참여게시판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2016년 6월 13일 인출.

[그림 III-2-1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전문가 상담 연결, 정부지원 서비스 맞춤형 추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안내 및 찾기 서비스 등과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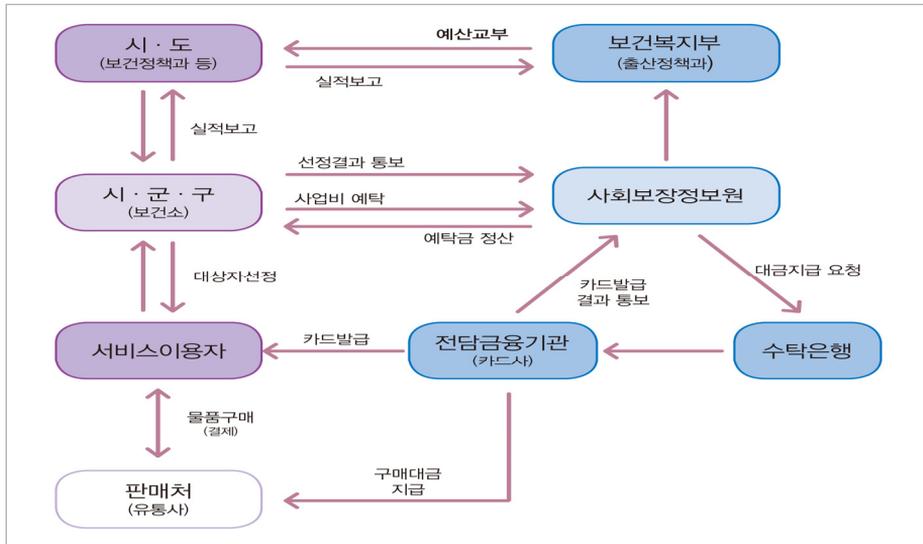
라. 물품 지원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6c: 1).

이 사업의 사업추진체계는 [그림 III-2-12]와 같다. 이 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현 정부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국정과제로서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2016c: 1). 2016년에는 국비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서울은 국고보조를 30%, 기타지역은 50%로 하여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6c: 2).

22)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의 메뉴를 참고하여 기술함



자료: 보건복지부(2016c).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p.3 [그림] 발취 재구성

[그림 III-2-12]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추진 체계

<표 III-2-22>를 살펴보면 ‘기저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6c: 4).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하며,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천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6c: 4).

<표 III-2-22>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액(원)
기저귀 지원	기준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월64,000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²⁾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월86,000

주 1)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지원 신청 시

2)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

3)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금액(월15만원)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 없이 사용 가능

자료: 1) 보건복지부(2016c).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p.4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검색일: 2016. 6. 13)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39

마. 건강 지원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d:13). 본 사업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매해 지원대상 기준이 다소 상이하나 소득에 따른 지원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어 왔고, 2016년에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d:13-14).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의 형태를 취하며’(최윤경 외, 2015:30 재인용), <표 III-2-23>과 같이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의 표준서비스를 받게 된다(보건복지부, 2016d:53).

<표 III-2-2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표준 서비스 내용

구분	표준 서비스
산모 건강관리	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요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자료: 보건복지부(2016d).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53 <표> 인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표준 서비스 내용과 표준 서비스 일정표가 제시되고, 계약서, 보험증명서, 교육수료증, 건강진단서 등이 미리 제시되는 등 서비스 제공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간의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d:59,61).

〈표 III-2-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구분	서비스가격 상한선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 기간
단태아	86만원	50%이하 50%초과~60%이하 60%초과~80%이하 80%초과(예외지원)	A-가형 A-나형 A-다형 A-라형	60만원 57만원 52만원 45만원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	10일
쌍생아	150만원	50%이하 50%초과~60%이하 60%초과~80%이하 80%초과(예외지원)	B-가형 B-나형 B-다형 B-라형	109만8천원 103만5천원 93만6천원 81만원		1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220만원	50%이하 50%초과~60%이하 60%초과~80%이하 80%초과(예외지원)	C-가형 C-나형 C-다형 C-라형	162만원 153만원 140만원 120만원		20일

주: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의한 1,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자료: 보건복지부(2016d).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49 <표> 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고(보건복지부, 2016d: 35), 출산일로부터 60일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d:22). 정부지원금은 신생아(태아) 유형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16d:49). 단태아 산모는 10일, 쌍생아 산모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는 20일간 정부지원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방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d:49). 신생아(태아) 유형에 따라 서비스가격 상한선이 있고,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차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16d:49). 이용시간은 7시~22시 사이에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며, 1주 5일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6d:52).

2)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6e:29). 2007년 건강보험적용자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작되어 2008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6e:29).

영유아 건강검진은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서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6e:5).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의 검진시기별로 1~7차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며,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으로 구성된다(국민건강보험·건강IN 홈페이지, 2016²³).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한다(복지로 홈페이지, 2016²⁴). 이러한 검진을 통해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의 주요 질환을 선별한다(보건복지부, 2016e:30).

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복지로 홈페이지, 2016²⁵).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양육자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복지로 홈페이지, 2016).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보건소 및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복지로 홈페이지, 2016). 2016년 지원대상 백신은 BCG(파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A형간염, HPV(자궁경부암, 2016년 6월 예정) 등 16종이다(복지로 홈페이지, 2016).

바. 종합서비스 지원

23) 국민건강보험·건강IN 홈페이지 (검색일: 2016. 6. 13)

http://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4.do

24)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일: 2016. 6. 13)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322>

25)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일: 2016. 6. 13)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searchIntClId=02&searchCtgId=003&wellInfSno=245&pageGb=1&domainName=&searchSidoCode=&searchCggCode=&key1=list&stsfCn=>

1)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과 확산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6b).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녀들은 안전하게 놀며 사회성을 키우는 장소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는 참여와 나눔의 장이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장소)을 의미하며 자녀들이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공간이다(건강가정지원센터 자료)²⁶⁾.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이 장난감과 책 등을 갖추고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취학 전후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표 III-2-25〉 공동육아나눔터 현황(2010~2015)

단위: 명, 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공동육아 나눔터	시군구 수	5	23	23	27	39	59
	개소 수	14	60	64	72	84	109
	이용인원 ^{주)}	24,244	93,452	146,828	164,589	216,526	297,565
가족품앗이	부모+자녀 ^{주)}	3,721	38,325	57,503	78,631	95,007	88,516
만족도 조사결과(5점 만점)		-	4.2	4.4	4.5	4.5	4.6

주: 연인원임, 2015년 연말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2016b).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족정책과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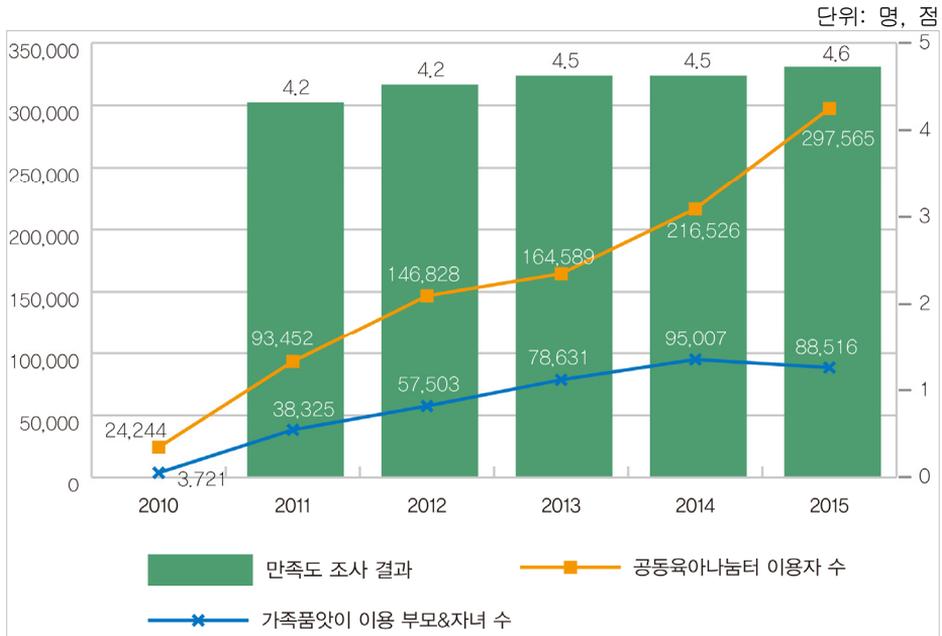
2014년 말 기준으로 216,526명 정도가 이용하였고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에도 이 사업의 확대 계획을 담고 있다.

2010년에 5개 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23개 지역, 60개소에서

26)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infantcare/infantcare1.do> 2016년 3월 16일 인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실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6b).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 가정지원센터, 아파트 단지, 군 관사, 주민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5년 연말기준으로 59개 지역 109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2016b).



주: 만족도 조사 결과는 5점 만점임.
 자료: <표 III-2-25>를 그림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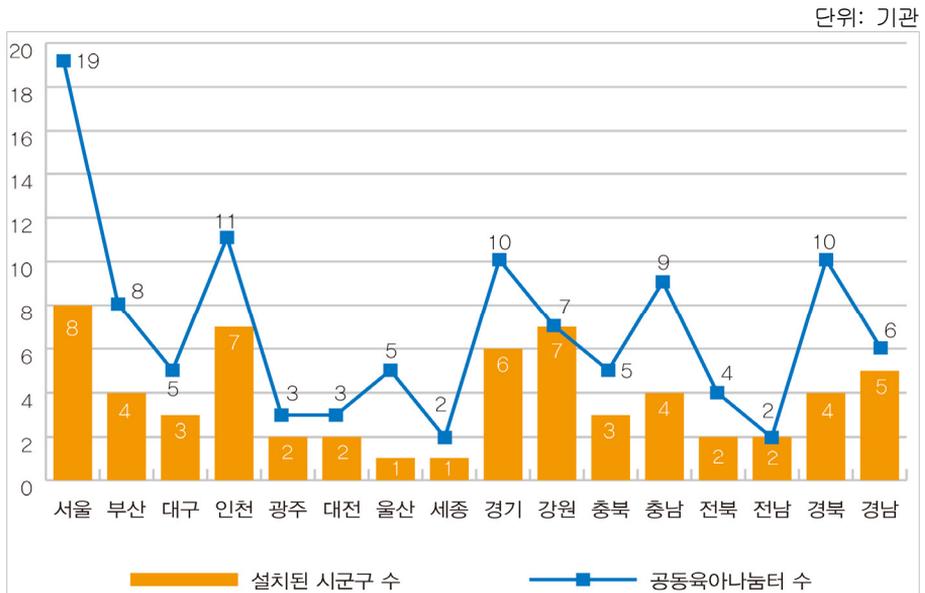
[그림 III-2-13] 공동육아나눔터 연간 이용자 수

[그림 III-2-13]에서와 같이, 이용자 수는 2010년 2만 4천여명에서 2015년 30만 여명으로 5년 사이에 1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품앗이에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의 수도 2010년 3천 7백여명에서 2015년 8만 9천여명으로 23배 이상 대폭 증가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부터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에 4.2~4.6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16년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61개 시군구에 109개가 설치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6b). 지역 내 설치된 시군구 수와 공동육아나눔터

수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 III-2-14]와 같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서울(19), 인천(11), 경기(10), 경북(10)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시군구를 중심으로 보면 서울(8), 인천(7), 강원(7), 경남(5)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모든 시군구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기능을 지닌 기관들(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지역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보다 많이 설치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료: 여성가족부(2016b).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족정책과 내부자료. 재구성

[그림 III-2-14] 공동육아나눔터 전국 설치 현황

2) 장난감/도서대여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놀이체험 및 장난감·도서 대여를 지원하는 가정내 양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16. 5. 4 인출²⁷⁾). 이 사업은 다양한 놀잇감과 활동공간 및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놀이의 장을 마련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16. 5. 4 인출).

27)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2016년 5월 4일 인출)

(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40000/d1_600067/d1_600070.jsp)

연도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2-26>과 같다. 장난감대여와 도서대여 및 실내놀이실 이용 중에서 장난감대여가 가장 활발한 이용을 보이고 있다. 장난감 대여는 2011년 약64만건을 약 38만명이 이용하였고, 2014년에는 약 143만건을 약 132만명이 이용하여 3년 사이에 건수는 2.2배, 이용자는 3.5배가량이 증가하였다. 도서대여는 약 35만건에서 45만건 가량의 이용을 보이고 있고, 실내놀이실의 경우 프로그램 수(약 1만건 내외)나 이용자수(약 40~60만명)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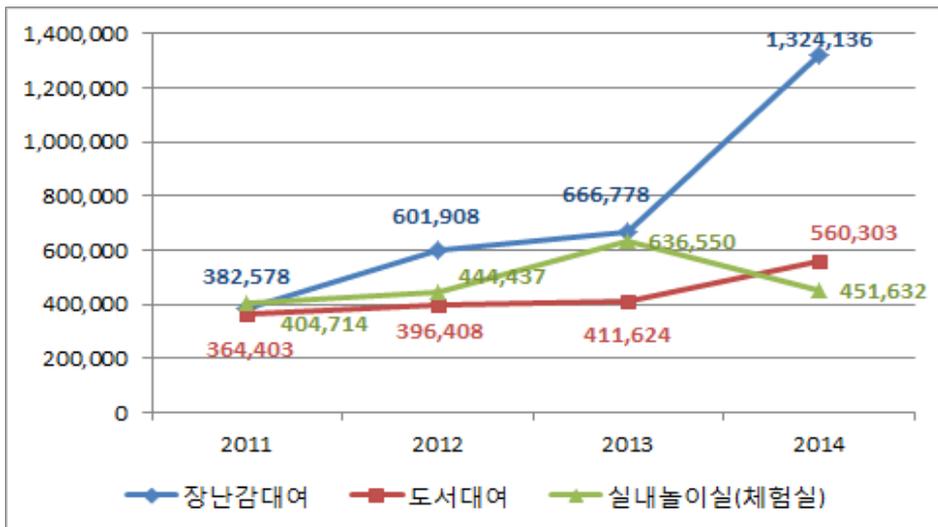
<표 III-2-26>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사업 연도별 이용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실내놀이실(체험실)	
	대여 건수	이용자 수	대여 건수	이용자 수	프로그램	이용자 수
2011년	637,163	382,578	377,548	364,403	9,370	404,714
2012년	789,373	601,908	454,582	396,408	7,272	444,437
2013년	1,115,100	666,778	361,055	411,624	15,058	636,550
2014년	1,429,705	1,324,136	358,229	560,303	12,543	451,632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2016년 5월 4일 인출)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7/d1_600070.jsp)



단위: 명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2016년 5월 4일 인출)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7/d1_600070.jsp) 그림 재구성

[그림 III-2-14]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대여사업 연도별 이용자 수

3. 소결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일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초와 정책 내용의 검토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정부의 정책과 구조적인 제도의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일에 대한 과정적인 질을 보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양육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견지되어야 한다. 양육자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정보의 제공만이 아닌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양육수당,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나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원정책들의 목적이 가정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종합적 역량의 강화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 내 양육 내실화는 제도적 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을 통한 가정의 양육 전반에서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둘째, 양육지원 정책 내용의 살펴보는 과정에서 가정 내 양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를 명료화할 수 있었다. 현재 전반적인 양육지원정책들은 양육수당과 교육보육비용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정책의 이용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아 기관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것들이 주류를 이룸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 이용 유무를 중심으로 가정 내 양육이라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한정함이 제공 중인 정책의 개선안을 도출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으로 가정 내 양육을 기관 미이용 가정으로 한정하기보다 취학 전 영유아를 둔 가정으로 크게 보고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수요자인 영유아기 부모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셋째, 양육지원 정책 내용의 검토를 통해 현재의 정책과 제도들이 수요자의 의견조사를 토대로 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상당히 다면적으로 추진 중임을 알 수 있다. 육아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들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 이용자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의 지원정책과 제도는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준비되고 있으나 그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정책의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책 실무자의 관점에서 구체화함을 통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내실화가 가능해지리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양육지원 정책의 개선을 통해 정책의 대상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을 더욱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양육수당의 지급 확대에 따라 영아의 기관이용율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정책의 변화는 부모의 양육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르는 추수적 접근을 벗어나 영유아의 발달을 더욱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양육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며, 정책의 방향이 부모의 양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추동적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대상으로 긍정적 양육지원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IV.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사례

본 장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의 우수한 정책 및 사업 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내의 경우 중앙정부 수준에서 추진 중인 제도를 제외하고, 지자체 수준에서 활발히 추진되거나, 특색을 살려 진행되고 있는 양육지원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국외사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양육지원이 이루어지는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국외 자료는 주로 온라인 검색을 활용하였고, 면담, 방문²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양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개선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이다.

1. 국내 사례

양육지원을 위한 국내 사례들로는 먼저 지자체 시 단위 사업으로 육아와 관련된 지역내 물적·인적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관리하여 양육자에게 제공하는 서울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과 세종시 보건소의 다양한 찾아가는 보건 및 양육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지자체 구단위 사업으로는 아이기르기 좋은 구(區)를 만들기 위해 양육지원을 지자체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킨 서초구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영아기 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해 가정 내 양육지원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가천대학교의 세 살 마을 사업을 살펴보고, 또 부모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현황을 조사하였다.

가. 서울특별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육지원 사업의 발굴이 활발하다. 이 중 정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부산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아이 보육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8) 연구자가 이스라엘을 방문(2016년 6월 중)하여 수집한 자료를 포함함.

1) 사업내용 및 현황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육아와 관련된 지역내 물적·인적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관리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사업이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3).

본 사업에는 전문보육코디네이터와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있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5). 전문보육코디네이터는 총괄 기획자로 보육반장이 수집한 지역 내 육아자원을 관리하고 보육반장으로부터 연계 받은 전문육아상담을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5). 이와 더불어 지역의 자조(부모)모임이나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고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관리한다(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2016).

보육전문요원 (전문보육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동네 보육반장 활동 총괄 기획 및 교육 ●지역사회 육아자원 관리 및 사업 홍보 ●전문 육아상담 제공 ●육아네트워크 형성 지원 ●우리동네 보육반장 업무 및 복무 관리
우리동네보육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자원 수집 및 관리 ●현장에서 수집한 육아관련 정보 제공 ●온오프라인을 통한 맞춤형 육아상담서비스 제공 ●현장 활동을 통한 공동육아문화 활성화 ●온라인 카페, SNS를 통한 정보제공

자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6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p.5 [그림 2] 인용함.

[그림 IV-1-1] 전문보육코디네이터 및 우리동네 보육반장 역할

보육반장은 동 단위의 작은 지역사회의 여러 육아관련 정보를 모으고 부모에게 현장에서 수집한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며 지역주민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지역 내 양육자의 여러 욕구를 해결해주는 돌봄 활동가 역할을 한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5).

보육반장은 지역사회 내의 물적자원(의료기관, 복지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과 인적자원(보육전문가, 치료사, 대체교사, 돌봄재능기부자 등)을 찾아 우리동네의 육아지원 자원을 지도를 그리듯 매핑(Mapping)하고 이를 윈스톱 서비스로서 육아지원이 필요한 부모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2016).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총괄과 예산지원을 하고,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반장 교육 총괄, 자료 제작, 사업지침 전달, 실적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며, 자치구에서는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교부하며 필요 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9).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반장을 채용하고 근무 관리하며,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 한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9).

보육반장이 수집한 지역 내 육아자원 및 정보를 서울시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내책자로 발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주: 보육반장이 수집한 '지역 내 육아자원 정보'를 정리한 안내 자료집
 자료: 1) 서울특별시·중랑구(2016). 중랑구는 우리아이 놀이터: 육아지원안내. 표지
 2) 서울특별시·중구(2015). 중구는 우리아이 놀이터: 육아지원안내. 표지
 3) 서울특별시·금천구(2013). 금천구는 우리아이 놀이터: 육아지원안내. pp.10-11

[그림 IV-1-2] 자치구별 육아지원 안내서 예시

전문보육코디네이터 자격 기준은 보육사업 안내에 제시된 '보육전문요원' 기준을 준용하며, 보육반장 신청 자격은 서울시 사업방침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관련 교사자격 소지자 등 몇 가지 우대사항을 고려하고 있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12). 보육반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며, 인성, 과제해결능력, 리더십, 전문성, 가점사항(관련 경력/자격 등), 선발제외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14). 보수는 시급 7,700원의 임금과 간식비(일 5,500원), 통신비(월 2만원), 출장비, 교육비(1일 1만원) 등의 제수당이 포함된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16). 보육반장은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서울

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17). 교육과정은 양성교육 30시간, 현장실습 4시간, 현장탐방 4시간, 전문교육 2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17).

서울시 전역에서 131명의 보육반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자치구에 보육반장이 있으나 자치구별로는 4~7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12). 향후 행정동 수와 영유아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1-1> 우리동네 보육반장 및 전문보육코디네이터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보육반장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아래 사항에 우대(사업 개시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자격 3급 이상, 유치원 정교사,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경험자 • 공동육아 및 부모 자조모임, 공동육아온라인 육아카페 운영자 등 활동 경력자 • 지역에 대한 야행심과 자기 재능을 지역사회 공헌하고자 하는 분
전문보육코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자 • 보육교사 2급 자격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자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6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pp.12-13. <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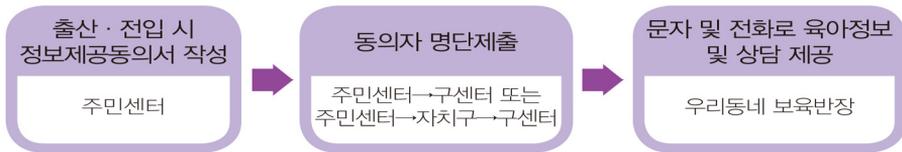
보육반장의 상담지원은 전화 상담과 현장 상담으로 두 가지 채널로 이루어진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24). 전화상담은 다산콜센터(서울시민원전화 120번)와 연계하여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9시~18시에 제공한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24). 현장상담은 지역사회 방문이나 자조모임 등에서 진행한다(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24).



자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6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p.24 [그림 5]를 재구성함.

[그림 IV-1-3] 보육반장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 절차

보육반장은 출산·전입가정 대상으로 육아정보를 제공한다. 출산·전입신고 시 부모에게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토록 하여, 동의자에 한해 보육반장이 문자 및 전화로 육아정보 및 상담을 제공한다(서울특별시 외, 2016:27).



자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6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p.27 [그림 6]을 재구성함.

[그림 IV-1-4] 보육반장 육아정보제공 절차

2) 시사점

출산·전입신고와 연동하여 보육반장의 육아지원서비스를 받을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는 것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의 우수 사례로 판단된다.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행정동/구 별로 지원되는 정책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영유아 부모가 자발적으로 찾지 않아도 지역 사정에 밝은 전문가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영유아 부모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책홍보 수단으로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육아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육반장을 통해 면대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 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이용 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이다.

이용자에게는 만족도가 높으나, 사업에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출생신고 시 신청으로 하는 방법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병·의원을 통한 홍보와 신청 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 어플리케이션 '엄마와'와 연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특화하여 확대한다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역량강화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세종시 보건소 사업

보건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 최근 인구 증가가 현격하고 사업이 활성화되어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의 사

례를 살펴보았다. 세종자치시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그 금액이 다른 곳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세종시는 2016년 제 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시는 그 수상 이유로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책과 더불어 출산장려금, 출산모 전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10일간 파견하는 사업이다(뉴스 1, 2016. 7. 11). 이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1) 사업내용 및 현황

가) 출산장려정책사업

세종시 보건소의 출산장려정책사업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사업명	사업 내용
일반	임신부 한인음식점 지정	임신부가 지정식당 이용시 음식값의 10%할인
	임신부 개인택시 콜 요금 면제	임신부가 개인택시 호출시 콜 요금(1,000원) 면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지정	관공서 및 주요기관 등에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약 계층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중 본인부담 의료비 120만원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출산 시 산모 1인당 1백만원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2016a). 저출산대책담당사업.

http://www.sejong.go.kr/health/sub03_04.do 자료를 표로 재구성함.

[그림 IV-1-5] 세종시 보건소 출산장려정책사업

[그림 IV-1-5]와 같이 세종시에서는 지역 식당들과 협력하여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와 가족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임신부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택시 콜 요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장애인 산모에게 출산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나) 임신부 지원사업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로 튼튼한 2세 시민 육성 및 저출산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신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임신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유축기 대여뿐 아니라 월 1~2회 체조, 라마즈호흡법, 분만기전, 태교, 모유수유 등을 교육하는 ‘출산준비교실’과 ‘엄마랑 아가랑 한마음 운동교실’을 열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또한 둘째 자녀부터는 임신부 기형아 검사비용 및 초음파 검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세종시 보건소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다만 세종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은 부모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2주(10일)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라) 아기마사지교실

세종시 보건소는 아이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교감을 극대화시키고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매달 아기마사지교실을 실시한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마) 예방접종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예방접종과 함께 책읽기 사업은 예방접종 기회를 통해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유아 시기부터 책과 함께 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언어발달과 정서 발달을 도와주고 평생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부모는 책 2권, 가이드북, 부모길잡이책, 손수건이 포함된 북스타트 꾸러미를 지급받으며 책 읽어주는 방법 등의 교육이 병행 제공된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바)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가정의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아와 60개월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쉬운 임신부와 영유아를 위한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이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사업 내용은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등으로 영양을 평가하여 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 형태로 진행된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임신부 스스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도록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가 함유된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사) 방문건강관리사업

세종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문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함으로써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 2, 3군으로 구별하여 방문진료, 물리치료, 건강상담, 보건교육과 같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a). 특히 임신부와 영유아 가구의 경우 모자보건담당과 연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2016b).

2) 시사점

지자체의 사업들이 취약계층이나 특정한 조건을 갖춘 주민만을 대상으로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실제 활용이 가능한 정책은 그리 많지 않기도 하다. 그러나 세종시 보건소 사업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사업, 임신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예방접종과 함께 책임기 사업과 같이 모든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은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

체는 제한적일 수 있다. 한편, 보건소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부모들이 병원과 함께 자주 방문하는 지역의 거점이다. 이와 같은 영유아 부모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거점에서 지자체가 사업을 실시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서울 서초구 가정 내 양육지원 특화 사업

1) 사업내용 및 현황

자방자치단체에서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이를 반영한 지자체 특색 사업의 발굴이 활발하다. 이 중 서초구는 ‘보육심계명’이라는 10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서초구, 2016).

[그림 IV-1-6]의 10대 추진과제 중에서 서초구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다음 표에 굵게 표시한 사업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육수요 항목 Up, 아이가 영벽 보육인프라 조성	
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수급율을 향상하겠습니다.
②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③	‘(가칭)서초해피맘’ 공동육아사업 활성화로 보육수요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④	권역별 육아지원센터 운영으로 촘촘한 보육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⑤	학교형어린이집 및 서초보육타워 건립으로 보육정책을 선도하겠습니다.
엄마 힘처럼 따뜻한 보육환경 조성	
⑥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행복지수 Up시키겠습니다(가칭: 보행 프로젝트).
⑦	시간제보육·아이참사랑부모교육·손주돌보미로 양육부담 Down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육네트워크 활성화	
⑧	보육정보 공유를 위한 보육포털(‘보육세상카페’)을 운영하겠습니다.
⑨	지역사회가 육아문제 해결에 공동 참여하는 육아옹원 패스포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정책 홍보 및 평가	
⑩	보육정책을 공론하고 홍보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보육로드’)을 운영하겠습니다.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내용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임.
 자료: 서초구(2016). 서초형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6년 6월 14일). ‘서초구, 보육애 빠지다’ pp.5-6. 내용 재구성

[그림 IV-1-6] 서초구 보육정책 10대 추진과제(보육 심계명)

가) ‘서초해피맘’ 공동육아사업 활성화

서초구는 보육수요 해결을 위해 기존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양육품앗이 사업 명칭을 통일·확대 운영하고, 구 차원의 공동육아사업 브랜드화를 추진한다(서초구, 2016:5). 보육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보육 가능한 공동육아 모임을 조성한다(서초구, 2016:5). 이를 위해 서초구는 공모사업을 신청·접수·심사후 결정의 제반과정을 지원하고, 공동육아 장소 제공 및 인센티브 등 공동육아 활성화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한다(서초구, 2016:5). 영유아부모 등 수요자는 공동육아모임을 결성하고 그 활동을 진행한다(서초구, 2016:5).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동육아활동 컨설팅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육아교실을 운영한다(서초구, 2016:5).

나) 시·아·손 프로젝트: 시간제보육·아이참사랑부모교육·손주돌보미

서초구는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모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현 2개소에서 권역별로 확대한다(서초구, 2016:6). 아이참 사랑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기업 후원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서초구, 2016:6).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보미(일반, 손주돌보미) 지원하고, 조모 위주의 손주돌보미를 조부 대상까지 교육·양성 범위를 확대하며, 일반 아이돌보미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서초구, 2016:6).

〈표 IV-1-2〉 서초구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서초구 1년이상 거주 두자녀 이상 양육가정(단, 막내가 15개월 이하)
지원내용	월40시간 아이돌보미 파견(이용료 시간당 6,000원 전액 구비지원)
돌보미 역할	영아 돌봄활동,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안전·신변보호(가사활동제외)
부담비용	아이돌보미 교통비 1회 3,000원 이용가정 부담

자료: 서초구청 홈페이지. 영유아복지 서초구 특화사업 (검색일: 2016년 5월 31일)

<http://www.seocho.go.kr/site/seocho/04/10402010302002015070605.jsp>

특히, 서초구는 둘째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시간당 이용료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다(월 40시간 지원)(서초구청 홈페이지, 2016)²⁹⁾.

이용가정은 아이돌보미의 교통비만 부담하면 되고, 둘째자녀가 15개월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서초구청 홈페이지, 2016)³⁰⁾.

29) 서초구청 홈페이지 영유아복지 서초구 특화사업 (검색일: 2016년 5월 31일)

<http://www.seocho.go.kr/site/seocho/04/10402010302002015070605.jsp>

다) 보육포털 ‘보육세상카페’ 운영

서초구는 기존의 ‘서초맘’, ‘양재·내곡맘’ 등 지역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활동 참여자를 서초구의 보육정책 참여자로 유인하는 온라인 공간으로서 ‘보육세상카페’를 2017년에 운영할 예정이다(서초구, 2016:6). 서초구는 지자체 차원의 보육포털 운영을 통해 보육정보를 제공·안내할 예정이다(서초구, 2016:6).

라) 육아응원 패스포트 사업

육아응원 패스포트는 2017년도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육아문제 해결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만5세 이하의 영유아자녀를 둔 가정, 임산부를 대상으로 육아응원 패스포트를 발급하여 기업·가게 협력을 통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응원 용품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초구, 2016:6).

마) 보육정책 관리시스템 ‘보육로드’ 운영

서초구는 보육정책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기 위해 ‘한 눈에 보이는 보육종합안내지’를 제작·배부한다(서초구, 2016:6). 또한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여 어린이집 이용 부모 및 신규 전입자, 출생신고자 등 관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정보를 제공한다(서초구, 2016:6). 보육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환류를 위해 ‘보육공감 톡톡’을 개최하고 정기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서초구, 2016:6). 이러한 사업들을 ‘보육로드’로 명명하고 보육정책 관리시스템으로서 운영하고자 한다(서초구, 2016:6).

2) 시사점

서초구는 젊은 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가 부족하여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이 부족한 지역이다. 서초구 다면적인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확장과 더불어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괄하는 구 단위의 보육정책 ‘보육십계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양육환경이 개선되고 함께 기른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육아응원 패스포트’는 지역사회에서 양육을 하는 부모를 지지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한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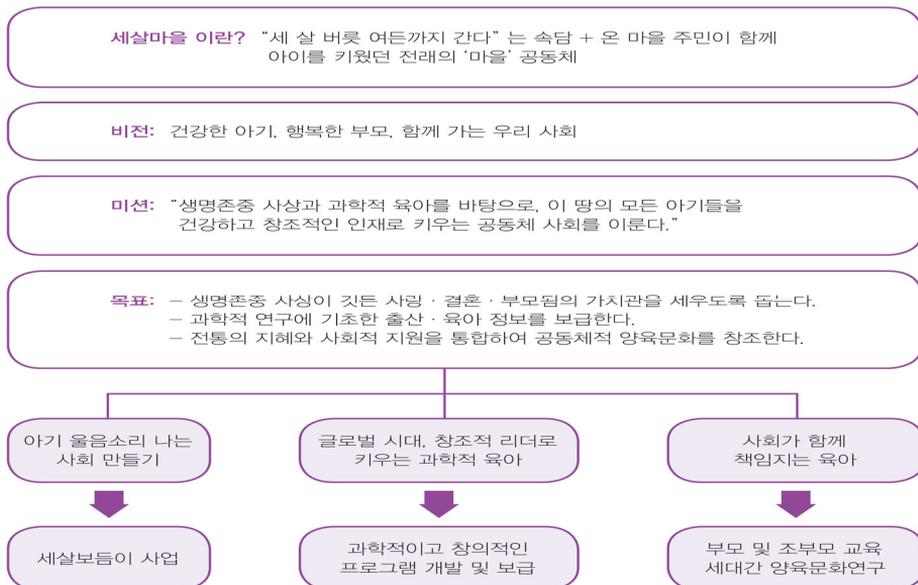
30) 서초구청 홈페이지 영유아복지 서초구 특화사업 (검색일: 2016년 5월 31일)
<http://www.seocho.go.kr/site/seocho/04/10402010302002015070605.jsp>

지자체 차원의 보육포털 ‘보육세상카페’ 운영을 통해 양육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장(場)을 마련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라. 가천대학교 ‘세살마을’ 사업

1) 사업내용 및 현황

2009년 ‘세살마을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시작한 세살마을은 온 마을이 아기를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낸다는 의미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세살마을 부모교육 리플릿). 세살마을이란 0~3세 시기 양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돌봄을 엄마혼자가 아닌 아빠, 조부모 나아가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생명, 마음, 배움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다(세살마을 부모교육 리플릿). 건강한 아기, 행복한 부모, 함께하는 우리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기울음소리가 나는 사회, 과학적 육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의 실현을 위해 임신부 및 조부모 교육, 세살보듬이 사업,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세대간 양육문화 연구를 추진해오고 있다(세살마을 부모교육 리플릿).



출처: 세살마을 홈페이지(<https://www.sesalmaul.com/intro/organization.asp>) (2016. 8.29 인출) 재구성

[그림 IV-1-7] 세살마을 소개: 비전과 미션

가) 세살마을 부모교육³¹⁾

(1) 임신부 교육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임신부의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임신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적 안녕을 도모하며, 태아와 부모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한다. 출산 전까지 산모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말에 총 4회(1회당 90분) 강의로 운영하며, 서울 및 경기지역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2) 조부모 교육

조부모가 손자녀의 자라는 과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조부모를 위한 구체적인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갈등해결방법을 익히고 조부모로서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손자녀 양육의 자신감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5세 미만의 영유아기 손자녀가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총 3회(1회당 90분) 강의로 이루어지며 서울 경기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나) 세살보듬이 사업³²⁾

세살보듬이 사업은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보듬이와 놀이보듬이로 운영된다. 12개월 미만의 영아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인 가정보듬이와 18개월-24개월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놀이 프로그램인 놀이보듬이로 구분된다.

(1) 가정보듬이

백일가정을 방문하는 탄생 축하부터 6개월, 12개월 영아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이다. 세살마을의 양육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1:1 양육코칭, 놀이활동 지도 및 영아의 기초발달 검사와 상담을 지원한다. 세살마을의 임신부 부모교육을 수료한 가정을 대상으로 탄생축하, 6개월 12개월에 총 3회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양육전문가의 1:1 코칭과 부모지원, 상호작용 방법 안내, 월령별 특징을 고려한 양육 지침서와 놀이활동집을 제공한다. 가정보듬이는 12개월 미

31)세살마을 안내 리플릿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고 세살마을 담당자의 내용검토를 받음.

32)상동

만의 영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반가정 방문코칭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우선으로 지원되는 국가사업의 경우와 차별화되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가정 위주의 접근인 해외의 방문 코칭사례와도 차이를 보인다.

(2) 놀이보듬이

놀이보듬이 프로그램은 걸음마기 영아와 부모를 위해 월령에 적합한 놀이 프로그램과 양육코칭, 육아상담을 진행한다. 가정보듬이 사업에 참여하였던 가정 중 18개월~24개월 영아를 둔 대상으로 1회 90분 주말에 운영하며, 영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활동을 부모-영아 집단놀이 형태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다) 성과 및 개선요구³³⁾

세살마을 사업은 ①양육 자신감 및 효능감 증진, ②정서적 안정감 제공, ③후속출산 의지 진작, ④가족 참여로 인한 가족 관계향상 및 긍정적인 양육문화 형성, ⑤발달문제 조기 발견, ⑥무분별한 육아정보 속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세살마을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다보니 관심이 많거나 웹 접근성이 높은 어머니들이 주로 신청하여 신청자 대부분이 일반가정으로 좀 더 다양한 어머니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 임신기부터 부부참여를 유도하고 3세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 올바른 부모역할을 정립하고,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양육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조부모교육을 통한 양육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긍정적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2) 시사점

세살마을은 영아기 발달에서 상호작용자, 가정 양육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영아기 양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계(가천대학교),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업(삼성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이 더불어 협업하는 사례이다. 특히 1회성의 지원이 아닌 사업에 참여한 경우 그 다음 기회로 연결되어 0~3세까지의 발달 과정 전반에 주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이 특징이다. 또한 영아기 부모들의 경우 외출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방문사업으로 추진되는 점과 발달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 방법을 소개하고 코칭 하는 등 세살마을 사업은 영아와 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33) 세살마을 사업 담당연구진 강수경 교수(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와의 심층면담 내용을 정리함.

최적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지원 중인 정책의 접근성 향상과 효과 증진 방안을 모색함에 방법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에 학계가 참여하고, 부모에의 홍보와 교육 장소 제공에는 지자체가 조력하고, 사업의 운용을 위한 기금마련에는 기업체가 후원하는 이러한 세살마을 사업 모형을 지자체 수준에서 발전시켜 확대 적용해간다면 양육자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양육 환경 내실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부모교육 지자체 조례

1) 제정 내용 및 현황

가정 내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에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사례가 생겨났다(연합뉴스, 2016.8.17³⁴⁾; 중앙일보, 2016.8.23.³⁵⁾).

〈표 IV-1-3〉 부모교육 지자체 조례

조례명	제정·시행	법령번호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16. 1. 4	경기도조례 제5129호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2016. 4. 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52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2016. 6. 10	대전광역시조례 제4739호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2016. 7. 14	경상남도조례 제4175호

자료: 1) 연합뉴스(2016.8.17); 중앙일보(2016.8.23)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6. 9. 23)

경기도는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2016년 1월 4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경기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모학습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부모학습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해 ‘부모학습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

34) 연합뉴스 2016년 8월 17일자, (검색일: 2016. 9.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618846>

35) 중앙일보 2016년 8월 23일자, (검색일: 2016. 9.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638419>

행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조례와 유사사항이 유사하나 보다 구체성 있는 조항으로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부모학습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하였고, 부모학습 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위탁 운영, 재정지원, 교류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6년 6월 교육청조례를 제정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담부서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규정하여 부모역할, 자녀의 성장발달 촉진 환경 조성,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법을 습득하는 모든 활동으로 부모교육을 정의하고, 도지사는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다른 지역과 달리 유일하게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일선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의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나 기간 등에 대한 명시가 없으나 대전시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6년 10월 현재 지자체의 부모교육 조례내용을 비교 정리하면 <표 IV-1-4>와 같다.

<표 IV-1-4> 부모교육 지자체 조례 비교

구분	경기도 (시행 16.1.4)	수원시 (시행 16.4.8)	대전시교육청 (시행 16.6.10)	경상남도 (시행 16.7.14)
조례명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용어	부모학습	부모학습	학부모교육	부모교육
정의	미래세대인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체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부모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	-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 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모든 활동
적용대상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모든 도민	가정유형, 혼인여부, 자녀유무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시민	-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

(표 IV-1-4 계속)

구분	경기도 (시행 16.1.4)	수원시 (시행 16.4.8)	대전시교육청 (시행 16.6.10)	경상남도 (시행 16.7.14)
책무	(도지사)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 제공, 기·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 구성 노력 (부모)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	(시장)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 제공 (부모)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도록 노력	(교육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체계적 정책 수립·시행	(도지사) 유효하고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 제공, 시·군, 학교 및 도민 간 상호협력체계 구성 노력 (부모)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자제력·올바른 가치 형성에 기여
계획 수립	부모학습 종합계획	부모학습 종합계획	학부모교육계획 (매년)	부모교육 종합계획
내용/사업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수요자를 찾아가는 학 -부모교육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각 급 학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회 지원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에 관한 교육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추진 체계	(주무) 여성가족과 (자문) 부모학습지원위원회	(주무) 평생학습팀 (자문) 부모학습협의회, 부모학습사업 위탁 운영기능	(주무) 교육정책과 (전담 부서) 학부모지원센터	(주무) 여성가족정책관 (자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자료: 경기도조례 제5129호;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524호; 대전광역시조례 제4739호; 경상남도조례 제4175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6. 9. 23)

2) 시사점

학계 및 전문가 사이에서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부모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오랜 전부터 주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학습/교육의 대상인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있어왔다. 가정 내 아동학대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이번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법제화 노력은 정책입안자와 행정가에게도 부모교육이 민간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적차원의 노력으로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책무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났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부모교육’이 통상 통용되는 용어이나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부모학습, 가족교육³⁶⁾,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용어가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의 적용대상으로 경기도, 수원, 경남지역은 자녀유무 등에 관계없이 원하는 모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부모교육을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대전시는 적용대상에 대한 명시된 조항은 없으나 교육청조례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학부모에 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예비부모, 조부모 등 부모역할과 기술 및 태도에 대해 누구라도 관심있으면 적합하고 필요도 있는 부모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관점은 아동발달적으로 매우 장려할만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에서는 조례에 대한 책무에 도지사/시장 뿐만 아니라 부모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과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명시하여 가정교육의 주체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가에게만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부모역할을 법조항 상에 명시함으로써 부모의 가정교육의 책임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아직은 몇 개 지역에서만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정책영역으로서 부모교육을 실행하고 지원하며, 활성화 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여성가족부(2016.3.29.)의 ‘부모교육활성화방안’이 배포되었으나 법제화를 통한 정책 실행도 대 마련도 필요하다.

3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의 추진계획 1-1(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참조

2. 국외 사례

양육지원을 위한 국외 사례로는 먼저 독일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상담,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체인 독일의 가족센터, 아동과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으로 특화된 독일 청소년청(Jugendamt), 조산 지원 또는 방문 간호사 제도와 유사한 헤바메(Hebamme) 등 영유아 가정의 양육지원 사업을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호주의 원스톱(one-stop) 종합 복지 지원 센터인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향후 양육지원의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스라엘 어린이 도시인 홀론(Holon)시의 팁-태프 센터(Tip-Taf center)는 영아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또한 핀란드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 켈라(kela)에서 제공하는 엄마상자(Maternity package; Äitiyspakkaus)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국가의 응원이 전해지며 양육의 첫출발을 지원한다. 이러한 국외 사례들의 사업목적,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가정양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가. 독일 가족센터(Family center; Familienzentrum)³⁷⁾

독일 가족센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기존의 돌봄 기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종합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비슷하지만, 독일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성,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1) 사업목적

독일에서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와 가족의 다양한 필요와 지원서비스를 발전시키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라고 보았다(서수경, 2011:193). 이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아동과 가족에 친화적인 주정부부를 목표로 기존의 어린이집을 가족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로 확대·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2012년까지 총 3,000개의

37) 서수경(2011), 서수경(2015), 유해미·양미선 외(2012), 유해미·박창현 외(2015)가 보고한 독일 가족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함.

가족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서수경, 2011:193).

이러한 주정부의 노력 하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가족센터는 “영유아와 가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교육과 경험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양육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발달상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이에 대한 시기적절한 개입과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돌봄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아이돌보미 연결을 지원하는 등 복합적인 돌봄지원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서수경, 2011:193).

2) 사업내용

‘독일은 영유아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거주지와 가깝고,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인식하고,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은 지역 내 촘촘한 인프라 구축에서 비롯됨을 현장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서수경, 2011:192). 이러한 배경에서 가족센터는 지역 사회 안에서 돌봄기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여 영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육아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Kita)은 영유아와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적절한 공간으로서(서수경, 2011:193) 어린이집의 기능을 확장하여 다양한 운영모델로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가족센터가 설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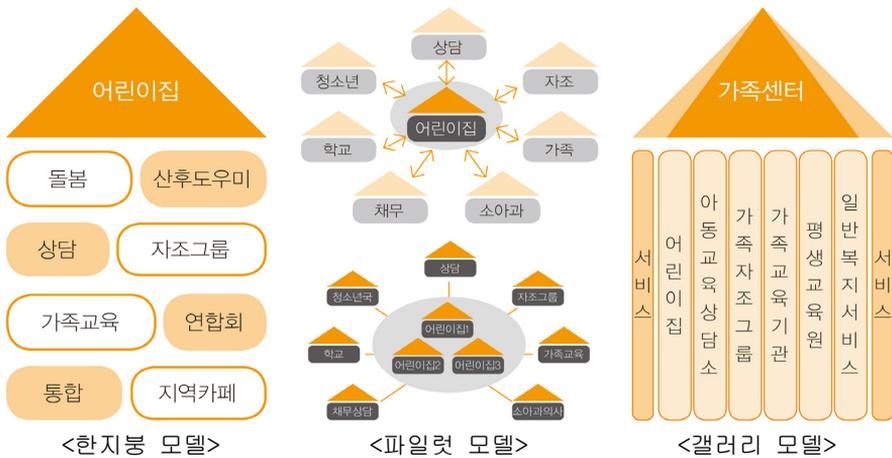
독일 가족센터의 소관 부처는 주별로 다른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에서는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인프라로서 가족센터를 적극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 지역의 가족센터는 2009년에 1,750개에 이르고, 2013년에는 2,950개의 가족센터를 설치하여(서수경, 2015:3) 지역사회 내 상당수의 육아지원인프라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아동교육법(Kinderbildungsgesetz) 제16조 제1항에서는 가족센터의 수행역할로 ① 자녀의 양육에 관해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② 청소년청과의 협의 하에 보육 인력 소개, 자문, 자격인증업무 지원, ③ 통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시간 외에도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를 직접 보육하거나 적합한 기관을 주선하는 활동, ④ 아동과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지원 활동 등을 필수적 활동사항으로 보았다(유해미·박창현 외, 2015:35)³⁸⁾.

38)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아동교육법의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mfkjks.nrw/revision-des-kinderbildungsgesetzes/>)(검색일: 2016. 8. 22)

가족센터의 대표적인 운영모델은 ‘한지붕 모델’, ‘파일럿 모델’, ‘갤러리 모델’이다(서수경, 2015). 한지붕 모델은 어린이집 내에서 돌봄(Betreuung), 산후도우미(Familienhebamme), 상담(Beratung), 자조그룹(Selbsthilfeorganisationen), 가족교육(Familienbildung), 통합(Integration), 지역카페(Stadtteilcafé) 등 모든 가족지원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수경, 2015:5; 유해미·양미선 외, 2012:47),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책임자가 총괄하고, 사안에 따라 교직원들과 함께 수행한다(유해미·양미선 외, 2012:47). 이와 같은 한지붕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돌봄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 외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내에 인적자원과 역량이 풍부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처: 서수경(2015).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 독일의 가족센터: 새로운 육아지원 모델인 독일의 Family Center 프로젝트. 젠더 브리프 2015년 12월호, p.5. 그림 재구성

[그림 IV-2-1] 독일 가족센터 운영모델

파일럿 모델은 어린이집이 거점센터로서 학교, 청소년청, 상담기관, 지역 소아과 등의 여러 유관기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모델이다(서수경, 2015:5). 어린이집은 아동과 가족이 필요할만한 학교, 상담, 가족자조그룹, 소아과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유관기관들은 어린이집과 기능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으며, 인증된 가족센터의 대다수가 파일럿 모델을 취하고 있다(서수경, 2015:5). 이러한 파일럿 모델은 어린이집이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돌봄기관을 활용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센터로서 가장 수월하게 시도할 수 있는 형태로 사료된다.

갤러리 모델은 한지붕 모델과 파일럿 모델의 혼합형태로서 가족센터 내에서 각 기관이 통합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서수경, 2015:5). 한 장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인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외부전문가나 관련기관 담당자가 서비스의 제안, 기획, 조정과정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어린이집 내에서 시행된다(서수경, 2015:5).

3) 시사점

독일의 가족센터 사례는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돌봄기능을 부여하여 교육·보육 기관의 기능 확장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모형은 한지붕 모델, 파일럿 모델, 갤러리 모델 등 다양하게 포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센터의 기능은 우리나라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주 유사하다. 주로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상담,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담당한다. 보통 돌봄기능을 가진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은 실수요자의 거주지에서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신뢰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이용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독일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옛 서독 인구의 1/3이 살았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자, 화학, 정유 등의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외교부, 2011³⁹⁾). 이 지역은 면적과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상도 지역과 비슷하다⁴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2013년 2,950여개의 가족센터를 갖추어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두 합하여도 84개에 그치고 있다⁴¹⁾. 즉, 우리나라는 돌봄 및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나, 84개의 센터가 경상도 지역 전체의 수요를 충분히 포용하기에는 접근성의 한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39) 외교부(2011). 독일 개황,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5660&cid=43856&categoryId=43857> 2016. 8. 22 검색)

40)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면적은 3만 4,083km², 인구는 1789만명임(외교부, 2011). 경상도 지역(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의 인구나 면적을 네이버검색을 통해 인출된 수를 합산한 결과, 인구는 1259만명이고, 면적은 3만 2,270km²임(출처: www.naver.com 2016. 8. 22일자 네이버 검색).

41) “여성가족부(2016b).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족정책과 내부자료” 및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년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를 참고함.

둔 가정에서는 외출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와 물리적 거리가 멀다면 육아지원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이용이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들이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가족센터의 다양한 운영 모델은 어린이집(유치원)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연결하고 기능적 협력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기존의 교육·보육기관에 돌봄기능을 부여하여 기능적 확대를 한 점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설립의 초기자본을 절감하는 대신, 어린이집 본연의 업무외의 육아지원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보강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집 가까운 곳에 실수요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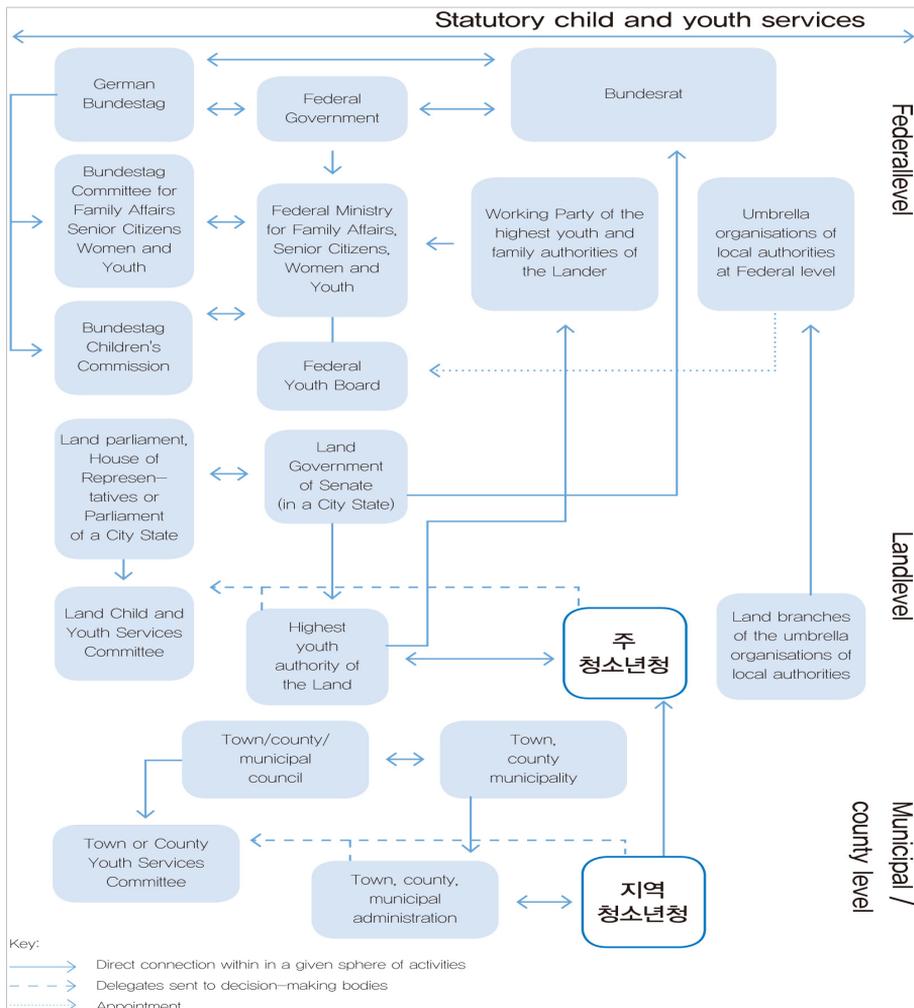
또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가족센터는 저소득 지역에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가족센터의 설립목적은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을 보다 조기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우리나라에서는 무상보육·교육의 실행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차원으로 다루지고 있지만, 독일의 사례처럼 돌봄기능을 갖춘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센터를 추가 설립할 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견지해야할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나. 독일 청소년청(Jugendamt)

독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청소년청(Jugendamt)이 있다. 이 청소년청은 간혹 아동-청소년청(Kinder- Jugendamt)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독일의 청소년(Jugend)이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아동(Kinder)을 따로 밝히지 않고 청소년청(Jugendamt)이라고만 명칭을 사용해도 아동과 청소년을 모두 포괄한다. 청소년청은 부모와 법적 보호자에게 예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청은 청소년복지위원회(youth welfare committee, JHA)와 행정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지원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청소년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동과 청소년 지원이라 함은 학교교육 외의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 보육, 사회화 및 생활 전반에 걸친 매우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른다(정수정·류방란, 2012). 독일은 각 주(Länder)마다 자치권

이 강해 연방 전체가 일률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가 많지 않으나,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크고 작은 청소년청을 각자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청은 모두 독립되어 있어서 위계적으로 중앙조직이나 상부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예산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양영임, 2016; Dreber, 2009).



출처: Dreber(2009).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Child and Youth Services in Germany, 슬라이드33 "Structure of child and youth services in Germany" 그림을 발췌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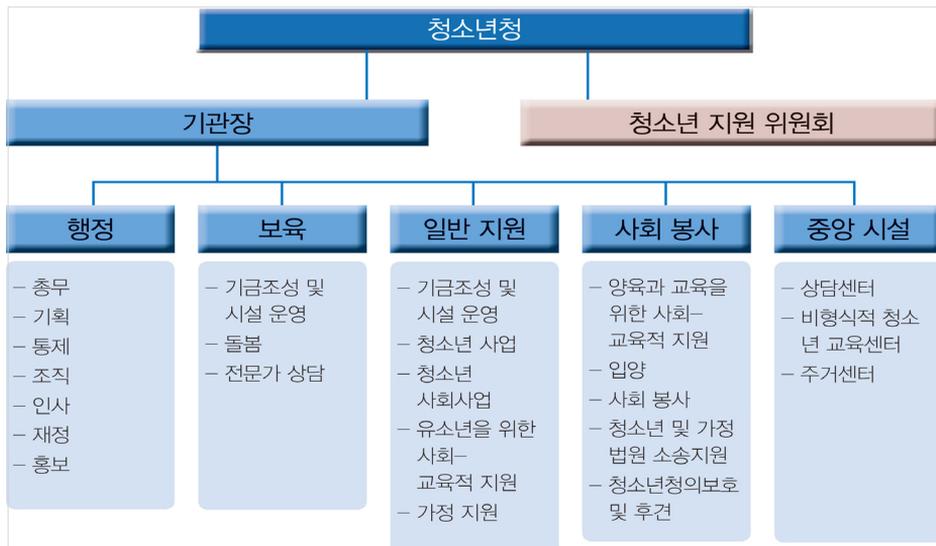
[그림 IV-2-2]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체계

1) 사업목적

독일 청소년청의 행정사무실은 아동청소년복지법(SGB VIII)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지역의 청소년복지위원회(youth welfare committee, JHA)에서 아동 및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 결정한 유소년과 위기 가정에 대한 상담, 아동 청소년 지원의 발달에 대한 제안, 청소년 지원 계획, 청소년 지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및 기금 조성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Dreber, 2009; 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2) 사업내용

독일의 청소년청은 청소년복지위원회 외에 행정사무실에서 행정, 보육, 일반 지원, 사회 봉사, 중앙 시설과 같은 업무를 맡고 있다.



출처: Dreber(2009).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Child and Youth Services in Germany. 슬라이드35 그림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youth office at the local level". 발췌 번역.재구성

[그림 IV-2-3] 지역 청소년청의 행정 체계

가) 초기 지원

가정을 꾸린 초기, 청소년청은 젊은 부부에게 청소년청의 도움과 상담에 대해 알린다. 또한 청소년청은 독일의 조산사인 헤바메와 소아과 간호사들과 네트

워크를 형성하여 관련된 필요가 있는 가정에게 이들을 연결해준다. 이처럼 가족이 구성될 때부터 시작되는 청소년청의 지원은 아동 복지의 초기단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나) 보육

청소년청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상담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를 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는 지역의 청소년청을 통해 이용 가능한 시설을 찾을 수 있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다) 놀이터

청소년청은 지역의 놀이터를 기획하는 데에도 관여를 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이처럼 청소년청이 놀이터를 기획할 때는,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접 놀이터를 기획하는 단계에 참여하기도 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라) 청소년 관련

청소년청은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 관련 서비스로 청소년 여가생활, 문화활동, 교외 교육활동을 지원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또한 학교-직장 연계 사업, 술과 마약,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마) 양육지원, 입양 배정

보다 지속적이고 면밀한 도움이 필요한 일부 부모의 경우 장기적이고 강화된 도움을 제공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양 가정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청소년청은 생부모와 같이 살 수 없는 아동을 친척 양부모, 비혈연 양부모, 혹은 해외 입양을 주선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바) 가족 상담, 별거 및 이혼 상담

이혼 위기에 처한 가정에 청소년청은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정법원의 절

차에도 개입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상대 부모의 양육비 비원을 받지 못할 때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사) 보호자, 관리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더 이상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울 때는 법적 보호자가 따로 지정이 되는데, 마땅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청소년청을 아동의 법적보호자로 지정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또한 미혼모의 경우에도 청소년청이 미혼모의 동의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지원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아) 아동 보호

아동이 처한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학대의 위험에 처한 경우 청소년청은 관련 가정과 연락하며 이를 주시하고, 학교, 의사, 경찰 및 어린이집과 긴밀히 협조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모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기까지 청소년청이 아동을 직접 보호하기도 하고, 부모가 장기간 준비되지 않아 아동의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가정법원이 아동이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3) 시사점

독일의 청소년청(Jugendamt)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으로는 헤바메를 소개해주고, 보육기관을 신청하고, 아동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 수당, 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마다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유연하게 협의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는 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위기 아동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도움 요청이 없이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직접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가정법원의 소송 과정에 개입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역할을 부여받기도 하는 등 아동과 관련된 지역의 종합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청은 한편으로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의 기능이 지나치게 부각

되어 부모들로 하여금 자칫하면 아이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당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양영임, 2016).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중앙부처별로 각기 다른 지역 기관 및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부모가 필요한 정책이나 정보를 홍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독일의 청소년청과 같은 지역 조직이 통합되면 부모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부 정책을 안내하고 지원을 실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서 청소년청의 부정적인 인식에 관해 언급한 바와 같이 마치 위기가정만이 이를 이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을 펼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계층의 가정과 아동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독일 조산사 헤바메(Hebamme)⁴²⁾

조산사라고 하면 임신부의 출산의 돕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많은 지역의 조산사인 헤바메는 단지 출산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임신부와 영아를 돕는 역할을 한다(하현용, 2015.2.17).

1) 사업목적

헤바메는 임신 전·후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며 특히 출산의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임신부의 입장에서 임신부를 대신해 의료진에게 요구한다(하현용, 2015.2.17; Devins, 2010.10.5). 출산 전부터 모든 임신부가 헤바메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출산의 경험이 없는 초산인 경우 대체로 헤바메를 개인적으로 구하게 된다. 그러나 출산 전에 개인적으로 헤바메를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출산 시 병원에서 지정된 헤바메가 출산을 돕는다. 또한 각 병원마다 사전에 등록된 헤바메가 있어서 출산 전에 개인적으로 헤바메를 구할 때는 출산하려고 하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헤바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양영임, 2016). 헤바메는 산모와 신생아를 검진하도록 허가받은 의료 전문 인력으로 독일에서는 출산의 책임이 의사가 아닌 이 헤바메에게 있다(How to Germany, 2016).

42) 2016년 8월 24일 양영임 박사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정리함.

2) 사업내용

현재 독일에는 58개의 헤바메 양성기관이 있으며 3년간 1,600시간의 이론 교육과 3,000시간의 실습교육을 통해 양성된다. 단,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2년에 과정을 마칠 수 있다(주혜, 2009. 9. 26.). 양성기관을 마치고 국가에서 치르는 헤바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시험은 구두시험, 지필시험 및 실습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최소 2년의 전문 실습이 요구된다.

헤바메의 역할은 먼저 임산부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적인 영양 등에 대한 조언을 비롯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관한 조언도 제공한다. 헤바메는 또한 라마즈 호흡법, 임산부를 위한 운동 등을 포함한 출산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한다(주혜, 2009. 9. 26.; Devins, 2010. 10. 5.).

둘째, 헤바메는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실시한다. 병원에 소속되어 일하는 헤바메도 있지만 대부분의 헤바메는 프리랜서로 일한다. 임산부가 이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헤바메를 찾는 경우에는 보통의 산전 산후의 정기검진은 헤바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헤바메는 가정에서 단독으로 일하거나, 조산소에서 집단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헤바메는 침을 놓거나 대체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Devins, 2010. 10. 5.).

셋째, 헤바메는 임산부가 출산 시 분만을 돕는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분만에 참여하며, 조산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가정에서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도 헤바메가 돕는다. 그러나 출산을 감독하는 헤바메는 보통 따로 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참여한다. 헤바메에게 지불되는 거의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의료보험을 통해 지원되기에 임산부가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 다만 분만에 참여하는 헤바메의 경우에는 출산이 예정된 시기에 분만을 돕기위해 대기하기 때문에 다른 임산부를 도울 수 없다. 이런 출산 대기하는데 드는 비용은 보험에서 지불하지 않는다(Devins, 2010. 10. 5.).

넷째, 헤바메는 또한 출산 후에 이루어지는 산후조리를 돕는다. 보험에서는 보통 산후 8주동안 26회의 헤바메 방문이나 전화 상담 비용을 기불한다. 헤바메는 출산 직후 10일에서 14일 동안은 매일 산모의 집을 방문하여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아이의 기저귀 기는 방법, 목욕시키는 방법, 모유수유법 등을 알려줄 뿐 아니라 이유식 만들기 등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된 상담도 한다. 시간이 지나며 헤바메는 점차 간격을 두고 가정을 방문해 산모를 돕는다. 산모가 아이에 적응이 되어가

면 헤바페는 산모의 몸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체조 교실 등을 제공하는데 보험으로 이런 과정을 최소 10시간 지원한다(주혜, 2009. 9. 26.; Devins, 2010. 10. 5.).

3) 시사점

한국직업사전(2016)에 의하면 조산사의 역할은 출산 전에는 초음파 검사기 등을 사용하여 임신부와 태아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분만 시에는 분만 기구를 준비하거나 분만의 진행에 따라 태아를 살피고, 산모의 회음부를 절개하는 등 분만을 관리하고 출산 직후 신생아의 기도 흡인물 제거 등 신생아를 돌보는 것과 아울러 산모의 혈압, 젖울혈 풀기와 산모의 교육 등 산후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조산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상, 산부인과의 전문 간호사와 같은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반면 헤바페는 출산과정을 지키는 산과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산모도 우미처럼 거동이 불편한 산모를 돕는 역할만도 아니고, 의료 전문가로 자리매김 하는 현대적 의미의 조산사의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다. 헤바페는 출산 전부터, 출산 과정, 그리고 산후 산모의 회복 과정과 신생아 돌봄에 이르기까지 출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조율하고 임신부의 건강을 살피며, 임신부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 운동을 제공하고, 출산 및 육아의 과정을 모두 코칭해주는 종합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헤바페는 임신부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출산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장 서비스가 많은 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우리나라에서 호응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한 헤바페의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헤바페의 성격이 의료인인지, 이들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떠나, 임신부와 신생아를 위한 체조, 부모교육, 이유식 만들기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라. 호주 센터링크(Centrel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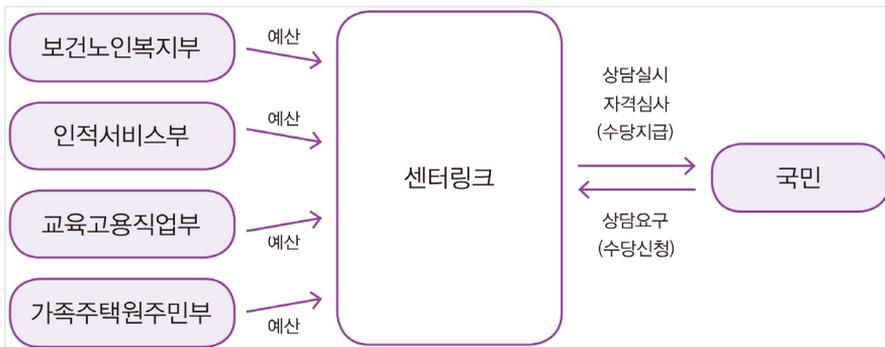
1) 사업목적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혜택들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각종 복지 관련 시스템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복지 수혜자들은 그 신청과 이용이 쉽지 않다.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움을 한 곳에서 제공하여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11. p. 16). 이는 각종 복지 관련 시스템을 연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one stop)'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복지 전달시스템이다. 센터링크는 1997년 7월, 일반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법(Commonwealth Service Delivery Agency Act)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Australian Government, 2011. p. 18). 센터링크는 복지 전달체계의 통합을 통한 국민의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 센터링크 한 곳만 방문하며 모든 복지혜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부처가 어떤 정책을 생산하는지 관계없이 복지 전달체계는 센터링크로 일원화돼 있다는 얘기다.”(매일경제, 2011. 3. 31 기사)



출처: 매일경제(2011.3.31). 호주서 복지는 상품...무엇이든 '센터링크'에 물어보면 술술. 재구성

[그림 IV-2-4] 호주 복지 시스템(센터링크)⁴³⁾

센터링크는 연금과 수당부터 이민, 교육, 구직, 질병, 재난 등 모든 이슈를 일괄처리 한다(매일경제, 2011). 각종 공공 기관들이 센터링크로 통합되면서 중복 지급도 줄어들었고 행정예산의 낭비도 막았다(매일경제, 2011). 센터링크는 포괄적 정책 지원으로 육아와 교육·보육과 관련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43) 매일경제(2011. 3. 31) '호주서 복지는 상품... 무엇이든 '센터링크'에 물어보면 술술' (2016년 8월 29일 인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2438300>

호주 정부에서 발간한 센터링크 2010-2011 운영보고서(Australian Government, 2011:17)에 따르면 센터링크와 협력하는 부처와 기구는 29개이며, 이용 고객은 710만 명, 이용고객 만족도는 90.1%, 호주 전역에의 센터링크나 연결점은 579군데이며, 콜센터는 25곳, 근무자는 25,233명이다⁴⁴⁾.

3) 시사점

호주의 센터링크는 정책 수요자,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인 센터링크는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정책 안내와 신청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도입 가능한 방안 구상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중앙 정부의 육아 지원정책도 다양화되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정책들도 차별화되면서 부모가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가정에서의 양육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육아지원정책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센터링크처럼, 주민센터 기능 중 하나로 구체화하여 양육, 육아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영유아 부모를 위한 정책의 안내와 신청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마. 이스라엘 홀른 시 팁-태프 센터(Tip-Taf: Early Years Center)⁴⁵⁾

1) 사업목적

영아기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이며,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때 영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영아기 상호작용자의 역량이 따라 영아가 세상을 만나는 것에 영향을 받으므로 영아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팁-태프(Tip-Taf) 센터는 영아기 부모와 영아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적기에 최적의 영아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Tip-Taf 홈페이지).

44) Australian Government(2011). Centrelink Annual Report 2010-2011. p.17 Table 1. 내용을 기술함.

45) 이스라엘 Tip-Taf 홈페이지 <http://www.tip-taf.com/#english/c1fj4> 2016년 7월 2일 인출한 내용과 연구자가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홀른시 부시장 Hana Hertsman과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팁-태프(Tip-Taf) 센터의 목표는 부모가 자녀와 유능하게 의사소통 하도록 돕고, 아이의 신호를 해석하여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다(Tip-Taf 홈페이지).

2) 사업내용

이스라엘 홀론(Holon)시는 개혁을 위해 도시의 아젠다를 ‘어린이의 도시’로 정하고 다면적인 아동 중심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아이기르기 좋은 도시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⁴⁶⁾ 그 중 팁-태프(Tip-Taf) 센터는 시가 운영하는 영아 부모지원센터로 학생이 줄어 폐원하게 된 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한 공간이며, 시에서 공간과 내부시설, 교사 인건비 등 지원으로 운영하나, 부모에게 소정의 이용비용을 받는다.⁴⁷⁾



출처: 팁-태프 센터 홈페이지 <http://www.tip-taf.com/group-activity> , 2016년 8월 24일 인출함.

[그림 IV-2-5] 이스라엘 홀론(Holon)시 팁-태프(Tip-Taf)센터

46) 2016년 6월 27일 Hana Hertsman 인터뷰 내용임.

47) 2016년 6월 27일 Hana Hertsman 인터뷰 내용임.

영아와 그 부모가 방문하여 자연스런 놀이가 이루어지고, 발달전문가가 놀이 상황과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해주고 양육과 관련한 상담 및 지원을 한다. 이 특별한 센터는 부모와 걸음아기(0-3세)를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즐거움을 향상시키고, 부모가 아동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팁과 안내를 제공한다(Tip-Taf 홈페이지).

팁-태프(Tip-Taf) 센터에서는 발달전문가가 상근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신적인 식단(mental diet)'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MISK(More Intelligent and Sensitive Child) 프로그램을 운영한다(Tip-Taf 홈페이지). 또한, 팁-태프(Tip-Taf) 센터는 영아들뿐만 아닌 부모들에게도 양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즐겁고 지지적인 만남의 장소이며, 사교 모임을 위한 시설, 그리고 연구와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계획되고 설비된 시설이다(Tip-Taf 홈페이지).

팁-태프(Tip-Taf) 센터의 이용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제로, 9시 30분~12시, 13시~15시 30분, 16시~18시 30분 등 3개 session으로 이루어져있다. 센터의 이용비용은 부모 자부담으로 약 1회에 9,000원 정도이다(Tip-Taf Early Years Center, 2016).

3) 시사점

영아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과 양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이스라엘 홀론시의 팁-태프(Tip-Taf) 센터는 가정 내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영아-부모 상호작용 지원으로 영아기 부모에게 부족한 양육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 처음 부모가 되어 자녀와 어떻게 놀이하며,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현재 양육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자신이 없는 영아 부모들에게 전문가가 면대면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안내함은 매우 효과적인 지원방법이다. 현재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실제 놀이와 상호작용 상황에서 개별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양육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정 내 양육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양육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팁-태프

(Tip-Taf) 센터는 영아기 양육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사례로 향후 유사한 정책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내 유휴자원(폐교된 고교)을 활용하여 영아 부모를 위한 지원 공간을 구성함은 '양육지원'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야하는 일이라는 공감대에 기초한 결과이다. 이는 향후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키워간다는 양육 지원 방안을 모색할 때 접목 가능한 사례이다.

바. 핀란드 엄마상자(Maternity package; Äitiyspakkaus)

1) 사업목적

핀란드 정부는 1937년부터 '엄마 상자'는 제공하고 있다. 그 당시 가난했던 핀란드에선 아기 1,000명 중 65명이 사망할 정도로, 영아사망률이 높았다(EBS, 2015).⁴⁸⁾ 아이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아이를 낳은 가정에, 필수적인 육아용품을 가득 담은 상자를 전하는 것이었다(EBS, 2015). 가난으로 출산 준비조차 할 수 없는 부모들 대신하여 정부가 출산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EBS, 2015). 현재도 여전히 모든 핀란드 엄마들은 이 엄마상자를 받을 수 있다.

엄마 상자를 통해 핀란드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평등을 경험한다(EBS, 2015).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물건을 쓰며, 같은 환경에서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EBS, 2015).

2) 사업내용

켈라(kela)는 핀란드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핀란드의 모든 임신 부에게 육아필수품 출산 패키지인 엄마상자를 제공하고 있다(이윤진·정도상, 2015:21). 엄마상자는 1938년부터 제공되었다(켈라 홈페이지, 2016.8.18.⁴⁹⁾). 엄마상자는 구성품을 매년 변경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거나 색상이나 패턴을 변경하며, 보다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켈라 홈페이지, 2016.8.18.⁵⁰⁾). 첫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약 95%는 현금지원 €140 보다는

48) EBS <뉴스G> 2015. 3. 12 엄마가 행복한 나라의 '엄마상자'
http://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302333/H?eduNewsYn=N&newsFldDetlCd=CONTENT_04&brdcDt=&dtBtn=&srchStartDt=&srchEndDt=&srchType=&srchWords=&srchWords2=&cPage=20 (검색일: 2016. 8. 29.)

49)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previous-versions> (검색일: 2016. 8. 18.)

엄마상자 패키지를 선택한다(켈라 홈페이지, 2016.8.18.⁵¹). 엄마상자의 실질적 가치가 현금지원 €140보다 높기 때문이다(이윤진·정도상, 2015:21).

2016년 엄마상자에는 50개의 출산용품이 포함되어 있다(켈라 홈페이지, 2016.8.18.⁵²). 상자 안에는 겨울 겹옷, 담요, 우주복(긴팔, 민소매, 모직 등), 모자, 내복, 바지, 레깅스, 스타킹, 양말, 장갑, 린넨침구, 목욕타올, 포켓 기저귀, 면 거즈, 개인 위생용품(빗, 칫솔, 가위, 온도계 등), 이유식용 턱받이, 손수건 턱받이, 형겔 장난감, 첫 번째 동화책(kukkuluuruu/kuckeliku) 등이 담겨있다(켈라 홈페이지, 2016.8.18.⁵³).



자료: 켈라 홈페이지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 (검색일: 2016. 8. 18.)

[그림 IV-2-6] 2016년 엄마상자 구성

3) 시사점

핀란드의 임신·출산제도는 임신부가 출산현금지원과 출산패키지(엄마상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엄마상자의 육아용

50)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previous-versions> (검색일: 2016. 8. 18.)

51)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previous-versions> (검색일: 2016. 8. 18.)

52)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 (검색일: 2016. 8. 18.)

53)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 (검색일: 2016. 8. 18.)

품은 현금지원액보다 가치가 높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데다 매년 그 구성품을 최신식으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출산에 가장 필요한 용품을 정부의 지원으로 모든 가정이 양질의 육아용품을 구비할 수 있으며 임신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나유미·미셸 램블린은 엄마상자는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보급 물품의 성격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한 모든 엄마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상'이며, 국가도 태어난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핀란드의 아이들은 부모의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고 자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이윤진·정도상, 2015:22, 재인용).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목표의 하나인 '작은 육아문화 확산'에 시사점을 준다. 고가의 육아용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육아용품을 선별하여 필수적인 내용으로 양질의 제품을 모든 가정에 공급한다면, 고가의 육아용품 소비를 선호하는 육아문화를 지양하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출생 신생아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을 선별 제공하는 '엄마상자' 속 물건처럼 연령별로 필요한 육아용품 리스트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고려된다.

3. 소결

국·내외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및 사업주체의 목표 인식과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우수한 사례로 살펴본 정책들은 미래사회 구성원의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양육지원 사업들이다. 서초구 사례, 서울시 사례, 이스라엘 홀론시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 수준에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내용을 발굴하고 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특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육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육지원은 영유아와 가정을 중심으로 생태체계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에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 사회가 지닌 사회문화적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양육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기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가족센터, 청소년청, 호주의 센터링크처럼 개별 영유아와 가정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안내와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이러한 협력과 연계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양육 중심, 가정 중심 사회로의 분위기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셋째, 정책수요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접점을 만들어 안내하는 정책추진이 활발하다. 시행 중인 정책은 많으나 실제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접근성과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필요에서 시작하여 접점을 강화하고자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관련 정보 중심의 push service를 제공하는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그 예이다. 정책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례를 검토하여 유사한 제도의 전국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넷째, 영유아의 발달에 따른 실제적 필요를 반영한 양육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영아를 양육하는 시기는 자녀동반 외출도 어렵고, 부모 스스로 양육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양육 자신감도 부족한 시기이다. 이러한 양육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사례들(세종시 보건소 사업, 가천대 세 살마을, 독일 헤바메)과 양육 자신감 회복을 지원하는 이스라엘 티프-태프(Tip-Taf) 센터, 가천대 세 살마을 등은 특히 영아를 위한 양육역량강화 제도 마련에 시사점을 준다. 이와 더불어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V.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이용 현황 및 개선요구

본 장에서는 영유아기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 1,302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 현황과 다양한 가정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이용 현황 결과와 지원 정책들에 대한 의견 수렴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차이를 보이리라 예상되는 변인으로 지역규모, 자녀의 연령, 자녀 수, 맞벌이 여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어머니 스스로 평가한 양육 역량과 양육 부담의 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에 실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가정 내 양육 현황

가. 교육·보육기관 이용 및 대리양육자

1) 교육·보육기관 이용

영유아의 연령대별로 교육·보육기관 이용 비율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재까지 자녀의 연령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 경험과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V-1-1>에 따르면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12개월 이전에는 응답 영유아의 85.2%, 13~24개월에는 53.9%, 25~36개월에는 22.2%, 만 3세인 37~48개월에는 11.9%, 만 4세 6.2%, 만 5~6세는 4.2%등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한 감소를 보인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12개월 이전에 14.6%, 12~23개월에는 45.6%, 24~35개월에는 76.9%, 만 3세인 36~47개월에는 75.4%, 만 4세 50%, 만 5~6세는 35%로 나타났다. 만 3세부터 입학이 가능한 유치원의 이용은 만 3세 12.1%, 만 4세 42.7%, 만 5세 60.8%로 조사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로 정리해보면 만0세 14.6%, 만1세 때 45.6%, 만2세때 76.9%, 만3세때 87.5%, 만4세때 92.7%, 만5~6세때 95.8%로 만2세부터 기관이용이 약 90%에 달하여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표 V-1-1> 연령별 주된 이용 기관

단위: %(명)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안함	계
만0세	14.6	-	0.2	85.2	100.0(1,302)
만1세대	45.6	-	0.5	53.9	100.0(1,105)
만2세대	76.9	-	0.9	22.2	100.0(894)
만3세대	75.4	12.1	0.6	11.9	100.0(685)
만4세대	50.0	42.7	1.1	6.2	100.0(460)
만5~6세대	35.0	60.8	4.2	4.2	100.0(232)

주: 1) 만0세(생후 12개월 미만), 만1세(12~24개월 미만), 만2세(24~36개월 미만), 만3세(36~48개월 미만), 만4세(48~60개월 미만), 만5~6세(60~80개월 미만)
 2) 자녀 중 미취학 첫째아를 기준으로 각 연령별 주된 이용 기관에 대한 응답을 받았음. 예를 들어 만0세때는 현재 만0세~만5~6세 전체가 포함되어 1,302명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연령을 경험한 경우만 포함되므로 연령별 전체 수가 줄어듦.



자료: <표 V-1-1>을 그림으로 재구성함.

[그림 V-1-1] 연령별 주된 이용 기관

기관 이용 시작 시점에 대해 심층면담 참석 부모들의 의견은 자녀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을 들었다.

왜냐하면 요새 하도 떠들잖아요. 뉴스에서, 여자아이들은 말이 빠르다고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두 돌이 지나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해서 확실히 의사표현 할 수 있을 때 보내려고 해요. 저는 최대한 자기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시콜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데리고 있으려고 해요(영아 어머니 C).

사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느끼기엔 네 살이 제일 적기라고 생각하고 또 주위에 친구들이 원장님도 있고 선생님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해주는 게 최대한 늦게 보내는 게 좋다고 해요(유아 어머니 A).

2) 긴급 대리 양육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도움처를 살펴보았다. 조부모가 70%로 가장 응답비율이 높았고 다음은 교육·보육기관 9.5%, 친인척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도움을 받을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응답도 8.1%로 높아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2개월 이전의 영영아는 조부모의 도움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고, 성장하면서 교육·보육기관, 친인척 등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함을 보인다.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 조부모의 도움 비율이 높고,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교육·보육기관의 이용 비율이 급증함을 보이는데 이는 자녀 양육의 경험과 교육·보육기관 이용 경험으로 그 도움 가능성을 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조부모의 도움 비율이 높다. 이렇듯 응답 부모 열 명 중 일곱 명이 긴급한 대리양육자로 조부모를 지목한 결과는 가정 양육지원을 위해 다양한 긴급 도움처의 확보와 정보제공 뿐 아니라 조부모의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관 미이용 가구는 주로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 기관 이용 가구는 조부모 혹은 유치원·어린이집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님을 주로 이용해요. 저녁에 너무나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몇 시간 타임으로 잠깐 하는 돌봄 있잖아요, 그걸 신청하려고 했는데, 소득 그런 것들 다 매겨야하고 대기시간 너무 길고 바로바로 안되더라구요(유아 어머니 B).

〈표 V-1-2〉 긴급하게 대리양육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기관)

단위: %(명)

구분	교육· 조부모 보육 기관	친구· 친인척 이웃· 동료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운영)	민간 돌봄 서비스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일시보육 기관	기 타	없 음	계	$\chi^2(df)$
전체	70.0	9.5	6.2	3.4	1.8	0.5	0.5	0.1	100.0(1,302)

(표 V-1-2 계속)

구분	교육·		친구·	아이	민간	육아종합	기	없	계	$\chi^2(df)$		
	조부모	보육									친인척	돌봄
	기관	기관	이웃	서비스	서비스	일시보육	기관	음				
지역	대도시	74.6	7.9	5.8	2.4	1.5	0.9	0.4	0.0	6.4	100.0(529)	20.593 (16)a
규모	중소도시	67.7	9.4	6.9	4.0	1.6	0.2	0.5	0.2	9.4	100.0(553)	
	농어촌지역	64.4	13.2	5.5	4.0	2.9	0.5	0.9	0.0	8.6	100.0(220)	
자녀	영영아	76.7	4.6	3.6	1.0	4.1	0.0	1.5	0.5	8.1	100.0(197)	48.281*** (16)a
나이	영아	73.0	9.2	5.3	1.9	2.2	0.2	0.5	0.0	7.7	100.0(420)	
	유아	66.2	11.0	7.6	4.9	0.9	0.9	0.3	0.0	8.3	100.0(685)	
자녀 수	1명	73.0	8.5	5.1	1.7	2.5	0.4	0.6	0.1	8.1	100.0(696)	57.143*** (16)a
	2명	70.1	7.6	7.6	4.3	0.8	0.8	0.4	0.0	8.3	100.0(483)	
	3명 이상	52.4	21.9	7.2	8.9	1.7	0.0	0.8	0.0	7.2	100.0(123)	
맞벌이	맞벌이	74.7	9.0	5.9	2.5	1.7	0.9	0.6	0.1	4.6	100.0(677)	33.835*** (8)a
여부	맞벌이아님	64.8	9.9	6.6	4.3	1.9	0.2	0.5	0.0	11.8	100.0(625)	
가구	250만원 미만	60.2	10.2	10.2	4.1	2.0	0.0	1.0	0.0	12.3	100.0(195)	50.286** (24)a
소득	250-350만원	66.2	9.4	7.8	3.8	2.7	0.0	0.3	0.0	9.9	100.0(374)	
	350-500만원	72.7	7.9	4.1	4.0	1.4	1.1	1.1	0.0	7.6	100.0(367)	
	500만원 이상	76.3	10.7	4.6	1.9	1.1	0.8	0.0	0.3	4.3	100.0(366)	
나의	상	71.4	9.6	6.1	3.0	2.1	0.8	0.5	0.2	6.3	100.0(619)	8.693 (8)a
역량	하	68.7	9.4	6.3	3.7	1.5	0.3	0.6	0.0	9.7	100.0(683)	
양육	상	70.6	9.5	6.0	3.7	1.6	0.3	0.5	0.0	7.8	100.0(897)	6.553 (8)a
부담	하	68.6	9.4	6.7	2.7	2.3	1.0	0.5	0.2	8.6	100.0(405)	
기관	미이용	77.5	2.2	5.6	1.7	2.2	0.0	0.6	0.3	10.0	100.0(360)	44.171*** (8)
이용	이용	67.1	12.2	6.5	4.0	1.6	0.7	0.5	0.0	7.3	100.0(942)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01$

나. 자녀 양육 역량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돌봄 관련 역량, 지원관련 역량, 양육 정보 관련 역량, 정책인지 및 활용에 대한 역량으로 유목화하여 그 중요도와 현재 어머니가 인지하는 자신의 역량을 4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이다.

1) 돌봄 관련 역량

자녀 돌봄에 대한 역량으로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요구에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떻게 돌보아야하는 지 알고, 또 실제로 자녀를 돌보는데 충분

한 체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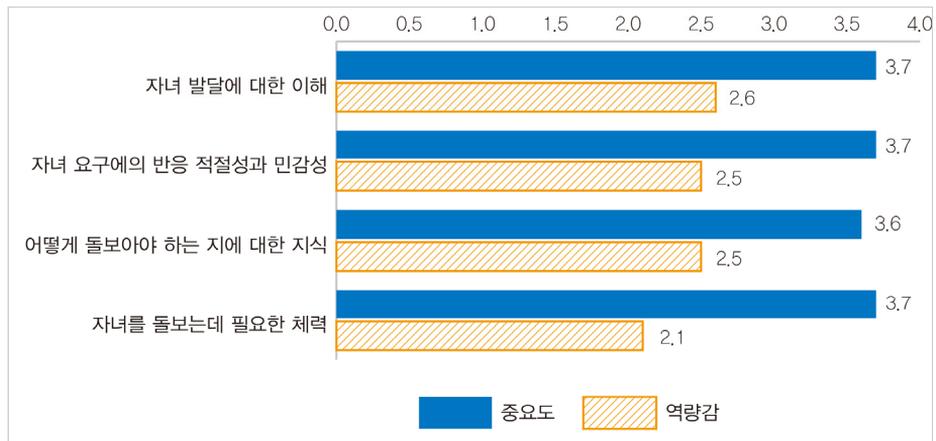
돌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음(1점)’부터 ‘매우 중요함(4점)’까지 역량의 중요 정도를 질의한 결과는 3.6~3.7점으로 ‘매우 중요함’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에 비해 현재 어머니 자신의 역량에 대해 ‘매우 부족함(1점)’부터 ‘매우 충분함(4점)’까지 평가한 결과는 2.1점~2.6점으로 ‘약간 충분함(3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V-1-3> 돌봄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 나의 역량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	0.1	0.4	24.0	75.5	100.0	3.7	2.9	40.7	48.6	7.7	100.0	2.6
자녀 요구에 대한 적절하고 민감한 반응	0.1	0.5	31.1	68.3	100.0	3.7	4.1	44.4	44.2	7.3	100.0	2.5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	0.0	0.5	38.0	61.5	100.0	3.6	5.1	45.5	44.0	5.4	100.0	2.5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체력	0.2	0.2	28.1	71.6	100.0	3.7	19.1	52.7	24.4	3.8	100.0	2.1

주: 4점 척도임.



자료: <표 V-1-3>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V-1-2] 돌봄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즉, 어머니들은 돌봄 관련 역량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지만 현재 자신이 지닌 양육 역량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체력'에 대해서 가장 낮은 역량감(2.1점)을 나타내 자녀 양육이 육체적으로 힘들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2) 지원 관련 역량

자녀 지원에 대한 역량으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는 등 일상적 지원,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요구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 관계(친구, 이웃)의 형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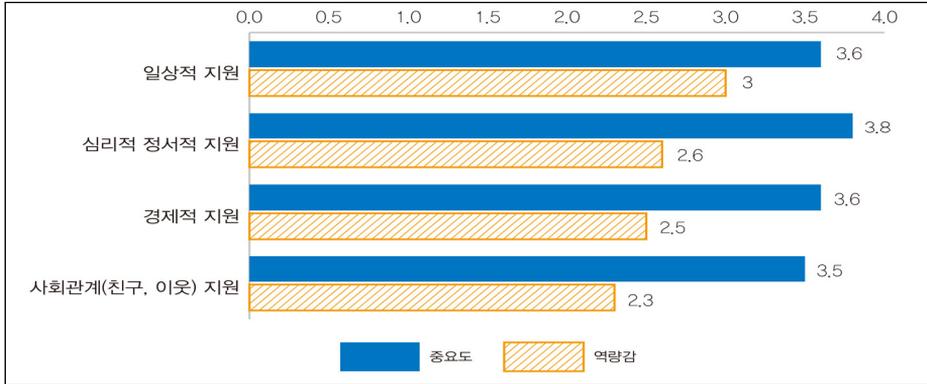
응답 어머니들은 지원관련 역량에서도 중요도는 높으나 자신의 역량감을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중요도(3.8점)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사회관계 형성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3.5점)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재 자신의 역량에서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는 일상적 지원에 대해 가장 높은 역량감(3.0점)을 보였고, 그에 비해 친구나 이웃 등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관계 형성을 통한 지원에는 비교적 낮은 역량감(2.3점)을 나타냈다. 이렇듯 중요도에 비해 자신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결과는 현재 자녀양육 상황에서 역량감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1-4〉 지원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나의역량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일상에 대한 지원	0.2	1.1	40.6	58.1	100.0 (1,302)	3.6 (0.53)	1.8	20.9	53.7	23.6	100.0 (1,302)	3.0 (0.72)
정서적, 심리 적 지원	0.2	0.7	18.3	80.9	100.0 (1,302)	3.8 (0.43)	3.8	41.6	45.2	9.4	100.0 (1,302)	2.6 (0.71)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0.2	0.9	33.7	65.3	100.0 (1,302)	3.6 (0.51)	7.3	40.5	42.2	10.0	100.0 (1,302)	2.5 (0.77)
사회관계(친구, 이웃) 형성	0.2	2.2	44.3	53.4	100.0 (1,302)	3.5 (0.55)	11.4	49.9	32.8	5.8	100.0 (1,302)	2.3 (0.75)

주: 4점 척도임.



자료: <표 V-14>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V-1-3] 지원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3) 양육 정보 관련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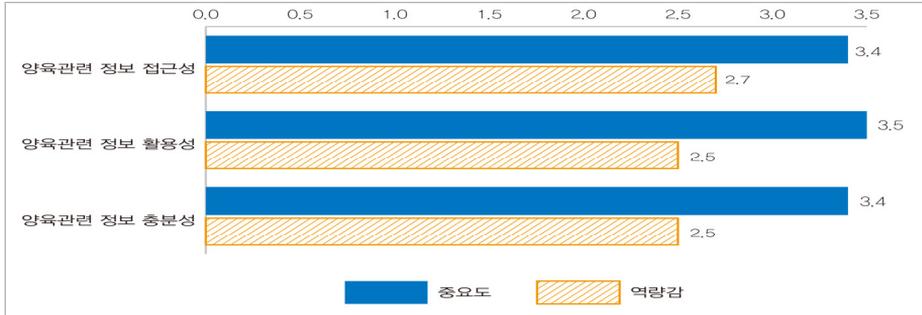
양육을 위한 정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량 요소이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지(정보의 접근성),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정보의 활용성), 필요한 정보는 충분히 갖고 있는 지(정보의 충분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양육정보 관련 내용에서도 중요도는 ‘매우 중요함(4점)’과 ‘중요함(3점)’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지만, 역량감은 ‘약간 충분함(3점)’과 ‘다소 부족함(2점)’ 사이의 결과를 보여 중요도에 비해 역량감이 낮게 평가되었다. 응답 어머니들은 정보의 접근성(2.7점)에 대해 활용성(2.5점)이나 충분성(2.5점)에 비해 다소 높은 역량감을 보였다.

<표 V-1-5> 양육 정보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 나의 역량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표준편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평균(표준편차)
양육관련 정보 접근성	0.1	2.4	54.7	42.8	100.0	3.4	2.7	35.2	51.2	10.9	100.0	2.7
					(1,302)	(0.54)					(1,302)	(0.69)
양육관련 정보 활용성	0.1	2.3	49.0	48.6	100.0	3.5	4.3	45.5	42.6	7.5	100.0	2.5
					(1,302)	(0.55)					(1,302)	(0.70)
양육관련 정보 충분성	0.2	3.5	52.4	43.9	100.0	3.4	4.2	45.6	43.8	6.5	100.0	2.5
					(1,302)	(0.57)					(1,302)	(0.68)

주: 4점 척도임.



자료: <표 V-1-5>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V-1-4] 양육 정보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4) 정책 인지 및 활용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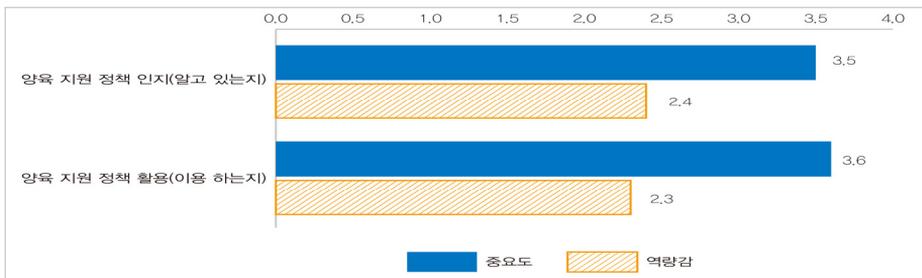
현재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활용하는 지도 양육 역량으로 고려될 수 있다. 역시 정책인지 인지(3.5점)나 정책 활용(3.6점)의 중요도보다 역량감(인지, 2.4점; 활용, 2.3점)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V-1-6> 정책 인지 및 활용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단위: %(명), 점(점)

구분	중요도					현재 나의역량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치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계	평균 (표준 편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평균 (표준 편차)
양육지원 정책 인지	0.0	1.0	45.2	53.8	100.0	3.5 (1,302) (0.52)	8.6	50.6	34.4	6.4	100.0	2.4 (1,302) (0.73)
양육지원 정책 활용	0.1	1.6	41.3	57.0	100.0	3.6 (1,302) (0.53)	12.7	53.8	27.8	5.8	100.0	2.3 (1,302) (0.75)

주: 4점 척도임.



자료: <표 V-1-6>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V-1-5] 정책 인지 및 활용 관련 역량 중요도 및 역량 평가

5) 양육 역량에의 영향요인⁵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회귀분석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돌봄, 지원, 양육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역량 각각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녀수, 자녀연령, 기관이용 여부,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⁵⁵⁾, 맞벌이 여부를 기본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모델에 추가적으로 양육부담 4문항의 평균값을 변수로 넣고 분석하였다.⁵⁶⁾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자신의 돌봄 역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학력($\beta=.217$)이 유일하게 나타났다. 학력이 고졸인 어머니에 비해 대학원 졸업 이상의 어머니가 자신의 돌봄 역량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부록 5, 표 3 참조). 앞의 모델에 양육 부담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경우 앞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beta=.192$)뿐만 아니라 자녀수($\beta=.087$)가 많을수록 돌봄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부담($\beta=-.287$)이 크다고 평가한 경우는 자신의 양육역량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부록 5, 표 4 참조). 어머니의 지원양육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 연령, 기관이용여부, 어머니의 학력, 가계소득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녀 연령($\beta=-.048$)이 높을수록 지원양육역량감을 낮게 평가하며,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관을 이용한 경우($\beta=.102$), 어머니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beta=.204$)와 가구 소득($\beta=.134$)이 높을수록 자신의 지원양육역량감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표 5 참조). 여기에 양육 부담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경우 자녀 연령($\beta=-.048$)이 높을수록, 양육부담($\beta=-.300$)이 크다고 평가할수록 지원양육역량감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관을 이용한 경우($\beta=.108$), 어머니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대학원졸 이상($\beta=.178$)인 경우와 가구 소득($\beta=.094$)이 높을수록 자신의 지원양육역량감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표 6 참조).

어머니의 양육정보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녀 연령($\beta=-.043$)이 높을수록 어머니 자신의 양육정보역량을 낮게 평가하며, 어머니 학력이 고졸에 비해 대학원졸($\beta=.194$) 이상의 경우 양육정보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54) 부록 5, <부록 표 3>~<부록 표 10> 참조

55) 가구소득의 경우 편차가 심하여 회귀분석을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분석하였음.

56) 양육 역량별 회귀분석표는 <부록 6>으로 제시함.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부록 5, 표 7 참조). 양육 부담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경우 자녀 연령($\beta=-.043$)이 높을수록, 양육 부담($\beta=-.177$)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어머니 자신의 양육정보역량을 낮게 평가하며, 어머니 학력이 고졸에 비해 대학원졸($\beta=.178$) 이상의 경우 양육정보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부록 5, 표 8 참조).

정책인지 및 활용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자녀수($\beta=.087$)가 많을수록,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관을 이용한 경우($\beta=.163$) 정책 인지 및 활용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표 9 참조). 이 모델에 양육 부담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경우 자녀수($\beta=.089$)가 많을수록,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관을 이용한 경우($\beta=.167$) 정책 인지 및 활용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양육 부담($\beta=-.215$)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자신의 정책 인지 및 활용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표 10 참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 전반(돌봄, 지원, 양육 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자녀수($\beta=.059$)가 많을수록, 고졸에 비해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beta=.183$)인 경우 전체적인 자신의 양육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자녀 연령($\beta=-.030$)이 높을수록 자신의 양육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V-1-7 참조).

〈표 V-1-7〉 양육역량에의 영향 요인

	양육 역량 ¹⁾	
	β	S.E
(상수)	2.152***	0.158
자녀수	0.059**	0.020
자녀 연령	-0.030**	0.010
기관 이용 (기준: 이용하지 않음)	0.062	0.035
학력 (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22	0.043
4년제 대학 졸업	0.055	0.041
대학원졸 이상	0.183**	0.053
가구 소득 ²⁾	0.047	0.027
맞벌이 (기준: 맞벌이 안함)	0.001	0.027
R^2	0.029	
F	4.809***	
N	1,302	

주: 1) 돌봄, 지원, 양육 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에 관한 4점 척도의 13가지 문항의 평균값

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p < .01$, *** $p < .001$

여기에 양육 부담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수($\beta=.061$)가 많을수록,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관을 이용한 경우($\beta=.067$) 고졸에 비해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beta=.161$)인 경우 전체적인 자신의 양육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자녀 연령($\beta=-.030$)이 높을수록, 양육 부담($\beta=-.255$)이 높을수록 자신의 양육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V-1-8 참조).

〈표 V-1-8〉 양육역량에의 영향 요인(양육 부담 추가)

	양육 역량 ¹	
	β	S.E
(상수)	3.127***	0.175
자녀수	0.061**	0.019
자녀 연령	-0.030**	0.009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67*	0.033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26	0.041
4년제 대학 졸업	0.058	0.039
대학원졸 이상	0.161**	0.051
가구 소득 ²	0.013	0.026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08	0.026
양육 부담 ³	-0.255***	0.023
R^2	0.112	
F	18.191***	
N	1,302	

주: 1) 돌봄, 지원, 양육 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에 관한 4점 척도의 13가지 문항의 평균값

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3) 양육 부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역량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자녀의 수가 영향을 미친은 여러 번의 양육경험이 어머니의 역량감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역으로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역량강화 기회가 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감이 떨어진다는 결과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그 성장발달을 지원하기위한 부모 역량 강화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말 유아교육과 보육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뚝뚝 뭉쳐서 부모의 역량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계속 화두를 던져서 방향을 좀 흘러 나가야되지 않을까(학계 교수 등)

부모야 말로 최고의 교사고 최고의 전문가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을 좀 내세우자... 엄마가 다 키우면 엄마들이 이걸 내가 손해 보는 거야 국가에서 돈을 이것만 받는데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서. 정말 그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키우는 게 중요한 거고 엄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게,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자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학계 교수 E)

다. 자녀 양육 시 어려움 및 양육 부담

1) 양육 시 어려움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움 점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두어 질문하였다. 1순위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16.4%로 나타났다. 1, 2, 3순위 전체 응답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6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가 53.3%,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49.1%의 순서로 나타났다. 긴급 보육과 잠깐의 휴식(refreshment) 제공에의 요구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에의 요구가 높음을 보여준다.

〈표 V-1-9〉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

단위: %(명),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	43.7	12.7	10.8	67.2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부족하다	16.4	21.0	12.6	50.0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	11.0	19.8	24.0	54.8
교육·보육 비용이 부담된다	10.3	15.5	11.5	37.3
기저귀, 분유 등 양육비용이 부담된다	5.5	6.0	8.6	20.1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4.4	10.6	10.1	25.1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다	4.1	4.7	7.2	16.0
수면시간 부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3.7	9.2	12.5	25.4
기타	0.3	0.2	1.1	1.6
없음	0.5	0.2	1.6	2.3
계	100(1,302)	100(1,281)	100(1,238)	(1,302)

2) 양육 부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담을 부모로서 양육 책임자체에 대한 부분, 신체적 측면, 심리적 정서적 위축,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부담정도를 '전혀 부담되지 않음'(1점)부터 '매우 부담됨(4점)'의 기준으로 답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다소 부담된다(3점)'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양육 시 경험하는 육체적 신체적 부담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3.2점)이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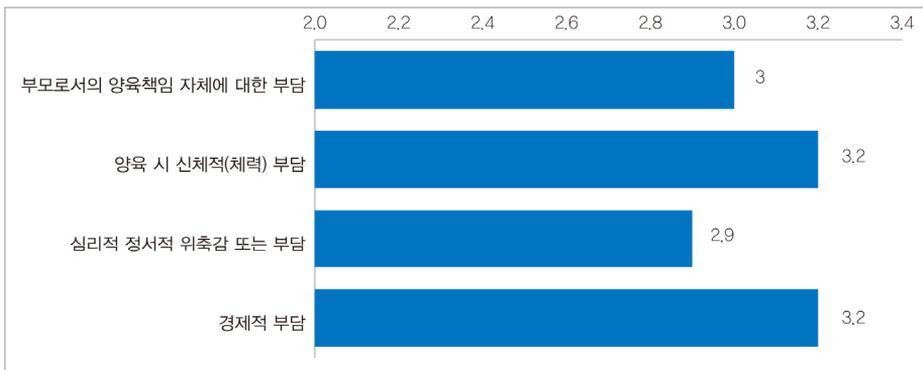
<표 V-1-10>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	평균(표준편차)
부모로서의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	3.5	14.8	58.0	23.7	100.0(1,302)	3.0(0.73)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	0.9	12.5	55.5	31.1	100.0(1,302)	3.2(0.67)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	2.7	21.6	55.3	20.5	100.0(1,302)	2.9(0.72)
경제적 부담	1.0	13.0	52.3	33.7	100.0(1,302)	3.2(0.69)

주: 4점 척도임.

애를 기르잖아요. 여기서 첫째 체력이, 아이들이 계속 뭔가 요구를 해요. 뭐 계속 요구하는데 우선 체력이 안되요. 그 다음에 잠시라도 졸으니 나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없는데로 갔으면 좋겠어 잠시라도. 제가 요즘은 요. 집에 있는 엄마들이 애들 갖다가 말기는 거 저는 뭐라고 안해요. 그런데 해보니 이게 정말 나중에는...(학계 교수 D)



자료: <표 V-1-10>를 그림으로 재구성

[그림 V-1-6]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이러한 양육 부담 중 경제적 부담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있는지 살펴 보았는데, 고려한 거의 모든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도시 규모면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자녀의 연령을 중심으로는 12개월 미만 영영아와 만 4세, 만 5~6세 집단에서,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부담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경제적 부담 정도가 높았다.

〈표 V-1-11〉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

단위: %(명), 점(점)

구분	전혀 되지	부담 않음	부담 있음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1.0	13.0	52.3	33.7	100.0(1,302)	3.2(0.69)		
지역	대도시	0.6	13.6	50.4	35.5	100.0(529)	3.2(0.69)	4.078*
규모	중소도시	1.6	13.4	55.2	29.8	100.0(553)	3.1(0.69)	
	농어촌지역	0.5	10.7	49.7	39.2	100.0(220)	3.3(0.67)	
자녀 나이	만0세	2.0	12.7	52.8	32.5	100.0(197)	3.2(0.71)	5.266***
	만1세	1.5	17.3	48.9	32.3	100.0(211)	3.1(0.74)	
	만2세	1.9	13.9	57.2	26.9	100.0(209)	3.1(0.69)	
	만3세	0.0	16.0	53.3	30.7	100.0(226)	3.1(0.67)	
	만4세	0.4	11.4	55.5	32.6	100.0(227)	3.2(0.65)	
	만5~6세	0.4	7.2	46.4	46.0	100.0(232)	3.4(0.64)	
자녀 수	1명	1.0	16.2	52.0	30.8	100.0(696)	3.1(0.70)	9.861***
	2명	1.3	10.3	53.9	34.4	100.0(483)	3.2(0.67)	
	3명	0.0	5.7	47.5	46.7	100.0(123)	3.4(0.60)	
	3명 이상	0.0	5.7	47.5	46.7	100.0(123)	3.4(0.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	15.1	52.6	31.1	100.0(677)	3.1(0.70)	-2.741**
	맞벌이아님	0.8	10.8	52.0	36.4	100.0(625)	3.2(0.67)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0.0	3.6	40.8	55.6	100.0(195)	3.5(0.57)	36.067***
	20-30만원	0.0	7.3	56.6	36.1	100.0(374)	3.3(0.59)	
	30-50만원	0.8	14.5	54.2	30.4	100.0(367)	3.1(0.68)	
	50만원 이상	2.8	22.4	52.1	22.7	100.0(366)	2.9(0.75)	
기관 이용	미이용	2.2	13.4	53.8	30.6	100.0(360)	3.1(0.72)	3.696
	이용	0.5	12.9	51.7	34.8	100.0(942)	3.2(0.68)	

주: 양육역량과 양육부담 변인에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본 분석 시 제외함.
* $p < .05$, ** $p < .01$, *** $p < .001$

3) 양육 부담에의 영향 요인57)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회귀분석 방법으로 살펴보았다(부록 5 참조). 양육책임 자체, 신체적 부담,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 문항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녀수,

57) 부록 5, <부록 표 11>~<부록 표 18> 참조

자녀의 출생순위, 자녀연령, 어머니 학력, 가구소득⁵⁸⁾, 맞벌이 여부를 기본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모델에 추가적으로 양육역량 13문항의 평균값을 변수로 넣은 분석을 실시하였다.⁵⁹⁾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모델은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부록 5, 표 11 참조). 이 모델에 양육 역량 변수를 추가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인 경우($\beta=.131$) 부담이 더 높다고 평가하며, 자신의 전체적인 양육 역량($\beta=-.351$)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해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표 12 참조).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에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자녀 연령($\beta=-.025$)이 높을수록 신체적 부담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부록 5, 표 13 참조). 이에 양육 역량 변수를 추가하여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 연령($\beta=-.030$)이 높고 양육 역량감($\beta=-.232$)을 높게 평가할수록 신체적 부담을 낮게 평가하며,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beta=.129$)인 경우 양육 시 신체적(체력)부담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표 14 참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 정도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가구소득($\beta=-.126$)이 영향요인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부록 5, 표 15 참조). 양육 역량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beta=-.108$)이 높고 양육 역량감($\beta=-.375$)을 높게 평가할수록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부록 5, 표 16 참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beta=-.221$), 대학원졸 이상의 경우($\beta=-.381$), 그리고 가구소득($\beta=-.305$)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표 17 참조). 이에 양육 역량 변수를 추가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beta=-.199$), 대학원졸 이상($\beta=-.311$)의 경우, 가구소득($\beta=-.287$)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양육 역량($\beta=-.383$)을 높게 평가할수록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낮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5, 표 18 참조).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전체적인 양육 부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구 소득($\beta=-.131$)이 높을수록 양육 부담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V-1-12 참조).

58) 가구소득의 경우 편차가 심하여 회귀분석을 위해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분석하였음.

59) 양육 역량별 회귀분석표는 <부록 5>로 제시함.

〈표 V-1-12〉 양육부담에의 영향 요인

	양육 부담 ¹	
	β	S.E
(상수)	3.832***	0.182
자녀수	0.035	0.033
자녀 연령	-0.040	0.037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00	0.010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17	0.050
4년제 대학 졸업	0.008	0.047
대학원졸 이상	-0.093	0.061
가구 소득 ²	-0.131***	0.031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29	0.031
R^2	0.022	
F	3.562**	
N	1,302	

주: 1) 양육 부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p < .01$, *** $p < .001$

여기에 양육 역량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beta=-.115$)이 높을수록, 자신의 양육 역량감($\beta=-.335$)을 높게 평가할수록 양육 부담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V-1-13 참조).

〈표 V-1-13〉 양육부담에의 영향 요인(양육 역량 추가)

	양육 부담 ¹	
	β	S.E
(상수)	4.550***	0.186
자녀수	0.048	0.032
자녀 연령	-0.027	0.036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07	0.009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24	0.048
4년제 대학 졸업	0.027	0.045
대학원졸 이상	-0.032	0.059
가구 소득 ²	-0.115***	0.030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31	0.030
양육 역량 ³	-0.335***	0.031
R^2	0.105	
F	16.795***	
N	1,302	

주: 1) 양육 부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3) 돌봄, 지원, 양육 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에 관한 양육 역량 4점 척도의 13가지 문항의 평균값

*** $p < .00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구소득은 심리적 위축, 경제적 부담 등에의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편 지원의 틀 안에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신체적 부담에 자녀연령이 영향 요인이라는 결과는 영아자녀일수록 수면습관이 불규칙하고, 자조기술 발달이 부족하여 양육자의 신체적 부담이 클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이는 자녀양육에 쉽표를 제공하자는 시간제보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이 영아기 부모임을 보여준다.

라. 필요한 육아 정보와 정보처

1) 양육 시 필요한 육아정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육아정보 두 가지를 우선순위를 두어 질의하였다.

1순위 응답결과 중 훈육과 기본생활습관의 지도 같은 ‘영유아 양육에 대한 일반정보’에 대한 요구(42.5%)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영유아 건강에 대한 정보(17.4%)’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영유아 놀이나 학습에 대한 정보(28.1%)’가 가장 많아,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보면 ‘영유아 양육에 대한 일반정보(64.9%)’, ‘영유아 놀이나 학습에 대한 정보(42.7%)’, ‘영유아 건강에 대한 정보(33.6%)’의 순서를 보인다.

〈표 V-1-14〉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육아 정보

단위: %(명),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1+2순위
영유아 양육에 대한 일반정보	42.5	22.4	64.9
영유아 건강에 대한 정보	17.4	16.2	33.6
영유아 놀이나 학습에 대한 정보	14.6	28.1	42.7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보	12.7	15.6	28.3
정부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11.3	14.0	25.3
영유아용품 구매에 대한 정보	1.4	3.6	5.0
기타	0.1	0.1	0.2
계	100.0(1,302)	100.0(1,302)	100.0

이러한 결과는 양육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양육지원을 위한 정보의 내용 구성 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2) 육아정보 제공처

필요로 하는 육아정보를 주로 어디서 구하는 지 조사한 결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의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친구나 이웃, 동료 등을 통해서 19.2%, 육아관련 서적을 통해서 7.3%, 가족 6.8%, 유치원·어린이집 6.4%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15〉 육아정보 제공처

단위: %(명)

구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친구·이웃 동료	육아 관련 서적	가족	유치원· 어린이집	육아 관련 전문가	공공 기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기타	계	$\chi^2(df)$	
전체	53.5	19.2	7.3	6.8	6.4	2.8	1.8	1.8	0.3	100.0(1302)		
지역 규모	대도시	53.4	19.0	6.4	7.3	6.9	2.4	2.8	1.3	0.4	100.0(529)	16.795 (16)
	중소도시	52.1	20.0	8.3	6.7	6.4	3.6	0.7	1.8	0.4	100.0(553)	
	농어촌지역	57.2	18.0	6.9	5.9	4.9	1.8	2.2	3.1	0.0	100.0(220)	
자녀 나이	영영아	65.0	15.7	8.6	6.6	1.0	2.0	0.0	1.0	0.0	100.0(197)	47.195*** (16)
	영아	53.6	19.8	6.3	8.6	5.0	3.6	2.6	0.5	0.0	100.0(420)	
	유아	50.1	19.9	7.5	5.8	8.7	2.6	1.9	2.9	0.6	100.0(685)	
자녀 수	1명	56.2	19.5	7.9	7.0	3.7	3.0	1.4	1.1	0.0	100.0(696)	43.056*** (16)
	2명	52.6	17.7	6.8	7.0	8.7	2.5	1.9	2.5	0.4	100.0(483)	
	3명 이상	42.0	23.6	5.6	4.8	12.0	3.2	4.0	3.2	1.6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7	17.0	7.5	7.8	8.5	2.7	2.1	1.6	0.1	100.0(677)	18.665* (8)
	맞벌이 아님	54.4	21.6	7.1	5.8	4.0	3.1	1.6	2.1	0.5	100.0(625)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59.2	14.3	6.1	4.1	5.6	4.1	3.6	2.5	0.5	100.0(195)	34.134 (24)
	20-30만원	55.8	19.9	7.5	7.2	4.5	1.9	1.3	1.3	0.5	100.0(374)	
	30-50만원	54.3	21.0	6.0	5.4	6.3	2.7	1.6	2.7	0.0	100.0(367)	
	50만원 이상	47.3	19.4	9.0	9.3	8.7	3.3	1.6	1.1	0.3	100.0(366)	
나의 역량	상	52.6	18.3	10.0	5.7	5.8	3.4	2.2	1.4	0.5	100.0(619)	20.260** (8)
	하	54.3	20.0	4.8	7.9	6.8	2.3	1.5	2.2	0.1	100.0(683)	
양육 부담	상	54.5	18.6	6.7	7.1	6.2	2.6	2.0	2.0	0.3	100.0(897)	4.721 (8)
	하	51.3	20.5	8.7	6.2	6.7	3.5	1.5	1.5	0.2	100.0(405)	
기관 이용	미이용	58.0	17.0	9.2	8.6	1.9	2.5	1.7	1.1	0.0	100.0(360)	26.365** (8)
	이용	51.8	20.1	6.6	6.1	8.0	3.0	1.9	2.1	0.4	100.0(942)	

* $p < .05$, ** $p < .01$, *** $p < .001$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유아 자녀를 둔 경우(8.7%)와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12%) 유치원·어린이집이 정보처라는 응답이 다소 높다. 기관 이용 가구는 미이용 가구보다 친구·이웃·동료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조금 높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 인터넷, 친구·이웃·동료의 비율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가족에의 비율이 다른 경우보다 비교적 높았다. 양육역량을 높게 평가한 집단에서 육아관련 서적을 참고한다는 비율(10%)이 낮게 평가한 집단(4.8%)보다 높음을 보인다.

그런데 저는 되게 혜택을 못 봤었어요.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계속 정보를 얻고 그때부터 알아 갔던 건데(유아 어머니 D).

지역카페가 되게 활성화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카페는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 까지를 다 카페에서 육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물어면 다 답변에 댓글 달아서... 하루에 3천~5천명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저희 쪽에는 상업적이면 절대 못 들어와요(유아 어머니 A).

지역카페. 구마다 다 있어요. 요즘에는 대부분 많이 해요(유아 어머니 B).

2. 양육지원 정책 이용 및 개선 요구

가. 비용 지원 정책

양육지원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정양육수당, 0~2세 보육료지원, 3~5세 누리과정지원으로 구분하여 그 인지 여부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비용 지원 정책 중에는 가정 양육 수당에 대한 인지 정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보면 0~2세 보육료 지원에의 이용이 71.7%로 가장 높았다. 이용 경험자 대상의 만족도는 0~2세 보육료 지원(2.7점), 3~5세 누리과정 지원(2.6점), 가정양육수당(2.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1〉 비용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구분	인지여부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 (수)	만족도
가정양육수당	81.3	16.9	1.8	100.0(1,302)	66.9 (871)	2.4(0.73)
0~2세 보육료 지원	72.0	23.0	5.1	100.0(1,302)	71.7 (935)	2.7(0.70)
3~5세 누리과정 지원	66.5	28.9	4.7	100.0(1,302)	52.5 (774)	2.6(0.75)

1) 가정양육수당

가정 양육 수당은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당이다(보건복지부, 2015a).

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가정양육 수당에 대해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81.3%, 들어만 봤다는 경우는 16.9%, 모른다는 경우도 1.8%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만 3세의 어머니 집단에서 92%로 가장 높았고, 만 5~6세 집단에서 71.7%로 가장 낮았다. 또한 양육역량을 높게 평가한 집단에서 낮게 평가한 집단보다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정 양육 수당의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66.9%에 달하며,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함(1점)’부터 ‘매우 만족함(4점)’까지 4점 척도 중 2.4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불만족(2점)’에 보다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표 V-2-2〉 가정양육수당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구분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 (수)	만족도	F/t	
전체	81.3	16.9	1.8	100.0(1,302)		66.9 (871)	2.4(0.73)		
지역 규모	대도시	81.2	16.9	1.9	100.0(529)	0.879 (4)	67.5 (357)	2.4(0.74)	0.603
	중소도시	81.1	17.4	1.5	100.0(553)		67.7 (374)	2.5(0.71)	
	농어촌지역	81.9	15.8	2.2	100.0(220)		63.3 (139)	2.4(0.74)	

(표 V-2-2 계속)

구분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 (수)		만족도	F/t	
만0세	76.6	21.3	2.0	100.0(197)		85.8 (169)	25(0.64)		
만1세	83.2	13.5	3.3	100.0(211)		81.5 (172)	25(0.74)		
자녀 나이2	만2세	84.1	14.4	1.4	100.0(209)	45.285*** (10)a	69.7 (146)	22(0.77)	3.635**
	만3세	92.0	6.7	1.3	100.0(226)		60.9 (137)	25(0.72)	
	만4세	80.2	18.1	1.8	100.0(227)		59.0 (134)	25(0.72)	
	만5~6세	71.7	27.5	0.8	100.0(232)		48.5 (113)	24(0.75)	
자녀 수	1명	80.9	17.1	2.0	100.0(696)	1.060 (4)	69.7 (485)	24(0.71)	1.154
	2명	81.5	16.9	1.7	100.0(483)		63.2 (305)	24(0.74)	
	3명 이상	83.1	16.1	0.8	100.0(123)		65.4 (81)	23(0.78)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8	19.3	1.9	100.0(677)	5.991 (2)	59.2 (400)	25(0.71)	4.563***
	맞벌이 아님	84.0	14.4	1.6	100.0(625)		75.2 (470)	23(0.73)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83.2	15.3	1.5	100.0(195)	4.747 (6)	72.6 (142)	24(0.80)	3.799*b
	20~30만원	83.6	15.1	1.3	100.0(374)		68.9 (258)	23(0.71)	
	30~50만원	81.0	17.3	1.6	100.0(367)		63.0 (231)	24(0.74)	
	50만원 이상	78.2	19.3	2.5	100.0(366)		65.7 (241)	26(0.68)	
나의 역량	상	85.2	13.5	1.3	100.0(619)	11.559** (2)	67.7 (419)	25(0.71)	3.156**
	하	77.8	20.0	2.2	100.0(683)		66.1 (452)	23(0.74)	
양육 부담	상	80.4	17.8	1.8	100.0(897)	14.79 (2)	66.9 (600)	24(0.75)	3.278**
	하	83.3	15.0	1.7	100.0(405)		66.9 (271)	25(0.67)	
기관 이용	미이용	79.7	17.8	2.5	100.0(360)	1.906 (2)	89.4 (322)	24(0.68)	0.002
	이용	81.9	16.6	1.5	100.0(942)		58.3 (549)	24(0.75)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b) 분산분석을 위한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1$, *** $p < .001$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 연령별 집단의 만족도 평균에 차이를 보여 만 2세 집단에서 2.2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12개월까지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이후 10만원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금액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맞벌이가 아닌 집단의 이용 비율이 높으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양육부담을 적게 경험하는 집단에서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

나) 정책 내용 이해

설문에 응답하는 시점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모든 영유아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제도이다’라는 점에 대해 94.7%가 알고 있었고,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는다’에는 28.5%, ‘농어촌 거주아동은 도시지역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는다’는 22.3%가 알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표 V-2-3〉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모든 영유아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음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음	농어촌 거주아동은 도시지역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음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수
전체	94.7	28.5	22.3	2.9	(1,302)
지역 규모					
대도시	93.6	29.5	20.3	3.0	(529)
중소도시	95.8	26.9	23.8	2.7	(553)
농어촌지역	94.5	29.9	23.5	3.1	(220)
자녀 나이					
영영아	94.4	25.4	23.3	3.0	(197)
영아	94.0	31.6	26.3	3.6	(420)
유아	95.2	27.4	19.6	2.4	(685)
자녀 수					
1명	95.3	26.3	23.2	2.6	(696)
2명	93.6	29.4	20.1	3.3	(483)
3명 이상	95.9	37.1	25.9	3.3	(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94.5	28.7	22.2	3.1	(677)
맞벌이 아님	94.9	28.2	22.5	2.7	(62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95.9	30.6	21.6	1.5	(195)
250-350만원	95.4	26.1	22.4	3.2	(374)
350-500만원	93.8	28.1	21.2	3.5	(367)
500만원 이상	94.3	30.1	23.8	2.7	(366)
나의 역량					
상	96.3	32.1	24.5	1.8	(619)
하	93.3	25.2	20.3	3.9	(683)
양육 부담					
상	94.7	28.8	22.0	3.2	(897)
하	94.8	27.8	23.1	2.2	(405)
기관 이용					
미이용	95.6	27.9	24.9	2.8	(360)
이용	94.4	28.7	21.4	3.0	(942)

다) 개선 요구

가정양육수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정책 내용 중 개선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는 양육수당 금액의 증액요구가 61%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 23%로 이 두 가지 의견에의 동의가 전체 응답의 84%를 차지했다. 자녀연령이 어린 영영아와 영아 집단에서 유아보다 양육수당 증액에의 동의 정도가 더 높았고, 맞벌이가 아닌 집단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집단에서 수당 증액에의 요구가 높고 250만원 미만 집단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에 대한 요구가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표 V-2-4〉 가정양육수당 개선 요구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 증액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	양육수당 홍보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양육수당 감액	기타	개선점 없음	계	$\chi^2(df)$	
전체	61.0	23.0	5.6	5.3	0.9	0.3	3.7	100.0(871)		
지역 규모	대도시	61.0	22.5	5.0	6.4	0.8	0.3	3.9	100.0(357)	6.162 (12)a
	중소도시	62.5	22.5	5.4	4.3	1.1	0.3	4.0	100.0(374)	
	농어촌지역	57.3	25.7	8.1	5.2	0.7	0.7	2.3	100.0(139)	
자녀 나이	영영아	66.9	21.9	6.5	3.0	0.0	0.0	1.8	100.0(169)	29.330** (12)a
	영아	66.6	15.8	6.7	5.5	0.9	0.3	4.2	100.0(318)	
	유아	53.9	29.5	4.4	6.2	1.3	0.5	4.2	100.0(384)	
자녀 수	1명	64.2	20.2	6.6	4.6	1.0	0.2	3.1	100.0(485)	15.184 (12)a
	2명	56.4	27.2	4.6	5.6	1.0	0.3	4.9	100.0(305)	
	3명 이상	59.3	24.6	3.7	8.8	0.0	1.2	2.4	100.0(81)	
맞벌이 여부	맞벌이	55.5	24.5	6.5	7.7	1.0	0.7	4.0	100.0(400)	17.609** (6)a
	맞벌이 아님	65.8	21.8	4.9	3.3	0.8	0.0	3.4	100.0(470)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59.3	31.6	4.9	2.8	0.0	0.0	1.4	100.0(142)	37.409** (18)a
	250-350만원	66.0	20.6	4.7	4.4	0.0	0.0	4.3	100.0(258)	
	350-500만원	62.9	23.3	4.8	4.3	2.2	0.4	2.2	100.0(231)	
	500만원 이상	55.0	20.4	7.9	8.8	1.3	0.8	5.8	100.0(241)	
나의 역량	상	61.5	22.2	5.3	4.1	1.0	0.2	5.8	100.0(419)	12.328 (6)a
	하	60.7	23.8	6.0	6.5	0.9	0.4	1.8	100.0(452)	
양육 부담	상	63.5	22.6	5.0	4.8	0.8	0.3	2.8	100.0(600)	8.126 (6)
	하	55.5	24.0	7.1	6.3	1.1	0.4	5.6	100.0(271)	
기관 이용	미이용	66.4	19.5	5.9	3.2	0.9	0.0	4.1	100.0(322)	11.582
	이용	57.9	25.1	5.5	6.6	0.9	0.5	3.5	100.0(549)	(6)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
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1$

두 돌 전인데 어린이집에 30 얼마를 어린이집에서 가져가더라고요. 그 돈을 고스란히 양육비로 한다면...저희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을 부모가 할 수 있게 만들면 더 아이들의 질이 높아질 것 같은데... 두 돌 세돌 전에는 엄마와 애착관계가 더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밖으로 내몰아요 국가에서는(유아 어머니 A).

가정양육수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가정양육수당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어머니 중 532명은 증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실제 양육비용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7%, 매월 22만원이 지급되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24.3%가 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실제 양육비용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유에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기관을 미이용하는 가구가 이용하는 가구보다 '실제 양육비에 비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고, 기관 이용가구는 미이용 가구보다 '보육료/교육비지원에 비해 적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5〉 가정양육수당 증액 요구 사유

단위: %(명)

항목	실제 양육 비용에 비해 부족하므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비해 적으므로	계	$\chi^2(df)$	
전체	75.7	24.3	100.0(532)		
지역	대도시	77.1	22.9	100.0(218)	1.261
규모	중소도시	76.0	24.0	100.0(234)	
	농어촌지역	70.7	29.3	100.0(80)	
자녀	영영아	81.4	18.6	100.0(113)	10.363**
나이	영아	79.9	20.1	100.0(212)	
	유아	68.2	31.8	100.0(207)	
자녀	1명	79.3	20.7	100.0(312)	9.523**
수	2명	67.4	32.6	100.0(172)	
	3명 이상	81.3	18.7	100.0(48)	
맞벌이	맞벌이	73.8	26.2	100.0(222)	0.696
여부	맞벌이 아님	77.0	23.0	100.0(309)	
가구	250만원 미만	84.6	15.4	100.0(84)	10.009*
소득	250-350만원	78.2	21.8	100.0(170)	
	350-500만원	75.7	24.3	100.0(145)	
	500만원 이상	66.6	33.4	100.0(132)	
나의	상	71.2	28.8	100.0(257)	5.484*
역량	하	79.9	20.1	100.0(274)	
양육	상	77.9	22.1	100.0(381)	3.701
부담	하	69.9	30.1	100.0(150)	
기관	미이용	80.7	19.3	100.0(214)	4.922*
이용	이용	72.3	27.7	100.0(318)	

* $p < .05$, ** $p < .01$

그런데 지금 출산이 너무 저조한 상태에다가 그런데 이렇게 금액가지고 못주네 뭐하네 하면 더 이상 출산율은 더 저조하지 더 높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40만 원을 제 생각에 어린이집에 줄 거를 저희한테 주는 거는 어차피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아닌가요?(유아 어머니 A)

만약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육료/교육비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한다면, 맞벌이 여부나 가정 내 양육 여건과 관계없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 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표 V-2-6〉 가정양육수당 증액 시 가정양육수당 이용 의향

단위: %(명)

항목	자녀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고려하여 선택	보육료/교육비 지원 받고 어린이집 이용	가정양육수당 받고 가정에서 양육	계	$\chi^2(df)$	
전체	51.2	31.4	17.4	100.0(1302)		
지역 규모	대도시	51.3	32.0	16.7	100.0(529)	1.065 (4)
	중소도시	51.0	30.5	18.5	100.0(553)	
	농어촌지역	51.6	32.3	16.2	100.0(220)	
자녀 나이	영영아	52.8	17.3	30.0	100.0(197)	49.555*** (4)
	영아	52.9	28.1	19.0	100.0(420)	
	유아	49.7	37.5	12.8	100.0(685)	
자녀 수	1명	49.9	31.1	19.0	100.0(696)	3.287 (4)
	2명	52.5	31.6	15.9	100.0(483)	
	3명 이상	53.9	32.2	13.9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6	40.3	14.1	100.0(677)	53.232*** (2)
	맞벌이 아님	57.3	21.8	21.0	100.0(62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55.6	22.4	22.0	100.0(195)	15.713* (6)
	250-350만원	52.3	28.9	18.8	100.0(374)	
	350-500만원	50.4	33.3	16.4	100.0(367)	
	500만원 이상	48.6	36.9	14.5	100.0(366)	
나의 역량	상	49.8	32.2	18.0	100.0(619)	0.923 (2)
	하	52.5	30.6	16.9	100.0(683)	
양육 부담	상	52.3	30.5	17.2	100.0(897)	1.516 (2)
	하	48.8	33.4	17.8	100.0(405)	
기관 이용	미이용	58.2	12.5	29.3	100.0(360)	101.331*** (2)
	이용	48.5	38.6	12.9	100.0(942)	

* $p < .05$, *** $p < .001$

전체 응답자의 51.2%는 자녀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고려하여 선택할 것이라고, 31.4%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받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한다고, 17.4%는

가정양육수당 받고 가정에서 양육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미만의 영영아 자녀를 둔 경우 가정양육수당 받고 가정에서 양육하겠다는 비율이 30%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맞벌이가 아닌 경우 이 비율이 21%로 맞벌이 가구의 14.1%보다 높았다. 기관 미이용 가구는 자녀에 따라 선택(58.2%)하거나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의사(29.3%)가 보다 높게 나타났고, 기관 이용 가구는 양육수당이 증액되어도 어린아이를 계속 이용할 의사(38.6%)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라) 미 이용 이유

가정양육수당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현재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90.9%로 가장 많았고, '제도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5.8%로 나타났다. 이 비율에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교육비 지원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V-2-7〉 가정양육수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항목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고 있어서	자녀가 기관 미이용중이나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 절차가 불편해서	기타	계	$\chi^2(df)$	
전체	90.9	5.8	1.4	1.9	100.0(431)		
지역 규모	대도시	89.6	8.1	2.3	0.0	100.0(172)	12.303 (6)a
	중소도시	91.0	4.5	0.6	3.9	100.0(179)	
	농어촌지역	93.6	4.0	1.2	1.2	100.0(81)	
자녀 나이	영영아	32.1	50.0	7.2	10.7	100.0(28)	140.167*** (6)a
	영아	89.0	8.0	2.0	1.0	100.0(102)	
	유아	97.0	1.0	0.7	1.3	100.0(301)	
자녀 수	1명	86.2	9.5	2.4	1.9	100.0(211)	16.673* (6)a
	2명	95.4	2.9	0.6	1.1	100.0(178)	
	3명 이상	95.3	0.0	0.0	4.7	100.0(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91.6	5.1	1.4	1.8	100.0(276)	0.787 (3)a
	맞벌이 아님	89.6	7.2	1.3	1.9	100.0(155)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96.3	1.9	0.0	1.9	100.0(54)	6.965 (9)a
	20-30만원	91.3	7.0	0.9	0.9	100.0(116)	
	30-50만원	89.7	5.2	2.9	2.2	100.0(136)	
	50만원 이상	89.6	7.2	0.8	2.4	100.0(126)	

(표 V-2-7 계속)

항목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고 있어서	자녀가 기관 미이용중이나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 절차가 불편 해서	기타	계	$\chi^2(df)$	
나의 역량	상 하	94.5 87.8	3.5 7.9	1.0 1.7	1.0 2.6	100.0(200) 100.0(231)	5.740 (3)a
양육 부담	상 하	90.5 91.8	6.5 4.5	1.0 2.2	2.0 1.5	100.0(297) 100.0(134)	1.736 (3)a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01$

2) 0~2세 보육료 지원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과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비용 지원 정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0~5세 영유아의 보육·교육비용을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⁶⁰).

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1) 0~2세 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에 대한 비용지원이다⁶¹).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72%, 들어만 봤다는 경우는 23%, 모른다는 경우도 5.1%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자녀의 연령일 증가할수록 높았다. 특히 0~2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영영아 집단(46.2%)에서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양육역량을 높게 평가한 집단에서 낮게 평가한 집단보다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0~2세 보육료 지원의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71.7%에 달하며,

60) 교육부 홈페이지, 누리과정 설명 (검색일: 2016. 10. 19)

<http://www.moe.go.kr/web/100062/ko/board/view.do?bbsId=315&boardSeq=59966&mode=view>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설명 (검색일: 2016. 10. 19)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PAGE=3&stopTitle=보육정책

6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설명 (검색일: 2016. 10. 19)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PA

만족도는 4점 척도 중 2.7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3점)'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 연령별 집단의 만족도 평균에 차이를 보여 유아 집단에서 2.7점으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이용 비율이 높고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양육부담을 적게 경험하는 집단에서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

보내는 엄마들이 안보내면 손해인 것 같아서 보내는 엄마들이 영아기 때는 많아요. 집에서 20만원 받느니 그거 나가면 받는 건데, 그러면 계산으로 하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내려놓는 엄마로서의 역할은 전혀 계산할 줄 모르는 그게 문제인거죠. 그러면 내가 아이와 떨어져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내가 아이와 할 수 없는 상황들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카운트를 하지 않는...(학계 교수 H)

<표 V-2-8> 0~2세 보육료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 (수)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만족도	F/t	
전체	72.0	23.0	5.1	100.0(1,302)		71.7 (935)	2.7(0.70)		
지역 규모	대도시	70.1	24.8	5.1	100.0(529)	2.930 (4)	69.0 (367)	2.7(0.71)	0.170
	중소도시	74.1	20.7	5.3	100.0(553)		73.2 (404)	2.7(0.69)	
	농어촌지역	71.2	24.3	4.5	100.0(220)		74.3 (163)	2.7(0.71)	
자녀 나이	영영아	46.2	43.2	10.7	100.0(197)	80.194*** (4)	33.5 (66)	2.5(0.61)	6.899***b
	영아	73.5	21.5	5.0	100.0(420)		71.2 (299)	2.6(0.76)	
	유아	78.4	18.1	3.5	100.0(685)		82.9 (570)	2.7(0.67)	
자녀 수	1명	65.3	27.6	7.0	100.0(696)	36.716*** (4)	61.9 (433)	2.7(0.71)	0.198
	2명	80.6	16.5	2.9	100.0(483)		82.0 (396)	2.7(0.71)	
	3명 이상	75.9	21.6	2.4	100.0(123)		86.4 (107)	2.7(0.64)	
맞벌이 여부	맞벌이	73.3	22.1	4.6	100.0(677)	1.400 (2)	80.2 (544)	2.8(0.67)	4.873***
	맞벌이 아님	70.5	23.9	5.6	100.0(625)		62.4 (391)	2.5(0.73)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8.9	23.4	7.6	100.0(195)	3.966 (6)	64.8 (127)	2.6(0.65)	2.171b
	250-300만원	72.2	23.6	4.3	100.0(374)		68.1 (255)	2.6(0.75)	
	350-500만원	71.9	22.9	5.2	100.0(367)		73.6 (271)	2.7(0.73)	
	500만원 이상	73.5	22.1	4.4	100.0(366)	77.0 (283)	2.7(0.66)		
나의 역량	상	77.1	19.4	3.5	100.0(619)	15.911*** (2)	73.2 (454)	2.8(0.71)	3.594***
	하	67.4	26.2	6.4	100.0(683)		70.3 (481)	2.6(0.69)	
양육 부담	상	70.5	24.6	4.9	100.0(897)	4.453 (2)	71.7 (644)	2.6(0.72)	-3.739***
	하	75.4	19.2	5.4	100.0(405)		71.6 (291)	2.8(0.65)	

주: b) 분산분석을 위한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1$, *** $p < .001$

(2) 3~5세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교육 비용지원이다.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66.5%, 들어만 봤다는 경우는 28.9%, 모른다는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표 V-2-9〉 3~5세 누리과정 지원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수)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만족도	F/t	
전체	66.5	28.9	4.7	1000(1302)		52.5 (774)	2.6(0.75)		
지역 규모	대도시	66.3	27.8	5.8	1000(529)	5.657 (4)	51.6 (305)	2.6(0.74)	0.766
	중소도시	67.5	29.4	3.1	1000(553)		53.0 (331)	2.6(0.76)	
	농어촌지역	64.1	29.9	6.0	1000(220)		53.5 (138)	2.7(0.74)	
자녀 나이	영영아	30.4	55.9	13.7	1000(197)	24.219*** (4)	2.5 (14)	2.8(0.84)	4.029*
	영아	54.9	39.6	5.5	1000(420)		5.5 (101)	2.2(0.83)	
	유아	83.9	14.5	1.6	1000(685)		95.6 (659)	2.6(0.74)	
자녀 수	1명	53.1	39.7	7.2	1000(696)	12.48*** (4)	28.4 (257)	2.6(0.75)	0.055
	2명	81.1	16.8	2.1	1000(483)		78.9 (411)	2.6(0.75)	
	3명 이상	84.6	14.6	0.8	1000(123)		85.3 (106)	2.6(0.7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5.9	29.9	4.1	1000(677)	1.583	56.3 (439)	2.7(0.72)	2.239*
	맞벌이 아님	67.0	27.7	5.3	1000(625)	(2)	48.4 (336)	2.5(0.77)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5.2	26.1	8.7	1000(195)	10.203 (6)	54.3 (114)	2.6(0.78)	1.676
	250-350만원	66.2	30.3	3.5	1000(374)		50.4 (210)	2.6(0.78)	
	350-500만원	68.9	27.0	4.1	1000(367)		53.7 (224)	2.5(0.74)	
	500만원 이상	64.9	30.7	4.4	1000(366)		52.5 (226)	2.7(0.70)	
나의 역량	상	71.6	24.1	4.3	1000(619)	14.178***	52.3 (366)	2.7(0.75)	2.212*
	하	61.8	33.2	5.0	1000(683)	(2)	52.7 (408)	2.5(0.74)	
양육 부담	상	66.1	28.8	5.1	1000(897)	1.241	52.0 (534)	2.5(0.72)	-2.820**
	하	67.3	29.0	3.7	1000(405)	(2)	53.7 (241)	2.7(0.79)	

* $p < .05$, ** $p < .01$, *** $p < .001$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자녀의 연령일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높았고 특히 현재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유아 집단에서 높았다. 자녀수가 많아 질수록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양육역량을 높게 평가한 집단에서 낮게 평가한 집단보다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5세 누리과정 지원의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52.2%이며, 유아 집단에서는 95.6%

에 달하여 대부분의 유아가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는 4점 척도 중 2.6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3점)'에 보다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 연령별 집단의 만족도 평균에 차이를 보여 영영아 집단에서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이용 비율이 높고 만족도(2.7)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양육부담을 적게 경험하는 집단에서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

나) 정책 내용 이해

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정책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지 조사하였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는 매달 연령별로 다른 보육료 지원을 지원 받고 있다' 에는 응답자의 77.7%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이 지원된다'는 내용에는 67%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3~5세에게 매달 22만원의 누리과정 비용지원을 한다'에는 63.5%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표 V-2-10> 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지원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	어린이집 재원 0~2세는 매달 연령별로 다른 보육료를 지원받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이 지원됨	어린이집·유치원 에 다니는 모든 3~5세에게 매달 22만원의 누리 과정 비용지원함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수	
전체	77.7	67.0	63.5	5.4	(1,302)	
지역 규모	대도시	78.6	64.5	63.1	5.1	(529)
	중소도시	78.1	69.0	64.4	5.3	(553)
	농어촌지역	74.9	68.0	61.9	6.5	(220)
자녀 나이	영영아	67.5	48.7	38.1	13.2	(197)
	영아	80.8	62.8	44.0	7.7	(420)
	유아	78.8	74.7	82.6	1.8	(685)
자녀 수	1명	76.4	61.6	49.9	8.5	(696)
	2명	81.0	73.3	79.0	1.9	(483)
	3명 이상	72.5	72.6	78.9	1.6	(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7	67.5	61.9	4.9	(677)
	맞벌이 아님	75.7	66.4	65.1	6.0	(62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73.0	65.9	64.6	5.6	(195)
	250-350만원	77.3	66.0	62.2	6.7	(374)
	350-500만원	80.4	68.9	66.1	4.4	(367)
	500만원 이상	78.1	66.7	61.4	5.0	(366)

(표 V-2-10 계속)

항목	어린이집 재원 0~2세는 매달 연령별로 다른 보육료를 지원받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이 지원됨	어린이집·유치원 에 다니는 모든 3~5세에게 매달 22만원의 누리 과정 비용지원함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수	
나의 역량	상 하	81.0 74.8	71.3 63.1	65.7 61.4	3.4 7.2	(619) (683)
양육 부담	상 하	77.7 77.8	65.5 70.3	62.8 65.0	6.4 3.2	(897) (405)
기관 이용	미이용 이용	71.1 80.3	55.8 71.2	42.9 71.3	11.2 3.2	(360) (942)

다) 개선 요구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정책의 개선 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보육료·누리과정 지원금 증액요구가 55%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 차등화 22.3%, 신청절차 간소화에 1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여 모든 집단에서 지원금 증액요구가 가장 높지만, 가정양육수당 개선 요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월평균 250만원 미만 집단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예의 요구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V-2-11〉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정책 개선요구

단위: %(명)

항목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소득수준 에 따라 지원금 차등화	신청 절차 간소화	정책 홍보 강화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감액	기 타	계	$\chi^2(df)$	
전체	55.0	22.5	10.0	5.5	2.2	4.8	100.0(1,039)		
지역 규모	대도시	55.2	24.0	9.3	5.5	1.7	4.3	100.0(418)	13.315 (10)
	중소도시	57.2	20.3	9.3	4.3	3.0	5.9	100.0(441)	
	농어촌지역	49.3	24.2	13.4	8.2	1.6	3.2	100.0(181)	
자녀 나이	영영아	46.4	20.3	14.4	14.5	2.9	1.4	100.0(69)	17.165 (10)
	영아	53.2	23.1	10.8	5.3	2.7	5.0	100.0(302)	
	유아	56.7	22.4	9.3	4.6	1.9	5.1	100.0(668)	
자녀 수	1명	55.4	21.2	10.7	6.2	2.3	4.1	100.0(467)	5.608 (10)
	2명	55.3	22.3	9.6	4.8	2.4	5.5	100.0(451)	
	3명 이상	52.4	27.8	9.1	4.9	0.8	4.9	100.0(121)	

(표 V-2-11 계속)

항목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소득수준 에 따라 지원금 차등화	신청 절차 간소화	정책 홍보 강화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감액	기 타	계	$\chi^2(df)$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1 맞벌이 아님 58.8	22.9 21.9	12.1 7.4	5.8 5.1	2.2 2.2	4.9 4.6	100.0(588) 100.0(451)	8.373 (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46.7 250-350만원 59.0 350-500만원 59.2 500만원 이상 51.3	31.2 22.3 19.1 21.6	8.7 8.9 9.1 12.7	4.7 5.6 4.7 6.5	6.7 0.7 1.7 2.0	2.0 3.5 6.3 5.9	100.0(149) 100.0(286) 100.0(298) 100.0(306)	38.308*** (15)
나의 역량	상 54.9 하 55.1	24.3 20.8	9.0 10.9	3.8 7.0	2.4 2.0	5.6 4.1	100.0(499) 100.0(540)	8.580 (5)
양육 부담	상 56.3 하 52.1	21.8 24.0	9.5 11.1	5.2 6.1	2.2 2.1	4.9 4.6	100.0(713) 100.0(326)	2.070 (5)
기관 이용	미이용 52.0 이용 55.3	20.9 22.6	15.1 9.5	8.0 5.2	1.0 2.3	3.0 5.0	100.0(100) 100.0(939)	5.825 (5)

*** $p < .001$

그러니까 정책을 발의를 하려면 이 때 재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도 고려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누리과정도 무상보육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거 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막상 돈이 나와야 될 때는 없으니까...(학계 교수)

라) 미 이용 이유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정책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라는 응답이 68.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유치원 대기자가 많아서 기다림'이라는 응답이 12.9%, '제도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도 11.5%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V-2-12>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정책 미이용 이유

단위: %(명)

항목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대기자가 많아서 기다림	제도를 잘 몰라서	다른기관 이용위함 (영아학원 놀이학교 등)	기 타	계	$\chi^2(df)$
전체	68.8	12.9	11.5	0.8	6.0	100(263)	

(표 V-2-12 계속)

항목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대기자가 많아서 기다림	제도를 잘 몰라서	다른기관 이용위함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	기타	계	$\chi^2(df)$
지역	대도시	60.7	21.4	10.7	0.9	6.2	100.0(112)
규모	중소도시	75.9	7.1	11.6	0.9	4.5	100.0(112)
	농어촌지역	71.2	5.2	13.6	0.0	10.1	100.0(39)
자녀	영영아	72.6	9.4	11.7	0.8	5.5	100.0(128)
나이	영아	66.8	16.1	12.1	0.0	5.1	100.0(118)
	유아	53.3	17.5	5.9	5.9	17.4	100.0(17)
자녀	1명	68.0	12.7	12.8	0.9	5.7	100.0(229)
수	2명	78.5	12.3	3.1	0.0	6.0	100.0(32)
	3명 이상	0.0	49.7	0.0	0.0	50.3	100.0(2)
맞벌이	맞벌이	63.9	20.1	11.5	0.0	4.4	100.0(89)
여부	맞벌이 아님	71.2	9.2	11.5	1.2	6.9	100.0(174)
	250만원 미만	67.5	8.7	17.3	0.0	6.5	100.0(46)
가구	250-350만원	66.7	11.4	13.9	1.1	6.8	100.0(87)
소득	350-500만원	65.1	14.5	11.8	1.5	7.2	100.0(69)
	500만원 이상	76.9	16.6	3.3	0.0	3.2	100.0(60)
나의	상	75.8	10.0	7.5	0.8	5.8	100.0(119)
역량	하	62.9	15.3	14.8	0.7	6.2	100.0(144)
양육	상	65.3	15.1	13.2	0.5	5.9	100.0(185)
부담	하	77.0	7.7	7.6	1.3	6.4	100.0(78)

나. 돌봄 지원 정책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을 제외하고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보육(일시보육)서비스와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그 인지 여부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표 V-2-13〉 돌봄 지원 정책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구분	인지여부				이용여부 이용 (수)	이용만족도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24.2	50.1	25.7	100.0(1,302)	7.1 (92)	2.2(0.90)
아이돌봄서비스	22.3	56.2	21.6	100.0(1,302)	6.8 (89)	2.5(0.74)

돌봄지원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은 시간제보육(일시보육)서비스 25.7%, 아이돌봄서비스 21.6%로 75~80%의 부모가 이미 알고 있는 정책이나 그 이용 비율은 7.1%와 6.8%에 그쳐 극히 낮은 상황이며, 이용 만족도 또한 높지 않다.

1)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이라고도 불리는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일시적 보육을 지원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6a:265). 긴급한 돌봄 필요뿐만 아니라 육아에 지친 어머니들에게 잠시 쉽표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영유아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경우 이용단가 4,000원 중 2,000원~3,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000원 전액을 부모 자비부담으로 이용 가능하기도 하다(보건복지부, 2016a:271).

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해 들어만 봤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높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4.2%, 모른다는 응답은 25.7%이다.

〈표 V-2-14〉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수)	만족도	F/t	
전체	24.2	50.1	25.7	100.0(1302)		7.1 (92)	2.2(0.90)		
지역 규모	대도시	25.2	49.4	25.4	100.0(529)	6.880 (4)	8.3 (44)	2.1(0.88)	0.860
	중소도시	22.9	53.4	23.8	100.0(553)		6.4 (35)	2.3(0.96)	
	농어촌지역	25.1	43.6	31.3	100.0(220)		5.9 (13)	2.4(0.76)	
자녀 나이	영영아	14.7	47.7	37.5	100.0(197)	23.453*** (4)	3.1 (6)	2.5(0.84)	0.588
	영아	27.4	48.0	24.7	100.0(420)		9.6 (40)	2.3(0.90)	
	유아	25.0	52.1	22.9	100.0(685)		6.7 (46)	2.1(0.91)	
자녀 수	1명	20.7	49.7	29.6	100.0(696)	17.264** (4)	6.2 (43)	2.4(0.85)	4.483*
	2명	27.5	50.4	22.2	100.0(483)		7.9 (38)	1.9(0.83)	
	3명 이상	30.9	51.5	17.6	100.0(123)		9.0 (11)	2.5(1.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7	50.1	25.2	100.0(677)	0.218 (2)	7.7 (52)	2.4(0.87)	2.321*
	맞벌이 아님	23.7	50.1	26.2	100.0(625)		6.4 (40)	2.0(0.89)	

(표 V-2-14 계속)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 (수)	만족도	F/t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27.6	47.4	25.0	100.0(195)	4.428 (6)	9.7 (19)	1.9(0.97)	1.033
	250-350만원	25.5	50.9	23.7	100.0(374)		5.6 (21)	2.2(0.87)	
	350-500만원	21.0	51.5	27.5	100.0(367)		7.1 (26)	2.4(0.81)	
	500만원 이상	24.3	49.4	26.3	100.0(366)		7.1 (26)	2.2(0.95)	
나의 역량	상	28.5	49.8	21.7	100.0(619)	16.180***	7.9 (49)	2.2(0.91)	-0.151
	하	20.3	50.4	29.3	100.0(683)	(2)	6.3 (43)	2.2(0.90)	
양육 부담	상	25.8	48.1	26.1	100.0(897)	5.826	7.7 (69)	2.3(0.88)	1.900
	하	20.6	54.6	24.8	100.0(405)	(2)	5.7 (23)	1.9(0.90)	
기관 이용	미이용	16.7	48.4	34.9	100.0(360)	27.979***	1.7 (6)	2.3(1.03)	0.106
	이용	27.1	50.8	22.2	100.0(942)	(2)	9.1 (86)	2.2(0.90)	

* $p < .05$, ** $p < .01$, *** $p < .001$

집단특성별로 살펴보면, 12개월 미만의 영영아 집단에서,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에 모른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기관 이용가구는 시간제 보육을 모르는 비율이 22.2%였으나 미이용가구에서 모르는 비율(34.9%)이 더 높아서 이는 실질적인 수요자로 볼 수 있는 가정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체 응답자 중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1%에 그쳐 이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 이용은 활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용한 경우 만족도 또한 2.2점으로 '대체로 불만족함(2점)'에 가까운 결과를 보인다.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비교적 만족정도가 높았다.

나) 정책 내용 이해

시간제 보육(일시보육) 서비스의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질의한 결과,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아 정책 내용에의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수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35.3%, '유치원·어린이집 미이용 시 시간당 이용료 중 2,000원을 지원 받는다' 20.7%, '전화나 인터넷 예약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19.7%, '기관 미이용 맞벌이의 경우 시간당 이용료 중 3,000원을 지원 받는다' 16.6%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표 V-2-15〉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	소득수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가능	유치원· 어린이집 미이용 시 시간당 이용료 중 2,000원을 지원받음	전화나 인터넷 예약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기관 미이용 맞벌이의 경우 시간당 이용료 중 3,000원을 지원받음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수
전체	35.3	20.7	19.7	16.6	48.9	(1,302)
지역						
대도시	34.8	20.7	18.6	15.0	49.2	(529)
중소도시	36.5	21.8	20.5	17.2	48.1	(553)
농어촌지역	33.3	18.3	20.1	18.8	50.3	(220)
자녀						
영영아	28.4	18.8	13.2	15.8	56.8	(197)
영아	40.1	23.5	22.4	18.8	44.0	(420)
유아	34.3	19.6	19.9	15.5	49.7	(685)
자녀 수						
1명	35.0	19.9	17.9	16.2	50.4	(696)
2명	33.9	21.1	21.3	16.1	49.4	(483)
3명 이상	42.1	24.3	23.5	21.0	38.6	(123)
맞벌이						
맞벌이	37.4	20.0	20.9	19.1	45.6	(677)
여부 맞벌이 아님	33.0	21.6	18.4	13.9	52.5	(625)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31.7	23.5	22.9	13.7	50.5	(195)
20-30만원	35.1	21.7	17.5	16.4	51.4	(374)
30-50만원	33.0	19.1	16.6	16.6	50.7	(367)
50만원 이상	39.6	19.9	23.2	18.3	43.7	(366)
나의						
상	38.5	22.5	23.7	19.6	44.0	(619)
역량 하	32.3	19.1	16.1	13.9	53.4	(683)
양육						
상	35.5	20.8	18.6	16.7	49.7	(897)
부담 하	34.7	20.6	22.1	16.4	47.2	(405)
기관						
미이용	34.3	20.1	17.6	14.8	53.4	(360)
이용	35.6	21.0	20.5	17.3	47.2	(942)

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이용 이유를 살펴보았다. ‘급한 용무/자녀 동반이 어려운 용무 때문에’ 62%, ‘양육 중 잠깐의 휴식을 얻고 싶어서’ 11.9%, ‘어린이집 이용 전에 자녀 적응과 사회성을 길러 주려고’ 10.9%, ‘어린이집 입소 기다리면서 임시로 이용’ 6.4%,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보다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4.4%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V-2-16〉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항목	급한용무 /자녀 동반이 어려운 용무 때문에	양육 중 잠간의 휴식을 얻고 싶어서	어린이집 이용 전에 자녀의 적응과 사회성을 같추려고	어린이집 입소 대기 중 임시 이용	민간 돌봄 서비스 ¹⁾ 보다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	기타	계	$\chi^2(df)$
전체	62.0	11.9	10.9	6.4	4.4	4.3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49.9	20.5	13.7	4.5	4.6	6.8	100.0(44)	17.724 (10)a
중소도시	77.1	2.9	11.4	5.7	0.0	2.9	100.0(35)	
농어촌지역	62.1	7.3	0.0	14.9	15.8	0.0	100.0(13)	
자녀 나이								
영영아	50.0	50.0	0.0	0.0	0.0	0.0	100.0(6)	18.390* (10)a
영아	74.9	7.4	5.0	7.4	5.2	0.0	100.0(40)	
유아	52.3	10.8	17.5	6.4	4.2	8.7	100.0(46)	
자녀 수								
1명	65.4	16.3	4.7	4.5	4.5	4.6	100.0(43)	12.632 (10)a
2명	55.2	5.3	21.1	10.5	2.6	5.3	100.0(38)	
3명 이상	72.4	17.6	0.0	0.0	10.0	0.0	100.0(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61.8	11.5	11.6	7.6	3.7	3.9	100.0(52)	0.460
맞벌이 아님	62.4	12.5	10.0	5.0	5.3	4.9	100.0(40)	(5)a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8.5	15.8	10.6	0.0	0.0	5.1	100.0(19)	8.759 (15)a
250-350만원	57.1	18.7	4.8	9.4	10.0	0.0	100.0(21)	
350-500만원	61.9	7.7	11.6	7.5	3.6	7.7	100.0(26)	
500만원 이상	61.4	7.7	15.4	7.7	3.9	3.9	100.0(26)	
나의 역량								
상	61.2	12.3	8.2	8.0	6.2	4.1	100.0(49)	1.932
하	63.0	11.5	14.0	4.7	2.3	4.6	100.0(43)	(5)a
양육 부담								
상	63.9	13.0	10.2	5.7	3.0	4.3	100.0(69)	2.108
하	56.5	8.7	13.0	8.7	8.7	4.4	100.0(23)	(5)a
기관 이용								
미이용	50.0	33.5	16.5	0.0	0.0	0.0	100.0(6)	3.776
이용	62.9	10.4	10.5	6.9	4.7	4.6	100.0(86)	(5)a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시간제 어린이집이 동마다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게 구별로 있다 보니까 말기려면 차를 타고 가야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벅찬데, 보내고 또 차를 타고 가서 말기자니 아이한테도 너무 힘든 것 같고... 시간제 보육을 동사무소로 분화시키면 그것은 많이 힘든가요?(유아 어머니 D).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이용 빈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9%는 필요할 때만 가끔씩 이용하고, 13.1%는 주기적으로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38.9%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V-2-17〉 시간제 보육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주기적으로 이용	필요할 때만 가끔 이용	계	$\chi^2(df)$	
전체	13.1	86.9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13.7	86.3	100.0(44)	10.621** (2)a
	중소도시	2.9	97.1	100.0(35)	
	농어촌지역	38.9	61.1	100.0(13)	
자녀 나이	영영아	0.0	100.0	100.0(6)	3.709 (2)
	영아	8.0	92.0	100.0(40)	
	유아	19.3	80.7	100.0(46)	
자녀 수	1명	14.1	85.9	100.0(43)	2.883 (2)a
	2명	7.8	92.2	100.0(38)	
	3명 이상	27.6	72.4	100.0(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4	84.6	100.0(52)	0.578 (1)
	맞벌이 아님	10.1	89.9	100.0(40)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10.5	89.5	100.0(19)	0.312 (3)a
	250-350만원	14.5	85.5	100.0(21)	
	350-500만원	11.7	88.3	100.0(26)	
	500만원 이상	15.2	84.8	100.0(26)	
나의 역량	상	8.2	91.8	100.0(49)	2.201 (1)
	하	18.7	81.3	100.0(43)	
양육 부담	상	13.2	86.8	100.0(69)	0.000 (1)a
	하	12.8	87.2	100.0(23)	
기관 이용	미이용	16.8	83.2	100.0(6)	0.074 (1)a
	이용	12.8	87.2	100.0(86)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1$

라) 개선 요구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확충하여 그 이용 접근성 증진해야한다는 점(41.3%)이었다.

다음은 시간제 보육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16.3%),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 편리성 증진(10.9%), 시간제 보육 지원금 증액(9.8%), 시간제 보육에 대한 홍보 강화(7.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에 대해 알고 있으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제공기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V-2-18〉 시간제 보육 개선요구

단위: %(명)

항목	① 제공 기관 확충	② 전문 프로 그램	③ 이용 절차 간소화	④ 지원금 증액	⑤ 홍보 강화	⑥ 시설 환경 개선	⑦ 소득 수준별 차등화	⑧ 기타	계	$\chi^2(df)$	
전체	41.3	16.3	10.9	9.8	7.6	7.6	5.4	1.0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52.2	13.7	6.8	9.0	6.9	6.8	4.6	0.0	100.0(44)	15.526 (14)a
	중소도시	34.3	20.0	14.3	5.7	8.6	11.4	5.7	0.0	100.0(35)	
	농어촌지역	23.5	15.4	15.4	23.1	7.8	0.0	7.6	7.3	100.0(13)	
자녀 나이	영영아	50.0	0.0	16.7	0.0	33.3	0.0	0.0	0.0	100.0(6)	13.765 (14)a
	영아	50.0	19.9	7.5	7.7	2.5	7.5	5.0	0.0	100.0(40)	
	유아	32.6	15.3	13.1	12.8	8.8	8.8	6.5	2.1	100.0(46)	
자녀 수	1명	37.1	16.4	9.3	13.9	9.3	7.0	7.0	0.0	100.0(43)	17.306 (14)a
	2명	31.7	21.0	15.8	7.9	7.9	7.9	5.2	2.5	100.0(38)	
	3명 이상	90.9	0.0	0.0	0.0	0.0	9.1	0.0	0.0	100.0(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4	17.4	15.4	11.5	3.9	11.6	3.8	0.0	100.0(52)	9.860 (7)a
	맞벌이 아님	47.7	15.0	5.0	7.4	12.5	2.5	7.5	2.4	100.0(40)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31.6	10.6	15.8	21.0	10.5	5.3	5.3	0.0	100.0(19)	14.675 (21)a
	250-350만원	52.5	14.2	4.8	0.0	9.6	9.5	9.5	0.0	100.0(21)	
	350-500만원	46.2	19.3	7.6	11.5	7.7	7.7	0.0	0.0	100.0(26)	
	500만원 이상	34.6	19.3	15.5	7.7	3.9	7.7	7.7	3.6	100.0(26)	
나의 역량	상	43.1	14.3	14.3	5.9	8.2	8.2	4.1	1.9	100.0(49)	4.200 (7)a
	하	39.3	18.7	7.0	14.2	7.0	7.0	7.0	0.0	100.0(43)	
양육 부담	상	40.6	16.0	11.6	11.6	4.4	8.7	7.2	0.0	100.0(69)	10.069 (7)a
	하	43.6	17.4	8.7	4.4	17.4	4.4	0.0	4.1	100.0(23)	
기관 이용	미이용	50.0	16.5	16.7	0.0	16.7	0.0	0.0	0.0	100.0(6)	2.543 (7)a
이용	이용	40.7	16.3	10.5	10.4	7.0	8.2	5.8	1.1	100.0(86)	

주: ①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늘려서 이용 접근성 증진, ② 시간제 보육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③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 편리성 증진, ④ 시간제 보육 지원금 증액, ⑤ 시간제 보육에 대한 홍보 강화, ⑥ 시간제보육 제공시설의 환경 개선, ⑦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제 보육 지원금 차등화, ⑧ 기타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마) 미 이용 이유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보육 서비스제도를 잘 몰라서(23.2%)', '필요하지 않아서(1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V-2-19〉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항목	① 기관 이용 중	② 제도 모름	③ 필요 하지 않음	④ 교사 신뢰 어려움	⑤ 전업 모라서 눈치 보임	⑥ 원 거리	⑦ 대기 많음	⑧ 자녀 적응 어려움	⑨ 비용 부담	⑩ 학원 이용	⑪ 기타	계	$\chi^2(df)$	
전체	37.2	23.2	12.9	7.0	5.3	5.0	3.5	3.5	1.5	0.1	0.8	1000(1210)		
지역 규모	대도시	37.3	23.8	12.5	6.8	4.5	4.7	4.5	3.5	1.6	0.0	0.8	1000(486)	16.555 (20)
	중소도시	37.8	21.5	14.5	7.4	6.2	4.5	2.9	3.5	0.8	0.2	0.8	1000(518)	
	농어촌지역	35.5	26.1	9.6	6.4	4.9	7.3	2.8	3.4	2.9	0.0	1.0	1000(207)	
자녀 나이	영영아	5.8	32.4	27.8	9.9	10.5	5.7	2.6	4.2	1.0	0.0	0.0	1000(191)	172719*** (20)
	영아	31.1	28.0	10.6	7.7	5.9	7.2	3.9	3.7	1.1	0.0	0.8	1000(380)	
	유아	50.2	17.6	9.8	5.6	3.4	3.6	3.6	3.1	1.9	0.2	1.1	1000(640)	
자녀 수	1명	30.5	27.1	15.2	8.5	5.7	4.0	4.1	3.4	0.9	0.2	0.5	1000(662)	54131*** (20)
	2명	44.5	18.7	10.5	5.6	4.3	6.3	3.1	4.1	1.8	0.0	1.1	1000(449)	
	3명 이상	46.9	18.6	9.0	3.5	7.0	6.1	1.8	1.7	3.5	0.0	1.8	1000(1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2	21.2	11.1	7.0	1.3	3.9	3.7	2.9	1.4	0.2	1.3	1000(625)	82149*** (10)
	맞벌이 아님	27.6	25.4	14.8	6.9	9.6	6.3	3.4	4.1	1.5	0.0	0.3	1000(58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33.3	23.3	13.0	6.2	9.1	6.2	1.7	5.1	2.3	0.0	0.0	1000(176)	45.463* (30)
	250-350만원	35.4	23.7	13.3	6.9	6.5	4.5	3.7	4.0	0.8	0.0	1.1	1000(353)	
	350-500만원	40.4	23.5	12.9	6.8	5.9	4.4	1.4	2.3	0.9	0.3	1.2	1000(341)	
	500만원 이상	37.9	22.4	12.3	7.6	1.5	5.6	6.5	3.3	2.4	0.0	0.6	1000(340)	
나의 역량	상	39.9	20.4	16.8	7.7	4.8	3.3	2.8	1.9	1.6	0.0	0.7	1000(570)	36.564*** (10)
	하	34.8	25.7	9.4	6.3	5.8	6.6	4.2	4.8	1.4	0.2	0.9	1000(640)	
양육 부담	상	37.1	23.0	10.8	7.0	5.2	5.4	4.6	4.4	1.4	0.1	1.0	1000(828)	24.099 (10)
	하	37.5	23.7	17.3	6.8	5.5	4.2	1.3	1.6	1.6	0.0	0.5	1000(382)	
기관 이용	미이용	5.3	32.0	23.2	10.3	9.6	6.8	6.2	5.4	0.8	0.0	0.3	1000(354)	241541*** (10)
	이용	50.4	19.6	8.6	5.6	3.5	4.3	2.4	2.7	1.7	0.1	1.0	1000(856)	

주: ①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②시간제보육 서비스제도를 잘 몰라서, ③필요하지 않아서, ④교사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⑤전업주부라 이용하기에 눈치가 보여서, ⑥이용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⑦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⑧자녀가 적응하기 어려워해서, ⑨이용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⑩영어학원 등 다른 시설을 이용, ⑪기타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양육역량감이 높은 경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라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 기관 미이용 가구는 제도 모름(32.0%), 필요치 않음(23.2%), 교사 신뢰어려움(10.3%), 전업모라서 눈치 보임(9.6%)의 이유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아 종일제, 시간제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62).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들어만 봤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2.3%, 모른다는 응답은 21.6%이다. 특성별로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나의 역량을 높게 평가할수록,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V-2-20〉 아이돌봄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구분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 (수)	만족도	F/t	
전체	22.3	56.2	21.6	100.0(1,302)		6.8(89)	2.5(0.74)		
지역 규모	대도시	22.0	55.7	22.4	100.0(529)	2.705 (4)	6.9(37)	2.6(0.73)	0.193
	중소도시	22.2	58.1	19.8	100.0(553)		6.4(35)	2.5(0.74)	
	농어촌지역	23.2	52.5	24.3	100.0(220)		7.8(17)	2.5(0.80)	
자녀 나이	영영아	12.7	52.8	34.5	100.0(197)	29.549*** (4)	2.5(5)	2.6(0.55)	1.263
	영아	22.1	57.4	20.5	100.0(420)		6.3(26)	2.4(0.74)	
	유아	25.1	56.4	18.6	100.0(685)		8.4(58)	2.6(0.75)	
자녀 수	1명	18.9	55.6	25.5	100.0(696)	32.789*** (4)	4.9(34)	2.7(0.57)	2.769b
	2명	22.9	58.7	18.4	100.0(483)		7.0(34)	2.3(0.77)	
	3명 이상	38.7	49.3	12.0	100.0(123)		17.0(21)	2.6(0.8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4.7	56.3	19.0	100.0(677)	7.809* (2)	9.6(65)	2.5(0.77)	-0.339
	맞벌이 아님	19.6	56.0	24.4	100.0(625)		3.8(24)	2.6(0.65)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23.4	51.0	25.5	100.0(195)	11.554 (6)	6.6(13)	2.9(0.64)	2.061
	20-30만원	17.9	58.0	24.1	100.0(374)		4.6(17)	2.6(0.79)	
	30-50만원	23.5	58.8	17.7	100.0(367)		6.3(23)	2.5(0.59)	
	50만원 이상	24.8	54.4	20.8	100.0(366)		9.9(36)	2.4(0.80)	

6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설명 (검색일: 2016. 10. 19)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2_01.jsp?viewfnc1=0&viewfnc2=0&viewfnc3=0&viewfnc4=1&viewfnc5=0&viewfnc6=0

(표 V-2-20 계속)

구분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F/t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 (수)	만족도		
나의 역량	25.7	56.3	18.0	100.0(619)	13.456**	7.3(45)	2.6(0.75)	0.781		
상 하	19.1	56.0	24.8	100.0(683)	(2)	6.4(44)	2.5(0.73)			
양육 부담	22.8	55.0	22.2	100.0(897)	1.511	6.6(59)	2.6(0.73)	0.356		
상 하	21.1	58.7	20.3	100.0(405)	(2)	7.4(30)	2.5(0.78)			
기관 미이용	14.2	52.7	33.1	100.0(360)	46.284***	1.7(6)	2.5(0.83)	0.018		
이용 이용	25.3	57.5	17.2	100.0(942)	(2)	8.8(83)	2.5(0.83)			

주: b) 분산분석을 위한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1$, *** $p < .001$

집단특성별로 살펴보면, 12개월 미만의 영영아 집단에서,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에, 맞벌이가 아닌 집단에서 또 역량감이 낮은 집단에서 모른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7.1%)와 유사하게 낮은 6.8% 정도이다. 즉 영유아 어머니 다섯 명 중 한명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 이용은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용한 경우 만족도는 4점 척도 중 2.5점 정도이다.

나) 정책 내용 이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으로 질의한 결과,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아 이 정책 역시 정책 내용에의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V-2-21〉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항목	종일제가 아니어도 시간제로도 이용 가능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가구 서비스 이용가능	종일제 월130만원 중 정부지원은 소득수준 따라 차등지원됨	돌봄과 더불어 세탁/청소/조리를 지원하는 종합형서비스도 있음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수
전체	36.8	26.1	18.3	11.8	46.2	(1,302)
지역 규모	대도시	32.5	26.3	16.7	10.7	47.9 (529)
	중소도시	41.2	26.5	17.8	13.2	45.0 (553)
	농어촌지역	36.0	24.5	23.3	10.9	45.4 (220)
자녀 나이	영영아	29.0	19.8	16.2	13.2	54.3 (197)
	영아	39.6	27.1	17.6	10.8	42.1 (420)
	유아	37.3	27.3	19.3	12.0	46.4 (685)

(표 V-2-21 계속)

항목	종일제가 아니어도 시간제로도 이용 가능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가구 서비스 이용가능	종일제 월130만원 중 정부지원은 소득수준 따라 차등지원됨	돌봄과 더불어 세탁/청소/조리 를 지원하는 종합형서비스도 있음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수
맞벌이 맞벌이	40.2	28.1	22.0	14.6	41.6	(677)
여부 맞벌이 아님	33.1	24.0	14.3	8.8	51.2	(625)
자녀 수 1명	35.3	24.4	17.6	12.0	48.6	(696)
2명	36.6	27.1	18.1	11.6	45.4	(483)
3명 이상	46.1	32.1	22.7	12.1	36.1	(123)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33.2	29.1	13.8	10.2	50.0	(195)
250-350만원	32.7	23.0	15.9	9.7	49.6	(374)
350-500만원	39.0	24.3	20.5	11.7	45.2	(367)
500만원 이상	40.7	29.5	21.0	15.1	41.8	(366)
나의 역량 상	42.2	28.9	20.2	12.6	40.2	(619)
하	31.9	23.5	16.6	11.1	51.7	(683)
양육 부담 상	35.0	25.8	17.6	11.7	48.3	(897)
하	40.7	26.7	19.8	12.1	41.7	(405)
기관 이용 미이용	32.0	23.1	14.8	10.9	52.1	(360)
이용 이용	38.6	27.3	19.6	12.2	44.0	(942)

또한 '종일제가 아니어도 시간제로도 이용 가능하다' 36.8%,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6.1%, '종일제 월130만원 중 정부 지원은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 된다' 18.3%, '아동 돌봄과 더불어 세탁, 청소, 조리 등을 지원하는 종합형 서비스도 있다' 11.8%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에 비해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 29%, '이용하고 싶은 때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24.8%,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라 믿을 수 있어서' 22.7%,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21.3%로 나타나 다양한 이유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22〉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민간 돌봄 서비스 ¹⁾ 에 비해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이용하고 싶은 때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라 믿을 수 있어서	민간 돌봄 서비스 ¹⁾ 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기타	계	$\chi^2(df)$	
전체	29.0	24.8	22.7	21.3	2.2	100.0(89)		
지역 규모	대도시	24.3	24.3	24.3	21.7	5.4	100.0(37)	3.677 (8)a
	중소도시	34.3	25.7	20.0	20.0	0.0	100.0(35)	
	농어촌지역	28.4	23.8	24.6	23.2	0.0	100.0(17)	
자녀 나이	영영아	60.0	20.0	20.0	0.0	0.0	100.0(5)	9.513 (8)a
	영아	18.9	23.1	19.7	38.3	0.0	100.0(26)	
	유아	30.9	25.9	24.3	15.4	3.4	100.0(58)	
자녀 수	1명	17.5	20.8	29.6	29.2	2.9	100.0(34)	11.296(8)a
	2명	32.2	32.3	23.5	9.2	2.9	100.0(34)	
	3명 이상	42.7	19.1	9.9	28.3	0.0	100.0(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9	20.1	26.3	24.6	3.0	100.0(65)	6.342 (4)
	맞벌이 아님	37.4	37.3	12.8	12.5	0.0	100.0(24)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15.5	23.0	30.5	31.0	0.0	100.0(13)	10.266 (12)a
	250-350만원	29.0	41.0	18.3	11.8	0.0	100.0(17)	
	350-500만원	34.5	26.5	9.2	25.5	4.3	100.0(23)	
	500만원 이상	30.4	16.6	30.5	19.7	2.7	100.0(36)	
나의 역량	상	28.7	26.5	20.5	24.2	0.0	100.0(45)	2.845 (4)
	하	29.3	23.0	24.9	18.4	4.5	100.0(44)	
양육 부담	상	26.8	18.8	23.9	27.1	3.4	100.0(59)	6.746 (4)
	하	33.3	36.5	20.3	10.0	0.0	100.0(30)	
기관 이용	미이용	16.7	49.9	16.7	16.7	0.0	100.0(6)	2.317 (4)a
	이용	29.9	22.9	23.1	21.7	2.4	100.0(83)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
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1) 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라) 개선 요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원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34.9%), 파견되는 돌보미의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28%), 이용 비용 중 지원금에 대한 증액(16.9%), 신청 절차 간소화(9.1%),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7.8%)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용 부모 세 명 중 한 명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기회확대를 지적함은 그 이용의 기회가 요

구에 비해 부족함을 보여주며, 파견도우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거를 바로 당일 날 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약제기 때문에. 당일 날 할 수 있는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으면 해요(유아 어머니 B).

〈표 V-2-23〉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요구

단위: %(명)

항목	① 원할 때 바로 이용	② 서비스 질 개선	③ 지원금 증액	④ 신청 절차 간소화	⑤ 홍보 강화	⑥ 지원금 감액	⑦ 기타	계	$\chi^2(df)$	
전체	34.9	28.0	16.9	9.1	7.8	2.2	1.1	100.0(89)		
지역 규모	대도시	32.5	18.8	21.7	13.5	10.8	0.0	2.7	100.0(37)	8.808 (12)a
	중소도시	37.2	37.2	11.4	5.7	5.7	2.9	0.0	100.0(35)	
	농어촌지역	35.5	28.8	17.8	6.4	5.7	5.7	0.0	100.0(17)	
자녀 나이	영영아	20.0	20.0	20.0	40.0	0.0	0.0	0.0	100.0(5)	14.530 (12)a
	영아	38.6	30.3	15.5	15.6	0.0	0.0	0.0	100.0(26)	
	유아	34.5	27.6	17.2	3.4	12.1	3.5	1.7	100.0(58)	
자녀 수	1명	29.3	26.3	20.6	17.9	5.9	0.0	0.0	100.0(34)	11.803 (12)a
	2명	32.5	32.4	11.8	5.8	11.7	2.9	2.9	100.0(34)	
	3명 이상	48.0	23.6	19.0	0.0	4.8	4.7	0.0	100.0(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7	26.1	21.6	7.9	9.2	3.1	1.5	100.0(65)	6.732 (6)a
	맞벌이 아님	46.3	33.1	4.2	12.4	4.1	0.0	0.0	100.0(24)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38.7	23.1	15.3	15.3	7.7	0.0	0.0	100.0(13)	12.884 (18)a
	250-350만원	30.1	29.0	23.5	5.9	5.7	5.8	0.0	100.0(17)	
	350-500만원	38.6	17.4	30.6	4.8	8.6	0.0	0.0	100.0(23)	
	500만원 이상	33.5	36.0	5.6	11.1	8.3	2.8	2.7	100.0(36)	
나의 역량	상	46.6	31.2	11.0	6.9	2.2	2.2	0.0	100.0(45)	10.991 (6)a
	하	22.9	24.7	22.9	11.3	13.6	2.3	2.2	100.0(44)	
양육 부담	상	32.3	25.3	23.8	10.2	5.1	1.7	1.7	100.0(59)	8.436 (6)a
	하	39.9	33.3	3.3	6.9	13.2	3.3	0.0	100.0(30)	
기관 이용	미이용	16.5	33.4	0.0	33.4	16.7	0.0	0.0	100.0(6)	6.849 (6)a
	이용	36.2	27.6	18.1	7.3	7.2	2.4	1.2	100.0(83)	

주: ① 원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② 파견되는 돌보미의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 ③ 이용 비용 지원금 증액, ④ 신청 절차 간소화, 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⑥ 이용 비용 지원금 감액, ⑦ 기타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마) 미 이용 이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34.7%, '제도를 잘 몰라서' 34.5%로 비슷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V-2-24〉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기관 이용 중	② 제도 모름	③ 도우미 신뢰 어려움	④ 대기자 많음	⑤ 비용 부담됨	⑥ 신청 절차 복잡	⑦ 도우미 찾은 교체	⑧ 민간 보다 질 낮음	⑨ 기타	계	$\chi^2(df)$	
전체	34.7	34.5	11.7	5.0	4.6	3.2	0.9	0.7	4.7	100.0(1,213)		
지역 규모	대도시	33.9	34.3	11.3	5.9	5.1	3.4	0.8	0.6	4.6	100.0(493)	8.773 (16)
	중소도시	34.7	34.3	13.2	4.8	4.3	3.1	0.8	0.4	4.5	100.0(518)	
	농어촌지역	36.5	35.5	8.9	3.4	4.4	3.0	1.5	1.5	5.4	100.0(202)	
자녀 나이	영영아	5.2	50.5	17.7	3.6	6.3	4.2	1.0	0.5	10.9	100.0(192)	132.809*** (16)
	영아	30.3	37.8	11.3	5.6	5.1	3.3	1.0	1.0	4.6	100.0(394)	
	유아	46.4	27.6	10.2	5.1	3.8	2.8	0.8	0.5	2.8	100.0(628)	
자녀 수	1명	28.5	39.0	12.3	5.0	4.5	2.9	0.8	0.6	6.5	0.5(662)	40.891*** (16)a
	2명	42.4	29.2	11.1	4.7	4.2	3.6	1.3	0.9	2.6	1.1(449)	
	3명 이상	40.7	29.1	10.7	6.8	6.8	3.9	0.0	0.0	2.0	1.8(102)	
맞벌이	맞벌이	38.6	30.5	11.6	5.9	4.4	3.4	1.3	1.1	3.1	100.0(612)	26.104**
여부	맞벌이 아님	30.7	38.5	11.8	4.2	4.8	3.0	0.5	0.2	6.3	100.0(601)	(8)
가구 소득	25만원 미만	33.8	39.5	7.1	2.2	7.1	4.9	0.5	0.0	4.9	100.0(182)	
25-35만원	35-50만원	32.8	38.3	12.1	3.1	5.1	2.5	1.2	0.3	4.8	100.0(357)	39.459*
	50-70만원	36.7	32.0	14.0	5.5	4.3	1.7	1.1	0.9	3.8	100.0(343)	(24)
	70만원 이상	35.1	30.3	11.6	8.2	3.0	4.6	0.6	1.2	5.4	100.0(330)	
나의 역량	상	38.9	30.1	11.5	4.9	3.8	2.8	1.2	1.0	5.8	100.0(574)	20.127**
하	30.9	38.5	11.9	5.2	5.3	3.6	0.6	0.3	3.7	100.0(639)	(8)	
양육 부담	상	33.3	36.3	11.5	5.4	4.5	3.4	0.9	0.8	3.8	100.0(838)	11.048
하	37.7	30.5	12.3	4.3	4.8	2.7	0.8	0.3	6.7	100.0(375)	(8)	
기관 이용	미이용	6.2	51.6	15.0	4.8	5.6	3.1	1.2	0.3	12.2	100.0(354)	225.124***
이용	이용	46.4	27.4	10.4	5.1	4.2	3.3	0.8	0.8	1.6	100.0(859)	(8)

주: 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②제도를 잘 몰라서 ③파견되는 도우미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④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⑤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⑥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⑦이용할 때마다 아이돌보미가 자주 교체되어서, ⑧민간 돌봄 서비스에 비해 질이 좋지 않아서, ⑨기타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과견되는 도우미를 신뢰하기 어려워서(11.7%),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5.0%)', '비용이 부담스러워서(4.6%)' 등의 순서로 높았다. 특성별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 수가 적을수록, 기관을 미이용 하는 경우에 제도를 모르거나 도우미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 특성별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실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영아와 영아 자녀를 둔 집단의 경우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은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도를 잘모른다는 응답의 비율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집단들에서는 기관을 이용 중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다.

다. 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 정책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건들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육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공 중인 대표적인 정책 및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운용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대해 그 인지 여부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부모학교'로 대표되는 부모교육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육아관련 지원을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포털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대한 인지 정도는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여 다른 서비스 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을 중심으로 그 비교 내용을 살펴보면, 영영아보다는 영아와 유아자녀를 둔 집단에서, 자녀의 수가 많은 집단에서, 맞벌이 가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역량감이 높은 집단에서, 기관 이용 가구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실제로 이용한 경우는 전체 응

답자의 54.6%이며 사용에 대한 만족 정도도 4점 척도 중 2.7점으로 '대체로 만족함(3점)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표 V-2-25〉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F/t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수)	만족도		
전체	49.6	29.6	20.8	100.0(1,302)		54.6 (711)	2.7(0.56)		
지역 규모	대도시	48.2	29.9	21.9	100.0(529)	3.803 (4)	54.2 (287)	2.7(0.57)	1.383b
	중소도시	51.9	29.6	18.5	100.0(553)		55.7 (308)	2.8(0.54)	
	농어촌지역	47.0	29.3	23.7	100.0(220)		53.0 (116)	2.7(0.56)	
자녀 나이	영영아	24.9	42.1	33.0	100.0(197)	58.312*** (4)	30.5 (60)	2.6(0.64)	1.435
	영아	55.2	27.6	17.1	100.0(420)		61.7 (259)	2.7(0.55)	
	유아	53.2	27.3	19.5	100.0(685)		57.3 (392)	2.7(0.55)	
자녀 수	1명	45.9	31.2	22.9	100.0(696)	10.206* (4)	51.2 (356)	2.7(0.57)	0.437
	2명	53.5	27.1	19.4	100.0(483)		58.3 (281)	2.7(0.56)	
	3명 이상	55.0	30.6	14.4	100.0(123)		59.8 (74)	2.8(0.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53.4	27.0	19.6	100.0(677)	8.257* (2)	58.3 (394)	2.7(0.54)	0.932
	맞벌이 아님	45.4	32.5	22.1	100.0(625)		50.7 (317)	2.7(0.58)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41.4	29.6	29.0	100.0(195)	14.239* (6)	47.5 (93)	2.7(0.59)	0.179
	250-300만원	49.6	31.7	18.7	100.0(374)		55.0 (206)	2.7(0.56)	
	350-500만원	51.6	30.7	17.7	100.0(367)		56.4 (207)	2.7(0.53)	
	500만원 이상	51.9	26.5	21.6	100.0(366)		56.3 (206)	2.7(0.57)	
나의 역량	상	56.4	25.4	18.2	100.0(619)	21.645*** (2)	59.8 (370)	2.7(0.57)	0.920
	하	43.4	33.5	23.1	100.0(683)		50.0 (342)	2.7(0.54)	
양육 부담	상	47.6	30.0	22.4	100.0(897)	5.575 (2)	52.7 (473)	2.7(0.57)	-1.269
	하	53.9	28.9	17.2	100.0(405)		58.9 (238)	2.8(0.52)	
기관 이용	미이용	29.8	41.8	28.5	100.0(360)	77.339*** (2)	34.2 (123)	2.6(0.64)	2.600b
	이용	57.1	25.0	17.8	100.0(942)		62.4 (588)	2.7(0.54)	

주: b) 분산분석을 위한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01$

나) 정책 내용 이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상세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영영아 양육 가구에서, 자녀 수가 1명인 가구에서,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서, 가구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나의 역량을 낮게 평가한 집단에서, 기관 미이용 가구에서 아이사랑 포털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2-26〉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대한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① 기관이용 관련정보 제공	② 임신출산 육아정책 정보제공	③ 정부지원 정책안내 ·신청	④ 모바일 어플 제공	⑤ 임신육아 상담가능	⑥ 알고있는 내용 없음	수
전체	63.6	47.7	28.3	20.7	19.1	21.0	(1,302)
지역							
대도시	61.9	47.4	24.8	18.1	17.1	22.0	(529)
중소도시	66.8	48.7	31.2	21.6	20.3	19.0	(553)
농어촌지역	59.5	45.9	29.2	24.8	20.7	23.9	(220)
규모							
영영아	36.1	44.7	21.8	12.7	14.7	36.5	(197)
영아	68.5	48.2	29.9	23.6	21.5	19.1	(420)
유아	68.4	48.2	29.2	21.2	18.9	17.8	(685)
자녀 나이							
1명	59.8	46.5	26.0	20.2	19.7	24.5	(696)
2명	68.0	47.1	29.8	22.2	17.1	18.4	(483)
3명 이상	67.9	56.4	35.5	17.8	23.5	12.0	(123)
자녀 수							
맞벌이	67.0	47.4	28.4	22.2	20.7	18.6	(677)
맞벌이 아님	59.9	47.9	28.2	19.1	17.3	23.7	(625)
여부							
250만원 미만	56.1	42.3	26.5	21.4	18.9	28.0	(195)
250-350만원	64.7	48.5	29.3	19.4	18.9	20.6	(374)
350-500만원	67.1	46.0	27.0	20.5	17.5	19.4	(367)
500만원 이상	62.9	51.3	29.5	21.9	21.0	19.4	(366)
소득							
나의 상	66.9	51.6	32.8	24.8	23.7	18.3	(619)
역량 하	60.6	44.1	24.2	17.0	14.9	23.5	(683)
양육 부담							
상	62.7	47.5	27.1	19.8	18.9	21.5	(897)
하	65.4	48.1	30.8	22.6	19.6	20.0	(405)
기관 이용							
미이용	48.5	46.2	22.9	12.3	13.9	31.8	(360)
이용	69.3	48.2	30.4	23.9	21.1	16.9	(942)

주: ①어린이집/유치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입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가 가능함, ②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지원 정책 및 기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③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포털 서비스를 제공함 ④정부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모바일 어플(앱)을 제공함 ⑤임신, 난임, 출산, 육아,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함 ⑥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모두 답하는 복수 응답의 결과, ‘어린이집/유치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입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다’ 63.6%,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지원 정책 및 기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7.7%,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28.3%, ‘정부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모바일 어플(앱)을 제공한다’ 20.7%, ‘난임, 출산, 육아, 어

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19.1%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알고 있는 내용 없다는 응답은 21%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다른 지원 정책에 비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용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이용하면서 가장 유용했던 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V-2-27〉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장 유용한 것

단위: %(명)

구분	정책 이용 신청 가능 (임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 등)	모르던 출산육아 정책을 알게 됨	믿을 수 있는 육아정보 를 얻음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 가능함	기타	계	$\chi^2(df)$	
전체	83.9	8.0	4.2	3.1	0.8	100.0(711)		
지역 규모	대도시	83.0	9.0	3.8	3.1	1.0	100.0(287)	8.730 (8)a
	중소도시	84.4	7.5	4.6	3.6	0.0	100.0(308)	
	농어촌지역	84.7	6.8	4.3	1.6	2.6	100.0(116)	
자녀 나이	영영아	66.7	16.6	6.7	6.7	3.3	100.0(60)	20.978** (8)a
	영아	88.4	6.2	2.3	2.3	0.8	100.0(259)	
	유아	83.5	7.9	5.1	3.0	0.5	100.0(392)	
자녀 수	1명	83.2	9.3	3.9	2.8	0.8	100.0(356)	6.583 (8)a
	2명	85.8	5.3	4.3	3.5	1.1	100.0(281)	
	3명 이상	79.8	12.1	5.4	2.7	0.0	100.0(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84.5	7.6	4.1	2.8	1.0	100.0(394)	0.850
	맞벌이 아님	83.0	8.5	4.4	3.5	0.6	100.0(317)	(4)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77.5	8.6	5.4	7.4	1.1	100.0(93)	17.410 (12)a
	250-350만원	84.5	7.3	6.3	1.5	0.5	100.0(206)	
	350-500만원	88.4	6.7	2.4	1.9	0.5	100.0(207)	
	500만원 이상	81.6	9.7	3.4	3.9	1.5	100.0(206)	
나의 역량	상	84.6	7.6	3.5	3.3	1.1	100.0(370)	1.692
	하	83.1	8.5	5.0	2.9	0.6	100.0(342)	(4)
양육 부담	상	85.2	8.2	3.8	1.7	1.1	100.0(473)	10.733
	하	81.2	7.6	5.0	5.8	0.4	100.0(238)	(4)
기관 이용	미이용	78.1	9.7	4.9	5.7	1.6	100.0(123)	5.626
	이용	85.1	7.6	4.1	2.5	0.7	100.0(588)	(4)a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1$

그 결과, 포털을 통해 입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 등 정책 이용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8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모르던 출산육아정책을 알게 된 점에 대해서 8%, 육아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육아정보를 얻게 된 점에 4.2%,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 가능하다는 점에 3.1%가 답하였다.

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지원 정책에의 신청과 정보제공 등 수요자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집단별로는 영영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통해 모르던 출산육아정책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른 집단보다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16.6%)을 보였다.

아이사랑 지금 포털은 사실 그게 중앙 정부 정책 중심이고 정보 중심이라서.. 그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이랑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 좋은데. 사실 그 아이사랑포털 처음보단 어쨌든 보육료도 거기서 결제하고 어린이집 입소 대기도 거기서 하면서 사이트가 그래도 꽤 홍보가 비교적 많이 됐잖아요. 어쨌든 보육료 결제하려면 어린이집 가서 하지 않고 거기서 주로 하니까, 저도 보육료 결제하러 들어가거든요(학계 교수 B).

라) 개선 요구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이용해 본 경우 가장 시급한 개선점에 대해 살펴본다. '제공 정보 내용의 확대(22.5%)', '수록된 정보의 적절한 업데이트(22.2%)', '플러그인 등 설치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최소화(20.9%)', '다른 포털(서울시보육포털 등)과의 연계 강화 또는 통합(18.2%)', '정보 검색의 간편화(14.3%)' 등 다양한 개선점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비율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맞벌이 가구 집단에서는 '제공 정보 내용의 확대'에의 요구가 높은 반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집단에서는 '수록된 정보의 적절한 업데이트'에의 요구가 다소 높았다.

예전에 수유하고 이럴 때까지는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몇 개월 때 월해라, 몇 개월 때 아이 발달을 인식시켜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보라는 게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지역카페로 가면 되게 다양하게 솔직히 순수한 일상부터 이런 정보까지 다 있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줄어들고 이쪽을 거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유아 어머니 A).

〈표 V-2-28〉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개선요구

단위: %(명)

항목	제공 정보 내용의 확대	수록된 정보의 적절한 업데이트	플러그인 등 설치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최소화	다른 포털 (서울시보육포털 등)과의 연계 강화 또는 통합	정보 검색의 간편화	기타	계	$\chi^2(df)$	
전체	22.5	22.2	20.9	18.2	14.3	1.8	100.0(711)		
지역 규모	대도시	22.9	22.9	16.3	21.5	15.3	1.0	100.0(287)	13.905 (10)
	중소도시	21.8	21.5	24.8	17.6	12.4	2.0	100.0(308)	
	농어촌지역	23.2	22.5	21.9	11.8	17.2	3.4	100.0(116)	
자녀 나이	영영아	18.3	28.4	20.0	13.3	18.3	1.7	100.0(60)	10.878 (10)
	영아	21.0	21.8	23.8	18.6	11.7	3.1	100.0(259)	
	유아	24.1	21.6	19.1	18.7	15.4	1.0	100.0(392)	
자녀 수	1명	20.8	23.1	20.7	18.3	14.1	3.1	100.0(356)	11.405 (10)
	2명	22.3	21.4	22.7	18.0	14.9	0.7	100.0(281)	
	3명 이상	31.3	21.6	14.9	18.9	13.3	0.0	100.0(7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6	20.6	20.9	18.5	12.7	0.8	100.0(394)	15.071*
	맞벌이 아님	17.3	24.3	20.9	17.9	16.4	3.2	100.0(317)	(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19.4	16.1	24.7	20.4	18.3	1.1	100.0(93)	25.124*
	250-350만원	27.2	20.9	18.3	13.6	16.1	3.9	100.0(206)	
	350-500만원	21.3	26.6	17.9	18.3	14.4	1.5	100.0(207)	
	500만원 이상	20.3	22.0	24.8	21.8	10.7	0.5	100.0(206)	
나의 역량	상	21.4	22.5	23.2	17.0	13.8	2.2	100.0(370)	3.495
	하	23.7	21.9	18.4	19.5	14.9	1.5	100.0(342)	(5)
양육 부담	상	21.6	23.1	19.1	19.8	15.0	1.5	100.0(473)	6.479
	하	24.3	20.5	24.5	15.1	13.0	2.5	100.0(238)	(5)
기관 이용	미이용	14.6	31.0	22.7	15.4	13.9	2.4	100.0(123)	10.384
	이용	24.1	20.4	20.5	18.8	14.4	1.7	100.0(588)	(5)

* $p < .05$

마) 미 이용 이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46.9%),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32%),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13.8%), 컴퓨터/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4.6%)의 순서로 나타났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 중 영영아와 영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라는 응

답비율이 더 높았고, 유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이와 비슷하게 자녀의 수가 1~2명인 집단에서, 기관 미이용 가구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라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고,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집단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표 V-2-29〉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항목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컴퓨터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기타	계	$\chi^2(df)$	
전체	46.9	32.0	13.8	4.6	2.7	100.0(591)		
지역 규모	대도시	48.0	29.5	14.7	4.9	2.9	100.0(243)	7.531 (8)
	중소도시	45.1	34.0	15.6	3.3	2.1	100.0(245)	
	농어촌지역	49.0	33.0	7.6	6.7	3.7	100.0(103)	
자녀 나이	영영아	60.6	19.0	13.9	4.4	2.2	100.0(137)	31.202*** (8)
	영아	54.8	29.6	10.0	3.1	2.5	100.0(161)	
	유아	36.3	39.3	15.9	5.4	3.0	100.0(293)	
자녀 수	1명	52.0	26.8	14.4	3.8	2.9	100.0(340)	19.144* (8)
	2명	43.6	35.7	12.8	5.9	1.9	100.0(201)	
	3명 이상	25.8	52.1	14.1	4.1	3.9	100.0(5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6	31.8	14.1	6.0	2.4	100.0(283)	2.793 (4)
	맞벌이 아님	48.2	32.1	13.5	3.2	2.9	100.0(308)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56.3	25.3	12.6	4.9	1.0	100.0(103)	10.396 (12)a
	250-350만원	44.2	33.9	12.4	5.3	4.1	100.0(168)	
	350-500만원	48.1	33.2	13.7	2.5	2.5	100.0(160)	
	500만원 이상	42.6	33.1	16.2	5.6	2.5	100.0(160)	
나의 역량	상	44.3	37.3	12.4	4.0	2.0	100.0(249)	6.240 (4)
	하	48.9	28.1	14.9	5.0	3.2	100.0(342)	
양육 부담	상	49.7	28.7	14.5	4.0	3.0	100.0(424)	9.878* (4)
	하	39.8	40.4	12.0	6.0	1.8	100.0(166)	
기관 이용	미이용	56.4	25.4	11.4	3.4	3.4	100.0(237)	16.372** (4)
	이용	40.6	36.4	15.5	5.3	2.2	100.0(354)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01$

2)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교육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부모교육 참여 한 곳,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처, 교육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현재 부모교육의 참여현황을 간략히 조사하였다. 또한 향후 국가 수준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반 의견과 선호하는 방법 등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았다.

가)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처

전체 응답자중 부모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1,302명 중 101명으로 8% 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특히, 영영아 가구(7명), 기관 미이용 가구(12명)의 부모교육 경험자 수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기관 미이용 집단 전체 360명 중에 부모교육 경험율은 3.3%(12명)으로 기관 이용 가구 전체 942가구 중에 부모교육 경험율 9.4%(89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양육 부담이 높은 집단의 부모교육 경험자 수(73명)가 다소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부모교육을 제공 받은 곳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받은 비율이 7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27%), 구청이나 복지관 등의 지역사회 기관(21.7%), 건강가정지원센터(13%), 병·의원(11.9%), 민간교육기관(11.8%), 산후 조리원(4.1%)의 순서로 나타났다. 영영아와 영아 집단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경험이 가장 많았고, 유아 집단과 기관 이용 가구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가 가장 많았다.

〈표 V-2-30〉 부모교육을 제공 받은 곳(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① 유치원· 어린이집	② 육아종합 지원센터	③ 지역 기관	④ 건강가정 지원센터	⑤ 병· 의원	⑥ 민간 교육기관	⑦ 산후 조리원	⑧ 온라인	⑨ 기타	수
전체	72.0	27.0	21.7	13.0	11.9	11.8	4.1	3.0	3.9	(101)
지역 규모	대도시	73.7	29.1	26.4	26.4	18.5	15.7	5.3	2.7	5.2 (38)
	중소도시	76.8	27.9	23.2	2.3	7.0	14.0	2.3	4.6	2.3 (43)
	농어촌지역	58.7	20.8	9.7	10.5	10.0	0.0	5.5	0.0	4.7 (20)
자녀 나이	영영아	42.9	57.1	42.9	14.3	28.6	0.0	0.0	0.0	0.0 (7)
	영아	43.7	50.3	21.7	22.3	16.3	27.3	16.9	0.0	0.0 (18)
	유아	81.6	18.5	19.8	10.5	9.3	9.2	1.3	4.0	5.2 (75)

(표 V-2-30 계속)

구분	① 유치원· 어린이집	② 육아종합 지원센터	③ 지역 기관	④ 건강가정 지원센터	⑤ 병· 의원	⑥ 민간 교육기관	⑦ 산후 조리원	⑧ 온라인	⑨ 기타	수
자녀 수	1명	57.3	39.5	24.0	18.4	15.0	12.0	6.4	0.0	2.8 (33)
	2명	77.5	16.3	16.3	8.2	8.2	8.2	0.0	4.1	6.1 (49)
	3명 이상	83.7	32.2	31.6	15.8	15.8	20.8	10.5	5.3	0.0 (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73.8	28.0	20.3	13.2	11.2	9.3	5.8	1.9	5.4 (54)
	맞벌이 아님	70.0	25.7	23.4	12.7	12.7	14.8	2.1	4.3	2.1 (47)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59.9	35.2	20.1	19.9	5.1	19.8	0.0	0.0	0.0 (20)
	250-350만원	80.9	19.1	15.7	6.3	6.3	9.4	3.1	6.3	6.2 (32)
	350-500만원	62.5	22.5	22.2	7.7	18.5	7.4	7.8	0.0	7.1 (27)
	500만원 이상	81.8	36.4	31.5	22.8	18.1	13.7	4.5	4.6	0.0 (22)
나의 역량	상	71.5	35.3	16.6	13.3	13.3	13.3	5.2	3.3	3.2 (60)
	하	72.8	14.7	29.2	12.4	9.8	9.7	2.4	2.4	4.8 (41)
양육 부담	상	72.2	29.1	23.2	13.8	12.3	13.6	4.3	4.1	4.0 (73)
	하	71.4	21.4	17.8	10.8	10.8	7.1	3.6	0.0	3.6 (28)
기관 이용	미이용	50.0	33.5	41.6	25.1	8.4	16.6	0.0	0.0	8.2 (12)
	이용	75.0	26.1	19.0	11.3	12.4	11.2	4.6	3.4	3.3 (89)

주: ①어린이집/유치원, ②육아종합지원센터 ③지역사회 기관(주민센터, 복지관 등), ④건강가정지원센터, ⑤병원/의원·보건소, ⑥대학, 문화센터 등 민간교육기관, ⑦산후조리원, ⑧온라인, ⑨기타

나) 부모교육 및 상담 안내 경로

부모교육을 경험한 경우 그 안내 경로를 복수응답의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인터넷(37.7%), 지인의 소개(23.7%), TV, 신문, 잡지 광고(15.8%), 길거리 전단(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31〉 부모교육 실시 정보를 접한 경로(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제공기관 전화, 문자	인터넷	지인 소개	TV, 신문, 잡지 광고	길거리 전단	기타	(수)
전체	49.4	37.7	23.7	15.8	5.0	10.8	(101)
지역 규모	대도시	52.6	31.5	34.2	26.2	2.6	13.2 (38)
	중소도시	51.2	41.9	20.9	11.6	9.3	7.0 (43)
	농어촌지역	39.6	40.5	9.9	4.9	0.0	14.7 (20)
자녀 나이	영영아	71.4	14.3	14.3	14.3	0.0	0.0 (7)
	영아	33.4	55.8	16.4	21.7	0.0	5.5 (18)
	유아	51.3	35.5	26.4	14.5	6.6	13.2 (75)

(표 V-2-31 계속)

구분	제공기관 전화, 문자	인터넷	지인 소개	TV, 신문, 잡지 광고	길거리 전단	기타	(수)
1명	51.6	39.4	15.0	15.0	6.0	9.1	(33)
자녀 수 2명	46.7	36.8	24.5	14.3	2.1	10.2	(49)
3명 이상	52.5	37.3	36.8	20.9	10.6	15.5	(19)
맞벌이 맞벌이	46.2	39.0	11.1	16.7	7.4	12.8	(54)
여부 맞벌이 아님	53.1	36.3	38.1	14.8	2.1	8.5	(47)
250만원 미만	49.8	35.0	35.0	19.9	5.0	5.0	(20)
가구 250-300만원	56.2	31.6	18.6	3.1	3.1	18.5	(32)
소득 300-500만원	44.3	37.1	18.5	14.7	7.4	11.2	(27)
500만원 이상	45.4	49.9	27.3	31.7	4.6	4.6	(22)
나의 상	53.1	40.3	31.6	16.6	5.0	5.0	(60)
역량 하	44.0	34.0	12.2	14.6	4.9	19.4	(41)
양육 상	51.9	38.5	23.3	16.4	6.9	8.1	(73)
부담 하	42.9	35.7	24.9	14.2	0.0	17.9	(28)
기관 미이용	50.2	16.7	16.8	24.9	8.4	8.2	(12)
이용 이용	49.3	40.6	24.7	14.5	4.5	11.2	(89)

다) 부모교육 교육내용

경험한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해 복수응답의 방법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관계(60.3%), 영유아 발달 이해(56.7%), 바람직한 부모 역할(50.3%), 자녀의 정서/사회성 지원(45.3%), 적절한 훈육 방법(29.7%), 연령에 맞는 놀이 지도(26.8%), 건강, 영양, 안전 지도(24.6%),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22.8%), 신생아 돌보는 방법(8.9%), 초등학교 적응 준비(7.9%)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32〉 부모교육 교육내용(복수응답)

단위: %, (명)

항목	① 부모 자녀 관계	② 발달 이해	③ 부모 역할	④ 정서 사회성 지원	⑤ 훈육 방법	⑥ 놀이 지도	⑦ 건강 영양 안전	⑧ 학습 지도	⑨ 신생아 돌봄	⑩ 학교 적응 준비	(수)	
전체	60.3	56.7	50.3	45.3	29.7	26.8	24.6	22.8	8.9	7.9	(101)	
지역 규모	대도시	60.4	60.7	50.0	55.2	34.2	34.2	36.8	23.8	10.6	7.9	(38)
	중소도시	67.5	55.9	53.5	41.9	32.6	32.6	20.9	27.9	9.3	9.3	(43)
	농어촌지역	44.8	50.9	44.1	33.8	14.9	0.0	9.7	9.7	5.1	4.9	(20)
자녀 나이	영영아	71.4	71.4	57.1	42.9	28.6	42.9	14.3	0.0	14.3	0.0	(7)
	영아	60.7	83.7	43.7	43.6	32.8	38.2	27.3	27.3	16.4	5.4	(18)
	유아	59.2	48.8	51.3	45.9	29.0	22.5	24.9	23.8	6.6	9.2	(75)

(표 V-2-32 계속)

항목	① 부모 자녀 관계	② 발달 이해	③ 부모 역할	④ 정서 사회성 지원	⑤ 훈육 방법	⑥ 놀이 지도	⑦ 건강 영양 안전	⑧ 학습 지도	⑨ 신생아 돌봄	⑩ 학교 적응 준비	(수)
1명	57.6	70.0	48.3	45.1	42.2	42.2	27.1	18.1	15.1	2.9	(33)
자녀 수 2명	55.0	44.9	52.9	40.6	22.5	18.5	18.3	20.4	6.2	8.2	(49)
3명 이상	78.6	63.7	47.3	57.5	26.2	21.0	36.4	36.9	5.1	15.8	(19)
맞벌이 맞벌이	55.5	52.2	55.4	44.1	22.3	26.0	22.1	22.2	9.3	3.7	(54)
여부 맞벌이 아님	65.8	61.9	44.5	46.6	38.2	27.6	27.6	23.4	8.5	12.7	(47)
250만원 미만	75.0	50.2	25.1	49.9	40.1	30.1	24.8	20.1	15.0	5.0	(20)
가구 250-350만원	62.4	59.7	46.8	43.5	18.6	22.0	18.7	25.0	6.3	6.2	(32)
소득 350-500만원	55.3	59.6	62.4	51.3	29.6	25.8	25.6	14.7	7.4	3.7	(27)
500만원 이상	50.1	54.7	63.6	36.2	36.4	31.8	31.8	31.8	9.2	18.1	(22)
나의 상	59.7	61.9	53.1	48.2	31.7	28.3	26.5	26.7	6.7	8.3	(60)
역량 하	61.1	49.0	46.2	41.0	26.8	24.4	21.9	16.9	12.2	7.3	(41)
양육 상	58.8	59.2	46.3	44.8	27.4	27.4	27.2	21.9	9.6	6.8	(73)
부담 하	64.2	50.0	60.8	46.3	35.6	25.1	17.9	25.1	7.2	10.7	(28)
기관 미이용	75.2	58.6	41.7	50.1	8.4	25.1	16.5	8.2	0.0	0.0	(12)
이용 이용	58.3	56.4	51.5	44.6	32.6	27.0	25.7	24.7	10.1	9.0	(89)

주: ①부모자녀 관계, ②영유아 발달 이해 ③바람직한 부모 역할, ④자녀의 정서/사회성 지원, ⑤훈육 방법, ⑥놀이 지도, ⑦건강, 영양, 안전 지도, ⑧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⑨신생아 돌보는 방법, ⑩초등학교 적응 준비

부모교육 나가보면, 애착 이런 거는 늘 전공하기 때문에 또 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랬는데 처음 들었다는 듯이 그러세요. 신체적 접촉하는 게 좋고 그런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해도 저희는 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학계 교수 G)

라) 개선요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 제공(생애주기별)' 29.7%, '부모교육 시간의 현실화(주말, 퇴근 후 등)' 16.8%, '제공기관의 접근성 제고(집 가까운 곳)' 14.8%, '부모교육의 의무화' 12.9%, '내 주변의 부모교육 제공기관 찾기 서비스 구축' 10%,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7.9%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적절한 부모역할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에 베이비 박스 있잖아요. 그걸 예비 부모교육을 받게 하고 쿠폰을 베이비 박스로 주는 거예요...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물건을 받는 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하고 또 달리 만족감이 높아요(학계 교수 D).

〈표 V-2-33〉 부모교육 활성화 개선요구

단위: %(명)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	$\chi^2(df)$
	자녀 연령별 교육	교육 시간 현실화	제공 기관 접근성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교육 찾기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채널	제공 기관 다양화		
전체	29.7	16.8	14.8	12.9	10.0	7.9	4.0	4.0	100.0(101)	
지역 규모	대도시	31.5	21.2	13.1	18.3	8.0	2.6	2.7	100.0(38)	13.200 (14)a
	중소도시	32.6	11.6	11.6	9.3	9.3	16.3	4.6	100.0(43)	
	농어촌지역	19.9	19.4	24.6	10.6	15.4	0.0	5.1	100.0(20)	
자녀 나이	영영아	42.9	14.3	14.3	0.0	14.3	0.0	0.0	100.0(7)	10.554 (14)a
	영아	33.3	10.9	21.8	11.5	17.0	0.0	0.0	100.0(18)	
	유아	27.6	18.4	13.1	14.4	7.9	10.6	5.3	100.0(75)	
자녀 수	1명	42.3	15.1	9.0	3.0	12.4	6.1	3.0	100.0(33)	16.843 (14)a
	2명	24.4	20.3	12.3	16.3	10.2	10.2	4.1	100.0(49)	
	3명 이상	21.0	10.6	31.3	21.4	5.3	5.3	5.3	100.0(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9	25.8	14.7	13.0	15.1	1.9	1.9	100.0(54)	17.092*
	맞벌이 아님	34.0	6.4	14.8	12.9	4.2	14.9	6.4	100.0(47)	(7)a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20.1	5.0	19.8	9.8	10.1	20.0	10.1	100.0(20)	21.615 (21)a
	250-350만원	34.2	9.4	15.5	12.8	12.5	6.3	6.3	100.0(32)	
	350-500만원	29.8	25.5	18.5	11.0	7.8	0.0	0.0	100.0(27)	
	500만원 이상	31.6	27.4	4.5	18.3	9.1	9.1	0.0	100.0(22)	
나의 역량	상	24.8	18.3	16.6	16.7	6.8	8.3	3.3	100.0(60)	5.424
	하	36.8	14.5	12.0	7.3	14.7	7.3	4.9	100.0(41)	(7)a
양육 부담	상	34.2	14.9	15.0	13.8	11.1	5.5	4.1	100.0(73)	9.221
	하	17.8	21.5	14.3	10.7	7.1	14.3	3.6	100.0(28)	(7)a
기관 이용	미이용	58.3	0.0	16.6	0.0	16.8	0.0	0.0	100.0(12)	10.738
	이용	25.8	19.0	14.5	14.6	9.1	9.0	4.5	100.0(89)	(7)a

주: ①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 제공(생애주기별), ②교육시간의 현실화(주말, 퇴근 후 등) ③제공기관의 접근성 제고(집 가까운 곳), ④부모교육의 의무화, ⑤내 주변의 부모교육 제공기관 찾기 서비스 구축, ⑥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⑦보다 다양한 채널(온라인, 오프라인 등), ⑧제공기관의 다양화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마) 미 참여 이유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4%)은 ‘어떤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라고 답하였다. 다음은 ‘교육 참여 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13.6)’, ‘시간이 부족해서

(13.5%) 등이 주요 이유로 확인되었다. 특히, 영영아 가구, 자녀 수 1명 가구, 소득수준 250만원 미만 가구, 기관 미이용 가구는 부모교육 제공처를 모른다는 응답이 60%가 넘는다. 또한 전체적으로 '가까운 곳이 없음',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은 낮은 편이다. 이는 부모교육 기회를 마련하면서 부모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기회에 대한 안내가 우선되어야함을 시사한다.

〈표 V-2-34〉 부모교육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항목	① 부모 교육 제공처 모름	② 교육시 대신 돌보이 부재	③ 시간 부족	④ 가까운 곳 없음	⑤ 필요성 못 느낌	⑥ 필요한 내용 미제공	⑦ 믿을 만한 교육기관 없음	⑧ 부모 교육 관심 없음	⑨ 기타	계	$\chi^2(df)$	
전체	54.4	13.6	13.5	6.0	4.2	2.4	1.9	1.0	3.0	100.0(1201)		
지역 규모	대도시	54.5	13.8	13.4	5.3	4.8	2.6	2.2	1.0	2.4	100.0(492)	19.569 (16)
	중소도시	55.7	14.6	13.8	4.5	3.9	1.8	1.8	1.0	3.0	100.0(510)	
	농어촌지역	51.0	10.5	13.3	11.4	3.6	3.1	1.5	1.0	4.5	100.0(200)	
자녀 나이	영영아	63.2	12.6	9.5	5.3	4.2	0.5	1.1	1.1	2.6	100.0(190)	22.500 (16)
	영아	57.1	12.8	14.0	5.1	3.0	1.6	2.0	1.5	3.0	100.0(402)	
	유아	49.9	14.4	14.5	6.8	5.1	3.4	2.1	0.7	3.1	100.0(610)	
자녀 수	1명	60.5	9.6	12.4	5.3	4.2	1.7	2.3	1.1	3.0	100.0(663)	56.009*** (16)
	2명	48.7	18.2	12.6	6.9	3.4	3.9	1.6	0.9	3.7	100.0(434)	
	3명 이상	40.0	19.2	24.7	6.6	7.6	0.0	1.0	1.0	0.0	100.0(104)	
맞벌이	맞벌이	51.7	10.3	20.6	4.7	4.7	2.3	2.1	1.3	2.4	100.0(623)	67.824***
여부	맞벌이 아님	57.3	17.2	5.9	7.4	3.8	2.4	1.7	0.7	3.6	100.0(578)	(8)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0.4	14.8	9.6	6.7	2.3	1.1	1.1	1.7	2.3	100.0(175)	66.224*** (24)
	250-350만원	59.1	16.7	7.3	6.4	3.2	0.9	1.5	0.6	4.4	100.0(342)	
	350-500만원	54.7	12.9	16.8	5.9	2.6	3.3	1.8	0.6	1.5	100.0(340)	
	500만원 이상	46.5	10.5	18.6	5.3	7.9	3.5	2.9	1.5	3.5	100.0(344)	
나의 역량	상	51.5	14.3	14.9	6.8	5.9	2.0	1.3	1.1	2.3	100.0(559)	15.951*
	하	57.0	12.9	12.4	5.3	2.8	2.7	2.5	0.9	3.6	100.0(642)	(8)
양육 부담	상	55.8	14.6	14.2	5.6	2.9	2.1	1.8	0.7	2.2	100.0(825)	24.055**
	하	51.3	11.4	12.0	6.7	7.2	3.0	2.1	1.6	4.8	100.0(377)	(8)
기관 이용	미이용	62.6	11.8	10.4	4.3	4.3	0.3	1.4	1.2	3.7	100.0(348)	23.390**
	이용	51.1	14.3	14.8	6.7	4.2	3.2	2.1	0.9	2.7	100.0(853)	(8)

주: ①어떤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②교육 참여 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③시간이 부족해서, ④가까운 곳에 부모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어서, ⑤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⑥필요로 하는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서, ⑦믿을만한 부모교육 기관이 없어서, ⑧부모교육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서, ⑨기타

* $p < .05$, ** $p < .01$, *** $p < .001$

바) 부모교육 의무화에의 찬반 의견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자녀 양육 시 필요한 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였다. 부모교육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을 넘는 78%에 달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면서도 솔직히 우리도 그거를 제대로 알고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마 되기 교육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엄마도 엄마지만 아빠 또한. 왜냐하면 저도 독박육아라서 그걸 다 혼자 하려다보니까 신장이 알미우니까. 부모교육이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회사에서도 교육을... 그런 교육이 좀 전체적으로(유아 어머니 A).

〈표 V-2-35〉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반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계	$\chi^2(df)$
전체		78.0	22.0	100.0(1,302)	
지역 규모	대도시	75.9	24.1	100.0(529)	3.614 (2)
	중소도시	78.4	21.6	100.0(553)	
	농어촌지역	82.2	17.8	100.0(220)	
자녀 나이	영영아	80.7	19.3	100.0(197)	2.943 (2)
	영아	79.9	20.1	100.0(420)	
	유아	76.2	23.8	100.0(685)	
자녀 수	1명	79.3	20.7	100.0(696)	2.248 (2)
	2명	77.5	22.5	100.0(483)	
	3명 이상	73.3	26.7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6.5	23.5	100.0(677)	1.900 (1)
	맞벌이 아님	79.7	20.3	100.0(62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74.5	25.5	100.0(195)	7.506 (3)
	250-350만원	81.8	18.2	100.0(374)	
	350-500만원	79.5	20.5	100.0(367)	
	500만원 이상	74.6	25.4	100.0(366)	
나의 역량	상	78.1	21.9	100.0(619)	0.010 (1)
	하	78.0	22.0	100.0(683)	
양육 부담	상	79.3	20.7	100.0(897)	2.653 (1)
	하	75.3	24.7	100.0(405)	
기관 이용	미이용	80.2	19.8	100.0(360)	1.386 (1)
	이용	77.2	22.8	100.0(942)	

부모교육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녀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0.9%, '교육을 통해 부모 스스로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아서' 21.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 수가 2~3명인 집단에서도 '꼭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부모 스스로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두드러지는 것은 양육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부모교육을 통한 양육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V-2-36〉 부모교육 의무화예의 찬성 이유

단위: %(명)

항목	자녀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교육을 통해 부모 스스로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아서	기타	계	$\chi^2(df)$	
전체	45.9	30.9	21.4	1.8	100.0(1,016)		
지역	대도시	46.3	29.7	22.5	1.5	100.0(402)	5.097 (6)
규모	중소도시	44.2	34.0	19.7	2.1	100.0(433)	
	농어촌지역	49.4	25.9	23.0	1.7	100.0(181)	
자녀	영영아	52.8	28.3	17.6	1.3	100.0(159)	5.275 (6)
나이	영아	44.6	31.9	22.3	1.2	100.0(335)	
	유아	44.7	31.0	21.9	2.3	100.0(522)	
자녀 수	1명	47.5	31.8	19.8	0.9	100.0(552)	12.972* (6)
	2명	44.1	28.8	23.6	3.5	100.0(374)	
	3명 이상	44.0	34.0	22.1	0.0	100.0(90)	
맞벌이	맞벌이	45.3	31.4	21.7	1.5	100.0(518)	0.532
여부	맞벌이아님	46.6	30.3	21.1	2.0	100.0(498)	(3)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41.7	37.6	17.9	2.8	100.0(146)	14.176 (9)
	250-350만원	50.2	28.2	20.3	1.3	100.0(306)	
	350-500만원	47.9	28.0	23.3	0.7	100.0(291)	
	500만원 이상	41.4	33.3	22.4	2.9	100.0(273)	
나의 역량	상	46.3	32.2	20.1	1.5	100.0(483)	1.694
	하	45.6	29.7	22.6	2.1	100.0(533)	(3)
양육 부담	상	45.0	30.1	22.9	2.0	100.0(712)	4.060
	하	48.2	32.6	17.9	1.3	100.0(305)	(3)
기관 이용	미이용	46.6	29.8	22.3	1.4	100.0(289)	0.642
	이용	45.7	31.3	21.0	1.9	100.0(727)	(3)

* $p < .05$

부모교육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빠서 시간을 따로 내서 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워서’ 36%,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25.5%, ‘교육을 통해 부모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22.3%,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는 부모 자신의 가치관과 방식이 중요하므로’ 9.5%, ‘부모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자녀를 키울 때 혼란스러워서’ 3.5%의 순서로 높게 답하였다. 즉 영유아 부모 세 명 중 한 명은 부모교육을 위한 시간 마련에의 부담을, 네 명 중 한 명은 의무화라는 강제성에 대한 부담을, 다섯 명 중 한 명은 부모역할이 교육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의무화의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표 V-2-37〉 부모교육 의무화에의 반대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시간대기 어려움	②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거부감	③ 교육으로 부모역할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님	④ 부모 자신의 가치관과 방식이 중요	⑤ 부모교육 으로 자녀양육 혼란됨	⑥ 기타	계	$\chi^2(df)$
전체	36.0	25.5	22.3	9.5	3.5	3.2	100.0(286)	
지역 규모	대도시	42.2	22.7	24.2	7.0	2.3	100.0(127)	15.326 (10)a
	중소도시	31.9	30.2	21.9	8.4	3.4	100.0(119)	
	농어촌지역	28.3	20.4	17.7	20.7	7.8	100.0(39)	
자녀 나이	영영아	39.5	31.5	21.0	5.3	0.0	100.0(38)	7.156 (10)a
	영아	41.8	23.7	20.1	8.4	4.9	100.0(85)	
	유아	32.2	25.1	23.8	11.0	3.6	100.0(163)	
자녀 수	1명	35.4	29.1	18.7	9.1	4.2	100.0(144)	6.647 (10)a
	2명	37.7	21.1	23.8	11.0	3.6	100.0(109)	
	3명 이상	33.2	24.4	33.3	6.0	0.0	100.0(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0	25.2	19.5	7.6	3.1	100.0(159)	7.016
	맞벌이 아님	28.5	25.9	25.9	11.8	4.0	100.0(127)	(5)
가구 소득	25만원 미만	36.0	26.1	23.9	8.0	2.0	100.0(50)	
	25-35만원	39.7	28.0	19.0	8.9	2.9	100.0(68)	9.197
	35-50만원	42.7	21.3	17.3	9.3	3.9	100.0(75)	(15)a
	50만원 이상	27.9	26.8	28.0	10.8	4.4	100.0(93)	
나의 역량	상	30.4	25.1	28.1	9.7	3.0	100.0(135)	6.548
	하	41.1	25.9	17.2	9.3	3.9	100.0(150)	(5)a
양육 부담	상	39.3	28.0	18.8	8.6	2.6	100.0(186)	7.537
	하	30.0	21.0	29.0	11.0	5.1	100.0(100)	(5)
기관 이용	미이용	39.6	23.9	23.8	8.4	1.4	100.0(71)	1.812
	이용	34.8	26.1	21.8	9.8	4.2	100.0(215)	(5)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사) 부모교육 마련에의 요구

최근 국가 수준의 부모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대한민국 부모학교’라는 명칭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 준비를 위해 영유아 부모의 선호하는 교육방법에 대해 교육 시기, 매체이용, 집단의 크기, 접근방법, 1회당 적정 시간, 정보제공의 형태 등으로 구체화하여 그 요구를 수렴하였다.

(1) 효과적인 시기

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V-2-38>과 같다. 자녀 출생 이후 영유아기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다.

<표 V-2-38> 부모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시기

단위: %(명)

항목	자녀나이 만0~5세	임신 기간	혼인신 시	중·고 등학 교	출생 신 시	대학	기타	계	$\chi^2(df)$
전체	43.0	36.3	8.3	7.6	2.5	1.1	1.3	100.0(1,302)	
지역	대도시	44.5	34.2	7.7	8.3	1.9	1.7	100.0(529)	8.983 (12)
규모	중소도시	41.2	38.3	8.7	7.1	3.1	0.5	100.0(553)	
	농어촌지역	43.7	36.0	8.8	7.3	2.4	0.9	100.0(220)	
자녀 나이	영영아	31.5	45.2	9.6	9.1	2.5	0.5	100.0(197)	17.992 (12)
	영아	43.7	35.1	8.0	8.4	2.0	1.7	100.0(420)	
	유아	45.8	34.4	8.1	6.7	2.8	0.9	100.0(685)	
자녀 수	1명	41.5	38.6	7.8	6.8	2.7	1.3	100.0(696)	7.906 (12)
	2명	45.2	33.9	8.3	8.3	2.3	0.8	100.0(483)	
	3명 이상	42.6	32.4	11.3	9.6	1.6	0.8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4	35.7	8.1	7.0	2.7	1.0	100.0(677)	2.702
	맞벌이 아님	41.4	36.8	8.5	8.3	2.2	1.1	100.0(625)	(6)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42.8	33.7	7.2	11.2	1.5	1.0	100.0(195)	
	250~350만원	46.9	32.1	8.0	7.0	1.9	2.1	100.0(374)	33.016*
	350~500만원	38.2	38.7	11.2	7.6	2.5	0.8	100.0(367)	(18)a
	500만원 이상	43.9	39.4	6.3	6.3	3.6	0.3	100.0(366)	
나의 역량	상	41.1	36.7	8.6	7.8	3.2	0.8	100.0(619)	6.929
	하	44.7	35.8	8.1	7.5	1.8	1.3	100.0(683)	(6)
양육 부담	상	44.2	35.7	7.8	7.6	2.6	1.4	100.0(897)	14.914*
	하	40.4	37.4	9.4	7.6	2.2	0.2	100.0(405)	(6)
기관 이용	미이용	36.8	40.1	7.8	8.9	3.4	1.7	100.0(360)	11.038
	이용	45.4	34.8	8.5	7.1	2.1	0.8	100.0(942)	(6)

* $p < .05$

다음은 임신기간 중 36.6%로 이 두 응답이 전체의 80%에 달했다. 즉 혼인신고 시나 중고등학교 교육 시점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는 부모교육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개월 미만의 영영아 집단에서는 임신기간 중이라는 응답 높았는데 이는 현재 영영아 부모가 부모역량강화에 필요를 느끼기에 임신기간에 미리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결혼 전에 교육도 필요한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준비돼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신랑도 그렇고, 같이 교육을 받아야 같이 육아에 참여를 하는데, 아직까지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자 분도 일을 많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혼 전부터도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유아 어머니 A).

결혼하고 나서 산전검사 해주시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차라리 혼인신고 할 때 안내를 해서 그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게 되면 출산에 관심이 가게 되니까(유아 어머니 D).

(2) 선호 매체

부모교육 시 가장 선호하는 매체에 대해 질의하였다.

〈표 V-2-39〉 부모교육 방법 선호 형태_(1) 매체이용

단위: %(명)

항목	면대면 교육	개별 온라인 교육	TV(EBS) 등 매체를 통한 교육	계	$\chi^2(df)$	
전체	62.6	22.1	15.3	100.0(1,302)		
지역 규모	대도시	61.3	21.2	17.5	100.0(529)	5.960 (4)
	중소도시	65.2	22.1	12.7	100.0(553)	
	농어촌지역	59.3	23.9	16.8	100.0(220)	
자녀 나이	영영아	63.5	28.4	8.1	100.0(197)	13.222* (4)
	영아	64.1	19.6	16.3	100.0(420)	
	유아	61.4	21.8	16.8	100.0(685)	
자녀 수	1명	64.0	21.0	15.0	100.0(696)	3.510 (4)
	2명	62.4	22.8	14.9	100.0(483)	
	3명 이상	55.6	25.0	19.4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6.3	18.6	15.1	100.0(677)	10.741** (2)
	맞벌이 아님	58.6	25.8	15.6	100.0(625)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56.7	28.5	14.8	100.0(195)	10.675 (6)
	20-30만원	62.5	23.8	13.7	100.0(374)	
	30-50만원	62.4	21.0	16.6	100.0(367)	
	50만원 이상	66.1	17.9	16.1	100.0(366)	

(표 V-2-39 계속)

항목	면대면 교육	개별 온라인 교육	TV(EBS) 등 매체를 통한 교육	계	$\chi^2(df)$
나의 역량	상 62.8	하 24.0	13.3	100.0(619)	5.296
양육 부담	상 62.4	하 20.3	17.2	100.0(683)	(2)
기관 이용	미이용 61.7	이용 22.0	16.3	100.0(897)	1.894
	64.6	22.1	13.3	100.0(405)	(2)
	61.8	26.0	12.3	100.0(360)	6.510*
	62.9	20.6	16.5	100.0(942)	(2)

* $p < .05$, ** $p < .01$

전체 응답 부모의 62.6%는 면대면으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을 선호하였고, 다음은 컴퓨터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에는 22.1%, EBS 등의 방송 매체를 통한 교육은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가구가 맞벌이가 아닌 가구보다 온라인이나 매체보다는 오히려 면대면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기관 미이용 가구가 기관 이용 가구보다 온라인 교육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컴퓨터의 이용과 모바일 등을 보편화되고, 그런 방법들이 접근성의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더라도, 부모교육은 면대면으로 만나서 교수-학습이 이루어는 형태를 선호함이 일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선호 집단 크기

부모교육 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크기는 5명 정도의 소집단 형태라는 응답이 58.8%로 과반을 상회하였고, 다음은 10명 이상의 대집단 27.1%, 일대일 교육의 형태 14.1%이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소집단 형태 선호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일대일로 교육받기는 부담스럽고, 하지만 소통이 가능한 규모인 소집단의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모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당면한 양육 문제의 해결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 상담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규모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40〉 부모교육 방법 선호 형태_(2) 집단크기

단위: %(명)

항목	소집단 (5명 정도)	대집단 (10명 이상)	일대일	계	$\chi^2(df)$
전체	58.8	27.1	14.1	100.0(1,302)	

(표 V-2-40 계속)

항목	소집단 (5명 정도)	대집단 (10명 이상)	일대일	계	$\chi^2(df)$	
지역 규모	대도시	58.3	27.6	14.1	100.0(529)	1.388 (4)
	중소도시	60.4	26.1	13.4	100.0(553)	
	농어촌지역	56.0	28.5	15.6	100.0(220)	
자녀 나이	영영아	67.5	15.7	16.7	100.0(197)	19.803*** (4)
	영아	60.9	25.8	13.3	100.0(420)	
	유아	55.0	31.2	13.8	100.0(685)	
자녀 수	1명	61.5	25.1	13.4	100.0(696)	6.228 (4)
	2명	55.4	28.9	15.7	100.0(483)	
	3명 이상	57.3	31.4	11.3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58.2	27.5	14.3	100.0(677)	0.239 (2)
	맞벌이 아님	59.5	26.7	13.8	100.0(625)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63.4	21.9	14.8	100.0(195)	6.367 (6)
	20-30만원	59.9	25.8	14.2	100.0(374)	
	30-50만원	59.5	27.5	13.0	100.0(367)	
	50만원 이상	54.6	30.9	14.5	100.0(366)	
나의 역량	상	60.8	25.8	13.4	100.0(619)	1.965 (2)
	하	57.0	28.4	14.6	100.0(683)	
양육 부담	상	58.4	27.2	14.4	100.0(897)	0.269 (2)
	하	59.7	27.0	13.3	100.0(405)	
기관 이용	미이용	62.6	20.4	17.0	100.0(360)	12.683** (2)
	이용	57.4	29.7	12.9	100.0(942)	

*** $p < .001$

(4) 접근 방법

부모교육이 마련될 경우 내가 교육의 장소로 찾아가는 것이 좋은지, 또는 강의자가 내게로 찾아오는 것이 좋은지 접근 방법의 선호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64.2%는 찾아가서 참여하는 부모교육 형태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외출이 쉽지 않은 12개월 미만의 영영아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찾아오는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맞벌이의 경우도 맞벌이 아닌 경우와 차이 없이 찾아가서 참여하는 부모교육 형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양육부담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내게로 찾아오는 방법’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교육이나 상담 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3개월이나 6개월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의 산후우울증이 상당히 아주 심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 때는 방문이 줄지요. 어떤 어머니는 가면 전문가를 불러서 안고서 그냥 막 울기만 한대요. 그런데 그걸 다 토로하고 나면 자기가 낫다는 거죠(학계 교수 E).

〈표 V-2-41〉 부모교육 방법 선호 형태_(3) 접근 방법

단위: %(명)

구분	내가 찾아가서 듣는 방법	내게로 찾아오는 방법	계	$\chi^2(df)$	
전체	64.2	35.8	100.0(1,302)		
지역 규모	대도시	63.4	36.6	100.0(529)	2.312 (2)
	중소도시	66.2	33.8	100.0(553)	
	농어촌지역	60.9	39.1	100.0(220)	
자녀 나이	영영아	59.4	40.6	100.0(197)	2.358 (2)
	영아	64.4	35.6	100.0(420)	
	유아	65.4	34.6	100.0(685)	
자녀 수	1명	65.0	35.0	100.0(696)	0.955 (2)
	2명	63.9	36.1	100.0(483)	
	3명 이상	60.4	39.6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3.6	36.4	100.0(677)	0.233 (1)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0.3	39.7	100.0(195)	2.142 (3)
	250-350만원	63.3	36.7	100.0(374)	
	350-500만원	65.7	34.3	100.0(367)	
	500만원 이상	65.6	34.4	100.0(366)	
나의 역량	상	65.1	34.9	100.0(619)	0.430 (1)
양육 부담	상	61.7	38.3	100.0(897)	7.487** (1)
	하	69.7	30.3	100.0(405)	
기관 이용	미이용	61.0	39.0	100.0(360)	2.110 (1)
	이용	65.4	34.6	100.0(942)	(1)

** $p < .01$

(5) 1회 적정 시간

1회 제공하는 부모교육의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 질의하였다. 약 30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에의 동의 정도가 36.1%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약 50분이 19.2%, 약 20분 또는 약 40분이 각각 13% 정도로 나타났다.

〈표 V-2-42〉 부모교육 방법 선호 형태_(4) 1회 적정 시간

단위: %(명)

항목	약 5분	약 10분	약 20분	약 30분	약 40분	약 50분	시간이상	계	$\chi^2(df)$	
전체	1.2	5.4	13.0	36.1	13.1	19.2	11.9	100.0(1,302)		
지역 규모	대도시	1.1	5.4	13.5	38.0	13.0	18.1	10.9	100.0(529)	7.201 (12)
	중소도시	1.3	5.8	12.0	35.9	12.3	19.2	13.4	100.0(553)	
	농어촌지역	1.4	4.5	14.0	32.0	15.5	22.0	10.6	100.0(220)	

(표 V-2-42 계속)

항목	약 5분	약 10분	약 20분	약 30분	약 40분	약 50분	1시간 이상	계	$\chi^2(df)$	
자녀 연령	0.0	5.6	13.2	33.5	12.7	20.8	14.2	100.0(197)	9.064 (12)	
나	1.5	5.0	14.1	37.5	13.8	19.0	9.1	100.0(420)		
이	1.5	5.7	12.2	36.0	12.9	18.9	13.0	100.0(685)		
자녀 수	1명	1.3	5.2	12.2	36.3	13.3	18.9	12.8	100.0(696)	4.593 (12)
2명	1.2	6.0	14.2	36.1	13.0	18.4	11.0	100.0(483)		
3명 이상	0.8	4.8	12.0	34.9	12.8	24.2	10.5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	5.5	12.2	37.5	10.9	20.0	12.3	100.0(677)	8.914 (6)
맞벌이 아님	0.8	5.4	13.7	34.6	15.5	18.4	11.5	100.0(62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1.5	4.1	11.2	38.9	10.2	20.3	13.7	100.0(195)	20.042 (18)
250-350만원	1.6	7.0	13.6	36.1	14.5	17.2	9.9	100.0(374)		
350-500만원	1.1	7.1	12.3	36.8	14.1	17.2	11.5	100.0(367)		
500만원 이상	0.8	3.0	13.9	33.9	12.3	22.7	13.4	100.0(366)		
나의 역량	상	0.6	4.8	12.4	36.9	12.6	21.1	11.5	100.0(619)	6.931 (6)
하	1.8	6.0	13.4	35.4	13.6	17.5	12.3	100.0(683)		
양육 부담	상	1.2	6.0	13.2	36.0	12.8	19.2	11.6	100.0(897)	2.338 (6)
하	1.2	4.2	12.3	36.3	13.9	19.4	12.6	100.0(405)		
기관 이용	미이용	0.9	5.3	12.5	39.3	14.2	17.2	10.6	100.0(360)	4.231 (6)
이용	1.4	5.5	13.1	34.9	12.7	20.0	12.4	100.0(942)		

(6) 선호 교육내용 구분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을 편성할 때 자녀의 연령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은지, 양육 시 만나게 되는 상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은지, 대상에 차이를 두어 어머니를 위한 교육과 아버지 또는 조부모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질의하였다. <표 V-2-43>의 결과에서 보듯이 '자녀의 연령에 따른 교육내용의 편성'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3.9%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부모들을 위한 양육 안내서를 마련할 때 자녀의 연령별로 구성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2-43> 부모교육 방법 선호 형태_(5) 교육내용 구분 방법

항목	자녀나이에 따라 구분	양육 시 직면하는 상황에 따라 구분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분	기타	계	$\chi^2(df)$
전체	63.9	29.9	6.1	0.1	100.0(1,302)	9.282 (6) ^a
지역	62.4	29.9	7.7	0.0	100.0(529)	
규모	66.8	27.8	5.3	0.2	100.0(553)	
농어촌지역	60.3	35.2	4.4	0.0	100.0(220)	

단위: %(명)

(표 V-2-43 계속)

항목	자녀나이에 따라 구분	양육 시 직면하는 상황에 따라 구분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분	기타	계	$\chi^2(df)$	
자녀 나이	영영아	64.5	29.9	5.6	0.0	100.0(197)	4.759 (6)a
	영아	66.6	27.2	6.0	0.2	100.0(420)	
	유아	62.1	31.5	6.4	0.0	100.0(685)	
자녀 수	1명	64.3	30.0	5.6	0.1	100.0(696)	2.067 (6)a
	2명	63.9	29.8	6.4	0.0	100.0(483)	
	3명 이상	62.1	29.9	8.1	0.0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3.1	30.8	6.2	0.0	100.0(677)	1.581 (3)a
	맞벌이 아님	64.8	29.0	6.1	0.2	100.0(62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3.3	31.2	5.6	0.0	100.0(195)	3.766 (9)a
	250-350만원	64.8	28.2	6.7	0.3	100.0(374)	
	350-500만원	63.0	31.3	5.7	0.0	100.0(367)	
	500만원 이상	64.2	29.5	6.3	0.0	100.0(366)	
나의 역량	상	64.5	29.6	5.8	0.2	100.0(619)	1.376 (3)a
	하	63.4	30.2	6.4	0.0	100.0(683)	
양육 부담	상	63.4	29.4	7.2	0.0	100.0(897)	8.212* (3)a
	하	65.1	30.9	3.7	0.2	100.0(405)	
기관 이용	미이용	66.8	28.5	4.7	0.0	100.0(360)	3.014 (3)a
	이용	62.8	30.4	6.7	0.1	100.0(942)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라. 실물 지원 정책

현재 영유아 양육 가정에게 양육지원을 위한 실물을 제공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표적 정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물을 지원하는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이다. 이는 저소득층 영아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매비용(월6만 4천원)을 지원하고, 이 중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유식 구매비용(월 8만 6천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그 인지 여부와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1)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현 정부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는 '모른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7.8%였다. 들어만 본 경우가 37.9%,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4.3% 정도였다.

이에 대해 실제 수혜 가능성이 있는 대상 집단인 영영아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인지 비율이 다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편지원이 아닌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본 지원을 수혜(이용)한 경우는 2.5%이다.

〈표 V-2-44〉 영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수)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만족도	F/t	
전체	14.3	37.9	47.8	100.0(1,302)		2.5(34)	2.8(0.88)		
지역 규모	대도시	12.2	37.8	50.0	100.0(529)	4.955 (4)	3.6(20)	2.5(0.84)	2.839
	중소도시	15.8	36.7	47.5	100.0(553)		1.5(8)	3.1(0.83)	
	농어촌지역	15.4	41.4	43.2	100.0(220)		2.7(6)	3.3(0.81)	
자녀 나이	영영아	22.3	41.1	36.6	100.0(197)	26.76*** (4)	3.5(8)	3.0(0.58)	0.897
	영아	11.3	43.1	45.6	100.0(420)		1.7(7)	2.4(0.98)	
	유아	13.8	33.8	52.4	100.0(685)		2.8(19)	2.9(0.94)	
자녀 수	1명	13.3	39.2	47.5	100.0(696)	13.711** (4)	1.3(10)	3.0(0.71)	0.798
	2명	14.0	34.3	51.6	100.0(483)		2.7(13)	2.9(1.11)	
	3명 이상	21.0	44.5	34.5	100.0(123)		8.8(11)	2.5(0.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7	37.4	49.9	100.0(677)	3.835 (2)	1.9(14)	2.3(0.86)	-2.995**
	맞벌이 아님	16.0	38.5	45.6	100.0(625)		3.2(20)	3.2(0.75)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23.0	35.3	41.8	100.0(195)	22.993*** (6)	5.6(11)	3.3(0.47)	3.178*
	20-30만원	12.6	44.1	43.3	100.0(374)		2.4(9)	2.9(0.93)	
	30-50만원	12.3	36.5	51.2	100.0(367)		1.4(6)	2.8(0.84)	
	50만원 이상	13.3	34.4	52.2	100.0(366)		2.2(8)	2.1(0.99)	
나의 역량	상	17.6	38.8	43.6	100.0(619)	13.709** (2)	2.9(18)	2.8(0.88)	-0.284
	하	11.2	37.1	51.6	100.0(683)		2.2(16)	2.9(0.92)	
양육 부담	상	14.2	38.0	47.8	100.0(897)	0.015 (2)	2.7(25)	2.8(0.82)	0.159
	하	14.4	37.8	47.9	100.0(405)		2.2(9)	2.8(1.09)	
기관 이용	미이용	17.8	38.8	43.4	100.0(360)	6.449* (2)	2.8 (10)	2.7(0.95)	0.251
	이용	12.9	37.6	49.5	100.0(942)		2.4 (24)	2.9(0.87)	

* $p < .05$, ** $p < .01$, *** $p < .001$

이를 이용한 경우 만족정도는 4점 척도 중 2.8점으로 '대체로 만족함(3점)'에 가깝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집단에서 그 만족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 정책 내용 이해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 정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여부를 <표 V-2-45>로 제시하였다. 이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았다.

<표 V-2-45>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정책내용 인지 정도(복수응답)

단위: %, (명)

항목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는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받음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받음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수)
전체	38.2	17.7	59.2	(1,302)
지역				
대도시	37.1	15.4	60.1	(529)
중소도시	37.7	18.1	60.3	(553)
농어촌지역	42.3	22.0	54.1	(220)
자녀 나이				
영영아	51.8	23.9	45.7	(197)
영아	37.2	18.1	59.2	(420)
유아	35.0	15.7	63.0	(685)
자녀 수				
1명	38.6	17.0	58.4	(696)
2명	34.3	16.3	63.6	(483)
3명 이상	51.9	26.8	45.8	(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6	15.8	60.3	(677)
맞벌이 아님	40.1	19.7	57.9	(62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47.0	27.6	49.9	(195)
250~350만원	42.2	19.1	56.4	(374)
350~500만원	34.1	15.8	62.4	(367)
500만원 이상	33.6	12.8	63.7	(366)
나의 역량				
상	41.9	21.2	55.2	(619)
하	34.9	14.5	62.7	(683)
양육 부담				
상	39.2	17.8	58.3	(897)
하	36.1	17.4	61.0	(405)
기관 이용				
미이용	45.4	20.3	52.4	(360)
이용	35.5	16.7	61.8	(942)

이렇듯 인지정도가 낮음은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이 현 정부의 공약 정책중 하나이기에는 하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혜대상자가 보편적이지 않아 나타나 결과로 보인다.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는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38.2%,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17.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영플러스나 이번에 기저귀사업하고 분유사업이 새로 시작해서 지원을 받아봤어요. 영영플러스 경우에는 첫째부터 시작해서 셋째까지 다 받아봐서 해봤는데요.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유아 어머니 D).

3) 개선요구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응답한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 정책의 개선점으로는 지원 금액의 증액에 대한 요구(66.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21.3%로 많았다.

〈표 V-2-46〉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정책 개선요구

단위: %(명)

구분	지원금 증액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 감액	기타	계	$\chi^2(df)$	
전체	66.5	21.3	3.1	9.1	100.0(33)		
지역 규모	대도시	78.9	15.8	0.0	5.2	100.0(19)	5.659 (6)a
	중소도시	49.9	25.1	12.5	12.5	100.0(8)	
	농어촌지역	49.3	33.7	0.0	17.0	100.0(6)	
자녀 나이	영영아	85.8	14.2	0.0	0.0	100.0(7)	5.924 (6)a
	영아	43.0	28.5	14.3	14.1	100.0(7)	
	유아	68.0	21.3	0.0	10.7	100.0(19)	
자녀 수	1명	66.7	22.3	0.0	11.0	100.0(9)	3.632 (6)a
	2명	53.7	30.8	7.7	7.8	100.0(13)	
	3명 이상	81.6	9.2	0.0	9.2	100.0(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69.1	15.4	7.8	7.8	100.0(13)	1.949 (3)a
	맞벌이 아님	64.8	25.2	0.0	10.0	100.0(20)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72.7	18.3	0.0	9.0	100.0(11)	9.288 (9)a
	250-350만원	77.4	11.3	0.0	11.3	100.0(9)	
	350-500만원	39.7	20.1	20.1	20.1	100.0(5)	
	500만원 이상	62.6	37.4	0.0	0.0	100.0(8)	
나의 역량	상	60.9	33.5	5.6	0.0	100.0(18)	7.360 (3)a
	하	73.2	6.6	0.0	20.2	100.0(15)	
양육 부담	상	66.4	21.0	4.2	8.4	100.0(24)	0.437 (3)a
	하	66.7	22.2	0.0	11.0	100.0(9)	
기관 이용	미이용	70.1	29.9	0.0	0.0	100.0(10)	2.285 (3)
	이용	64.9	17.6	4.4	13.1	100.0(23)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국가에서 하는 것 중에 그 부분은 되게 좋은데. 그 혜택 비율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산정해준다면...(유아 어머니 A).

또한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 부모들은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의 선정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고, 지원물품 제공처의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집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없는 관계로 받는데 나는 월세 사는데 단지 소득 때문에 남편이 소득이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활은 너무 힘든데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유아 어머니 D).

기저귀 값이 처음엔 3만 얼마였는데 올해 6만4천원으로 올랐어요. 너무 황당했던 게 우체국하고 00가게 인가요? 거기서 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비싸요. 다른 데에서 3만원에 살 수 있는 걸 6만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유아 어머니 D).

4) 미이용 이유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 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가 6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필요하지 않아서(17.9%), 제도를 잘 몰라서(17.9%) 등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영아 자녀를 둔 경우 '소득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라는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영아와 유아 집단에서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비율이 영영아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실질적 수요자로 볼 수 있는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절차 복잡'에 응답한 경우를 보면, 소득수준 250만원 미만 가구, 나의 역량을 낮게 평가한 집단에서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다.

〈표 V-2-47〉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항목	소득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아서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기타	계	$\chi^2(df)$
전체	62.9	17.9	17.9	1.2	0.1	100.0(1,269)	

(표 V-2-47 계속)

항목	소득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아서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기타	계	$\chi^2(df)$	
지역 규모	대도시	62.4	18.3	17.7	1.4	0.2	100.0(511)	4.163 (8)a
	중소도시	63.7	17.1	18.4	0.7	0.0	100.0(545)	
	농어촌지역	62.0	19.2	16.9	1.9	0.0	100.0(214)	
자녀 나이	영영아	77.9	7.9	13.7	0.5	0.0	100.0(190)	36.984*** (8)a
	영아	65.7	15.2	17.4	1.7	0.0	100.0(413)	
	유아	56.9	22.5	19.4	1.0	0.2	100.0(667)	
자녀 수	1명	65.8	15.3	17.7	1.2	0.0	100.0(687)	12.305 (8)a
	2명	60.4	21.4	17.0	1.1	0.2	100.0(470)	
	3명 이상	55.7	19.5	22.9	1.9	0.0	100.0(1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62.2	19.8	16.6	1.4	0.0	100.0(664)	5.752
	맞벌이 아님	63.7	15.9	19.3	1.0	0.2	100.0(605)	(4)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52.5	17.3	29.1	1.1	0.0	100.0(184)	28.577** (12)a
	250-350만원	63.2	16.8	18.3	1.4	0.3	100.0(365)	
	350-500만원	66.6	16.2	16.4	0.8	0.0	100.0(362)	
	500만원 이상	64.2	21.2	13.2	1.4	0.0	100.0(358)	
나의 역량	상	65.3	19.7	14.0	0.8	0.2	100.0(601)	14.820**
	하	60.7	16.4	21.4	1.5	0.0	100.0(668)	(4)
양육 부담	상	63.0	16.5	19.3	1.2	0.1	100.0(873)	7.253
	하	62.8	21.2	14.7	1.3	0.0	100.0(396)	(4)a
기관 이용	미이용	67.3	15.8	16.3	0.6	0.0	100.0(350)	5.363
	이용	61.3	18.7	18.5	1.4	0.1	100.0(919)	(4)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
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1$, *** $p < .001$

마. 영유아 건강 관련 지원 정책

영유아와 그 가정의 건강관련지원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과 (6세 미만)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을 묶어서 그 이용 양상
과 만족도 개선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정책 중 모든 영유아를 대상
으로 하는 (6세 미만)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의 인지 정도도
높고 이용 비율은 93%를 상회하였다. 그 중 국가예방접종지원 이용만족도는 '대
체로 만족함(3점)'에 준하는 정도로 높았다.

〈표 V-2-48〉 영유아 건강 관련 지원 정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구분	인지여부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 (수)	만족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22.7	37.6	39.8	100.0(1,302)	12.6 (165)	2.8(0.72)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90.5	6.7	2.8	100.0(1,302)	93.0 (1,211)	2.6(0.72)
국가예방접종지원	87.6	9.6	2.8	100.0(1,302)	93.6 (1,218)	3.1(0.55)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금액 중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⁶³⁾.

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저소득층 산모대상 사업으로 이 지원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40%에 달하였다. 잘 알고 있다는 경우는 22.7%, 들어만 봤다는 경우는 37.6%로 나타났다. 자녀의 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잘 알고 있다'는 인지비율이 높았다. 이용비율은 전체 중 12.6%이며, 이용자 만족도 평균은 4점 척도의 2.8점 정도이다.

〈표 V-2-4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F/t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 (수)	만족도		
전체	22.7	37.6	39.8	100.0(1,302)		12.6(165)	2.8(0.72)		
지역 규모	대도시	21.8	38.4	39.8	100.0(529)	0.886 (4)	13.5(73)	2.8(0.73)	0.168
	중소도시	22.9	36.7	40.5	100.0(553)		12.0(66)	2.8(0.70)	
	농어촌지역	24.3	37.8	37.9	100.0(220)		11.8(26)	2.8(0.75)	
자녀 나이	영영아	28.9	36.1	35.0	100.0(197)	11.365* (4)	13.7(28)	2.8(0.88)	0.227
	영아	17.9	40.8	41.3	100.0(420)		8.4(35)	2.7(0.62)	
	유아	23.8	36.0	40.2	100.0(685)		14.8(101)	2.8(0.71)	

63) G-health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란? (검색일: 2016. 10. 25)

(http://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U00245&cNttId=220&menuNo=200597)

(표 V-2-49 계속)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수)	만족도	F/t	
1명	17.9	37.6	44.5	100.0(696)	34.187*** (4)	7.6(54)	2.8(0.75)	0.322	
자녀 수 2명	25.5	38.0	36.5	100.0(483)		16.3(79)	2.7(0.76)		
3명 이상	38.9	35.4	25.7	100.0(123)		25.9(32)	2.8(0.55)		
맞벌이 맞벌이	20.3	37.8	41.9	100.0(677)	5.335	11.3(77)	2.7(0.77)	-2.091*	
여부 맞벌이 아님	25.3	37.3	37.5	100.0(625)	(2)	13.9(88)	2.9(0.65)		
250만원 미만	33.7	32.8	33.6	100.0(195)	37.467*** (6)	23.4(46)	2.7(0.71)	1.053	
가구 소득 250-350만원	28.1	38.4	33.6	100.0(374)		16.6(62)	2.9(0.63)		
350-500만원	17.2	38.1	44.6	100.0(367)		6.5(24)	2.8(0.82)		
500만원 이상	16.7	38.7	44.6	100.0(366)		8.7(33)	2.6(0.79)		
나의 상	26.9	39.9	33.1	100.0(619)	23.925***	13.6(84)	2.8(0.66)	0.856	
역량 하	18.8	35.4	45.8	100.0(683)	(2)	11.6(81)	2.7(0.78)		
양육 상	21.8	38.2	40.0	100.0(897)	1.223	12.7(115)	2.7(0.69)	-2.075*	
부담 하	24.5	36.2	39.2	100.0(405)	(2)	12.3(50)	3.0(0.76)		
기관 미이용	23.7	36.8	39.6	100.0(360)	0.316	11.1(41)	2.8(0.82)	0.018	
이용 이용	22.3	37.9	39.9	100.0(942)	(2)	13.1(124)	2.8(0.68)		

* $p < .05$, *** $p < .001$

나) 정책 내용 이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이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35%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음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에 27.1%가 답하였다.

<표 V-2-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단위: %, (명)

항목	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② 중위소득 80%이하 이용가능	③ 서비스 신청기간	④ 소득과 건강상태 따라차등	⑤ 단생태아/ 다태아 이용기간	⑥ 알고있는 내용없음 상	(수)
전체	35.0	35.0	27.1	17.1	15.4	46.4	(1,302)

(표 V-2-50 계속)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중위소득 80%이하 이용가능	서비스 신청기간	소득과 건강상태 따라차등	단/쌍태아/ 다태아 이용기간 상이	알고있는 내용없음		
지역	대도시	33.1	31.0	26.5	16.9	13.7	47.9	(529)
규모	중소도시	34.5	36.8	25.0	16.7	16.0	47.5	(553)
	농어촌지역	41.1	40.0	33.9	18.8	17.9	40.1	(220)
자녀 나이	영영아	38.6	45.2	33.0	22.3	19.8	41.1	(197)
	영아	33.5	33.6	23.0	15.2	11.4	48.7	(420)
	유아	35.0	33.0	28.0	16.8	16.5	46.6	(685)
자녀 수	1명	28.4	32.8	21.1	12.7	10.4	51.7	(696)
	2명	39.5	36.2	30.9	21.4	18.5	42.5	(483)
	3명 이상	55.0	42.8	46.8	25.9	31.5	32.2	(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31.3	30.9	22.2	15.4	13.7	50.0	(677)
	맞벌이 아님	39.0	39.4	32.5	19.1	17.2	42.6	(62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47.5	43.5	43.9	25.0	24.0	34.6	(195)
	250-350만원	38.9	38.9	32.2	19.6	18.0	43.9	(374)
	350-500만원	30.2	32.0	21.2	11.4	11.7	50.6	(367)
	500만원 이상	29.3	29.5	18.9	16.2	11.8	51.1	(366)
나의 역량	상	39.5	39.1	31.7	21.2	18.3	41.2	(619)
	하	31.0	31.3	23.0	13.5	12.7	51.2	(683)
양육 부담	상	35.1	35.2	28.3	16.8	15.3	45.8	(897)
	하	35.0	34.5	24.5	17.8	15.6	47.9	(405)
기관 이용	미이용	38.2	39.6	28.8	19.8	16.5	45.7	(360)
	이용	33.8	33.2	26.5	16.1	14.9	46.7	(942)

주: ①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②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이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③서비스 이용을 위해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④소득수준과 산모건강상태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45만원에서 162만원까지 다양하다, ⑤단태아(쌍둥이가 아닌 경우)인 경우에는 10일을 이용할 수 있고, 쌍생아의 경우 15일.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산모는 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⑥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민간 돌봄 서비스에 비해 이용비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열 명 중 세 명 정도로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와 25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의 경우 이 응답비율이 높았다.

〈표 V-2-51〉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이유

단위: %(명)

항목	민간 돌봄 서비스에 비해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정부운영 서비스라서 믿을 수 있어서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기타	계	$\chi^2(df)$	
전체	70.1	19.6	7.9	2.4	100.0(164)		
지역 규모	대도시	68.1	22.2	6.9	2.8	100.0(72)	2.902 (6)a
	중소도시	72.7	15.2	10.6	1.5	100.0(66)	
	농어촌지역	68.8	23.7	3.6	3.9	100.0(26)	
자녀 나이	영영아	77.7	3.7	11.1	7.4	100.0(27)	10.965 (6)a
	영아	59.8	31.7	8.5	0.0	100.0(35)	
	유아	71.6	19.6	6.8	2.0	100.0(101)	
자녀 수	1명	64.1	22.7	9.4	3.8	100.0(53)	5.410 (6)a
	2명	68.3	21.6	8.8	1.3	100.0(79)	
	3명 이상	84.3	9.6	2.9	3.1	100.0(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9.9	26.0	10.3	3.9	100.0(77)	7.711 (3)a
	맞벌이 아님	79.1	14.0	5.8	1.2	100.0(87)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84.9	6.5	8.6	0.0	100.0(46)	30.435*** (9)a
	250-350만원	75.7	21.1	1.6	1.6	100.0(62)	
	350-500만원	50.1	20.7	16.6	12.5	100.0(24)	
	500만원 이상	52.9	34.6	12.5	0.0	100.0(32)	
나의 역량	상	76.1	16.8	6.0	1.2	100.0(84)	3.566 (3)a
	하	63.8	22.6	9.9	3.8	100.0(80)	
양육 부담	상	70.1	20.3	8.7	0.9	100.0(114)	4.161 (3)a
	하	70.1	17.9	6.0	6.0	100.0(50)	
기관 이용	미이용	74.8	15.2	7.5	2.5	100.0(40)	0.745 (3)
	이용	68.5	21.0	8.0	2.4	100.0(124)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01$

라) 개선 요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한 결과, '건강관리사의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30.5%, '이용비용 지원금을 증액해야한다' 에 19.6%, '이용기간을 늘려야 한다'에 17.6%,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한다' 16.4%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요구

단위: %(명)

항목	① 건강 관리사 질 개선	② 지원금 증액	③ 이용 기간 확대	④ 이용 대상 확대	⑤ 홍보 강화	⑥ 신청 절차 간소화	⑦ 지원금 감액	⑧ 기타	계	$\chi^2(df)$	
전체	30.5	19.6	17.6	16.4	9.8	3.1	1.8	1.2	100.0(164)		
지역 규모	대도시	29.2	16.7	15.3	18.0	12.5	2.8	2.8	2.8	100.0(72)	7.628 (14)a
	중소도시	30.3	21.2	18.2	16.7	7.6	4.5	1.5	0.0	100.0(66)	
	농어촌지역	34.5	23.6	22.5	11.5	7.8	0.0	0.0	0.0	100.0(26)	
자녀 나이	영영아	29.6	18.5	33.3	14.8	3.7	0.0	0.0	0.0	100.0(27)	14.097 (14)a
	영아	28.3	20.4	14.1	20.1	5.6	5.6	5.7	0.0	100.0(35)	
	유아	31.4	19.6	14.6	15.5	12.8	3.0	1.0	2.0	100.0(101)	
자녀 수	1명	28.4	16.9	17.0	18.9	11.3	1.9	3.8	1.9	100.0(53)	17.537 (14)a
	2명	39.2	21.7	16.5	12.5	6.4	1.3	1.3	1.3	100.0(79)	
	3명 이상	12.6	19.1	21.5	21.9	15.6	9.4	0.0	0.0	100.0(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5	18.2	12.9	16.9	13.0	2.6	2.6	1.3	100.0(77)	4.270
	맞벌이 아님	28.7	20.8	21.8	16.0	6.9	3.5	1.2	1.2	100.0(87)	(7)a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32.7	17.3	28.3	10.7	8.7	2.2	0.0	0.0	100.0(46)	29.118 (21)a
	250-350만원	33.8	16.2	16.1	21.0	3.2	4.8	3.2	1.6	100.0(62)	
	350-500만원	37.5	29.3	12.3	8.3	8.3	0.0	4.2	0.0	100.0(24)	
	500만원 이상	15.6	22.2	9.4	21.6	25.0	3.1	0.0	3.1	100.0(32)	
나의 역량	상	32.0	13.3	15.4	20.3	9.5	5.9	1.2	2.4	100.0(84)	12.814
	하	28.9	26.3	20.0	12.3	10.0	0.0	2.5	0.0	100.0(80)	(7)a
양육 부담	상	34.2	24.7	15.7	14.8	6.1	1.8	1.8	0.9	100.0(114)	15.326*
	하	22.0	8.0	22.0	20.0	18.0	6.0	2.0	2.0	100.0(50)	(7)a
기관 이용	미이용	22.4	20.2	27.3	17.7	5.0	5.0	2.5	0.0	100.0(40)	6.694
	이용	33.1	19.4	14.4	16.0	11.3	2.4	1.6	1.6	100.0(124)	(7)a

주: ① 건강관리사의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한다. ②이용 비용 지원금을 증액해야한다. ③이용기간을 늘려야 한다. ④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한다.⑤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해야한다. ⑥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⑦이용 비용 지원금을 감액해야한다. ⑧기타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마) 미 이용 이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질의한 결과 소득과 영영아기로 제한된 서비스의 특성이 드러나 '소득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56.7%로 가장 높았고, '제도를 잘 몰라서' 23.2%, '필요하지 않아서' 14.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53〉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항목	① 소득 자격 무해당	② 제도 모름	③ 필요 하지 않음	④ 민간에 비해 질 낮음	⑤ 신청 절차 복잡	⑥ 소득수준 드러나 므로	⑦ 기타	계	$\chi^2(df)$
전체	56.7	23.2	14.8	2.4	2.0	0.5	0.4	100.0(1,138)	
지역 규모	대도시	55.2	26.5	13.7	2.0	1.9	0.4	100.0(458)	10.099 (12)a
	중소도시	58.4	19.8	16.3	2.7	2.1	0.6	100.0(487)	
	농어촌지역	56.3	23.7	13.8	2.5	2.1	0.5	100.0(194)	
자녀 나이	영영아	66.5	24.1	5.9	2.4	0.0	0.6	100.0(170)	47.028*** (12)a
	영아	57.6	25.9	10.2	1.6	3.4	0.5	100.0(385)	
	유아	53.4	21.1	20.4	2.9	1.7	0.5	100.0(584)	
자녀 수	1명	57.3	26.0	12.0	1.7	1.7	0.8	100.0(643)	28.667** (12)a
	2명	58.3	19.2	16.8	3.0	2.5	0.2	100.0(404)	
	3명 이상	45.6	20.7	26.2	4.2	2.2	0.0	100.0(91)	
맞벌이	맞벌이	57.1	24.0	14.0	1.7	2.3	0.5	100.0(600)	5.085
여부	맞벌이 아님	56.4	22.3	15.8	3.1	1.7	0.6	100.0(538)	(6)a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38.8	29.3	20.6	4.0	4.7	1.3	100.0(150)	38.931** (18)a
	250-350만원	55.1	24.7	14.8	2.5	2.2	0.3	100.0(312)	
	350-500만원	62.2	21.5	12.8	2.0	0.6	0.6	100.0(343)	
	500만원 이상	60.8	20.7	14.3	1.8	2.1	0.3	100.0(334)	
나의 역량	상	60.5	18.1	16.1	1.7	2.6	0.6	100.0(535)	18.466**
	하	53.4	27.6	13.7	3.0	1.5	0.5	100.0(604)	(6)a
양육 부담	상	57.3	23.4	14.0	2.5	2.2	0.3	100.0(784)	6.192
	하	55.5	22.5	16.6	2.0	1.7	1.1	100.0(355)	(6)a
기관 이용	미이용	61.2	24.7	9.7	1.9	1.9	0.6	100.0(320)	12.017
	이용	55.0	22.5	16.8	2.6	2.1	0.5	100.0(819)	(6)a

주: ① 소득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②제도를 잘 몰라서 ③필요하지 않아서 ④민간 서비스에 비해 질이 높지 않아서.⑤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⑥소득수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⑦기타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1$, *** $p < .001$

2)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전 소득 계층 대상 보편적 지원 사업인 만큼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에 대해 전

체 응답자중 97.2%가 알고 있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90%를 상회하였다.

〈표 V-2-54〉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의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수)	만족도	F/t	
전체	90.5	6.7	2.8	100.0(1,302)		93.0(1,211)	2.6(0.72)		
지역 규모	대도시	89.7	7.5	2.8	100.0(529)	1.507 (4)	92.1(488)	2.7(0.71)	1.694
	중소도시	91.3	5.8	2.9	100.0(553)		93.7(518)	2.6(0.71)	
	농어촌지역	90.7	7.0	2.3	100.0(220)		93.6(206)	2.6(0.75)	
자녀 나이	영영아	74.6	16.7	8.6	100.0(197)	74.906*** (4)	74.1(146)	2.7(0.62)	1.639b
	영아	91.1	6.3	2.6	100.0(420)		94.5(397)	2.7(0.73)	
	유아	94.8	4.1	1.2	100.0(685)		97.5(669)	2.6(0.73)	
자녀 수	1명	86.8	8.8	4.4	100.0(696)	28.244*** (4)	89.4(622)	2.6(0.70)	1.225
	2명	94.6	4.4	1.0	100.0(483)		97.1(469)	2.6(0.75)	
	3명 이상	96.0	4.0	0.0	100.0(123)		97.6(120)	2.5(0.72)	
맞벌이 여부	맞벌이	90.3	6.6	3.1	100.0(677)	0.596 (2)	93.4(632)	2.6(0.73)	1.538
	맞벌이 아님	90.8	6.8	2.4	100.0(625)		92.6(579)	2.6(0.71)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90.3	7.7	2.0	100.0(195)	8.862 (6)	93.9(183)	2.6(0.73)	0.710
	20-30만원	91.9	7.0	1.1	100.0(374)		94.6(354)	2.6(0.69)	
	30-50만원	91.1	5.4	3.5	100.0(367)		91.9(337)	2.6(0.71)	
	50만원 이상	88.7	7.1	4.1	100.0(366)		92.0(337)	2.6(0.75)	
나의 역량	상	93.2	5.3	1.4	100.0(619)	11.371** (2)	94.8(587)	2.7(0.73)	2.607**
	하	88.1	7.9	4.0	100.0(683)		91.3(624)	2.6(0.70)	
양육 부담	상	90.4	6.3	3.3	100.0(897)	4.337(2)	92.0(825)	2.6(0.71)	-1.991*
	하	90.8	7.7	1.5	100.0(405)		95.3(386)	2.7(0.73)	
기관 이용	미이용	84.7	10.0	5.3	100.0(360)	21.644*** (2)	85.0(306)	2.7(0.64)	5.057*b
	이용	92.8	5.4	1.8	100.0(942)		96.1(905)	2.6(0.74)	

주: b) 분산분석을 위한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양육역량감이 높은 집단에서 잘 알고 있다는 비율에의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용 비율은 93%이며 만족도 평균은 4점 척도 기준 2.6점이다.

나) 정책 내용 이해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5세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각 월령

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는다'에 85.9%, '일반건강검진 7차례에 더해 3차례의 구강건강검진을 무료로 받는다'에 77.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이 영유아 가구에 잘 홍보되고,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55〉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단위: %, (명)

항목	5세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각 월령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음	일반건강검진 7차례에 더해 3차례의 구강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음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수)	
	전체	85.9	77.5		6.7
지역 규모	대도시	85.3	74.1	8.1	(529)
	중소도시	86.4	79.5	6.0	(553)
	농어촌지역	86.2	81.0	5.0	(220)
자녀 나이	영영아	74.1	58.4	19.8	(197)
	영아	85.1	76.1	7.1	(420)
	유아	89.8	83.9	2.6	(685)
자녀 수	1명	82.3	71.4	10.3	(696)
	2명	89.7	84.7	2.7	(483)
	3명 이상	91.9	83.9	1.6	(123)
맞벌이 맞벌이	86.9	76.7	6.6	(677)	
여부 맞벌이 아님	84.9	78.4	6.7	(62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88.8	78.0	4.1	(195)
	250-350만원	86.3	80.8	5.9	(374)
	350-500만원	84.8	77.2	7.6	(367)
	500만원 이상	85.2	74.4	7.9	(366)
나의 상 역량 하	87.6	81.5	4.8	(619)	
양육 상 부담 하	85.9	76.0	7.1	(897)	
기관 미이용 이용	85.9	81.0	5.7	(405)	
기관 미이용	81.4	70.5	12.5	(360)	
이용 이용	87.7	80.2	4.4	(942)	

다) 개선 요구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내용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72.8%로 주류를 이루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의 월령별 건강검진 문자 알림 서비스' 16.7%, '영유아건강검진 운영 소아과 확대' 10.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V-2-56〉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개선요구

단위: %(명)

항목	검진 내용 내실화	아이의 월령별 건강검진 문자 알림 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소아과 확대	기타	계	$\chi^2(df)$	
전체	72.8	16.7	10.2	0.3	100.0(1,211)		
지역 규모	대도시	72.5	16.9	10.4	0.2	100.0(488)	11.166 (6)a
	중소도시	74.2	16.5	9.3	0.0	100.0(518)	
	농어촌지역	70.1	16.6	11.8	1.5	100.0(206)	
자녀 나이	영영아	74.0	16.4	9.6	0.0	100.0(146)	8.286 (6)a
	영아	75.2	16.3	7.7	0.8	100.0(397)	
	유아	71.2	16.9	11.8	0.1	100.0(669)	
자녀 수	1명	74.3	16.9	8.3	0.5	100.0(622)	8.404 (6)a
	2명	72.0	16.2	11.9	0.0	100.0(469)	
	3명 이상	68.5	17.4	13.3	0.8	100.0(1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1.8	17.3	10.7	0.2	100.0(632)	2.092 (3)a
	맞벌이 아님	73.9	16.0	9.5	0.5	100.0(579)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9.6	18.9	11.0	0.5	100.0(183)	8.037 (9)a
	250-350만원	74.3	15.3	9.9	0.6	100.0(354)	
	350-500만원	76.2	15.5	8.0	0.3	100.0(337)	
	500만원 이상	69.7	18.2	12.1	0.0	100.0(337)	
나의 역량	상	72.8	16.4	10.6	0.2	100.0(587)	1.137 (3)a
	하	72.8	16.9	9.7	0.5	100.0(624)	
양육 부담	상	72.8	16.8	10.0	0.4	100.0(825)	0.151 (3)a
	하	73.0	16.4	10.4	0.3	100.0(386)	
기관 이용	미이용	74.0	15.7	9.9	0.3	100.0(306)	0.348 (3)a
	이용	72.4	17.0	10.2	0.3	100.0(905)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영, 유아 검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병원이 소수들만 정밀하게 해주고 웬만한 일반 동네 병원에서는 굳이 그렇게 잘 세밀하게 그만큼 해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유아 어머니 A).

검진이 의사가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엄마들이 다 체크를 해놓고 와서 그거 입력해서 '네, 이상 없습니다.' 하고 끝이에요(유아 어머니 D)

라) 미 이용 이유

많은 것은 않지만 영유아건강검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영유아건강검진 제도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다. 영영아와 영아 집단에서는

제도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유아 집단에서는 검진시기를 놓쳐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은 차이를 보인다. 기타응답(22명, 24.1%)으로는 아직 검진시기가 안돼서(20명, 21.9%), 예약 어렵고 검진 내용 성의 없음(1명, 0.9%), 별도로 다니는 병원 있음(1명, 0.9%)이 있었다.

<표 V-2-57>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를 잘 몰라서	검진시기를 놓쳐서	검진 내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기타 ¹⁾	계	$\chi^2(df)$	
전체	45.1	16.4	14.4	24.1	100.0(91)		
지역 규모	대도시	45.2	19.0	16.6	19.1	100.0(42)	5.626 (6)a
	중소도시	45.7	8.6	11.4	34.2	100.0(35)	
	농어촌지역	43.3	27.9	14.8	14.0	100.0(14)	
자녀 나이	영영아	45.1	7.8	5.9	41.2	100.0(51)	29.995*** (6)a
	영아	56.7	17.3	26.1	0.0	100.0(23)	
	유아	29.2	41.0	23.8	6.0	100.0(17)	
자녀 수	1명	48.7	12.1	10.8	28.4	100.0(74)	18.081** (6)a
	2명	35.7	28.2	36.1	0.0	100.0(14)	
	3명 이상	0.0	66.4	0.0	33.6	100.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55.7	17.7	13.3	13.3	100.0(45)	6.654 (3)
	맞벌이 아님	34.8	15.1	15.4	34.7	100.0(46)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25.0	8.4	24.9	41.8	100.0(12)	13.556 (9)a
	20-30만원	35.4	20.0	4.9	39.8	100.0(20)	
	30-50만원	49.9	16.5	10.1	23.5	100.0(30)	
	50만원 이상	55.2	17.1	20.9	6.8	100.0(29)	
나의 역량	상	34.2	18.5	19.1	28.2	100.0(32)	2.41 (3)
	하	51.0	15.2	11.8	22.0	100.0(59)	
양육 부담	상	44.5	15.1	16.8	23.6	100.0(72)	1.747 (3)a
	하	47.3	21.1	5.3	26.3	100.0(19)	
기관 이용	미이용	40.8	9.2	13.1	36.9	100.0(54)	14.003** (3)
	이용	51.5	26.9	16.2	5.4	100.0(37)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1$, *** $p < .001$

3)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국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권미경 외, 2016:31).

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 또한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보편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다는 비율이 97.2%에 달하였다. 특히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87.6%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58〉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수)	이용만족도	F/t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전체	87.6	9.6	2.8	100.0(1,302)		93.6(1,218)	3.1(0.55)		
지역 규모	대도시	86.7	10.9	2.4	100.0(529)	2144 (4)	92.9(492)	3.1(0.54)	1.134
	중소도시	88.6	8.5	2.9	100.0(553)		94.4(522)	3.2(0.53)	
	농어촌지역	87.6	9.2	3.2	100.0(220)		93.2(205)	3.1(0.61)	
자녀 나이	영영아	83.2	12.2	4.6	100.0(197)	5,247 (4)	88.3(174)	3.1(0.57)	1.996
	영아	87.7	9.9	2.4	100.0(420)		95.0(399)	3.2(0.55)	
	유아	88.9	8.7	2.5	100.0(685)		94.2(646)	3.1(0.55)	
자녀 수	1명	86.2	10.5	3.3	100.0(696)	4,285 (4)	92.1(641)	3.2(0.54)	1.525
	2명	88.6	9.1	2.3	100.0(483)		95.1(459)	3.1(0.57)	
	3명 이상	92.0	6.4	1.6	100.0(123)		96.0(118)	3.2(0.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87.0	9.7	3.2	100.0(677)	1,295 (2)	92.9(629)	3.1(0.56)	0.022
	맞벌이 아님	88.3	9.5	2.2	100.0(625)		94.2(589)	3.1(0.54)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83.7	14.3	2.0	100.0(195)	9,606 (6)	94.4(184)	3.1(0.59)	1.056
	250-350만원	90.1	8.1	1.9	100.0(374)		94.6(354)	3.1(0.53)	
	350-500만원	88.6	8.1	3.3	100.0(367)		93.8(344)	3.1(0.54)	
	500만원 이상	86.3	10.2	3.6	100.0(366)		91.8(336)	3.2(0.55)	
나의 역량	상	90.2	8.1	1.8	100.0(619)	7,758* (2)	94.9(587)	3.2(0.57)	4.113***
	하	85.3	11.0	3.7	100.0(683)		92.4(631)	3.1(0.52)	
양육 부담	상	87.6	9.5	2.9	100.0(897)	0,233 (2)	93.3(838)	3.1(0.54)	-2.886**
	하	87.6	9.9	2.5	100.0(405)		94.1(381)	3.2(0.57)	
기관 이용	미이용	86.6	9.8	3.6	100.0(360)	1,383 (2)	91.1(328)	3.2(0.55)	1.794
	이용	88.0	9.5	2.4	100.0(942)		94.5(890)	3.1(0.55)	

* $p < .05$, ** $p < .01$, *** $p < .001$

이용 비율도 93.6%로 높았고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 또한 4점 척도 중 3점을 상회하는 '대체로 만족함'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을 통해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안내받고 접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영유아 부모 대상 심층면담에서도 국가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의 종류와 비용 지원의 폭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에 대해 부모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점점 무료로 바뀌니까 조금 편한데요. 전 첫째 아이는 다 돈 내고 맞았는데 1년에 들어가는 게 계산하니까 20만원도 더 되는 것 같아요(유아 어머니 D).

그러나 아직까지 비용지원이 안 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비용지원에의 추가적 요구를 제시하기 했다.

절약이 되도 필수가 있고, 아닌 거는 지원 안 해주잖아요(유아 어머니 B).

나) 정책 내용 이해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지원되는 백신은 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 16가지이다’ 83.8%, ‘보건소 및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은 비용 전액을 지원 받는다’ 81.1% 등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편 시행되는 사업이어서 그 이용도가 높음 만큼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59〉 국가예방접종지원에 대한 정책내용 이해(복수응답)

단위: %, (명)

항목	지원되는 백신은 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 16가지임	보건소 및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은 비용전액을 지원받음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수)
전체	83.8	81.1	4.4	(1,302)
지역 규모	대도시	81.8	3.8	(529)
	중소도시	84.9	4.7	(553)
	농어촌지역	85.9	4.9	(220)
자녀 나이	영영아	87.3	4.6	(197)
	영아	84.2	3.6	(420)
	유아	82.6	4.8	(685)
자녀 수	1명	81.6	5.6	(696)
	2명	86.4	3.1	(483)
	3명 이상	86.3	2.4	(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82.0	5.0	(677)
	맞벌이 아님	85.7	3.7	(625)

(표 V-2-59 계속)

항목	지원되는 백신은 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등 16가지임	보건소 및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은 비용전액을 지원받음	알고 있는 내용 없음	(수)
25만원 미만	87.7	80.6	3.6	(195)
가구 250-350만원	85.3	81.3	3.7	(374)
소득 350-500만원	80.2	81.3	5.1	(367)
500만원 이상	83.9	81.1	4.6	(366)
나의 역량 상	87.1	85.1	2.7	(619)
하	80.8	77.5	5.9	(683)
양육 부담 상	83.1	80.5	4.7	(897)
하	85.4	82.5	3.7	(405)
기관 이용 미이용	84.7	81.0	4.5	(360)
이용 이용	83.5	81.2	4.3	(942)

다) 개선 요구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을 이용한 경우 그 개선점에 대해서는 현재 미지원 대상인 백신(경피용 결핵 백신, 로타 바이러스 등)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이 6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접종 종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설명 및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7.3%,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13.7%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미지원 백신의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가운데,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여 자녀의 나이가 어린 집단에서 미지원 백신의 지원확대 요구가, 유아 집단에서는 불필요한 예방접종 최소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2-60〉 국가예방접종지원 개선요구

단위: %(명)

항목	현재 미지원대상 백신(경피용 결핵 백신, 로타 바이러스 등)으로 확대 적용	접종 대 종류에 충분한 정보 설명 및 안내	불필요한 예방접종 최소화	기타	계	$\chi^2(df)$
전체	68.8	17.1	13.7	0.3	100.0(1,218)	
지역 규모						
대도시	69.3	15.8	14.6	0.4	100.0(492)	3.779 (6)a
중소도시	69.4	18.1	12.1	0.4	100.0(522)	
농어촌지역	66.1	18.1	15.8	0.0	100.0(205)	

(표 V-2-60 계속)

항목	현재 미지원대상 백신(경과용 결핵 백신 로타바이러스 등)으로 확대 적용	접종 대상 정보 및 안내	종류에 충분한 설명 및 안내	불필요한 예방접종 최소화	기타	계	$\chi^2(df)$
자녀 나이	영영아	78.7	13.8	6.9	0.6	100.0(174)	17710* (6)a
	영아	68.3	18.0	13.0	0.8	100.0(399)	
	유아	66.4	17.5	16.0	0.0	100.0(646)	
자녀 수	1명	70.4	18.3	11.0	0.3	100.0(641)	10.427 (6)a
	2명	66.8	16.5	16.3	0.4	100.0(459)	
	3명 이상	67.9	13.4	18.7	0.0	100.0(118)	
맞벌 이 여부	맞벌이	69.4	16.4	14.0	0.3	100.0(629)	0.595 (3)a
	맞벌이 아님	68.2	18.0	13.5	0.3	100.0(589)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6.0	20.5	13.5	0.0	100.0(184)	8.928 (9)a
	250-350만원	66.8	17.8	14.5	0.9	100.0(354)	
	350-500만원	72.7	14.5	12.8	0.0	100.0(344)	
	500만원 이상	68.4	17.3	14.0	0.3	100.0(336)	
나의 역량	상	69.9	15.4	14.3	0.3	100.0(587)	2.683 (3)a
	하	67.7	18.8	13.2	0.3	100.0(631)	
양육 부담	상	68.8	17.4	13.4	0.5	100.0(838)	2.158 (3)a
	하	68.9	16.6	14.5	0.0	100.0(381)	
기관 이용	미이용	73.4	15.0	11.4	0.3	100.0(328)	4.481 (3)
	이용	67.1	17.9	14.6	0.3	100.0(890)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라) 미 이용 이유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32.2%, 예방접종 종류를 모른다는 경우가 22.6%, 접종시기를 놓치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13%, 예방접종의 부작용을 우려하여서가 10.6%의 순서로 파악되었다.

〈표 V-2-61〉 국가예방접종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항목	① 제도 모름	② 예방접종 종류 모름	③ 접종시기 놓침	④ 예방접종 부작용 우려	⑤ 아이가 힘든 것이 싫음	⑥ 기타	계	$\chi^2(df)$
전체	32.2	22.6	13.0	10.6	6.0	15.5	100.0(84)	

(표 V-2-61 계속)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계	$\chi^2(df)$	
	제도 모름	예방접종 종류 모름	접종시기 놓침	예방접종 부작용 우려	아이가 힘든 것이 싫음	기타			
지역 규모	대도시	31.5	21.2	15.7	13.1	5.3	13.2	100.0(38)	5.633 (10)a
	중소도시	32.3	29.0	9.7	6.4	9.7	12.9	100.0(31)	
	농어촌지역	34.1	13.1	13.1	13.1	0.0	26.6	100.0(15)	
자녀 나이	영영아	30.5	17.4	8.7	4.4	0.0	39.0	100.0(23)	23.994** (10)a
	영아	48.0	28.4	4.8	14.1	0.0	4.7	100.0(21)	
	유아	24.8	22.6	19.9	12.4	12.7	7.6	100.0(40)	
자녀 수	1명	32.8	27.2	10.9	5.4	3.7	19.9	100.0(55)	14.103 (10)a
	2명	29.2	16.7	12.3	20.8	12.6	8.4	100.0(24)	
	3명 이상	40.4	0.0	40.4	19.2	0.0	0.0	100.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7	25.0	12.4	10.3	6.3	10.4	100.0(48)	2.563 (5)a
	맞벌이 아님	27.7	19.5	13.9	11.2	5.6	22.2	100.0(36)	
가구 소득	25만원 미만	36.2	9.2	18.1	18.2	9.2	9.2	100.0(11)	8.782 (15)a
	25~35만원	30.4	35.0	9.9	9.7	0.0	14.9	100.0(20)	
	35~50만원	34.6	13.1	17.3	4.4	8.8	21.8	100.0(23)	
	50만원 이상	30.2	26.6	10.0	13.3	6.7	13.3	100.0(30)	
나의 역량	상	21.8	18.9	15.5	18.6	6.3	18.8	100.0(32)	5.771 (5)a
	하	38.6	24.9	11.5	5.8	5.8	13.4	100.0(52)	
양육 부담	상	36.8	20.0	14.9	9.9	0.0	18.3	100.0(60)	16.263** (5)a
	하	20.8	29.1	8.4	12.5	20.9	8.3	100.0(24)	
기관 이용	미이용	31.5	24.9	9.4	6.2	0.0	28.0	100.0(32)	10.071 (5)a
	이용	32.7	21.2	15.3	13.4	9.7	7.7	100.0(52)	

주: ① 제도를 몰라서 ②어떤 예방접종이 있는지 몰라서 ③필요한 접종시기를 놓쳐서 ④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⑤예방접종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 하는 게 싫어서 ⑥기타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1$

바. 양육지원 종합서비스 센터 지원

정부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거점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대표적 기관이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안에는 이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가정에서의 양육을 오프라인에서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 확산하고

자하는 계획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지원 거점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이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35.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67.2%로 높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V-2-62〉 양육지원 종합 서비스 센터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구분	인지여부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 (수)	만족도
육아종합지원센터	26.9	37.3	35.8	100.0(1,302)	22.8 (297)	2.9(0.62)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6.9	25.8	67.2	100.0(1,302)	3.2 (42)	2.7(0.75)

1)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 내 양육을 지원(장난감/도서대여, 체험실, 부모교육, 상담, 양육 정보 제공 등)하는 기관이다. 이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의 35.8%이며, 이용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2.8%로 나타났다.

〈표 V-2-6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수)	만족도	F/t	
전체	26.9	37.3	35.8	100.0(1,302)		22.8(297)	2.9(0.62)		
지역 규모	대도시	26.9	39.7	33.4	100.0(529)	6.925 (4)	25.0(132)	2.8(0.66)	0.587
	중소도시	28.1	36.5	35.4	100.0(553)		23.1(127)	2.9(0.60)	
	농어촌지역	23.5	33.9	42.6	100.0(220)		17.1(38)	2.9(0.55)	
자녀 나이	영영아	27.4	31.5	41.1	100.0(197)	11.366* (4)	25.4(50)	3.0(0.64)	3.351*b
	영아	30.3	39.4	30.3	100.0(420)		27.1(114)	3.0(0.56)	
	유아	24.6	37.8	37.7	100.0(685)		19.5(134)	2.8(0.65)	

(표 V-2-63 계속)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수)	만족도	F/t		
1명	28.3	36.0	35.7	100.0(696)	2.771 (4)	25.4(177)	3.0(0.62)	4.327*		
자녀 수 2명	26.1	38.2	35.7	100.0(483)		20.7(100)	2.7(0.63)			
3명 이상	21.8	41.3	37.0	100.0(123)		17.1(21)	2.9(0.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맞벌이 아님	25.5	39.3	35.2	100.0(677)	2.612	22.4(151)	2.9(0.61)	-0.694
			28.3	35.2	36.4	100.0(625)	(2)	23.4(146)	2.9(0.63)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26.7	32.7	40.6	100.0(195)		27.2(53)	2.9(0.62)	1.419b	
	250-350만원	27.6	36.8	35.6	100.0(374)	3.718	23.9(89)	3.0(0.63)		
	350-500만원	25.7	39.5	34.8	100.0(367)	(6)	18.6(68)	2.8(0.67)		
	500만원 이상	27.3	38.3	34.4	100.0(366)		23.7(87)	2.9(0.56)		
나의 역량	상	31.9	38.2	29.9	100.0(619)	23.067***	24.6(152)	3.0(0.56)	2.518*	
	하	22.3	36.6	41.2	100.0(683)	(2)	21.2(145)	2.8(0.67)		
양육 부담	상	27.1	37.0	35.9	100.0(897)	0.177	23.1(207)	2.9(0.64)	-0.706	
	하	26.3	38.2	35.5	100.0(405)	(2)	22.3(90)	2.9(0.56)		
기관 이용	미이용	26.7	34.9	38.4	100.0(360)	1.751	24.2 (87)	2.9(0.65)	1.037	
	이용	26.9	38.3	34.8	100.0(942)	(2)	22.3 (210)	2.9(0.61)		

주: b) 분산분석을 위한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01$

이용한 경우 만족 정도는 4점 척도로 2.9점으로 '대체로 만족함(3점)'에 근접하였다. 이 센터를 모른다는 응답이 농어촌 지역, 영영아 가구, 소득수준 250만원 미만, 나의 역량을 낮게 평가한 집단에서 4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 만족도는 나의 역량이 높은 집단(3.0점)이 낮은 집단(2.8점)보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사업을 실시하는 전달체제로 가정문제 예방/상담/ 치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 가족문화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세 명 중 두 명 정도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이용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2%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평균 이용 만족도는 2.7점 정도이다. 이 센터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영영아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V-2-64〉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수)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만족도	F/t	
전체	6.9	25.8	67.2	100.0(1,302)		3.2(42)	2.7(0.75)		
지역 규모	대도시	5.7	27.2	67.1	100.0(529)	3.460 (4)	3.9(21)	2.7(0.78)	0.082
	중소도시	8.2	24.3	67.5	100.0(553)		2.9(16)	2.6(0.72)	
	농어촌지역	6.9	26.3	66.8	100.0(220)		2.3(5)	2.6(0.89)	
자녀 나이	영영아	4.6	19.3	76.2	100.0(197)	10.301* (4)	1.5(3)	3.3(0.58)	1.350
	영아	7.0	24.9	68.0	100.0(420)		2.6(11)	2.5(0.68)	
	유아	7.6	28.3	64.2	100.0(685)		4.1(28)	2.6(0.78)	
자녀 수	1명	6.2	22.5	71.3	100.0(696)	13.402** (4)	2.6(18)	2.7(0.76)	0.070
	2명	7.1	30.1	62.8	100.0(483)		3.3(16)	2.6(0.89)	
	3명 이상	10.5	28.1	61.4	100.0(123)		6.5(8)	2.7(0.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7.4	26.9	65.7	100.0(677)	1.457 (2)	4.0(27)	2.6(0.80)	-1.291
	맞벌이 아님	6.4	24.7	68.9	100.0(625)		2.4(15)	2.9(0.64)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9.7	25.0	65.3	100.0(195)	10.319 (6)	4.1(8)	3.0(0.00)	0.904b
	20-30만원	4.6	23.3	72.2	100.0(374)		2.1(8)	2.7(0.71)	
	30-50만원	7.7	29.1	63.2	100.0(367)		3.0(11)	2.6(0.81)	
	50만원 이상	7.2	25.6	67.2	100.0(366)		4.1(15)	2.5(0.91)	
나역 역량	상	9.1	29.2	61.7	100.0(619)	18.528*** (2)	3.7(23)	2.8(0.67)	1.099
	하	5.0	22.8	72.2	100.0(683)		2.8(19)	2.5(0.84)	
양육 부담	상	6.6	25.1	68.3	100.0(897)	1.547 (2)	3.2(29)	2.7(0.66)	0.292
	하	7.7	27.4	64.9	100.0(405)		3.2(13)	2.6(0.96)	
기관 이용	미이용	5.0	19.2	75.8	100.0(360)	16.493*** (2)	2.5 (9)	2.6(0.88)	0.244
	이용	7.7	28.4	64.0	100.0(942)		3.5 (33)	2.7(0.73)	

주: b) 분산분석을 위한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1$, *** $p < .001$

2) 제공 서비스별 이용 및 만족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에서 추진 중인 장난감 대여, 도서대여, 상담, 부모교육 등 다면적인 양육지원사업의 내용 각각에 대해 이용 비율과 만족 정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312명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한 구체적 사업 내용들에 대해 질의하였다.

장난감대여나 도서대여, 상담 같이 두 센터에서 제공하는 사업의 내용이 유

사한 것들도 있다. 먼저 높은 이용 비율을 보인 서비스는 장난감 대여(73.8%), 도서대여(45%), 체험 활동 및 참여프로그램(36.5%), 육아정보 제공(24.1%), 부모 교육(20.2%) 등의 순서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장난감 및 도서 대여에의 이용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도서대여와 체험 활동 및 참여프로그램에의 만족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공동육아나눔터나 육아품앗이 지원에 대한 만족 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부모면담에서는 공동육아에의 호응이 높고, 그 장소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제가 공동육아를 알아봤어요. 그게 지역사회단체 사업이었는데 그걸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지역카페를 들어 가보고 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애들만 보내지만 공동육아 경우에는 엄마랑 같이 갈 수 있잖아요(영아 어머니 C).

또 어린아이들하고 두 돌까지 있으면 엄마하고 아이가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엄마들을 위해서 무슨 수업을 한다 뭐한다 해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이 동반은 안된다 그렇게 되니까 저희는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네에서 제가 공동육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미술활동 하고 책 읽어주는 거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유아 어머니 D).

〈표 V-2-65〉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지원센터의 서비스별 이용 및 만족도

단위: %(명), 점(점)

서비스의 종류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센터 이용 계 ¹⁾	이용 합	서비스 이용 계 ²⁾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장난감 대여	100.0(312)	73.8	100.0(230)	3.1	16.2	56.4	24.4	3.0(0.73)
도서 대여	100.0(312)	45.0	100.0(140)	0.7	9.9	64.3	25.0	3.1(0.60)
체험 활동 및 참여프로그램	100.0(312)	36.5	100.0(114)	0.0	8.7	73.7	17.6	3.1(0.51)
육아정보 제공	100.0(312)	24.1	100.0(75)	0.0	21.3	69.5	9.2	2.9(0.54)
부모 교육	100.0(312)	20.2	100.0(63)	3.2	6.3	77.8	12.8	3.0(0.57)
육아 상담	100.0(312)	12.1	100.0(38)	2.7	10.4	73.8	13.2	3.0(0.59)
아동발달검사/치료프로그램	100.0(312)	11.2	100.0(35)	5.8	17.1	68.7	8.4	2.8(0.68)
시간제 돌봄 서비스	100.0(312)	7.7	100.0(24)	0.0	20.7	58.4	20.9	3.0(0.66)
공동육아나눔터	100.0(312)	5.8	100.0(18)	0.0	27.8	72.2	0.0	2.7(0.46)
육아 품앗이 지원 및 운영	100.0(312)	3.9	100.0(12)	16.7	16.7	49.9	16.7	2.7(0.99)

주: 1) 각종 센터 이용자 전체 수가 312명임(중복없음).

2) 센터 이용자 중 해당 서비스 이용자 전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이 따로 있고 엄마들이 따라 할 수 있는 품앗이도 있고 아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달 별로 해서 신청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되면 거기서 아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전사회 티켓 같은 것도 주시고(유아 어머니 D).

장난감 도서관 좋은데요. 비용절감은 좋은데...보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민원을 올려야 되나 하는데 비용이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이용하죠(영아 어머니 C).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한다고 거기까지 가서 갖고 왔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장난감이 나한테 왔는데 고장이 나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뭐라 할 수도 없고(유아 어머니 A).

3) 개선 요구

이용자 경험을 지닌 경우 응답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지원센터가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거주지에서 너무 먼 곳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33%,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이 32.6%로 나타났다. 대도시에서는 접근성의 부족을 놓여준 지역에서는 서비스 내용 홍보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맞벌이인 경우 이용시간이 다양하지 못함에 대한 지적(22.6%)이 아닌 경우(9.2)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였다.

거기는 교통편이 없어요. 그래서 한 30분을 걸어 가야해요. 애기 유모차 끌고 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집에 있기는 너무 힘들고 아이는 돌이 지나서 걸어도 다니고 놀아달라고 떼를 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유아 어머니 D).

00육아지원센터인가요? 거기에는 상담해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가기에는 교통편이 되게 안 좋거든요. 조금 쉽게 이동할 수 있게 가까운 곳에서 모집을 해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던가 아니면 아예 동에서 그 분이 지원을 나와서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유아 어머니 D).

동경 근교에 0,1,2세 아이들을 위한 센터 같은 게 있어요. 거긴 기관을 다니는 아이가 전혀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어딘가 좀 나가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잘키우고 있나 걱정되고 ...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만든 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아이들이 와서 자유선택활동을 하며 놀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놓고 애들이 거기서 놀고 부모들끼리 얘기할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일종의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부모들한테 step by step 으로 어떻게 양육을 하고 아이를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지를 자기네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센터더라고요(학계 교수 E).

〈표 V-2-66〉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지원센터 개선요구

단위: %(명)

항목	거주지에서 너무 먼 곳에 있음	서비스 내용이 잘 홍보되지 않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이용 시간이 다양하지 못함	기타	계	$\chi^2(df)$	
전체	33.0	32.6	16.1	16.0	2.2	100.0(312)		
지역	대도시	42.3	30.7	12.4	13.8	0.7	100.0(136)	14.593 (8)
규모	중소도시	26.1	31.4	20.9	17.9	3.7	100.0(134)	
	농어촌지역	24.9	42.8	12.7	17.3	2.3	100.0(41)	
자녀 나이	영영아	33.3	35.3	13.7	13.7	3.9	100.0(51)	7.712 (8)
	영아	37.1	35.8	12.3	13.9	0.9	100.0(116)	
	유아	29.7	29.0	20.0	18.6	2.7	100.0(144)	
자녀 수	1명	33.4	34.6	14.9	14.3	2.7	100.0(183)	4.399 (8)a
	2명	31.4	31.6	18.0	17.1	1.9	100.0(105)	
	3명 이상	37.1	21.3	16.7	24.9	0.0	100.0(2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9	32.1	13.9	22.6	2.5	100.0(159)	11.576*
	맞벌이 아님	37.4	33.1	18.4	9.2	1.9	100.0(152)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38.1	36.5	14.6	10.8	0.0	100.0(55)	13.433 (12)
	20-30만원	27.4	38.5	19.8	12.1	2.2	100.0(91)	
	30-50만원	39.7	25.9	16.6	15.1	2.7	100.0(73)	
	50만원 이상	30.4	29.6	13.0	23.8	3.2	100.0(92)	
나의 역량	상	30.7	28.5	18.9	18.9	3.1	100.0(160)	6.572 (4)
	하	35.5	36.9	13.2	13.1	1.3	100.0(152)	
양육 부담	상	36.7	32.1	14.0	15.8	1.4	100.0(215)	7.044 (4)
	하	24.9	33.6	20.8	16.6	4.1	100.0(97)	
기관 이용	미이용	39.6	33.2	9.1	14.7	3.4	100.0(88)	6.236 (4)
	이용	30.5	32.3	18.9	16.6	1.8	100.0(223)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4) 미 이용 이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기관이 있는지 몰라서'가 56.9%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도 '서비스 내용이 잘 홍보되지 않음(24.2%)'으로 두 이유가 홍보의 부족을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이다.

〈표 V-2-67〉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항목	이러한 기관이 있는지 몰라서	서비스 내용이 잘 홍보되지 않음	너무 먼 곳에 있음	프로그램 다양하지 못함	제공 서비스가 양육에 도움안됨	기타	계	$\chi^2(df)$	
전체	56.9	24.2	12.3	2.6	2.3	1.6	100.0(990)		
지역 규모	대도시	56.4	24.3	12.9	2.5	2.8	1.0	100.0(393)	9.997 (10)
	중소도시	57.5	25.2	9.8	2.6	2.4	2.4	100.0(418)	
	농어촌지역	56.6	21.9	16.5	2.7	1.1	1.2	100.0(179)	
자녀 나이	영영아	59.6	23.3	13.0	2.0	0.0	2.1	100.0(146)	13.236 (10)
	영아	56.8	23.6	12.9	3.6	1.0	2.0	100.0(304)	
	유아	56.3	24.8	11.7	2.2	3.7	1.3	100.0(541)	
자녀 수	1명	59.2	22.5	11.7	2.7	2.1	1.8	100.0(513)	6.923 (10)
	2명	54.3	26.1	12.1	2.6	2.9	1.9	100.0(378)	
	3명 이상	55.1	26.1	15.8	2.0	1.0	0.0	100.0(99)	
맞벌이 여부	맞벌이	56.4	25.1	11.0	2.9	2.9	1.8	100.0(518)	3.861 (5)
	맞벌이 아님	57.6	23.2	13.7	2.3	1.7	1.5	100.0(473)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1.0	19.1	13.5	4.3	1.4	0.7	100.0(140)	25.373* (15)a
	250-350만원	57.9	24.4	14.5	1.0	0.7	1.4	100.0(282)	
	350-500만원	54.8	24.5	14.3	2.4	2.7	1.4	100.0(293)	
	500만원 이상	56.2	26.3	7.3	3.7	4.0	2.6	100.0(274)	
나의 역량	상	54.5	25.3	14.3	2.2	2.2	1.5	100.0(459)	5.025 (5)
	하	59.0	23.3	10.5	3.0	2.5	1.7	100.0(531)	
양육 부담	상	57.3	23.4	13.0	2.3	2.1	1.9	100.0(682)	4.031 (5)
	하	56.2	26.0	10.7	3.3	2.9	1.0	100.0(308)	
기관 이용	미이용	63.1	21.0	12.9	0.7	0.4	1.8	100.0(272)	15.483** (5)
	이용	54.6	25.4	12.0	3.3	3.1	1.5	100.0(719)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1$

특히, 소득수준 250만원 미만 가구와 기관 미이용 가구에서 몰라서 이용 못한 응답이 60% 이상으로 두드러진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실 서울은 많지만 천안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군데 딱 있는데 설치해도 정책 효과성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나 그렇게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있다 하면 거기 설치하거나 해서... 공간이 있고 전담요원이 하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학계 교수 F).

사.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맞벌이 가구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들이 운용 중이다. 영유아 자녀 양육 시기에 이용 가능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로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에 대한 이용 및 이용 만족도 개선요구를 조사하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은 9% 정도에 그쳐 열 명 중 아홉 명은 이 제도에 대해 듣거나 알고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20~30% 정도를 차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이용율이 2.7%로 매우 저조하다.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이용 만족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

아니 취업한 여자는 취업한 남자는 취업만 하고 그것만 하면 되요. 취업한 여자는요. 취업을 끝내고 집에 다시 출근해요.(학계 교수 F).

〈표 V-2-68〉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구분	인지여부				이용여부 이용(수)	이용만족도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출산 전·후 휴가	58.4	32.6	9.0	100.0(1,302)	41.8 (544)	2.8(0.74)
배우자 출산휴가	51.6	39.7	8.7	100.0(1,302)	36.6 (477)	2.5(0.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2.0	46.5	31.5	100.0(1,302)	2.7 (35)	2.7(0.80)
육아휴직제도	41.2	38.1	20.7	100.0(1,302)	23.2 (302)	2.7(0.83)

1)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가)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는 자녀의 출산 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고 출산 전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출산 지원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지 9%만이 모른다고 답하였다.

〈표 V-2-69〉 출산 전·후 휴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수)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만족도	F/t	
전체	58.4	32.6	9.0	100.0(1,302)		41.8(544)	2.8(0.74)		
지역 규모	대도시	59.6	30.8	9.5	100.0(529)	7.282 (4)	44.4(235)	2.8(0.72)	2.337
	중소도시	59.5	33.2	7.3	100.0(553)		42.9(237)	2.8(0.75)	
	농어촌지역	52.7	35.1	12.1	100.0(220)		32.9(72)	3.0(0.73)	
자녀 나이	영영아	64.5	29.4	6.1	100.0(197)	15.920** (4)	44.2(87)	2.8(0.81)	0.316
	영아	63.5	29.4	7.2	100.0(420)		46.8(196)	2.8(0.74)	
	유아	53.6	35.4	11.0	100.0(685)		38.1(261)	2.8(0.71)	
자녀 수	1명	62.1	30.8	7.0	100.0(696)	17.725** (4)	43.9(306)	2.8(0.76)	1.951b
	2명	56.2	33.7	10.1	100.0(483)		42.8(207)	2.8(0.71)	
	3명 이상	46.0	37.9	16.0	100.0(123)		25.8(32)	3.0(0.72)	
맞벌이 여부	맞벌이	69.9	23.6	6.5	100.0(677)	76.703*** (2)	62.1(420)	2.8(0.74)	0.405
	맞벌이 아님	46.0	42.2	11.8	100.0(625)		19.8(124)	2.8(0.73)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41.3	43.9	14.8	100.0(195)	79.795*** (6)	21.5(42)	2.9(0.63)	0.341b
	20-30만원	48.6	42.9	8.5	100.0(374)		27.6(103)	2.7(0.86)	
	30-50만원	62.8	28.5	8.7	100.0(367)		47.5(174)	2.8(0.71)	
	50만원 이상	73.2	20.0	6.8	100.0(366)		61.4(225)	2.8(0.72)	
나의 역량	상	62.2	29.7	8.0	100.0(619)	6.898* (2)	43.7(271)	2.9(0.78)	2.758**
	하	55.0	35.1	9.9	100.0(683)		40.1(274)	2.7(0.69)	
양육 부담	상	56.7	33.8	9.4	100.0(897)	3.407 (2)	41.0(368)	2.7(0.74)	-2.338*
	하	62.2	29.7	8.1	100.0(405)		43.5(176)	2.9(0.72)	
기관 이용	미이용	61.5	32.4	6.1	100.0(360)	5.584 (2)	38.4(138)	2.8(0.78)	0.850
	이용	57.2	32.6	10.1	100.0(942)		43.1(406)	2.8(0.72)	

주: b) 분산분석을 위한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1$, *** $p < .001$

제도에 대한 인지 비율은 영영아와 영아 집단에서 유아 집단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잘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주로 맞벌이의 경우 이용경험이 있는 제도로서, 전체 대상 중 이용한 경우는 41.8%이고 만족 정도는 4점 척도 중 2.8점 정도이다.

나)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편에게 출산 지원을 위해 주어지는 휴가로 3~5일 사용 가능하고 최소 3일은 유급으로 하는 제도이다.

〈표 V-2-70〉 배우자 출산휴가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이용(수)	만족도	F/t	
전체	51.6	39.7	8.7	100.0(1,302)		36.6(477)	2.5(0.80)		
지역 규모	대도시	49.3	42.3	8.5	100.0(529)	4.264 (4)	35.2(186)	2.4(0.80)	2.008
	중소도시	54.5	37.2	8.3	100.0(553)		38.8(215)	2.6(0.78)	
	농어촌지역	49.9	39.8	10.4	100.0(220)		34.5(76)	2.6(0.84)	
자녀 나이	영영아	56.4	36.0	7.6	100.0(197)	12.864* (4)	44.2(87)	2.4(0.95)	0.633b
	영아	57.0	34.9	8.2	100.0(420)		40.7(171)	2.6(0.81)	
	유아	46.9	43.7	9.4	100.0(685)		32.0(219)	2.5(0.72)	
자녀 수	1명	53.4	38.1	8.5	100.0(696)	13.253* (4)	38.7(269)	2.5(0.83)	0.315
	2명	52.9	39.0	8.0	100.0(483)		37.3(180)	2.6(0.73)	
	3명 이상	36.3	50.9	12.8	100.0(123)		22.5(28)	2.4(0.84)	
맞벌이 여부	맞벌이	54.2	38.7	7.1	100.0(677)	6.786* (2)	37.9(256)	2.6(0.77)	1.551
	맞벌이 아님	48.7	40.8	10.5	100.0(625)		35.3(220)	2.5(0.82)	
가구 소득	20만원 미만	39.4	44.9	15.8	100.0(195)	46.092*** (6)	26.6(52)	2.6(0.80)	0.868
	20-30만원	44.3	48.0	7.7	100.0(374)		36.5(136)	2.4(0.81)	
	30-50만원	56.5	37.0	6.5	100.0(367)		39.7(145)	2.6(0.81)	
	50만원 이상	60.6	31.2	8.2	100.0(366)		39.0(143)	2.6(0.76)	
나의 역량	상	55.1	38.8	6.1	100.0(619)	12.121** (2)	38.9(241)	2.6(0.84)	3.133**
	하	48.4	40.5	11.1	100.0(683)		34.6(236)	2.4(0.73)	
양육 부담	상	50.9	40.4	8.7	100.0(897)	0.623 (2)	36.4(326)	2.5(0.79)	-1.610
	하	53.0	38.1	8.9	100.0(405)		37.2(151)	2.6(0.80)	
기관 이용	미이용	54.6	37.9	7.5	100.0(360)	2.180 (2)	42.4(153)	2.5(0.87)	1.563b
	이용	50.4	40.4	9.2	100.0(942)		34.4(324)	2.6(0.76)	

주: b) 분산분석을 위한 등분산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1$, *** $p < .001$

<표 V-2-70>에서와 같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는 8.7%이고, 유아자녀를 둔 집단에서 영영아나 영아 자녀를 둔 집단보다 잘 알고있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이에 대해 잘 알고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 제도에 대해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36.6%이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로 2.5점 정도이다.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 시간을 근무하고 단축된 시간 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표 V-2-7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수)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만족도	F/t	
전체	22.0	46.5	31.5	100.0(1,302)		2.7(35)	2.7(0.80)		
지역 규모	대도시	22.2	47.5	30.2	100.0(529)	2.577 (4)	3.8(20)	2.7(0.74)	0.089
	중소도시	22.3	46.7	31.0	100.0(553)		2.5(14)	2.6(0.93)	
	농어촌지역	20.6	43.5	35.9	100.0(220)		0.5(1)	3.0(0.00)	
자녀 나이	영영아	26.4	38.6	35.0	100.0(197)	12.370* (4)	1.5(3)	1.7(0.58)	3.094
	영아	22.3	51.2	26.5	100.0(420)		2.4(10)	2.9(0.74)	
	유아	20.5	45.9	33.6	100.0(685)		3.2(22)	2.7(0.78)	
자녀 수	1명	23.6	45.9	30.5	100.0(696)	8.258 (4)	1.7(12)	2.8(0.87)	3.753*
	2명	21.8	47.5	30.7	100.0(483)		3.7(18)	2.4(0.70)	
	3명 이상	13.7	46.1	40.2	100.0(123)		4.1(5)	3.4(0.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7.8	47.3	24.9	100.0(677)	41.301*** (2)	4.6(31)	2.7(0.77)	1.797
	맞벌이 아님	15.7	45.6	38.7	100.0(625)		0.6(4)	2.0(0.81)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15.4	45.3	39.3	100.0(195)	47.333*** (6)	1.0(2)	2.0(1.42)	1.660
	250-350만원	15.8	45.4	38.8	100.0(374)		2.1(8)	2.2(0.46)	
	350-500만원	22.2	51.8	26.1	100.0(367)		1.9(7)	2.9(0.90)	
	500만원 이상	31.7	42.9	25.4	100.0(366)		4.9(18)	2.8(0.78)	
나의 역량	상	26.4	44.7	28.9	100.0(619)	13.762*** (2)	3.7(23)	3.0(0.64)	3.536**
	하	18.0	48.1	33.9	100.0(683)		1.8(12)	2.1(0.79)	
양육 부담	상	21.9	46.2	31.9	100.0(897)	0.207 (2)	2.6(23)	2.7(0.75)	0.833
	하	22.3	47.1	30.6	100.0(405)		3.0(12)	2.5(0.90)	
기관 이용	미이용	21.2	44.1	34.8	100.0(360)	2.447 (2)	2.5(9)	2.3(0.71)	2.033
	이용	22.3	47.4	30.3	100.0(942)		2.8(26)	2.8(0.81)	

* $p < .05$, ** $p < .01$, *** $p < .001$

<표 V-2-71>에서와 같이 이에 대한 모른다는 비율은 31.5%이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모른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 제도의 이용 비율은 2.7%에 불과하며, 그 이용 만족도는 4점 척도로 2.7 정도이다.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라)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이하 자녀가 있으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것이다(권미경 외, 2016:50).

〈표 V-2-72〉 육아휴직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점)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여부 이용(수)	이용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만족도	F/t	
전체	41.2	38.1	20.7	100.0(1,302)		23.2(302)	2.7(0.83)		
지역 규모	대도시	41.4	36.9	21.7	100.0(529)	1.842 (4)	23.7(126)	2.6(0.80)	0.974
	중소도시	42.1	38.5	19.4	100.0(553)		24.5(135)	2.7(0.83)	
	농어촌지역	38.5	40.2	21.3	100.0(220)		18.7(41)	2.8(0.93)	
자녀 나이	영영아	44.7	33.5	21.8	100.0(197)	9.741* (4)	26.9(53)	2.6(0.86)	1.216
	영아	45.2	37.7	17.1	100.0(420)		24.0(101)	2.8(0.82)	
	유아	37.8	39.6	22.6	100.0(685)		21.7(148)	2.7(0.83)	
자녀 수	1명	43.0	37.2	19.9	100.0(696)	7.052 (4)	23.5(163)	2.7(0.85)	1.107
	2명	41.4	38.3	20.4	100.0(483)		24.4(118)	2.7(0.83)	
	3명 이상	30.7	42.8	26.6	100.0(123)		16.9(21)	3.0(0.67)	
맞벌이 여부	맞벌이	51.8	33.8	14.4	100.0(677)	71.409***	34.4(233)	2.8(0.81)	2.620**
맞벌이 아님	29.8	42.7	27.5	100.0(625)	(2)	11.0(69)	2.5(0.87)		
가 구 소 득	250만원 미만	25.0	43.4	31.6	100.0(195)	75.485*** (6)	11.3(22)	2.3(0.70)	2.207
	250-350만원	31.2	44.2	24.6	100.0(374)		15.0(56)	2.8(0.86)	
	350-500만원	46.2	36.2	17.6	100.0(367)		27.0(99)	2.7(0.88)	
	500만원 이상	55.1	30.9	13.9	100.0(366)		34.1(125)	2.8(0.79)	
나 의 역 량	상	45.7	35.6	18.7	100.0(619)	9.813** (2)	25.1(155)	2.9(0.83)	3.485***
	하	37.2	40.4	22.5	100.0(683)		21.5(147)	2.5(0.81)	
양 육 부 담	상	41.0	37.4	21.6	100.0(897)	1.422 (2)	22.6(203)	2.7(0.82)	-0.956
	하	41.7	39.6	18.7	100.0(405)		24.5(99)	2.8(0.86)	
기 관 이 용	미이용	39.3	37.7	23.1	100.0(360)	1.819 (2)	23.6(85)	2.7(0.82)	0.016
	이용	42.0	38.3	19.8	100.0(942)		23.0(217)	2.7(0.84)	

* $p < .05$, ** $p < .01$, *** $p < .001$

〈표 V-2-72〉에서와 같이 이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 비율은 20.7%이며, 맞벌이가 아닌 경우와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23.2%가 육아휴직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응답자 집단 중 맞벌이가 52%임을 고려하면 그 절반 정도가 이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로 2.7점 수준이다. 맞벌이와 역량감이 높은 집단에서 이에 대한 만족 정도가 다소 높은 특징을 보인다.

2) 개선 요구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로 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하였다.

‘이용할 때 직장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문화’ 라는 응답이 세 명 중 두 명에 달하는 65.8%로 다른 요구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의 사용이 가능한 근로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은 ‘지원금액의 증액’ 17.9%, ‘복직/인사 고가에 불이익 최소화’ 8.2% 순서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집단에서 지원 금액의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가 아닌 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V-2-73〉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제도가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명)

항목	이용할 때 직장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문화	지원 금액 증액	복직/인사 고가에 불이익 최소화	충분한 지원 기간 확보	기타	계	$\chi^2(df)$	
전체	65.8	17.9	8.2	7.7	0.4	100.0(781)		
지역 규모	대도시	66.8	19.8	7.3	6.1	0.0	100.0(327)	9.307 (8)
	중소도시	65.0	16.0	8.3	10.1	0.6	100.0(338)	
	농어촌지역	65.7	18.1	10.3	5.2	0.9	100.0(116)	
자녀 나이	영영아	55.9	20.1	10.8	12.4	0.8	100.0(129)	9.717 (8)
	영아	66.9	17.5	8.5	6.8	0.4	100.0(283)	
	유아	68.5	17.5	7.0	6.7	0.3	100.0(369)	
자녀 수	1명	65.8	17.1	8.2	8.7	0.2	100.0(439)	4.442 (8)a
	2명	67.0	18.0	7.8	6.5	0.7	100.0(294)	
	3명 이상	59.3	24.5	10.1	6.2	0.0	100.0(4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1.4	22.6	8.0	7.6	0.4	100.0(487)	19.410*** (4)
	맞벌이 아님	73.1	10.2	8.5	7.9	0.3	100.0(293)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65.9	9.4	14.0	10.7	0.0	100.0(85)	23.666* (12)
	250-350만원	75.0	13.5	6.8	4.2	0.5	100.0(193)	
	350-500만원	61.3	20.8	8.3	9.5	0.0	100.0(240)	
	500만원 이상	63.2	21.3	7.2	7.6	0.8	100.0(263)	
나의 역량	상	64.2	18.6	8.8	8.3	0.0	100.0(386)	4.207 (4)
	하	67.4	17.2	7.5	7.1	0.8	100.0(395)	
양육 부담	상	66.9	17.6	7.7	7.2	0.6	100.0(528)	2.734 (4)
	하	63.6	18.6	9.2	8.7	0.0	100.0(253)	
기관 이용	미이용	60.8	20.0	11.1	7.6	0.4	100.0(225)	5.404
	이용	67.8	17.1	7.0	7.7	0.4	100.0(556)	(4)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
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5$, *** $p < .001$

3) 미 이용 이유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인 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하기에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인다' 는 응답이 가장 많아 44%를 차지했다. 다음은 '복직이 어렵거나 인사 고가에 불이익을 받아서' 20.8%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V-2-74〉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항목	이용하기에 직장 내에서 눈치보임	복직이 어렵거나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받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지원 기간 너무 짧음	지원 금액 너무 적음	기타	계	$\chi^2(df)$
전체	44.0	20.8	11.3	3.5	3.1	17.2	100.0(521)	
지역 규모	대도시	47.5	19.1	11.3	3.9	2.5	100.0(203)	11.990 (10)
	중소도시	43.0	24.3	7.9	3.3	2.8	100.0(215)	
	농어촌지역	39.5	17.0	18.4	3.1	4.8	100.0(104)	
자녀 나이	영영아	48.5	17.6	7.3	5.9	5.9	100.0(68)	13.068 (10)
	영아	47.1	16.8	8.2	4.5	2.2	100.0(137)	
	유아	41.7	23.3	13.5	2.5	2.8	100.0(316)	
자녀 수	1명	44.8	20.9	11.6	3.6	3.5	100.0(257)	8.671 (10)
	2명	46.8	22.1	9.0	2.6	2.1	100.0(189)	
	3명 이상	34.5	17.2	16.1	5.3	4.0	100.0(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9.4	25.2	10.6	5.3	2.6	100.0(189)	26.667*** (5)
	맞벌이 아님	41.0	18.3	11.7	2.5	3.3	100.0(332)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38.7	18.0	11.7	2.7	7.3	100.0(110)	15.236 (15)a
	250-350만원	45.3	22.5	10.0	2.8	2.2	100.0(181)	
	350-500만원	42.4	20.5	14.2	4.0	2.4	100.0(126)	
	500만원 이상	49.6	21.3	9.7	4.9	1.0	100.0(103)	
나의 역량	상	40.3	20.1	13.4	4.4	3.0	100.0(233)	4.447 (5)
	하	47.1	21.4	9.7	2.8	3.1	100.0(288)	
양육 부담	상	46.0	21.0	8.9	3.8	3.8	100.0(369)	10.412 (5)
	하	39.4	20.3	17.3	2.7	1.3	100.0(152)	
기관 이용	미이용	43.8	19.2	8.9	2.9	3.7	100.0(135)	3.439 (5)
	이용	44.1	21.4	12.2	3.7	2.8	100.0(386)	

주: a)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5% 이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위한 최소 기대빈도 가정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 $p < .001$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인 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휴직 제도 등에 대한 개선 요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이용 시 눈치 보지 않는 문화 조성이라는 점이었음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용하기에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것임을 동시에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이 가능한 근로 문화 조성이 가장 관건임을 알 수 있다.

3. 양육지원 정책 평가 및 지원 방안

정부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다면적인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해 정책의 수요자인 부모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양육자인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 만족도가 높은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 지원 정책에의 평가

1) 지원정책 평가에의 동의 정도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정책을 생각하면서 평가적인 의미가 내포된 다음의 진술에 대한 영유아 어머니의 동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에 이르는 4점 척도로 질의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정책수요자인 영유아 어머니들의 정책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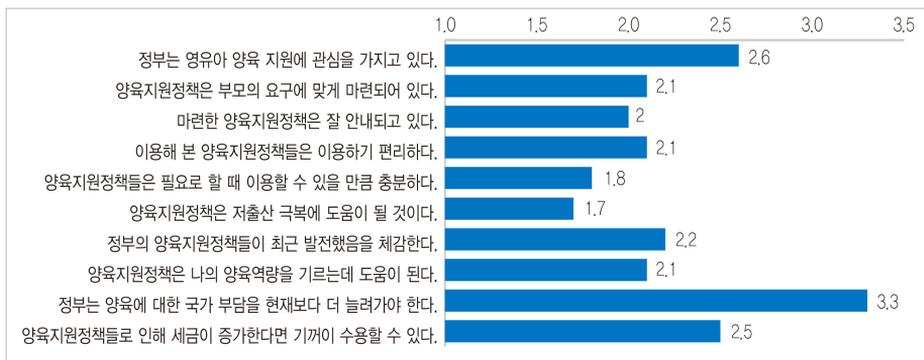
‘대체로 그렇다(3점)’에 달하는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보인 문항은 ‘정부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현재 보다 더 늘려가야 한다(3.3점)’ 이었다. 정책수요자인 부모의 요구는 분명하다 지속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로 인해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들로 인해 세금이 증가한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2.5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동의를 보였다. 어머니 들은 정부가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2.6점)도 비교적 높게 인정하고 있다.

〈표 V-3-1〉 자녀양육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동의 정도

항목	단위: 점(점) 평균(표준편차)
1) 정부는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6(0.77)
2) 정부의 양육지원정책들은 부모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2.1(0.70)
3) 정부에서 마련한 양육지원정책은 이용자에게 잘 안내되고 있다.	2.0(0.66)
4) 이용해 본 양육지원정책들은 부모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다.	2.1(0.65)
5) 정부의 양육지원정책들은 필요 할 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1.8(0.63)
6) 정부에서 마련한 양육지원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1.7(0.75)
7) 정부의 양육지원정책들이 최근 발전했음을 체감한다.	2.2(0.81)
8) 양육지원정책은 현재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나의 양육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2.1(0.73)
9) 정부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현재 보다 더 늘려가야 한다.	3.3(0.77)
10) 정부의 양육지원정책들로 인해 세금이 증가한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2.5(0.84)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임.

이에 반해 정부에서 마련한 양육지원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술에는 1.7점으로 가장 낮은 동의 정도를 보여 출산장려책으로의 양육 지원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양육지원 정책들은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라는 진술에도 1.8점으로 낮은 동의를 보여 필요한 부모에게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정부에서 마련한 양육지원정책은 이용자에게 잘 안내되고 있다(2점)는 점에도 '대체로 그렇지 않다' 수준의 동의를 보여 정책의 안내와 홍보가 수반되어야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목표를 공고하게 하고 정치적 맥락이 아닌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한다.



주: 4점 척도임.

[그림 V-3-1] 자녀양육지원 정책 평가에 대한 동의 정도

국가의 대국민 철학이 없는 거예요...이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설퍼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하나의 정책이 이전 정권에서는 가능하고 그건 잘한 정책이야 다음 정권에서는 아주 몹쓸 정책이 되버려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게 너무 많아(학계 교수 G).

저희 첫째 키울 때는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솔직히 그 보육료 지원도 없었어요. 보육료도 제가 다 내서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받으면 이것도 좀 더 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보다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첫째 때 생각하면 (정부가) 많이 생각해주고 있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유아 어머니 B).

당신 아이한테 국가가 이만큼 돈을 줬다 하는 것을 나중에 연말이라도 그 증명서 같은 거라도 보내주면 이렇게 내가 많이 받았나 하게 될 꺼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이사랑카드로 그냥 굶는데 그저 굶었을 뿐이고 돈은 몽땅 어린이집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한번 꼭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지금 이만큼의 돈을 국가가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 제공한다. 이걸 한번 꼭 확인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학계 교수 D).

2) 지원정책 체감 저조 이유

다면적인 양육지원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요자인 영유아기 부모에게 체감 정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47.5%의 어머니는 ‘정책 설계에서부터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라고 답하였다. 그 다음은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영유아 부모가 이용하기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에 27.4%가 답하여 정책 공급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서’에 14.6%, ‘정책마다 소관 부처와 기관이 다르고 복잡하여’에 10.2%가 답하였다.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홍보. 엄마들이 많이 모르시니까, 저는 그냥 전산 체계가 잘 돼있으니까 차라리 출생신고 할 때 해서... 세세하게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안내하거나, 안내책자라도 해주시면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유아 어머니 D).

전혀 정보력 없는 혼자 키우는 엄마들은 집 밖에 없어요. 아이 돌 지날 때 까지 집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아무 정보도 못 얻고 혜택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영아 어머니 C).

일단은 그 지역 자체 보건소나 사업부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여기서 살겠고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했으면 구에 대한 거기에 이런 정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도 있으니까 준비하십시오 라는 그런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유아 어머니 D).

〈표 V-3-2〉 부모가 경험하는 정책체감도가 낮은 이유

단위: %(명)

항목	정책설계에서부터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영유아부모가 이용·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서	정책마다 소관 부처와 기관이 다르고 복잡하여	기타	계	$\chi^2(df)$
전체	47.5	27.4	14.6	10.2	0.2	100.0(1,302)	
지역 규모							5.952 (8)
대도시	48.5	25.7	15.6	10.0	0.2	100.0(529)	
중소도시	46.3	30.1	12.9	10.3	0.4	100.0(553)	
농어촌지역	48.1	24.7	16.7	10.6	0.0	100.0(220)	
자녀 나이							8.270 (8)
영영아	53.3	20.8	16.2	9.1	0.5	100.0(197)	
영아	47.7	27.7	14.5	10.1	0.0	100.0(420)	
유아	45.7	29.2	14.2	10.6	0.3	100.0(685)	
자녀 수							7.010 (8)
1명	48.5	25.8	15.1	10.1	0.4	100.0(696)	
2명	45.7	30.1	14.5	9.7	0.0	100.0(483)	
3명 이상	49.1	25.9	12.1	12.9	0.0	100.0(123)	
맞벌이 여부							3.015 (4)
맞벌이	48.6	26.3	15.5	9.5	0.1	100.0(677)	
맞벌이 아님	46.3	28.6	13.7	11.0	0.3	100.0(625)	
가구 소득							14.176 (12)
250만원 미만	49.0	25.0	13.8	12.2	0.0	100.0(195)	
250-350만원	45.6	30.0	11.8	12.1	0.5	100.0(374)	
350-500만원	47.9	28.9	15.5	7.7	0.0	100.0(367)	
500만원 이상	48.2	24.6	17.0	9.8	0.3	100.0(366)	
나의 역량							5.449 (4)
상	49.3	26.1	14.6	9.6	0.5	100.0(619)	
하	45.9	28.6	14.6	10.8	0.0	100.0(683)	
양육 부담							4.356 (4)
상	48.5	27.7	13.8	9.9	0.1	100.0(897)	
하	45.3	26.8	16.5	10.9	0.5	100.0(405)	
기관 이용							6.275 (4)
미이용	48.9	23.4	17.6	9.8	0.3	100.0(360)	
이용	47.0	28.9	13.5	10.4	0.2	100.0(942)	

3) 필요도 높은 제도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9.8%, 약 열 명 중 여섯 명은 가정양육 수당과 보육·교육비용 지

원 등을 포함하는 비용지원 정책이라고 답하였다.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서,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적은 집단일수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V-3-3〉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필요도가 높은 제도

단위: %(명)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정보·교육 지원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chi^2(df)$
전체	59.8	19.0	11.8	3.9	2.6	1.9	1.1	100.0(1,302)	
지역 규모	대도시	59.6	17.8	13.4	4.2	2.4	1.7	100.0(529)	21.376* (12)
	중소도시	61.2	18.0	12.3	3.8	1.6	2.2	100.0(553)	
	농어촌지역	56.9	24.2	6.9	3.3	5.4	1.5	100.0(220)	
자녀 나이	영영아	61.4	15.7	12.7	3.6	3.5	1.0	100.0(197)	13.302 (12)
	영아	56.5	22.6	12.7	3.2	1.7	2.2	100.0(420)	
	유아	61.4	17.7	11.1	4.4	2.9	1.9	100.0(685)	
자녀 수	1명	56.0	20.3	14.5	3.3	2.3	1.9	100.0(696)	32.070** (12)
	2명	62.4	17.5	10.1	4.6	3.5	1.2	100.0(483)	
	3명 이상	70.7	17.0	3.2	4.1	0.8	4.1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8	23.6	16.0	4.3	2.4	2.1	100.0(677)	57.531***
	맞벌이 아님	69.5	14.0	7.4	3.4	2.9	1.6	100.0(625)	(6)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73.9	9.2	6.6	4.6	2.5	1.0	100.0(195)	72.502*** (18)
	250-350만원	66.6	16.4	7.0	3.2	2.7	3.0	100.0(374)	
	350-500만원	56.5	21.7	13.9	2.4	2.2	2.2	100.0(367)	
	500만원 이상	48.6	24.0	17.5	5.5	3.0	0.8	100.0(366)	
나의 역량	상	59.9	17.9	12.8	4.2	2.6	1.7	100.0(619)	2.624
	하	59.7	20.0	11.0	3.5	2.6	2.0	100.0(683)	(6)
양육 부담	상	60.9	19.0	11.4	3.9	2.2	1.8	100.0(897)	5.188
	하	57.4	18.8	12.9	3.7	3.5	2.0	100.0(405)	(6)
기관 이용	미이용	60.9	19.0	10.8	3.6	2.3	2.0	100.0(360)	1.339
	이용	59.4	19.0	12.2	3.9	2.7	1.8	100.0(942)	(6)

** $p < .01$, *** $p < .001$

4) 만족도 높은 제도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 중 가장 만족 정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응답(43.7%)은 비용지원 정책이다.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일시보육) 서비스 등의 돌봄지원 정책’에 38.3% 가 답하였다.

영영아와 영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는 돌봄지원 정책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유아 자녀를 둔 집단에서는 비용지원 정책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 연령에 따라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차이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맞벌이가구는 비용지원 정책에, 맞벌이가 아닌 가구는 돌봄지원 정책에 더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또한 기관 이용 가구는 비용지원 정책에, 기관 미이용 가구는 돌봄지원 정책이 만족도가 보다 높은 제도로 나타났다.

〈표 V-3-4〉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만족도가 높은 제도

단위: %(명)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정보/교육 지원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chi^2(df)$
전체	43.7	38.3	7.1	4.5	3.5	1.5	1.3	100.0(1302)	
지역 규모	대도시	41.7	39.1	7.7	4.5	4.0	1.5	100.0(529)	7.933 (12)
	중소도시	43.5	39.2	7.1	3.8	3.8	1.5	100.0(553)	
	농어촌지역	48.7	34.2	5.9	6.1	1.8	1.9	100.0(220)	
자녀 나이	영영아	34.0	41.6	12.2	1.0	6.6	2.0	100.0(197)	53.058*** (12)
	영아	36.8	42.7	7.4	6.1	4.1	2.2	100.0(420)	
	유아	50.6	34.7	5.5	4.5	2.3	1.0	100.0(685)	
자녀 수	1명	41.1	38.6	7.9	4.2	5.0	1.9	100.0(696)	18.134 (12)
	2명	46.7	38.0	6.2	4.5	2.1	1.4	100.0(483)	
	3명 이상	46.5	38.0	6.4	5.7	0.8	0.0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9	32.8	10.5	5.5	2.8	1.5	100.0(677)	41.139*** (6)
	맞벌이 아님	41.3	44.2	3.5	3.4	4.3	1.6	100.0(625)	
가구 소득	250만원 미만	38.7	44.9	4.7	4.6	4.6	2.1	100.0(195)	25.244 (18)
	250-350만원	44.9	39.7	5.1	2.8	4.3	2.2	100.0(374)	
	350-500만원	43.9	37.0	7.9	6.3	2.5	0.8	100.0(367)	
	500만원 이상	44.9	34.7	9.8	4.4	3.3	1.4	100.0(366)	
나의 역량	상	45.1	37.5	7.9	3.6	3.6	0.8	100.0(619)	8.137 (6)
	하	42.4	39.0	6.4	5.3	3.5	2.2	100.0(683)	
양육 부담	상	42.3	39.2	7.8	4.7	3.2	1.7	100.0(897)	5.804 (6)
	하	46.8	36.4	5.7	4.0	4.2	1.2	100.0(405)	
기관 이용	미이용	36.0	44.2	9.7	2.0	4.7	1.7	100.0(360)	27.736*** (6)
	이용	46.6	36.0	6.1	5.5	3.1	1.5	100.0(942)	

*** $p < .001$

5) 개선 필요도 높은 제도

현재 지원 정책 중 가장 개선의 필요 정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응답(47.3%)은 역시 비용지원 정책이다. 다음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일시보육) 서비스 등의 돌봄지원 정책' 21.9%,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탄력근무제 등의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18.2%의 순서로 높게 응답하였다.

〈표 V-3-5〉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

단위: %(명)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정보· 및 교육 지원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chi^2(df)$	
전체	47.3	21.9	18.2	4.4	4.0	2.2	2.1	100.0(1,302)		
지역 규모	대도시	47.9	18.2	19.2	4.9	4.5	3.0	2.3	100.0(529)	16.831 (12)
	중소도시	45.6	24.5	19.2	4.0	3.3	1.3	2.2	100.0(553)	
	농어촌지역	50.4	24.3	13.0	4.1	4.6	2.4	1.4	100.0(220)	
자녀 나이	영영아	42.1	22.3	21.3	4.1	3.0	4.1	3.1	100.0(197)	16.782 (12)
	영아	44.2	24.1	18.8	4.6	3.6	2.9	1.9	100.0(420)	
	유아	50.8	20.5	16.9	4.4	4.5	1.2	1.9	100.0(685)	
자녀 수	1명	43.2	22.8	20.9	4.6	3.7	2.6	2.2	100.0(696)	27.676** (12)
	2명	50.2	22.3	16.4	4.6	3.7	1.0	1.9	100.0(483)	
	3명 이상	59.6	15.2	9.7	2.4	6.5	4.1	2.4	100.0(1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6	25.2	21.7	5.3	3.8	1.9	2.4	100.0(677)	39.290*** (6)
	맞벌이 아님	55.7	18.3	14.3	3.4	4.2	2.4	1.8	100.0(625)	
가구 소득	25만원 미만	57.6	17.9	11.3	4.1	6.1	0.5	2.6	100.0(195)	50.570*** (18)
	25-30만원	53.8	19.4	15.1	3.5	3.5	3.2	1.6	100.0(374)	
	30-50만원	46.6	23.4	18.6	4.1	3.8	2.2	1.4	100.0(367)	
	50만원 이상	36.0	25.1	24.6	5.8	3.5	1.9	3.0	100.0(366)	
나의 역량	상	47.0	21.1	18.8	3.7	3.6	2.5	3.4	100.0(619)	12.763* (6)
	하	47.6	22.6	17.6	5.0	4.4	1.9	0.9	100.0(683)	
양육 부담	상	51.0	21.7	17.1	3.7	3.5	1.7	1.4	100.0(897)	23.872*** (6)
	하	39.3	22.3	20.6	5.9	5.2	3.3	3.5	100.0(405)	
기관 이용	미이용	46.1	23.5	17.5	4.2	4.2	2.8	1.7	100.0(360)	2.149 (6)
	이용	47.8	21.3	18.4	4.5	3.9	1.9	2.2	100.0(942)	

* $p < .05$, ** $p < .01$, *** $p < .001$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지원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

장 많았으나 맞벌이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55.7%로 맞벌이 가구 집단 39.6%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낮아질수록 비용지원 개선에 대한 요구 정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비용지원, 돌봄지원, 일·가정양립 지원에 대한 요구가 골고루 나타난 반면에,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서는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양육부담이 낮은 집단은 요구가 비교적 골고루 나타난 반면에, 양육부담이 높은 집단에서는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또한 자녀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용 지원 문제는 정말 더 이상 줄 수 도 없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학계 교수 F).

나.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공 중인 양육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3순위까지 의견을 모았다.

1순위를 중심으로 보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방안은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정 양육수당 지원(37.5%)’이고 그 다음은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 추진(15.7%)’, ‘영아는 부모가 가정 내 양육, 유아는 기관 이용 지원 활성화(14.6%)’,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이용 편리성 개선(10.8%)’,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질 관리 강화(8.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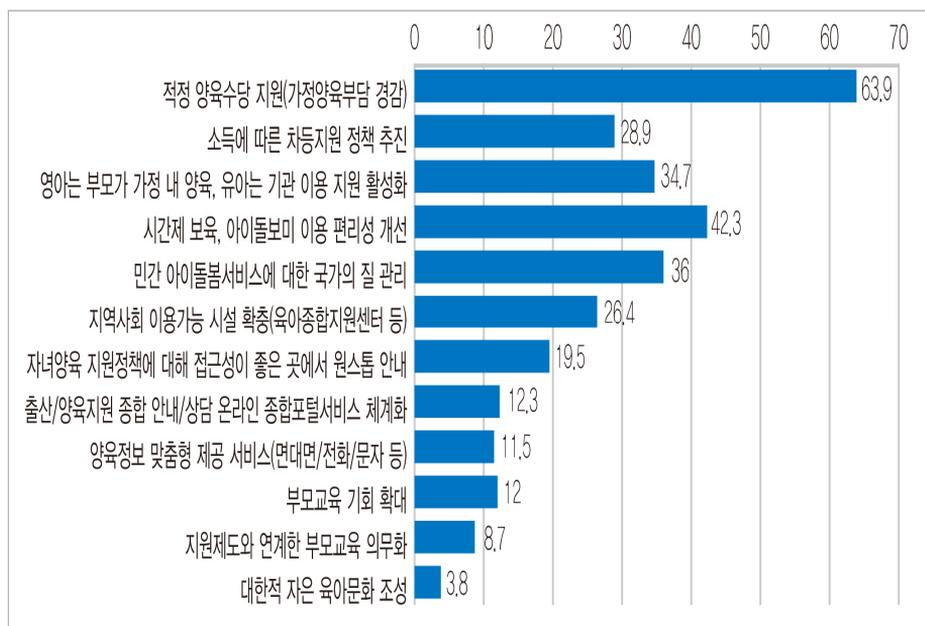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필요한 개선 방안은 적정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며, 다음은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이용 편리성 개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질 관리, 영아는 부모가 가정 내 양육, 유아는 기관 이용 지원 활성화 등으로 수렴된다. 학계 전문가나 부모들의 면담을 통해서도 누구나 다 받는 것에 대한 만족이 떨어져 지원차등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난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누구나 주는 거니까 내가 받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계층 차등화 해서 지원 했어야 했는데 누구나 공짜로 주는 것에는 만족도가 높을 수 없잖아요. 나만 특별히 준다고 해야 만족이 높는데...(학계 교수 D).

〈표 V-3-6〉 자녀양육지원정책 개선 방안

단위: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적정 양육수당 지원(가정양육부담 경감)	37.5	17.5	9.0	63.9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정책 추진	15.7	6.3	6.9	28.9
영아는 부모의 가정 내 양육지원, 유아는 기관이용 지원 활성화	14.6	11.8	8.3	34.7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이용 편리성 개선	10.8	17.2	14.3	42.3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질 관리	8.4	14.1	13.5	36.0
지역사회 이용가능 시설 확충(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2	9.8	13.4	26.4
자녀양육지원정책에 대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원스톱 안내	2.6	6.7	10.1	19.5
출산/양육지원/상담 온라인 종합포털서비스 체계화	2.2	5.3	4.8	12.3
양육정보 맞춤형 제공 서비스(면대면/전화/문자 등)	1.8	4.3	6.2	11.5
부모교육 기회 확대	1.6	4.3	6.1	12.0
지원제도와 연계한 부모교육 의무화	1.2	2.2	5.3	8.7
대안적 작은 육아문화 조성	0.3	1.4	2.1	3.8
계	100.0(1,302)	100.0(1,302)	100.0(1,302)	(1,302)



[그림 V-3-2] 자녀양육지원정책 개선 방안(1+2+3순위 합산)

그래서 지금 왜 비용 지원을 받으면서도 부모들이 불만족하느냐 보면 첫째는 내가 기관을 보내느냐 가정양육을 하느냐에 비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받는 것보다는 나올 것 같은데 덜 받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 같고 (학계 교수 F).

차등 지원을 했어야 됐는데, 연금도 똑같이, 000회장님이 20만원 받아서 좋아할 리 없는데...오히려 그 돈을 서민층에 더 주면 되는데, 그 비용을 밑으로 줘야지 왜 위로 주냐는 거거든요(유아 어머니 A).

차등 지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준 것을 뺏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항이 너무 심하고... 이게 또 정치가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정부도 줬던 것을 뺏을 수는 없어요 (학계 교수 D).

그러나 현재의 보편지원을 차등화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비용지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워 비용지원의 한계효용을 체감하게 된다.

사실 저는 정말 세금 낸 게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정책 수혜를 다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임신해서 고운맘카드부터, 첫아이부터 고운맘카드 20만원 지원 될 때부터 고운맘카드로 두 아이 다 산부인과 비용을 상당 부분 지원받았고, 어린이 집을 이용할 때도...2012년 0-2세 무상보육 되는 시기에 딱 맞아서 그때는 정말 야호하고 좋아라 했는데 정말 그 때 딱 한 몇 달 좋고 그 이후는 정말 아까 그 비용 지원이 계속 가도 엄마들이 부족하다 느끼게 되요(학계 교수 B).

실제로 지금 유럽 쪽에서 양육수당 주는 액수가 20만원 선 이잖아요, 한국 돈으로 치면. 안 많은데 우리가 경제 규모 대비 양육수당을 지금 주는 게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자꾸 점점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양육 수당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올린다 해도 다음 해에 가면은 더 조금 더 올렸으면 하고 계속 올라가기를 기대할 거예요(학계 교수 D).

4. 소결

본 장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및 양육지원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수요자로 양육지원정책에 대해 지니는 인식과 만족정도를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양육 주체인 어머니의 양육 역량감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양육과정에 요구되는 돌봄 역량, 지원 역량, 양육 정보 역량, 정책인지 및 활용 역량 등에 대해 어머니들은 그 중요도는 높게 평가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지원 중인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양육역량 강화에 초점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에의 활용도와 접근성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에 영향요인으로 자녀 수와 자녀 연령이 설명력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과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로 역량강화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비용 지원 금액의 상향 조정 요구가 높은 가운데,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현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에의 요구가 높은 특징을 보인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에는 가구 소득이 심리적 위축,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국가 지원에 수반되는 재원의 확보가 쉽지 않음과 양육지원에의 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차등적 지원 방안 방안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양육부담에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체력적인 역량감이 떨어지고 신체적 부담의 정도가 높음은 확인하였다. 영아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육아에 잠시 휴식을 줄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활용이나 함께 양육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양육 스트레스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 님터 등에서의 접근 기회 확대를 모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양육지원 정책 중 인지 및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정책들에 대한 주요 원인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에 대해 알고 있으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공기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육아종합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양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지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이 경우 가정 내 양육지원에의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충분한 기관의 수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관련 정보의 제공과 소통의 통로 확보

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운용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다른 지원 정책에 비해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와 이용률이 매우 높았다. 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 정보제공 뿐 아니라 지원 정책에의 신청까지 연계함을 통해 지원정책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향후 보건복지부의 사업 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양육지원 사업과 연결하고 한 곳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명실(名實)공히 온라인 종합포털서비스로 발전시킨다면 그 지원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여섯째, 국가 수준에서 부모교육에의 접근 방안이 모색되는 시점에서 부모들의 교육 이용 현황과 요구 파악은 향후 교육 방법 구체화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영아와 영아 집단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경험이, 유아 집단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부모교육 제공 시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높은 기관을 선택함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몰라서 참여 못하는 경우가 절반을 상회한다는 결과는 부모교육 기회를 마련하면서 부모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일곱째,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 78%의 응답자가 찬성하였고, 그 이유 중 '자녀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영유아기 부모들 스스로가 역량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희망 방법을 결과를 토대로 요약하면 자녀 출산 이후 영유아기 시기에, 교육장소로 찾아가서 참여하는 방법으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5명 정도의 소집단 교육으로, 1회기는 약 30분 정도로, 교육내용은 자녀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구분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정책에 대한 노출이 적은 영유아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들의 인식도, 이용률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영영아 가구, 자녀가 1명인 가구, 저소득 가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가구, 양육자 자신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에 '제도를 잘 모름',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함'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영영아 가구와 첫째 자녀 양육 가구, 저소득 가구,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가구들이 정책에 대한 노출이 적고, 정책정보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각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최소한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출생신고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푸시 서비스를 통한 정책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책도 저소득 가구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기간이 짧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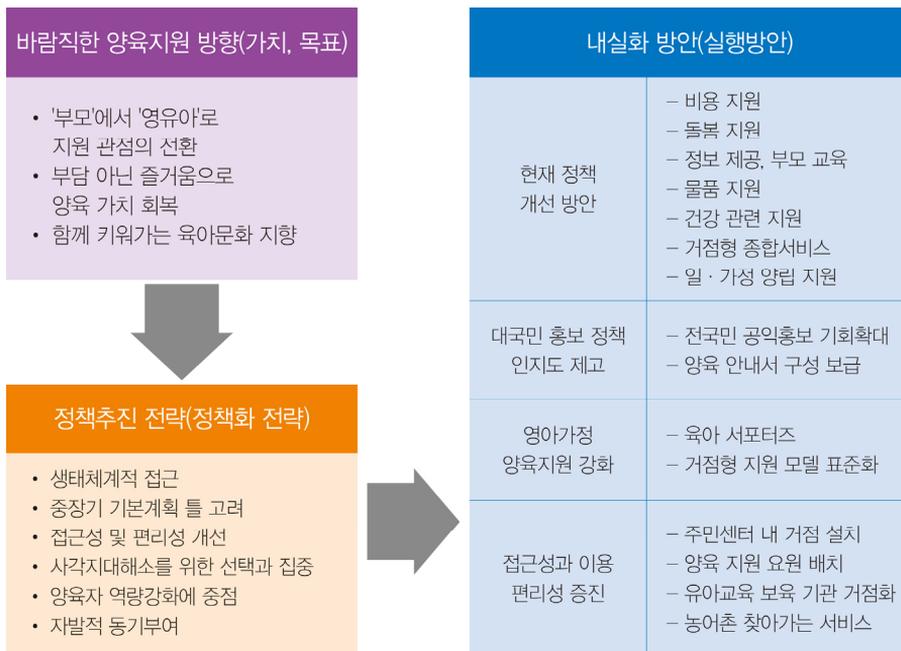
아홉째,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들의 관건은 있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이다.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제도적 기초는 마련되어있으나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이용할 때 직장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문화', 미이용의 사유도 '이용하기에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인다'로 수렴된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의 사용이 가능한 근로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열 번째, 본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찾을 정책이 없을 수준으로 전 세계의 좋은 제도들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이용과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현황을 확인하였다. 이는 더 이상 하나 하나의 미시적 정책 수준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의 큰 틀에서 퍼즐을 맞추듯 정책 간의 형평과 효율, 기능의 효율화를 어떻게 꾀할 것인가에 주목해야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주된 관심은 가정양육수당과 보육·교육비용 지원 등 비용지원 정책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지원정책 중 필요로 하는 것도, 만족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도 모두 비용지원 정책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운용 중인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지만 지원확대와 비용지원 상향 조정으로 수렴되는 정책수요자의 요구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양육지원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적 접근과 입안, 제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 온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즉, 정책수요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정책적 접근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러한 요구가 감소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이에 가정 양육의 내실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양육의 가치, 부모·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 전환과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VI.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내실화 방안

본 연구는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이나 자녀양육에의 요구는 다르지 않다는 기본 전제 하에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의 질, 양육자의 역량 등에 초점을 두고 양육지원 및 이용 현황, 개선 요구들을 수렴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가정 내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바람직한 양육지원이 어떠한 시각에서 비롯되어야 하는지 양육지원의 목표 및 가치를 명료화하는 추동적 입장에서 정책 방향성을 전문가 의견수렴의 결과를 종합하여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그러한 시각에서 양육지원 정책화를 위한 전략을 정리하였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한 내실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현재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골자로 하는 내실화 방안과 접목 가능한 새로운 정책 발굴이라는 두 가지 입장에 근거하여 제언하려 한다.



[그림 VI-1-1] 가정 내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 개념도

1. 바람직한 양육지원에의 방향

‘냥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표어와 그에 따른 다분히 대중 추수적 입장에서 마련되어 온 양육지원 정책에의 한계를 마주하며, 바람직한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성 타진과 가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발적인 요구 대응이 아니라, 가치를 먼저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의 요구가 높다. 공유된 가치, 관점은 추상적이지만 정책의 기저에 작용하여 정책 목표 설정과 방안의 구체화 과정에서 그 특성으로 발현될 것이다. 바람직한 가정양육지원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다음의 몇 가지로 수렴되었다.

가. ‘부모’에서 ‘영유아’로 지원 관점의 전환

양육지원에의 접근이 이제까지 주로 양육을 담당하는 성인, 주로 어머니의 어려움 해소에 초점을 두어 온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양육’이 영유아를 길러내는 과정임을 재인식하며 ‘양육지원’의 관점을 ‘성인, 어머니’가 아닌 ‘영유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지원의 관점이 부모의 편의보다는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한다는 것이다. 양육자의 불편 해소, 부담 완화 보다는 영유아기 이 시기에는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가정의 양육 상황이 마치 퍼즐 조각 맞추어 지듯 다룰 수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영유아가 보내게 되는 시간과 그 상호작용의 질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영유아가 누리게 될 돌봄의 수준’이 정책의 목표 수준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제발 목표 좀 정하자. 목표는 아이고, 아이 시간이 진리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되는데...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가 제일 먼저라는 거죠(학계 교수 C).

우리가 가정 양육 지원을 어떻게 할거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정하자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부모는 뭘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가 조합이 다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그 안에서 적절히 찾아지겠지(학계 교수 C).

가정 양육 지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맞벌이나 아니냐 기관을 이용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아니라. 기관 이용을 한다고 해도 가정양육을 안하는게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아이를 키울 때 가정의 사정은 마치 퍼즐로 블록으로 모양을 만

들 듯이... 어떤 사람은 기관 보육을 하고 조부모의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관 이용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퍼즐들로 하나의 양육이 꾸러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길러지는 것인데...(학계 교수 F)

나.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의 양육 가치 회복

양육은 분명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서 오는 즐거움과 그에 수반되는 돌봄, 지원에이 어려움을 지닌 양가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영유아 부모들은 양육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하지만, 부담스럽고 어렵게 인지하며 스스로의 역량감 또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양육 = 부담, 어려움’으로 연상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양육 = 즐거움, 행복함, 보람’으로 변화되도록 양육 가치의 회복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 가야한다.

육아가 곧 비용이고 비용이 곧 부담이고 그래서 이게 부모들한테 짐이 된다는 인식을 바꿔서 육아 equal 보람이 되고 이게 가정을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 나오면 그거 마다 바로 한명을 키우는데 돈이 2억이 든다 1억이 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학계 교수 E).

부모, 양육 또는 모성(母性)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치 양육을 전담함은 사회에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일로 ‘집에서 애나 키우냐’는 식으로 가치 절하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우리가 아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엄마들의 엄마들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너는 나처럼 집에서 목지 말고 나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해라. 이 메시지를 완전히 질리도록 받고 자란 세대가 사실은 지금 어머니 세대인 것 같아요. (학계 교수 H)

뭐랄까 엄마가 애보고 있으면 집에서 노는 엄마, 아버지가 따라오면 저 아버지는 짤렸나 봐, 실업자인가 봐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정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양육이라는 그런 암묵적인...(학계 교수 H)

양육 가치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가야 한다. ‘양육’은 힘들지만 가치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다시하기 어려운 경험임에 분명하다. ‘양육’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자녀를 기르는 다시하기 힘든 행복을 사회로 내놓기 보다는 부모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부모됨이라던지 부모의 역할 그런 게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에 대해서 부모교육이라던지 부모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너무 기관에서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결국은 기관이나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마가 보조자로서 이것을 넘어서 부모권 이런 거에 대해서...(학계 교수 E).

육아가 부모의 권리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0-2세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걸지 못하는 아이가 걸으면 기적 아닙니까? 말 못하는 아이가 말하고, 부모가 그 기적의 순간에 있어야지...사실 예쁜 짓을 하는 걸 봐야 그 애가 미운 짓을 하는 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학계 교수 F).

다. ‘함께’ 키워가는 양육 문화 지향

양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그 과정을 국가와 사회는 더불어 협력하고 지원해 준다. “국가가 키워주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 아닌 부모역할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를 사회 안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때이다. 양육에 지친, 독박육아로 표현될 만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영유아 부모에게 든든한 뒷심이 되어줄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양육함’이 개인 수준이나 개별가정에서 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업이며, 그러기에 부모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과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지원하는 함께 키우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와 그 가정, 가정이 속한 확대가족과 지역사회, 이웃, 양육지원 제도와 그 법적 기초,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의 변화까지 수반되는 총체적인 문화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엄마들은 자꾸 돈을 요구한다, 아이를 기르는데 돈이 많이 든다, 아이를 못 기르겠어서 보육시설을 늘려야한다 이런 패러다임 접근 자체를 조정할 때가 됐어요. 가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속에 숨어있었던 양육 어려움의 근저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게 문화적인 것이든 사회 분위기든(학계 교수 H).

왜 아버지는 양육을 지원해야 되고 엄마는 양육을 담당해야 되냐. 이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담당해야 되는데 가사도 남편은 도와주는 거고 여자는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 변화가 사실 많이 되긴 했지만 더 되어야 하는 거야(학계 교수 D).

프랑스에서 애를 가지면 국가가 처음에 편지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보면 ‘당신의 임신을 축하한다.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함께 지원해주겠다.’는 말이

있는 거야. 함께 키운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국가가 뒤에서 지원을 한다 함께 키운다 하는데...(학계 교수 E).

이상에서 바람직한 양육지원의 추동적 방향성으로 제시한 ‘영유아’ 중심의 지원 관점의 변화, ‘양육 즐거움’으로의 양육 가치 회복, 더불어 키워가는 양육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2. 정책추진 전략

양육지원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견지하면서 그 정책화 전략으로의 정책 추진 기본방향을 생태체계적 접근, 정부의 중장기계획의 틀 고려, 접근성과 편리성 증진, 선택과 집중, 자발적 동기부여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가. 생태체계적 접근

가정 양육지원은 영유아와 그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 내 환경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생태체계적 맥락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양육지원은 가정, 지역사회, 국가까지 ‘더불어 함께 키워간다’는 전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양육지원의 틀이 마련되어야한다.

가정 양육지원의 내실화 도모는 미시체계 수준에서는 먼저 단위 가정 내 양육환경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독박육아로 표현되는 가족 내에서 어머니 전담 양육이 아닌 가족이 함께하는 양육을 지향한다. 가정 내 양육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아버지, 조부모 등 가족의 양육 참여를 유도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한다.

중간체계 수준에서는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도적 개입을 동기화해야한다. 지역사회,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는 개별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주체로 양육 친화적 목표 설정과 구체화된 계획에 근거하여 단기 접근보다는 지속성 있는 추진 실현을 도모한다.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역량강화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 중심 지역사회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

외체계 수준에서는 다양한 전달체계 간의 연계 활성화, 효율화를 도모한다.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온라인 거점(아이사랑포털)과 오프라인 거점(육아종합지

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체계 수준의 접근은 양육 친화적 가치 확산, 사회문화의 조성을 뜻한다. 무엇보다 추동적 정책 방향으로 고려되는 영유아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 생명 존중의 문화 형성, 가족 친화 또는 양육 친화적 사회문화 형성, 건강한 양육가치 재정립 등 가치의 회복은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수반되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 '더불어 함께 키워간다'는 전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양육지원에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안내와 홍보 등이 요구된다.

나. 정부 중장기 기본 계획 틀 고려

정부도 양육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중장기 계획안에 그 내용을 담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다면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정 내 양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방안들이 정부가 마련한 향후 추진 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마련된다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제시한 중장기 기본 계획의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 어머니 대상 설문조사 문항과 전문가 조사 질의 항목으로 반영하여 그 구체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개선

양육지원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용률과 만족도가 낮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증진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그 방안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체화된다. 첫째, 기존 정책 중 인지도 또는 만족도가 낮은 정책에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지속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의 안내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와 수요자인 영유아 가정을 연계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이용해야하는 지 모르는 부모에게 쉽게,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여 주는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요자 맞춤형 접근 등으로 영유아의 연령 특성,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양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방안의 하나로 양육지원이 강조되면서 관련 제도도 많고 그에 대한 예산의 투입도 급증되어 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용지원에의 효용체감과 지속적 증가에의 한계가 있음에도 의견이 수렴되었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편 지원의 틀 안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의 소외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적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더라도 늘 지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역량도 낮은 취약한 부분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지원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지원에 대한 정보, 양육역량, 양육부담, 부모교육 참여 등 많은 측면에서 분명하게 취약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집단이 보였다. 자녀연령으로는 12개월 이전의 영영아 자녀를 둔 집단, 소득수준으로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는 농어촌 읍면지역으로 요약된다. 이 부분이 바로 가정 내 양육지원 내실화를 위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본 연구가 가정 양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지향하며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대상은 분명 부모 역량이 낮은 집단이며, 이들에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야한다. 보편적 제도 마련으로 양육지원의 토대를 다지고 기본을 마련하였다면 이들을 위한 양육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특화된 지원은 실제적인 양육 취약성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마. 양육자 역량 강화에 중점

비용 지원에의 한계는 분명하다. 양육지원의 방향이 비용보다는 양육의 즐거움 회복과 양육의 주체인 부모의 역량강화에 모아져야한다.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며, 자녀 양육자로서의 신념, 가치관 공유, 이를 위해 자녀 발달 지원 주체로의 부모 정체성, 부모 권리 회복에 노력해야한다. 부모가 교육 받을 대상인지, 교육을 통해 부모 됨의 자세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는 않지만 양육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본적 이해를 넓히는 작업은 필요하다. 비단 역량강화는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돌봄역량, 지원역량, 정보습득 및 활용에 대한 역량까지를 포괄하며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의 지원까지를 뜻한다. 부모 역량 강화

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은 감소시키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모델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 역량강화는 자녀의 출생과 성장에 따른 가족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한다. 즉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도 성장하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바.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비용 지원의 확대를 차치하고라도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혁이나 신규 제도의 도입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접근을 뛰어넘어 양육의 중요성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유휴자원의 활용과 민간 주도적 접근을 유도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닌 현재 공동육아에서 부분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교단체 등 민간 주도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동기화를 위한 불씨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접성에 문제가 있다면 동네 사무소,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에 교실이 남아돌잖아요. 애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교실 이런 저런 거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민간에서 시작이 되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관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동육아처럼 약간의 불씨만 주고, 뜻이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만들어가려는 운동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학계 교수 E).

3. 내실화 방안

가정 내 양육지원의 내실화 방안을 기존 정책의 개선과 신규 제도의 접목을 통해 제언한다. 먼저 본 연구의 V장에서 살펴본 지원정책 이용 현황과 개선요구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비용지원, 돌봄 지원,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물품지원, 건강 관련 지원, 거점형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구분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보이는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가정 지원강화 방안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용 중인 사업과 국내외 우수지원 정책 사례를 토대로 제언하였다. 또한 정책 체감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점점 강화방안과 홍보 방안을 내실화 방안으로 제시한다.

가. 현재 정책 개선 방안

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정책의 확대나 수혜 대상의 양적 확대에는 한계를 지닌다. 우선순위 부여와 사업주체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킹'의 활성화가 내실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1) 비용 지원정책

비용 지원정책은 크게 가정양육수당과 기관이용 비용 지원(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국외 육아지원 동향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양육에서 부모의 선택권이 강조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이 강화되는 추세이다(유해미, 김아름, 김진미, 2015:18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에도 적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안이 담겨있기도 하다. 본 조사결과 부모들의 양육수당에 대한 의견에서는 증액 요구가 60%를 상회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화 요구도 23%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 양육비용에 비해 부족하므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린이집 비용지원과 동일한 수준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양육수당 지급하는 국외 사례를 살펴보다도 실제 양육비용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더불어 비용 지원이 한계 효용에 대한 체감을 고려할 때 만족한 수준까지라는 경계를 찾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와 수요자 및 정책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의 의견들로 수렴된다.

소득 수준 고려한 차별 방안 모색

세부 정책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정책의 변화가 너무 잦지 않도록 정책 기초를 유지함은 중요하다. 보편적 양육지원 정책의 기초는 유지하면서 저소득층과 취약, 위기 가구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실물이나 바우처 제공 등의 보완책이 고려될 수 있다.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비용지원의 증액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영유아들이 열악한 양육 환경에 놓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발달에 적합한 중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택적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 자부담

보편적 지원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동일 금액의 지원보다는

제한적인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둔 집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정책 대상 집단별 차등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다룬 '영유아 중심' 관점에서 영유아에게 가장 유익한 양육이 되도록 영아기 양육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은 특수한 욕구가 있는 정책대상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기관이용 비용 지원에서도 '맞춤형 보육'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기본 시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보장하고 그 외 선택적 시간에 대한 부모 부담 등을 담아 종합적 재설계를 통해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

비용 지원과 부모교육 연계

비용지원 정책 수혜 시 그에 상응하는 부모 책무에 대한 환기 기회를 연계할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과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시간의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부모가 비용지원 수혜자로서의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양육 주체로서의 부모 의식을 고취하고, 정책이용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며, 부모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돌봄 지원 정책

돌봄 지원 정책에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긴급보육수요에 대한 대책으로서 맞춤형 보육의 안착,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일시보육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 서비스 충분성 및 편의성의 부족으로 필요도와 개선필요가 동시에 높은 정책들로 볼 수 있다.

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및 충분성 제고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의 질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히 영아의 경우, 발달적으로 낮은 곳에서 잠깐 낮은 타인에 의해 돌봄을 받는 시간제보육보다는 영아의 거주지로 돌보미가 찾아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한 지원이 발달적으로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질 개선의 최우선 과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이용비용의 현실화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면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개선 요구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바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과 이용비용의 현실화였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인 돌보미의 질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나, 시간당 6,500원이라는 금액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질을 논의하는 것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지원비용을 높일 수 없다면, 자기부담금을 일정액 올려서라도 현실적인 이용비용 책정이 필요하다.

아이돌보미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통한 질 개선

영/유아, 도심형/지역형 등으로 구분하여 아이돌보미 제공지역의 여건과 대상아동의 연령에 따른 전문성을 고려한 전문화와 다양화를 기한다. 아이돌봄에서 영아를 위한 전문성은 유아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이전에 영아기에 가정에서 부모 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주효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아전담형 아이돌보미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도시 지역은 일정자격을 갖춘 전공자, 유사경험자들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방의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아이돌보미 자체의 인력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 여건에 따라 도심에서는 전문화된 다양한 아이돌보미를 지속 양성해감으로써 지역의 욕구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에서는 현재의 아이돌보미 양성처럼 다양화와 전문화보다는 최소한의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는 정도의 양성과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인력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

현재 서울시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⁶⁴⁾와 서울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은빛아이지킴이⁶⁵⁾ 서비스처럼 현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시돌봄

64) 서울시에서 긴급보육서비스의 하나로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60시간이상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신체건강하고 육아경험이 있는 60세이상 어르신인 돌봄서비스임. 성동, 광진, 성북, 강북, 서대문, 영등포 지역, 7시~20시 이용, 6개월~9세(초2)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가능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7천원~8천원임(서비스내용 따라 차등)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보육·가족·외국인주민. 아이돌봄기동대 설명 (검색일: 2016. 10. 13)

<http://woman.seoul.go.kr/files/2016/09/57cf7a91c0ed87.89204380.jpg>

65) 생후 20개월 ~ 만 11세(초6)까지의 자녀를 둔 동작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은빛 나눔터에서 일시돌봄 혹은 등하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서비스 이용은 10시 ~ 20시이며, 이용료는 기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노인인력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나) 시간제보육

시간제 보육은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충분성과 이용 편리성이 낮아 이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도 홍보 및 제공처 안내

시간제 보육에 대한 영유아 부모대상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부모들의 양육의 어려움은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양육의 어려움으로 파악되나, 그러한 경우 시간제보육의 이용은 겨우 0.5%로 나타나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제보육에 대한 홍보와 지역 어느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제고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제고한다. 개선요구의 첫 번째가 제공기관의 확충으로 나타난 것처럼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2015년도 이용현황을 보면 전국 75개소에서 제공되고 있고, 이용인원도 10,085명에 그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시간제 보육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일시보육 수요에 맞는 충분한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제 보육 신청절차가 이용자에 편리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미리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약이 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렵고, 이용을 위한 신청도 다소 복잡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3)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가) 정보 제공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온라인 육아정보 거점화 및 정책신청 일원화

'아이사랑' 포털은 보육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부

본 2시간당 12,200원(국가보조금 6,200원, 자부담 6,000원)으로 아동 수와 추가시간에 따라 차등됨. (출처: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2016). 은빛아이지킴이 운영규정.)

모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기관 미이용 부모에게는 인지도와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 특히 정책신청서비스, 모바일 어플 제공, 임신육아상담 기능이 제공됨에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기능이 '정책신청 서비스'로 나타나 '아이사랑'포털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정책신청서비스의 종합포털화, 제공정보의 내실화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아이사랑 포털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검색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자녀의 연령과 거주지역 맞춤형 육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령과 지역만 입력하면 유관 정보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육아정보의 거점화 및 맞춤형 제공 통로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신청서비스가 주관부처에 따라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기 정책은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서 모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능을 통합하여 제공한다면 이용자의 만족도와 이용편의성을 매우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종합포털로서의 등재내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관성이 있는 파생포털에 대한 유기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온라인 육아정보 플랫폼 구축

영유아 부모가 지역마다 카페를 선호하는 이유는 생생한 정보의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육아정보에 있어 마치 집단지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모교육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모들의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것도 많으므로 웹상의 올바른 정보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가나 민간이 운영하는 웹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류하여 이용하기 쉽도록 하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나) 부모교육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가족교육을 활성화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 부모학교'라는 명칭으로 진수한 국가수준의 부모교육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임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뿐 아니라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우 고무적이다. 본

조사에서도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78%에 달하여 역량강화 기회를 부모들 스스로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의무화하자는데 동의가 많았다.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와 부모, 정책제공 실무자의 의견조사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한다.

국가수준의 부모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기초 마련

지자체 수준에서 부모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은 몇 개 지역에서만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정책영역으로서 부모교육을 실행하고 지원하며, 활성화 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여성가족부(2016.3.29.)의 '부모교육 활성화방안'이 배포되었으나 법제화를 통한 정책 실행 토대가 마련되어야한다.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의 현장안착을 위한 실행방안 구체화

가정의 달 5월 중 부모교육 주관을 정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종합서비스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대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 별로 부모교육 실행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입안자, 정책실행자, 현장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마련한다. 부모가 부모교육 제공처 및 내용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부모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공신력과 권한을 갖추도록 한다. 부모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이수자를 전문 강사로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하여 강사의 수급과 질을 관리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생애주기별(자녀 연령별) 부모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부모교육 활성화의 불씨로서 공공기관 및 공무원 직장교육, 군 훈련소 및 예비군 훈련 등에 부모교육을 의무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취약가정이 부모교육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례관리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 방안을 마련한다.

부모교육 의무화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과 연계

출생 신고 시 또는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반영하

는 것이다. 부모를 위한 소정의 온라인 또는 직접교육 이수하도록 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1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생후 36개월의 영아시기에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모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행복카드의 결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영유아 부모교육 이후 양육에 도움이 되는 양육지원 물품을 제공한다. 핀란드의 '엄마상자'처럼 양육에 도움이 되는 물건을 담은 상자를 부모교육 이후 제공하는 것으로, 상자 안에는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격려문, 물품, 간단한 놀잇감 등과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지원 정책을 연령별로 상황별로 안내하는 안내서를 담아 제공하여 부모의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속적 교육모형 개발

부모교육은 1회성이 아니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시기 생명존중, 부모 됨에 대한 교육을 사회교과계열에 교과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함을 고려할 때, 일부 대학교(가천대학교)에서 이미 시행 중이지만 예비부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녀의 성장에 따른 부모의 역할도 함께 성장함을 고려하여 자녀의 연령대별 부모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첫 자녀 임신 시 예비부모교육에 주력한다. 첫 자녀를 낳을 예비부모가 임신과정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책자, 인터넷 등 다양한 접촉 경로 마련한다. 첫 자녀를 낳을 시기에 경험하는 국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상이 강하므로 이 때 접촉한 경로로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버지 교육과 조부모 교육 기회 확대

더불어 함께하는 양육의 실현을 위해 아버지와 조부모 교육의 시행이 확대되어야 한다. 자녀양육이 아내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실제 양육 기술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의 역량강화에 필수적이다. 최근 다양하게 시도되는 아버지들을 위한 교육, 조부모를 위한 교육 등이 체계화 되어야 하고, 현재 다분히 어머니 위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이 아버지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특화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경우 예비군 훈련처럼 부모교육 참여 시 근무처에서 공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모교육 참여 증진을 위한 묘안 찾기

부모교육에의 참여확대를 위한 다면적 방안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은 늘 관심 있는 부모들은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역량강화가 더 필요한 부모들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접근성 증진을 위해 부모교육 제공 시 직장, 군부대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교육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영유아가 부모대상 교육 시에는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어린이집과 유아교육 기관인 유치원을 영유아 대상 부모교육의 거점화하는 방안도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다.

4) 실물지원 정책

현재 직접 물품 지원을 하는 것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유일하다. 그러나 그 대상이 저소득 가구로 한정되어 있다.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도출되는 개선안은 우선 대상가구 선정의 기준이 건강보험비용이라는 점이 불합리하므로 대출금 상환부분처럼 실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함과 제공 물품의 금액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건강 관련 지원정책

검진병원 모니터링

건강관련 지원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안으로 무엇보다 건강검진내용 내실화에의 요구가 높음을 고려하여 검진병원에 대한 이용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병원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보다 섬세한 검진을 도모해야 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시 양육지원 정책 안내

93%정도의 영유아가 이용하는 영유아건강검진 시 양육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임신·출산과 관련하여서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카더라' 정보가 많다. 또한 부모들은 처음 해보는 일인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여 이것저것 불필요한 부분에 힘을 쓰기도 한다.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검사 필수항목·선택항목 등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유아 부모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6) 거점형 종합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의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은 제도는 선진국과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나 문제는 수요자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서비스 내용이나 기능의 중복을 논하기에 앞서 영유아 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저조함에 주목해야 한다.

종합서비스센터의 공통사업내용 개발

설치된 센터의 수가 현격히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책수요자 요구에 준하는 표준사업 내용을 설정하고 다양한 센터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대상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의 재편 및 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수요자에 비해 그 제공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중복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공동 사업화를 통한 제공 기회 확대를 모색함이 적절한 접근으로 사료된다. 즉,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 공통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그 내용, 프로그램 및 추진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공동사업모형을 개발하고 두 기관 모두에서 함께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농어촌지역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정책실무자 면담을 통해 농촌지역은 영유아를 위한 이용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육아품앗이가 필요하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육아품앗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내에서 자율적인 육아품앗이가 활성화되고 모임형성 및 장소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일·가정양립지원서비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선도적 역할 부여

‘출산 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⁶⁶⁾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들은 다양하게 준비되어있다 문제는

66) 경향신문 김형주. ‘저출산 대책, 최종 목표와 연결 불분명 ‘출산 붐’ 기대 어렵다’ 2016.09.04.

실제 사용에의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이 내실화 방안은 이미 있는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육아휴직 등 지원제도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일터의 분위기, 복직 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지만 그 도입을 강제하기에도 무리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산하자는 것이다. 사회분위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며, 제도의 활용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업과 국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일·가정양립 제도 사용의무화의 부분적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후 분위기 조성의 동의를 통해 전 사회로의 확대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나.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 인지도 제고

정부는 양육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한 추진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정책수요자인 영유아기 부모들은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을 알지 못하고 그러기에 이용해 본 비율도 극히 낮다는 것이다. 이는 홍보가 양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관건(關鍵)임을 의미한다.

1) 전 국민 대상 공익 홍보 기회 확대

연구에서 제시하고 추구하는 정책 추동성의 핵심은 전 국민,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달려 있다. 영유아가 중심이 되는 지원, 양육의 행복 및 가치의 회복, 함께 더불어 키워가는 사회,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또한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관련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양육 지원에 제공되어도 접근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육 역량이 낮은 집단, 취약한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도 고려될 수 있다. 공익홍보의 내용으로는 영유아기의 상호작용과 애착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아기 교육의 효과에 대한 공유, 사교육이 아닌 놀이의 중요성,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 등 쉽게 간과되고 있는 영유아기 발달과 인식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담겨야한다.

TV 등 쉽게 접하는 매체를 이용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여론화하려면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지원정책의 홍보를 위해서도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나 부모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무엇보다 공익 홍보 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이고 감동적인 터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초원의 집을 어려서 보면서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아 가정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가정의 이미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려서 주는 일종의 낙인 효과죠. 아 가정은 저렇게 하는 거고 아빠 엄마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잔잔한 행복감을 주는 모델을 보여주는...(학계 교수 E).

최근 양육관련 프로그램, 아버지 양육참여 프로그램 등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바람직한 양육 모델, 지원 정책의 이용 사례 등을 자연스럽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한 지역방송 등 채널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양육 지원사업의 내용과 현장을 소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TV 프로그램의 제작진들과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지닌 매체 운영진을 대상으로 양육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은 학계 전문가들이 담당하여야한다. 또한 제작과정에 자문으로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공공건물의 대형 전광판 및 버스나 지하철 광고

공공건물에의 전광판이나 외벽, 버스와 지하철의 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양육 친화적 문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함께 키워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금연의 홍보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양육이 가치 있고 행복하며, 보람된 일이라는 것과 그러한 부모의 양육을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있음에 대해 공공건물의 대형 전광판 및 버스나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반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강조하자는 것이다. 그 실행 시 중요한 점은 공익광고가 지닐 수 있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미지를 벗어나 일반광고와 같은 참신하고 감동이 있게 구성하는 기획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대중 인지도가 높은 검색 포털 활용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양육지원을 위해 강조하며 확장해 온 다양한 거점형 센터나 지원 사업 등의 대한 영유아기 어머니들의 인지도와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사업에 대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임신육아포털아이사랑 등에서도 양육지원 사업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러한 통로에도 기본적인 관심과 지식이 있어야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 역량이 낮은 집단, 관심이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그 이용마저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대중들의 이용이 보편적인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과 같이 일반적 인지도가 높은 통로를 이용하여 양육지원정책과 사업을 안내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육아 인터넷 커뮤니티(지역맘 카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지역마다 육아정보에 대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지역육아 인터넷 커뮤니티(지역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육아 인터넷 커뮤니티(지역맘 카페)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 먼저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 부모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를 통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정보를 나누고, 중고물품을 나누고, 어려움과 경험을 나눈다. 그러나 운영자가 이 카페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선별적 접근을 요한다. 또한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 검색하기 쉬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영유아 부모의 이용이 빈번하고 인기가 있는 지역맘 카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양육 관련 정보와 지원 정책의 내용을 수시로 안내하는 것은 정책에의 접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 양육안내서의 구성과 보급

국가 수준의 양육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구성 발간

정부에서 보육사업안내를 매년 발간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를 안내하듯이 부모를 위한 국가 수준의 양육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구성 발간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쓴 발달에 맞는 양육지침서, 연령별 놀이 활동 지침서, 정책 안내서를 구성하여 제공하자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최근 영유아와 그 부모 대상

정책의 변화가 급격하고, 또한 지자체의 특화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책수요자에게 정책의 변화와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함은 정책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의 공통부분은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자체로 보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특화사업이나 양육관련 정보를 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보완하는 방법⁶⁷⁾을 고려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6년 EBS와 협동으로 육아콘서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를 추진하면서 연령별, 정책부분별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담은 ‘정부 육아지원 정책안내’를 발간하였다. 이에 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음을 고려할 때 국가 수준의 양육 안내서 발간은 적극적인 홍보 방안인 동시에 정책의 접근성 증진에 효과적 방법으로 사료된다.

효과적 보급방안 및 활용방안

지자체 특화 사업에 대한 안내 추가, 예산 등의 문제로 발간 보급이 어려우면 PDF 파일로 공유 가능하도록 아이사랑포털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지자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의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양육안내서는 부모교육 시 보조적 교재로 활용할 수 있고, 연령별 놀이 활동 지침서에 있는 일부 놀이들을 이후 본 보고서에서 제의하는 ‘영유아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양육전문가의 지도로 부모와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경험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다. 영아가정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본 연구 결과 정보, 자신감 부족 등으로 상대적 취약 집단으로 나타난 영아 부모 대상 역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였다.

1) 거점형 영아 양육지원 센터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가) 사업목적

영아기는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 영아와 양육자의

67)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사업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놀이터, 도서관, 공원 등 영유아 부모가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구성 제공한다.

상호작용은 그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큰 시기이다. 자신감이 부족한 영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발달전문가가 자연스런 놀이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부모의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의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로 인한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덜고 부모 간 정보의 교류도 가능하도록 함이다.

나) 사업 내용

이는 이스라엘 팀-태프 센터와 유사한 영유아 부모양육 직접 지원센터를 의미한다. 핵가족화로 인해 마땅히 육아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영아기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지내는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가 배치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아와 그 부모를 위한 공간 구성 시 중요한 것은 공간의 크기보다는 영아와 부모에게 적합하게 안전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공간이 마련된 곳들도 있으나 차이점은 발달전문가가 상시 근무하여 영아 부모의 상호작용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 영유아 부모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영아 양육지원 센터의 설치공간은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공동주택의 특정 공간(아파트 공용 공간) 등을 이용한다.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정도로 하고 예약을 받아 운용한다. 필요하다면 부모의 자부담으로 하거나 지자체의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추진 방법

영아 양육지원 센터에서 제공할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학계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간 모형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개발한다. 프로그램의 초점은 영아 자녀와 편안하게 지내면서 발달을 지원할 수 있고 양육자 스스로도 부담을 완화하는 부모의 역량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사업성 과제의 형태로 영아 양육지원 센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 표준안을 개발한다. 또한 정기적인 학술대회, 박람회 등 일반 부모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홍보사업을 개최한다. 특히 대상 부모는 영아를 키우고 떠나가며 새로운 부모들이 들어오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자체 중 지원을 받아 '영아 양육지원 센터'를 시범적으로 개소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 운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대 안을 마련한다.

지자체는 영아 양육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을 구성한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설치공간은 주민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유희 교실 또는 공동주택의 특정 공간(아파트 공용 공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안적 접근으로 초기 영아 양육지원 센터의 설치에 지자체에서 담당하지만 그 운용을 지역사회 내 비영리 단체나 종교단체, 아파트 주민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육아서포터즈 사업: 가천대 세살마을 사업 확산 방안

가) 사업목적

영영아 및 영아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기본적인 부모교육과 안내, 발달 상황에 맞는 안내와 놀이지도 등을 육아서포터즈가 방문 제공하여 양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양육역량 및 자신감 회복뿐 아니라, 단회성이 아닌 지속적 방문으로 양육자와 육아서포터즈와의 라포 형성을 통해 양육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지원까지도 가능하다. 영유아와 그 부모, 그 속한 지역사회, 학계 전문가, 후원자로서의 기업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함께 키워가는 사회를 구축하는 구체적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육아경험을 지닌 유아교육과 아동학 전공자로 선발하는 육아서포터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나) 사업 내용

이는 기본적으로 가천대학교의 세살마을 사업 모형을 토대로 한다.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자신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 임신부 예비 부모교육부터 자녀가 두 돌에 이르기까지 발달과 상담 등 양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육아서포터즈’가 방문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출산 전 예비부모교육, 3개월 경,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총 6회의 연속성을 지닌 지원을 기획한다. 지원을 받는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외출이 어려운 영아 시기는 육아서포터즈가 가정을 방문의 형태로, 예비부모교육과 18개월, 24개월에는 함께 모여 하는 집체교육의 형태로도 운용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은 양육에의 정보제공, 놀이방법, 육아기술에 대한 교육제공 및 실제 양육 상황에서의 코칭, 양육자 건강상태 스트레스 지수 확인 등 각 시기 영아의 발달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안내하고 발달에 적합한 놀이 사례와 양육 상담을 제공한다. 본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 학

계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현재 가천대학교 세살마을은 무료로 제공되나 사업이 전국으로 확장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사업운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부모의 책임감도 높아질 수 있다.

다) 추진 방법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세살마을 사업을 기획한다. 후원체(기업), 지원체(세살마을 연구진), 운영체(지자체)로의 역할을 분담하며, 그 세 주체의 구체적 역할을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체인 지자체는 사업을 후원할 수 있는 기업을 독려하여 운영 자금을 확보한다. 지자체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실제적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의 안내와 홍보, 또 교육대상자의 모집을 담당한다. 또한 예비부모교육이나 18개월, 24개월 교육 시 교육장소를 제공한다. 6회기의 부모교육 이후 함께 교육받은 부모 간에 자발적 소모임이 형성되도록 동기화 한다.

지원체인 전문가로서의 학계 역할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육아서포터즈의 교육이다. 기본적으로 가천대학교의 세살마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가천대의 현재 사업모델을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총 6회 교육의 내용을 구성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에 육아서포터즈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역량 있는 육아서포터즈의 선발과 교육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영아기 양육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기업의 참여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 기업의 사회 공헌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후원하는 기업의 세금 우대나 지역 내 은행과 연계한 저금리 대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라. 정책에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증진 방안

정책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점점 강화 방안을 고려한다. 주민센터에 '미래인적 자원 육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 공간 및 '양육지원요원' 배치를 제안한다. 또한 전국에 촘촘하게 확산되어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정 양육지원 거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주민센터 내 양육지원 거점 설치 방안

가) 사업목적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와 그 부모가 와서 자연스럽게 육아경험을 공유하고, 육아품앗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수가 충분하지 못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접근성이 뛰어난 주민센터에 양육지원 거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핵가족화와 이웃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이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양육을 전담하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이다.

나) 사업내용

주민센터 양육지원 거점을 통해 기본적으로 영유아와 그 부모가 이용 가능한 놀이 공간 제공을 통해 놀이그룹(play group)의 운영이나 부모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부모모임(자조모임 및 품앗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동기를 부여한다. 육아용품(유축기, 카시트, 유모차, 도서, 놀이감 또는 기타 양육 용품)의 대여 및 연계 서비스를 운용할 수도 있다.

다) 추진방법

시설규모가 큰 것보다 거주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근접성을 지닌,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센터는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그곳에 영유아와 그 부모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상설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면 시간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할 수도 있다.

2) '양육지원요원' 주민센터 배치 방안

가) 사업목적

영유아 자녀를 둔 정책의 수요자에게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양육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이용 신청까지 제공하기 위함이다.

나) 사업내용

접근성이 뛰어난 주민센터에 상근하는 '양육지원요원'은 임신, 출산, 양육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신청까지 지원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 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안내 홍보하며, 지자체 내의 영유아 놀이 공간, 병의원, 예방접종 장소 등 다양한 양육지원 정보도 제공하고, 간단한 양육 상담도 실시한다. 주민센터 내 양육지원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양육지원요원'이 이를 관리 및 운용한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호주의 복지 종합 전달체인 '센터링크'의 개념을 접목한 것으로 출생 신고 시부터 그 역할을 담당한다.

다) 추진방법

양육지원 정책 및 정보에의 안내자인 가칭 '양육지원요원'의 명칭은 공모를 통해 정한다. '양육지원요원'의 자격은 양육 경험이 있고, 보육교사 또는 유치원 교사 자격을 지닌 자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전문요원의 선발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영유아발달과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양육지원요원'의 선발과 교육, 배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력 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형태로 운용한다.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상세 운영방안 및 매뉴얼, 근무 인력의 자격 및 교육내용 등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정 양육지원의 거점으로 활용

독일의 패밀리센터, 우리나라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전국에 어린이집이 약 4만 2천여 개, 유치원은 8천여 개가 있는 상황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양육에의 전문성을 지닌 원장과 교사가 있어 영유아 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에의 안내 및 상담,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이 가능하다. 국가가 마련하고자하는 '대한민국 부모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여 전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제공함이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양육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별 안내서와 인근 지역사회 내에 이용 가능한 제도, 장소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배부하여 부모 안내 시 활

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양성 또는 재교육 시 이를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고 안내하도록 한다.

4) 농어촌 지역에는 찾아가는 지원 사업 활성화

양육지원 사업에 찾아와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외출이 어려운 영아, 환아, 야간 및 긴급 일시보육이 필요한 가정, 지역사회 거점 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영유아와 가정으로는 찾아가는 양육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영유아가정을 찾아가서 돌봄 방법을 안내하고 양육 상담과 기본적인 건강 및 영양교육까지 제공하고 있는 세종자치시의 방문간호사 제도나 독일의 헤베마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용이 불규칙하고 예측이 어렵거나, 전반적인 이용률이 낮은 경우 필요 충족을 위해 기관의 신규 설치나 확대는 소요 비용이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도 농어촌 지역은 양육지원을 위한 거점의 설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지원정책의 인지, 이용 등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등과 같이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거점이 충분한 지역보다는 농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양육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민정(2015). 기관 미이용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를 위한 지역중심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幼児教育研究*, 35(5), 281 - 300.
- 고선주(2012). 저출산 대응: 가족내 자녀양육지원강화. *한국심리학회지*, 18(1), 53 - 77.
- 관계부처 합동(2016).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6~2020).
- 관계부처 합동(2016. 3. 29).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연진·김수영(2015).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에 대한 연구: 이분법적 젠더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6(4), 285 - 319.
- 김영미·류연규(2014).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양육 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9(-), 215 - 236.
- 김은정(2014).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50 - 61.
- 김은정·이진숙·최인선(2014).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6-3.
- 김은지(2009).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의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40(4), 73-100.
-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2016). 은빛아이지킴이 운영규정.
- 문미경·김복태·김혜영(2015). 지방자치단체 지방직공무원 육아휴직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1(-), 1 - 139.
- 민정원·권미경·윤지연(2014). 영유아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실태 및 활용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11.
- 보건복지부(2015a).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b). 2014 보육통계. (2014년말 기준)
- 보건복지부(2016a).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b). 2015 보육통계. (2015년말 기준)
- 보건복지부(2016c).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d).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16e). 2016년 건강검진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12.22.)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4.25.).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6.30.).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말씀.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5년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2016). 시간제보육 홍보 리플렛.
-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7-02.
- 서수경(2015).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 독일의 가족센터: 새로운 육아지원 모델인 독일의 Family Center 프로젝트. 젠더 브리프 2015년 12월호, pp.1-7.
- 서수경(2011). 독일의 Family Center 사례를 통해 본 서울시 육아지원 시스템 방안 모색. 2011 서울시 여성·가족의 현황과 이슈, 이슈분석 제10호, 185-203.
- 서초구(2016). 서초형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6년 6월 14일). '서초구, 보육愛 빠지다'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6).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16-001.
- 서울특별시·중구(2015). 중구는 우리아이 놀이터: 육아지원안내.
- 서울특별시·중랑구(2016). 중랑구는 우리아이 놀이터: 육아지원안내.
- 서울특별시·금천구(2013). 금천구는 우리아이 놀이터: 육아지원안내.
- 세살마을 부모교육 리플릿.
- 신윤정·고제이·이지혜·윤자영(2013). 자녀양육지원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31-3.

- 신윤정·박세경·최성은·김필숙·최은영(2007). 양육지원 정책이 향후 발전 방향-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19-2.
- 안희란(2015).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정책, 42(3), 51 - 75.
- 양민석·안현미·서영주·임양미·윤상미(2012). 서울시 육아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 2012-정책개발-02.
- 양영임(2016. 08. 24). 전문가 심층면담 내용(독일 Der Bunter Kreis 심리치료사, 독일 쾰른대 심리학 박사, 독일 23년 체류).
-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16a).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2016b).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가족정책과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2016. 1. 20). 2016년 업무계획. '2016년 국민행복 분야 일·가정 양립'.
- 여성가족부(2016. 3. 29).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 5. 4). 좋은 부모가 되는 길, 부모교육에서 시작. 제1회 「부모교육주간」 신설.
-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16.
- 유해미·박창현·박기원(2015).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실태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1-18.
- 유해미·양미선·송신영(2012).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운진·정도상(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II).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도남희·김세현·나지혜(2012). 출산 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Ⅱ)-가정 내 영아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2-28.

이정원·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08-0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집.

정미라·김경숙·이방실(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33(2). 163-189.

정민자·김영주·박초아·이진숙·홍금자·박무성·이영주(2006).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6-49.

정수정·류방란(2012). 독일의 이주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비교교육연구 22(2), 47-77.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최윤경·이정원·박진아·이동하(201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효과성 달성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Australian Government(2011). Centrelink Annual Report 2010-2011.

Charmaz, K. (2000). Grounded Theory: Objectivist and Constructivist Methods.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econd., pp. 509-536). SAGE.

Tip-Taf Early Years Center(2016). Tip-Taf(팁-태프) Center 안내서.

<온라인 자료>

건강가정지원센터홈페이지(검색일: 2016. 3. 16.)

<http://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infantcare/infantcare1.do>

경향신문(2016.09.04.) '저출산 대책, 최종 목표와 연결 불분명 '출산 붐' 기대 어렵다' (검색일: 2016. 9. 20)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904204645921>

고용노동부(2013). "고용보험 DB자료" <http://www.moel.go.kr>. (재인용 자료 출처임)

- 교육부 홈페이지, 누리과정 설명 (검색일: 2016. 10. 19)
<http://www.moe.go.kr/web/100062/ko/board/view.do?bbsId=315&boardSeq=59966&mode=view>
- 국민건강보험·건강IN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 (검색일: 2016. 6. 13.)
http://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4.do
- 네이버. ‘경상도 지역 인구 및 면적 검색’ (검색일: 2016. 8. 22)
<http://www.naver.com>
-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 2016. 6. 11.)
http://dic.naver.com/search/nhn?dicQuery=%EB%82%B4%EC%8B%A4%ED%99%94&query=%EB%82%B4%EC%8B%A4%ED%99%94&target=dic&ic=utf8&query_utf=&isOnlyViewEE=
- 네이버 지식백과. ‘독일 개황 검색’ (검색일: 2016. 8. 2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5660&cid=43856&categoryId=43857>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아동교육법(Kinderbildungsgesetz NRW) (검색일: 2016. 8. 22)
<https://www.mfkjks.nrw/revision-des-kinderbildungsgesetzes>
- 뉴스1(2016. 7. 11.). 세종시, 인구의 날 국무총리 기관상 수상. (검색일: 2016. 9. 20)
<http://news1.kr/articles/?2716655>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16. 9. 23) www.law.go.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검색일: 2016. 6. 13)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39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설명 (검색일: 2016. 10. 19)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PAGE=3&topTitle=보육정책
- 복지로 홈페이지.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 영유아 건강검진’ (검색일: 2016. 6. 13.)
 ①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322>
 ②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searchIntCId=02&searchCtGId=003&wellInfSno=245&pageGb=1&domainName=&searchSidoCode=&searchCggCode=&key1=list&stsfGr=>
- 서초구청 홈페이지. ‘영유아복지 서초구 특화사업’ (검색일: 2016. 5. 31.)

- <http://www.seocho.go.kr/site/seocho/04/10402010302002015070605.jsp>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보육반장 사업소개' (검색일: 2016. 6. 2)
<http://iseoul.seoul.go.kr/portal/boyukChief/boyukChiefInfo.do/>
- 서울특별시 여성·보육·가족·외국인주민. (검색일: 2016. 10. 13)
<http://woman.seoul.go.kr/files/2016/09/57cf7a91c0ed87.89204380.jpg>
- 세살마을 홈페이지.(검색일: 2016. 8.29)
<https://www.sesalmaul.com/intro/organization.asp>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2016a). 저출산대책담당사업(검색일: 2016. 9. 20)
http://www.sejong.go.kr/health/sub03_04.do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2016b). 방문보건사업(검색일: 2016. 9. 20)
http://www.sejong.go.kr/health/sub03_03.do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①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16. 5. 6.)
 - ② <http://www.mogef.go.kr/popup/20160502popup.jsp> (검색일: 2016. 5. 6.)
 - ③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3_05.jsp
(검색일: 2016. 5. 6.)
 - ④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2_01.jsp?viewfn1=0&viewfn2=0&viewfn3=0&viewfn4=1&viewfn5=0&viewfn6=0 (검색일: 2016. 10. 19)
- 연합뉴스(2016. 8. 17). '부모 자격 있습니까' 지자체 학부모 교육 조례 제정 나서. (검색일: 2016. 9.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618846>
- 외교부(2011). 독일 개황,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5660&cid=43856&categoryId=43857>, 검색일: 2016. 8. 22)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정보제공시스템. (검색일: 2016. 5. 11)
www.hikorea.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검색일: 2016. 6. 30.)
<http://www.childcare.go.k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자료집.
(검색일: 2016. 2. 26) https://precap.go.kr/news_noti_vw.lo?idx=646
- 주혜의 독일 읽기(2009.9.26.). 산모 그리고 아기와의 아름다운 동행, 헤바메(보건복지가족부 기사 송고 내용). (검색일: 2016. 9. 20)
<http://blog.daum.net/joon7423/12376295>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검색일: 2016. 5. 4.)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40000/d1_600067/d1_600070.jsp
- 중앙일보(2016. 8. 23). '당신은 부모 자격 갖추셨나요' 지자체들 조례 만들어 교육.
(검색일: 2016. 9.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638419>
- 켈라 홈페이지. (검색일: 2016. 8. 18.)
- ①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
 - ② <http://www.kela.fi/web/en/maternity-package-previous-versions>
- 통계청(2010). 인구 총 조사. (검색일: 2016. 8. 2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3&conn_path=B3
- 하현용(2015.2.17.). 재독 한인들의 임신과 출산 이야기, 웹진 '플랫슈즈' (2014년 11월호 기고문). (검색일: 2016. 9. 20)
<http://gcinnews.tistory.com/2570>
- 한국교육개발원(2013). 국외교육동향: 독일, 교육 기회평등 향상을 위해 소외계층 밀집지역에 100개의 가족센터 설립. (검색일: 2016.8.16.)
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ExternalForm.do
- 한국직업사전(2016). 조산사. (검색일: 2016. 9. 20)
<http://www.work.go.kr/constJobCarpa/srch/jobDic/j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Code=2430&jobSeq=16>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①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2016. 3. 15.)
 - ②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2016. 6. 16.)
- Devins, Sabine (2010. 10. 5.). The midwife: Your best friend in natal care. (검색일: 2016. 9. 20)

<http://www.thelocal.de/20101005/30273>

Dreber, Marie-Luise(2009).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Child and Youth Services in Germany. (검색일: 2016. 9. 20)

http://www.kinder-jugendhilfe.info/en_kjhg/downloads/ppt-Folienserie/English_Version_German_child_and_youth_services_09-2009.ppt

EBS 뉴스G(2015. 3. 12). 엄마가 행복한 나라의 '엄마상자'.(검색일: 2016. 8. 29.)

http://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10302333/H?eduNewsYn=N&newsFldDetlCd=CONTENT_04&brdcDt=&dtBtn=&srchStartDt=&srchEndDt=&srchType=&srchWords=&srchWords2=&cPage=20

Federal Work Group for State Youth Welfare Offices (2012). What youth welfare office do: questions & answers. (검색일: 2016. 8. 20)

http://www.lwl.org/lja-download/unterstuetzung-die-ankommt/extern/pocketbroschuere/Jugendamt_English.pdf

G-health 홈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란?' (검색일: 2016. 10. 25)

<http://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List.do?bbsId=U00245&cNttId=220&menuNo=200597>

How to Germany(2016). Having a Baby in Germany. (검색일: 2016. 9. 20)

<http://www.howtogermaany.com/pages/havingababy.html>

Tip-taf(팁-태프) 센터 홈페이지

① <http://www.tip-taf.com/#!english/c1fj4> (검색일: 2016. 7. 2)

② <http://www.tip-taf.com/group-activity> (검색일: 2016. 8. 24)

Weft QDA. (검색일: 2016. 10. 17) <http://www.pressure.to/qda/>

<관련 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6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74호]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4440호]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경기도조례 제5129호]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4175호]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4739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26호]
-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524호]
-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4064호]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001호]
- 「유아교육법」 [법률 제13574호]
-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4223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Abstract

The Improvement in Policies To Support Parenting

Mekyung Kwon Wonsoon Park Ji-won Eom

This study will present the way to improve policies for parenting young children. In the study, 'parenting young children' is defined as the whole service that parents provide their children, including not only education but also care by themselv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plore different policies for parenting and evaluate their effectiveness for children's various needs. To be specific, the study will scrutinize the consequences of the current policies, such as the Third Level Plan for Low-Birth Rate and an Aging Society and the Third Level Initiative of Health and Family, and examine efficient support based on their agenda and strategies.

In this research, it reviews the literature which the current policies are based on in order to illuminate needs in society. Secondly, it examines the current system for supporting parenting and its actualization by agencies. Thirdly, the study underlines successful policies that have positive impacts on parenting. Additionally, it addresses parents' participation in the system, satisfaction and needs based on the study of 1,302 mothers. Lastly, considering experts' suggestions, the study determines what good parenting is and how to help implement it.

As a result, there are three aspects for improving the supportive system: transit from parent-centered policies to children-centered policies, the value of parenting, and the pursuit of parenting culture in a community. With these threads, policies should be aligned with an ecological approach, the long-term goals of the government, the accessibility of the service, the equality of benefits without exclusion. Furthermore,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family, and for the improvement of parenting and motivation for it.

To be specific, here are the current policies: the grants for parents, the

information for parenting and education, the support for resources and health. With these policies, their propaganda is important to help positively impact parenting system. It is also crucial to implement the system for supporting caregivers and its application as a center model that is based on the community. As the recommendation suggests, it will be efficient to supplement the role of the current community center with the aforementioned system, for its accessibility, sufficient staff who is specialized in the system, and implementation based on preschools and kindergartens.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positive impacts of and cultivates the culture that values parenting, for the benefit of both parents and their children.

부 록

부록 1. 면담 질문지

부록 2. 서울시보육반장사업 육아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부록 3. 부모대상 FGI(재분석 자료) 면담 프로토콜 및 면담자 특성

부록 4.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설문지

부록 5. 회귀분석 결과표

부록 1. 면담 질문지

가. 서울시 G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1. 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개원년도/ 현재 근무자 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체계 및 예산지원 구조
(중앙정부/ 시도 지자체/ 시군구 등의 지원)
 - 만약 위탁운영이라면 위탁과정?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 언제부터 운영하게 되었는지요?
 -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게 된 목적이나 취지
 - 월 평균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월간 이용 현황)
 -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면서의 경험
운영자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 건강가정지원센터
 - 공동육아나눔터 이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가정 내 양육지원 프로그램이나 제도는 무엇인지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내용과 이용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1) 가족품앗이 2) 공동육아나눔터
 - 3) 부모자녀프로그램 4) 장난감 및 도서대여
 - 이용한 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혹시 이용 부모의 만족도나 이용 후기 등 조사 내용이 있나요?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른 기관의 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분은 있다고 여겨지는지요?
 - 자녀 양육을 돕는 다른 기관의 서비스 사례

3. 향후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계획

-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나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 전체 제도적인 측면/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육아지원센터의 가정 내 양육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합니다.

각 사업의 내용과 이용 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토대로 한 **가정양육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 1) 어린이집 이용정보;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검색, 입소대기신청
 - 2) 양육 정보; 육아상식, 건강발달, 영양정보, 나들이정보, 시간제보육
 - 3) 맞춤형 부모교육; 클로버부모교육, 자녀권리 존중
 - 4) 열린부모참여지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
 - 5) 맞춤형 양육 서비스
자녀양육 상담, 아이사랑 플래너 상담, 장난감·도서 대여사업,
자녀양육 콘텐츠 개발
- 이용한 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혹시 이용 부모의 만족도나 이용 후기 등 조사 내용이 있나요?

2.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개수 및 확대 계획(비용부담주체)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개수 및 확대 계획(비용부담주체)
- 가정양육지원사업 중 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성화된 사례

3. 가정양육지원사업 중심으로 한 개선

-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나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 전체 제도적인 측면/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 내 양육지원사업 중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4. 가정양육지원사업 중복 여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른 기관의 가정 내 양육지원사업 중 중복되는 부분은 있다고 여겨지시는지요?
- 자녀 양육을 돕는 다른 기관의 서비스 사례

5.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 추진계획

-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내용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Off-line 거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방향성

다.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제외)

각 사업의 내용과 이용 현황 등 관련자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동네보육반장 사업과 가정 양육지원 사업의 관련 자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토대로 한 **가정양육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1) 우리동네보육반장

보육반장 사업 전반적인 안내, 보육반장 역할, 이용방법, 사업추진 체계, 보육반장 교육 및 관리를 비롯한 운영 및 이용현황

2) 양육 정보

육아상식, 건강발달, 영양정보, 나들이정보, 시간제보육

3) 부모교육

서울시어린이집 부모사전 참여교육, 아이조아 아빠교실, 아이조아 놀이교실, 클로서 부모교육, 세살마을 부모교육

4) 육아상담

육아상담실, 아이사랑플래서(부모개별·집단상담)

5) 장난감도서관 운영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장난감 수리, 장난감 기부·교환, 자원봉사모집

6) 장난감 나눔 축제

7) 육아정보

건강발달, 육아상식, 영양정보, 나들이정보, 육아전문칼럼

8) 어린이집이용안내

9) 시간제보육

- 이용한 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혹시 이용 부모의 만족도나 이용 후기 등 조사 내용이 있나요?

2.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각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개수 및 특징

가정양육지원사업 중 서울시에 특성화된 사례

3. 가정양육지원사업 중심으로 한 개선

-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요?
-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나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 전체 제도적인 측면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 내 양육지원사업 중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4. 가정양육지원사업 중복 여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른 기관의 가정 내 양육지원사업 중 중복되는 부분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 자녀 양육을 돕는 다른 기관의 서비스 사례

5.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 추진계획

-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내용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Off-line 거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방향성

라.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 담당 공무원

1. 아이돌봄 사업 추진 현황

- 아이돌봄지원사업
 -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추진근거
 - 서비스 제공기관 전국현황
 - 전달체계

 - 아이돌보미 선발 및 관리

 -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제공범위, 이용요금, 제한사항
 - *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금지(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 연간 이용 현황 및 개선요구 (이용자 만족도)

2. 향후 추진계획

- 아이돌봄 사업 향후 추진계획

- 아이돌봄 사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나 제도는 무엇이며,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마.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 공무원

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 설립목적 및 방향
 -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 전달체계
 - 전국 설치·운영 현황
 - * 공동육아나눔터
 - 연간 이용 현황 및 개선요구 (이용자 만족도)

<가정 내 양육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업>

- 1) 가족돌봄나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등)
- 2)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 3) 가족상담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른 유사기관의 중복서비스 문제

2. 향후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 가정 내 양육지원과 관련한 귀 부의 세부추진계획
 - <2016년도 중점추진과제>
 - 정책목표: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 실천과제: 생애주기별 출산·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가족정책의 역점 추진과제>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다양화
- 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나 제도는 무엇이며,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 전체 제도적인 측면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바.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무자

I.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관련 질의

육아지원센터의 가정 내 양육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각 사업을 운용하시면서 경험을 토대로 개선 의견을 구합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신 가정 양육지원 사업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 1) 어린이집 이용정보 2) 양육 정보 3) 맞춤형 부모교육
4) 열린부모참여지원
5) 맞춤형 양육 서비스: 자녀양육 상담, 아이사랑 플래너 상담,
장난감·도서 대여사업, 자녀양육 콘텐츠 개발

- 이용한 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 가장 활성화된 사업은? 활성화되어 운영되는 이유?
- 가장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업? 그 이유?

2.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내용 안에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Off-line 거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용 중인 가정 양육지원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 거주지에서 너무 먼 곳에 있다(33%) > 서비스 내용이 잘 홍보되지 않음(32.6%)
-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기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56.9%)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 양육지원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면...

3. 시간제 보육서비스 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중 7.1%에 불과하며, 만족 정도도 높지 않음.
- 개선 요구로 ①시간제 제공기관을 늘려 이용 접근성 증진(41%) > ②시간제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16%)
-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①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해서(37%) > ②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도를 몰라서(23%)
 시간제 보육의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II. 가정 양육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가정에서 양육자인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부모학교’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한민국 부모학교’ 추진 현황은 어떠합니까?

- 현재 부모교육 받은 경험자 중 ①어린이집과 유치원(72%)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27%)> ③ 지역사회 기관(21.7%) > ④ 건강가정지원센터(13%) 이용함.
- 부모교육 적절시기에는 자녀의 나이 0~5세(43%) > 임신 기간 동안(36.3%)
- 매체는 면대면 교육을 선호함(62.6%)/ 집단의 규모는 소집단(5명 정도 58.8%)
- 방법은 부모가 찾아가서 듣는 방법 선호(64.2%)/ 1회 적정시간은 약 30분 정도
- 부모교육 참여는 홍보가 문제임
 - 부모교육 기회에의 부모 참여 확대 방안?

2.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부모교육 의무화에 78%의 부모가 찬성함.
 - 찬성 이유는 ‘자녀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45%) >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므로(30.9%)
 - 반대 이유는 바빠서 따로 시간 내어 교육받기 어려워(36%) >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25.5%)> 교육을 통해 부모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22.3%)

3. 부모 양육정보 제공 방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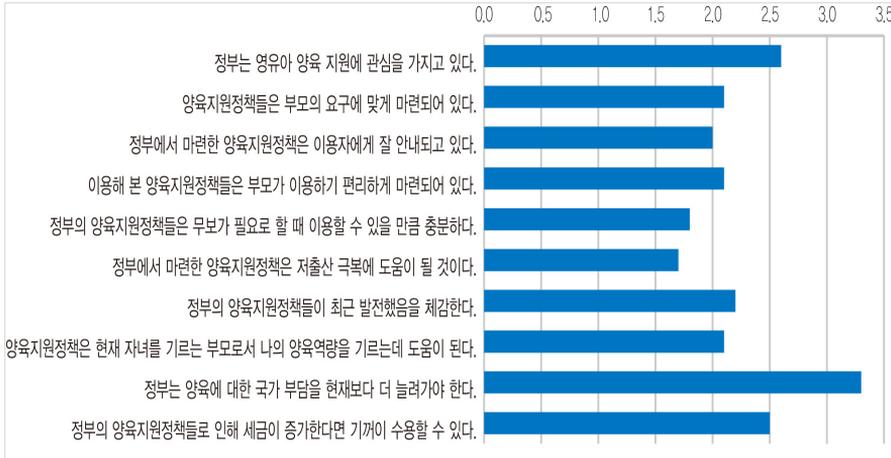
- 임신육아종합포털
- 우리동네 보육반장

4. 어떻게 하면 양육자인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Ⅲ. 가정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의견 수렴

본 연구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결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구합니다.

□ 현재 양육지원 정책 관련 진술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정도(4점 척도)



□ 부모가 경험하는 정책 체감도가 낮은 이유

항목	정책설계에서부터 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영유아 부모가 이용하기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서	정책마다 소관 부처와 기관이 다르고 복잡하여	기타	계
전체	47.5	27.4	14.6	10.2	0.2	100.0(1,302)

□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필요도가 높은 제도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정보 및 교육 지원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전체	59.8	19.0	11.8	3.9	2.6	1.9	1.1	100.0(1,302)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만족도가 높은 제도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정보 및 교육 지원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전체	43.7	38.3	7.1	4.5	3.5	1.5	1.3	100.0(1,302)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정보 및 교육 지원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전체	47.3	21.9	18.2	4.4	4.0	2.2	2.1	100.0(1,302)

 자녀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적정 양육수당 지원(가정양육부담 경감)	37.5	17.5	9.0	63.9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정책 추진	15.7	6.3	6.9	28.9
영아는 부모가 가정내 양육, 유아는 기관이용지원 활성화	14.6	11.8	8.3	34.7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이용 편리성 개선	10.8	17.2	14.3	42.3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질 관리	8.4	14.1	13.5	36.0
지역사회 이용가능 시설 확충(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2	9.8	13.4	26.4
자녀양육지원정책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원스톱 안내	2.6	6.7	10.1	19.5
출산/양육지원 종합 안내/상담 온라인 종합포털서비스 체계화	2.2	5.3	4.8	12.3
양육정보 맞춤형 제공 서비스(면대면/전화/문자 등)	1.8	4.3	6.2	11.5
부모교육 기회 확대	1.6	4.3	6.1	12.0
지원제도와 연계한 부모교육 의무화	1.2	2.2	5.3	8.7
대안적 작은 육아문화 조성	0.3	1.4	2.1	3.8
계	100.0 (1,302)	100.0 (1,302)	100.0 (1,302)	(1,302)

IV. 가정 양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가정에서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함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제언을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I.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관련 질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 내 양육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원 사업을 운용하시면서 경험을 토대로 개선 의견을 구합니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신 가정 양육지원 사업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 1) 가족돌봄나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등)
- 2)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3) 가족상담

- 이용한 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 가장 활성화된 사업은? 활성화되어 운영되는 이유?
 - 가장 운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업? 그 이유?

2.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의 인지여부, 이용여부, 만족도

항목	인지여부				$\chi^2(df)$	이용함(수)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계			
전체	6.9	25.8	67.2	100.0(1,302)		3.2(42)	2.7(0.75)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용 중인 가정 양육지원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 양육지원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면...

3. 아이돌봄서비스 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로 제시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중 6.8%에 불과하며, 만족 정도도 그리 높지 않음(4점 만점에 2.5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이유

구분	민간 돌봄 서비스 (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에 비해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이용하고 싶은 때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라 믿을 수 있어서	민간 돌봄 서비스 (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기타	계
전체	29.0	24.8	22.7	21.3	2.2	100.0(89)

-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요구

항목	① 원할 때 바로 이용	② 서비스 질 개선	③ 지원금 증액	④ 신청 절차 간소화	⑤ 홍보 강화	⑥ 지원금 감액	⑦ 기타	계
전체	34.9	28.0	16.9	9.1	7.8	2.2	1.1	100.0(89)

- ①원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 ②과건되는 돌보미의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
- ③이용 비용 지원금 증액,
- ④신청 절차 간소화,
- ⑤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 ⑥이용 비용 지원금 감액, ⑦기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① 기관 이용 중	② 제도 모름	③ 도우미 신뢰 어려움	④ 대기자 많음	⑤ 비용 부담됨	⑥ 신청 절차 복잡	⑦ 도우미 잦은 교체	⑧ 민간 보다 질 낮음	⑨ 기타	계
전체	34.7	34.5	11.7	5.0	4.6	3.2	0.9	0.7	4.7	100.0(1213)

- ①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 ②제도를 잘 몰라서
- ③과건되는 도우미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 ④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 ⑤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⑥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 ⑦이용할 때마다 아이돌보미가 자주 교체되어서,
- ⑧민간 돌봄 서비스에 비해 질이 좋지 않아서, ⑨기타

아이돌봄서비스의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4.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서비스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센터의 서비스별 이용 및 만족도

서비스의 종류	이용 여부		이용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센터 이용 계 ¹⁾	이용 합	서비스 이용 계 ²⁾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장난감 대여	100.0(312)	73.8	100.0(230)	3.1	16.2	56.4	24.4	3.0(0.73)
도서 대여	100.0(312)	45.0	100.0(140)	0.7	9.9	64.3	25.0	3.1(0.60)
체험 활동 및 참여프로그램	100.0(312)	36.5	100.0(114)	0.0	8.7	73.7	17.6	3.1(0.51)
부모 교육	100.0(312)	20.2	100.0(63)	3.2	6.3	77.8	12.8	3.0(0.57)
육아 상담	100.0(312)	12.1	100.0(38)	2.7	10.4	73.8	13.2	3.0(0.59)
시간제 돌봄 서비스	100.0(312)	7.7	100.0(24)	0.0	20.7	58.4	20.9	3.0(0.66)
육아 품앗이 지원 및 운영	100.0(312)	3.9	100.0(12)	16.7	16.7	49.9	16.7	2.7(0.99)
아동발달검사/치료프로그램	100.0(312)	11.2	100.0(35)	5.8	17.1	68.7	8.4	2.8(0.68)
공동육아나눔터	100.0(312)	5.8	100.0(18)	0.0	27.8	72.2	0.0	2.7(0.46)
육아정보 제공	100.0(312)	24.1	100.0(75)	0.0	21.3	69.5	9.2	2.9(0.54)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서비스지원센터가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

항목	거주지에서 너무 먼 곳에 있음	서비스 내용이 잘 홍보되지 않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함	이용 시간이 다양하지 못함	기타	계
전체	33.0	32.6	16.1	16.0	2.2	100.0(312)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서비스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항목	이러한 기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서비스 내용이 잘 홍보되지 않음	너무 먼 곳에 있음	프로그램 다양하지 못함	제공 서비스가 양육에 도움되지 않음	기타	계
전체	56.9	24.2	12.3	2.6	2.3	1.6	100.0(990)

II. 가정 양육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가정에서 양육자인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대한민국 부모학교’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한민국 부모학교’ 추진 현황은 어떠합니까?

- 현재 부모교육 받은 경험자 중 ①어린이집과 유치원(72%)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27%) > ③ 지역사회 기관(21.7%) > ④ 건강가정지원센터(13%) 이용함.
- 부모교육 적절시기에는 자녀의 나이 0~5세(43%) > 임신 기간 동안(36.3%)
- 매체는 면대면 교육을 선호함(62.6%)/ 집단의 규모는 소집단(5명 정도 58.8%)
- 방법은 부모가 찾아가서 듣는 방법 선호(64.2%)/ 1회 적정시간은 약 30분 정도
- 부모교육 참여는 홍보가 문제임
 - 부모교육 기회에의 부모 참여 확대 방안?

2. 부모교육 의무화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부모교육 의무화에 78%의 부모가 찬성함.
 - 찬성 이유는 ‘자녀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45%) >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므로(30.9%)
 - 반대 이유는 바빠서 따로 시간 내어 교육받기 어려워(36%) >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25.5%) > 교육을 통해 부모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22.3%)

3. 어떻게 하면 양육자인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III. 가정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의견 수렴

본 연구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결과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구합니다.

현재 양육지원 정책 관련 진술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정도(4점 척도)

부모가 경험하는 정책 체감도가 낮은 이유

항목	정책설계에서 부터 영유아 부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영유아 부모가 이용하기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서	정책마다 소관 부처와 기관이 다르고 복잡하여	기타	계
전체	47.5	27.4	14.6	10.2	0.2	100.0(1,302)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필요도가 높은 제도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정보 및 교육 지원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전체	59.8	19.0	11.8	3.9	2.6	1.9	1.1	100.0(1,302)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만족도가 높은 제도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정보 및 교육 지원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전체	43.7	38.3	7.1	4.5	3.5	1.5	1.3	100.0(1,302)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

항목	비용 지원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 정보 및 교육 지원	건강 관련 지원	서비스 지원	물품 지원	계
전체	47.3	21.9	18.2	4.4	4.0	2.2	2.1	100.0(1,302)

□ 자녀양육지원정책 개선 요구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적정 양육수당 지원(가정양육부담 경감)	37.5	17.5	9.0	63.9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정책 추진	15.7	6.3	6.9	28.9
영아는 부모가 가정내 양육, 유아는 기관이용지원 활성화	14.6	11.8	8.3	34.7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이용 편리성 개선	10.8	17.2	14.3	42.3
민간 아이돌보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질 관리	8.4	14.1	13.5	36.0
지역사회 이용가능 시설 확충(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2	9.8	13.4	26.4
자녀양육지원정책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원스톱 안내	2.6	6.7	10.1	19.5
출산/양육지원 종합 안내/상담 온라인 종합포털서비스 체계화	2.2	5.3	4.8	12.3
양육정보 맞춤형 제공 서비스(면대면/전화/문자 등)	1.8	4.3	6.2	11.5
부모교육 기회 확대	1.6	4.3	6.1	12.0
지원제도와 연계한 부모교육 의무화	1.2	2.2	5.3	8.7
대안적 작은 육아문화 조성	0.3	1.4	2.1	3.8
계	100.0(1,302)	100.0(1,302)	100.0(1,302)	(1,302)

IV. 가정 양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가정에서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함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제언을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아. 전문가 면담 및 서면 의견수렴

2012년 3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되었고, 2013년에는 3, 4세까지 포함하는 3~5세 누리과정의 확대와 함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0~5세 아동 대상으로 연령별 차등을 둔 양육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연령별 기관 이용 양상에, 특히 영아를 중심으로 극적으로 나타나 2012년 무상보육시행으로 영아의 기관 이용이 급증하였다가, 2013년 양육수당이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게 된 후 0~1세반 해당 연령 영아의 가정 내 양육으로의 선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이용자의 선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고, 그 준비과정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나, 시행되는 정책의 변화는 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의 추동적(推動) 성격에 주목하고, 전문가들께서 지향하는 바람직한 육아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지원정책은 어떤 방향을 견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1-1.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또는 평가

1-2. 육아의 주체는 누구인가? 부모 책임 vs. 국가 지원, 정부의 양육지원은 어디까지인가?

1-3.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정책의 지향점, 또 가장 강조점을 두어야할 부분

영아 시기	유아 시기

1-4. 보편적 양육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누리과정을 포함하는 교육보육 비용 지원 등)

1-5. 국가가 주도하는 부모교육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하나? 의무화 방안에 대한 의견, 효과적 확대 방안

2. 2016년을 기점으로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시행 중입니다. 이 두 계획은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평소 생각해 오신 필요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의견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 부모가 임신·출산·육아정보 및 양육 상담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구축을 추진한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통한 Off-line 부모 종합서비스 지원(교육, 상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모지원 인프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양육수당을 증액에 대한 의견 포함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부모를 위한 개방형 놀이 소통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활성화하여 가정 내 자녀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유시설 중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확대한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시 운영비 지원을 인센티브로 검토한다. - 공동육아(육아품앗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한다. - 지역사회 내 육아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돌봄지도로 작성하여 배포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아과, 도서관 등의 다양한 정보를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일·가정 토크’ 앱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자녀에 대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확대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부 및 법무부는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민간 아이돌보미도 지원센터에서 교육 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가칭)「가사근로자지원법」 제정 시 등록관리 대상에 아이돌보미 파견업체를 포함, 업체 질 관리와 처우개선 통한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한다. - 외국인 육아도우미 지원프로그램, 정보제공시스템 내 실화 및 홍보강화로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참여와 도우미 수요 가정 체감도를 제고한다. 육아도우미 교육수료자의 합법체류, 건강 상태 등 정보를 구인희망자가 열람 가능(www.hikorea.go.kr)하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가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교육기능을 강화한다. 	부모 교육의 무화에

구분	내용	의견
(대한민국 부모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가족교육을 활성화하여, 군부대와 직장,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지역인프라와 연계하여 가족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요자를 위해 온라인, 모바일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 저소득, 이혼,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시 자녀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대한 의견
가족상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전문가 집단 연계 등을 통한 가족상담 전문성을 제고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가족상담’ 등 가족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족여가 활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생활권 내 가족여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 가족여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남성들의 육아·가사·자조모임 공간 등을 제공하는 아빠캠프를 운영한다. 	
작은 육아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주의적 육아실태 현황 파악을 위해 초호화 산후조리원, 고가 육아용품, 사교육 등 육아부담을 초래하는 육아 관행 및 실태를 파악한다. - 대안적 ‘작은 육아문화’ 로의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여 표준적 육아 플랜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등 대안적 육아문화를 제시한다. 	

부록 2. 서울시보육반장사업 육아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육아... 고민 많으시죠?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각종 육아정보를 알려드립니다!		
<p>안녕하세요. 자녀 출생 축하 및 우리구 전입을 환영합니다.</p> <p>서울시에는 각 지역마다 육아정보를 꼼꼼하게 알려주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소아과, 시간제보육,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 그 외 각종 육아 서비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p> <p>우리동네 보육반장의 전화 안내에 동의하시면, 보육반장이 직접 전화를 드려 출산, 육아에 대해 궁금하신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p>		
구분	<input type="checkbox"/> 출생신고	<input type="checkbox"/> 전입신고
보육반장의 전화 안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성명	연락받고 싶은 전화 번호	(아동과의 관계)
e-mail		
어떤 분야의 안내를 받고 싶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국가예방접종(무료접종)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건강검진	<input type="checkbox"/>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입소대기
<input type="checkbox"/> 휴직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가정 지원혜택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p>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내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알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수집/이용 항목] 이름, 연락처, 관심분야</p> <p>[수집/이용 목적]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출산 가정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으로 이용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p>		
<p>[동의거부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p>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이름:		(서명)

자료: 서울특별시 외(2016). 2016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운영매뉴얼. p. 67 발췌

부록 3. 부모대상 FGI(재분석 자료) 면담 질문지 및 면담자 특성

〈부록 표 1〉 부모대상 FGI 면담 질문지

대상	질의 내용
어머니/ 아버지	<p>1. 육아에 대한 인식 및 실태</p> <p>가.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나요? -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떠합니까? : 몇 시간 정도? 주로 도와 주는 일, 힘들어하는 일 - 아버지 양육 참여에 대한 본인의 의견? <p>나. 육아에의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행복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까? -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자신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를 기르는 일에 만족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를 기르는 일이 부담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매월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p>2. 육아에의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 영유아와 동반 외출 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 전담하여 돌보는 엄마의 시간을 위해 잠깐 돌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freshment 기능을 할 대리 보육에 대한 의견 <p>3. 자녀의 기관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시작 시점? 그 이유는? - 실제 이용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 기관 선택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p>4. 육아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육아 정보가 필요한가요? - 육아정보 어디서 주로 얻나요? - 육아정보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을까요? <p>5. 육아지원 정책 인지/ 이용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 육아 정책 중 경험한 것은? : 가장 유용하게 느껴진 것은 무엇인가요? - 현재 양육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주로 육아 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대상	질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육아휴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사는 어떠합니까?
취업모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는 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 맞벌이 상황에서 육아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상황의 예를 들어 주십시오. - 어머니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들에 대해 추가 알고 계신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이용경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지원하는제도 중 추가 지원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출산전 가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기간 중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건강, 경제적 문제 등) - 임신/출산 관련 정책 인지 이용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관련 정책 중 경험한 것은? : 가장 유용하게 느껴진 것은 무엇인가요? : 현재 임신 기간 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부모됨의 준비과정으로 양육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비부모교육 수료, 관련 서적 탐독 등) - 출산 후 육아상황을 기정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공통질의내용은 가정하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이 가능한 질문만 해당) : (예시)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할 때 주로 누구에게 도움 받을 예정입니까?

자료: 권미경·최은영·김니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표 I-3-4>

〈부록 표 2〉 부모대상 FGI 면담 부모 특성

단위: 세

연번	구분	지역	연령	자녀연령	집단 특성
1	A	대도시	35	만 0-1세	전업주부
2	B	대도시	39	만 0-1세	전업주부
3	C	대도시	40	만 0-1세	전업주부
4	D	대도시	36	만 2세	전업주부
5	E	대도시	33	만 2세	전업주부
6	F	대도시	36	만 3-4세	전업주부
7	G	대도시	34	만 3-4세	전업주부
8	H	대도시	33	만 5세	전업주부
9	I	대도시	38	만 5세	전업주부
10	J	대도시	45	만 5세	전업주부
11	K	대도시	36	임신 6개월	임산부
12	L	대도시	34	임신 7개월	임산부
13	M	대도시	36	임신 6개월	임산부
14	N	대도시	32	만 2세	취업모
15	O	대도시	34	만 1세	취업모
16	P	대도시	40	만 4세	취업모
17	Q	대도시	42	만 4세	아버지
18	R	대도시	44	만 2세	아버지
19	a	농어촌	38	만 0-1세	전업주부
20	b	농어촌	34	만 0-1세	전업주부
21	c	농어촌	37	만 0-1세	전업주부
22	d	농어촌	28	만 2세	전업주부
23	e	농어촌	33	만 2세	전업주부
24	f	농어촌	36	만 2세	전업주부
25	g	농어촌	43	만 3-4세	전업주부
26	h	농어촌	39	만 3-4세	전업주부
27	i	농어촌	35	만 3-4세	전업주부
28	j	농어촌	34	만 5세	전업주부
29	k	농어촌	38	만 5세	전업주부
30	l	농어촌	32	임신 6개월	임산부
31	m	농어촌	40	임신 8개월	임산부
32	n	농어촌	33	임신 7개월	임산부
33	o	농어촌	40	만 4세	취업모
34	p	농어촌	38	만 5세	취업모
35	q	농어촌	34	만 5세	취업모
36	r	농어촌	42	만 4세	아버지
37	s	농어촌	36	만 5세	아버지
38	모1	대도시	33	임신 7개월	임산부

연번	구분	지역	연령	자녀연령	집단 특성
39	모2	대도시	29	임신 5개월	임산부
40	모3	대도시	33	임신 9개월	임산부
41	모4	대도시	35	만 0-1세	전업주부
42	모5	대도시	34	만 0-1세	전업주부
43	모6	대도시	30	만 0-1세	전업주부
44	모7	대도시	34	만 2세	전업주부
45	모8	대도시	34	만 2세	전업주부
46	모9	대도시	39	만 2세	전업주부
47	모10	대도시	37	만 3-4세	전업주부
48	모11	대도시	44	만 3-4세	전업주부
49	모11	대도시	35	만 5세	전업주부
50	모11	대도시	38	만 5세	전업주부
51	모11	대도시	38	만 5세	전업주부
52	모11	대도시	37	만 5세	취업모
53	모11	대도시	37	만 2세	취업모
54	모11	대도시	40	만 5세	취업모
55	부1	대도시	41	만 1세	아버지
56	부2	대도시	38	만 2세	아버지
57	부3	대도시	35	만 5세	아버지
58	모21	농어촌	34	임신 8개월	임산부
59	모22	농어촌	33	임신 7개월	임산부
60	모23	농어촌	40	임신 6개월	임산부
61	모24	농어촌	39	만 0-1세	전업주부
62	모25	농어촌	33	만 0-1세	전업주부
63	모26	농어촌	34	만 2세	전업주부
64	모27	농어촌	32	만 2세	전업주부
65	모28	농어촌	38	만 2세	전업주부
66	모29	농어촌	34	만 4세	전업주부
67	모30	농어촌	30	만 3세	전업주부
68	모31	농어촌	35	만 4세	전업주부
69	모32	농어촌	35	만 5세	전업주부
70	모33	농어촌	39	만 5세	전업주부
71	모34	농어촌	35	만 5세	전업주부
72	모35	농어촌	32	만 2세	취업모
73	모36	농어촌	41	만 1세	취업모
74	모37	농어촌	42	만 5세	취업모
75	부4	농어촌	40	만 4세	아버지
76	부5	농어촌	41	만 4세	아버지
77	부6	농어촌	43	만 4세	아버지

자료: 권미경·최은영·김나영·김혜진·임준범(2016).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부록 2 재인용

부록 4.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설문지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 체계적인 육아정책의 수립을 위해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의 역량 강화 및 육아지원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로만 활용되며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육아지원 정책의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선문 0.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시도 ()
2. 시군구 ()
3. 읍면동 ()

선문1. 귀하께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설문 중단[로직 : 선문1=2 이면 설문 중단]

선문2. 귀하의 총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1. 총 자녀 수 () 명

선문3. 자녀의 나이와 성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출생년월	성별
1. 첫째 자녀	1. ()년 ()월 생	1. 남자 2. 여자
2. 둘째 자녀	1. ()년 ()월 생	1. 남자 2. 여자
3. 셋째 자녀	1. ()년 ()월 생	1. 남자 2. 여자
...	선문2의 자녀 수만큼 구현	

선문3 나이 환산

1. 2015년 9월 생 ~ 2016년 8월 생 : 0세(생후 12개월 미만)
2. 2014년 9월 생 ~ 2015년 8월 생 : 만 1세(12~24개월 미만)
3. 2013년 9월 생 ~ 2014년 8월 생 : 만 2세(24~36개월 미만)
4. 2012년 9월 생 ~ 2013년 8월 생 : 만 3세(36~48개월 미만)
5. 2011년 9월 생 ~ 2012년 8월 생 : 만 4세(48~60개월 미만)
6. 2010년 1월 생 ~ 2011년 8월 생 : 만 5~6세(60~80개월 미만)
7. 2009년 12월 생 이하 : 미취학 아동 아님

선문4-1. ()년 ()월 생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세별 가장 주된 이용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예를 들어, 만약 현재 자녀가 만4세라면 만0세부터 만4세 현재까지 각 연령별로 이용한 경험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1. 0세(생후 12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반일제 이상 학원 3. 이용 안함
2. 만 1세(12~24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반일제 이상 학원 3. 이용 안함
3. 만 2세(24~36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반일제 이상 학원 3. 이용 안함
4. 만 3세(36~48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이용 안함
5. 만 4세(48~60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이용 안함
6. 만 5~6세 (60~80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이용 안함

선문4-2. ()년 ()월 생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현재 자녀가 만4세라면 앞으로 만 5세에 이용하기 희망하는 기관에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1. 0세(생후 12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반일제 이상 학원 3. 이용 안함
2. 만 1세(12~24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반일제 이상 학원 3. 이용 안함
3. 만 2세(24~36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반일제 이상 학원 3. 이용 안함
4. 만 3세(36~48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이용 안함
5. 만 4세(48~60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이용 안함
6. 만 5~6세 (60~80개월 미만)	1. 어린이집 2. 유치원 3. 반일제 이상 학원 4. 이용 안함

I. 자녀 양육 현황 및 자녀양육 역량

문1. ()년 ()월 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긴급하게 대리양육이 필요한 경우,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기관)은 누구입니까?

1. 아이의 조부모/외조부모
2. 아이의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지
3. 친구·이웃·동료
4. 아이돌봄 서비스(정부운영)
5.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6.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7.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일시보육기관(시간제 보육 서비스)
8. 기타 ()
9. 없음

문2. ()년 ()월 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1.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
2.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부족하다
3. 기저귀, 분유 등 양육비용이 부담된다
4. 교육·보육(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이 부담된다
5.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가 부담된다
6. 양육방법을 잘 모르겠다
7. 개인 시간이 부족하다(내 시간이 없다)
8. 수면시간 부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9. 기타()
10. 없음

문3.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다음의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도에 응답해주시고, 현재 부모로서 나는 어떠한지 스스로 평가해주시고.

항 목		(1) 중요도				(2) 현재 나의 역량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중요함	매우 중요함	매우 부족함	다소 부족함	약간 충분함	매우 충분함
		1	2	3	4	1	2	3	4
돌봄	1) 자녀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는 것								
	2) 자녀 요구에 대한 적절하고 민감한 반응								
	3)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식								
	4)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체력								
지원	5)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는 등 일상에 대한 지원								
	6)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요구에의 지원								
	7)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8)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사회관계 (친구, 이웃) 형성								

양육 정보	9) 양육관련 정보 접근성 (필요한 정보를 잘 찾는지)							
	10) 양육관련 정보 활용성 (수집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지)							
	11) 양육관련 정보 충분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는지)							
정책 인지 및 활용	12) 양육지원 정책 인지 (알고 있는지)							
	13) 양육지원 정책 활용 (이용 하는지)							

문4.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항 목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다소 부담됨	매우 부담됨
	1	2	3	4
1) 부모로서의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				
2)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				
3)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				
4) 경제적 부담				

문5. ()년 ()월 생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육아 정보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1. 영유아 양육에 대한 일반 정보(훈육,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
2. 영유아 건강에 대한 정보
3. 영유아 놀이나 학습에 대한 정보
4.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보
5. 영유아용품 구매에 대한 정보(육아용품 및 서적)
6. 정부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7. 기타 ()

문6. 육아 정보를 어디(누구)에(게)서 주로 제공받습니까?

1. 가족(아이의 조부모/외조부모, 아이의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지)
2. 친구·이웃·동료
3.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4. 교육·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5. 육아관련 전문가(의사, 상담사 등)
6. 공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등)
7.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8. 육아 관련 서적(잡지 포함)
9. 기타()

II. 자녀양육지원정책의 이용 및 개선 요구

※ 지금부터는 ()년 ()월 생 자녀 뿐 아니라 모든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느낀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육지원 정책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1부터 문3까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가정양육수당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이란?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연령에 따라 10~20만원 지급

[로직 : 모든 응답자]

문1-1) 가정양육수당에 관한 정책내용입니다. 이 설문을 받기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모두 체크해주시시오.

1. 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5세 이하 모든 영유아는 연령별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3. 장애아동은 비 장애아동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는다.
4. 농어촌 거주아동은 도시지역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는다.

[로직 : 보기 1은 복수 응답 불가능]

[로직 : 보기 1 화면 상에서는 제일 끝에 위치]

[로직 : 문1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1-2) 가정양육수당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신청 절차 간소화
2. 양육수당에 대한 홍보 강화
3.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 차등화
4. 양육수당 감액
5. 양육수당 증액
6. 개선할 점 없음
7. 기타()

[로직 : 문1-2)의 '5. 양육수당을 증액해야 한다' 응답자만]

문1-2)-1. 양육수당을 증액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실제 양육 비용에 비해 부족하므로
2.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비해 적으므로

[로직 : 문1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1-3)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고 있어서
2.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으나 제도를 잘 몰라서
3. 신청절차가 불편해서
4. 기타()

[로직 : 모든 응답자]

문1-4) 만약 가정양육수당 금액을 상향 지원하여 보육료/교육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한다면, 맞벌이 여부 및 가정 내 양육여건과 관계없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가정양육수당 받고 가정에서 양육
2. 보육료/교육비 지원 받고 어린이집 이용
3. 자녀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고려하여 선택

문2. 0~2세 보육료 지원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0~2세 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아에 대한 비용 지원

문3. 3~5세 누리과정 지원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3~5세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이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유아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로직 : 모든 응답자]

문3-1) 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관한 정책내용입니다. 이 설문을 받기 전에 알고있었던 정책 내용을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
2.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 영아는 매달 연령에 따라 다른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3.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아동은 매달 22만원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원받는다.
4.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연령별로 일정액이 지원된다.

[로직 : 문2 (2)의 '1. 이용함' 또는 문3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3-2)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신청 절차 간소화
2. 정책 홍보 강화
3.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차등화
4.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감액
5.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 증액
6. 기타()

[로직 : 문2 (2)의 '2. 이용하지 않음' 그리고 문3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3-3) 현재 0~2세 보육료 및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제도를 잘 몰라서
2.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3. 영어학원이나 놀이학교 등 다른 기관을 이용하려고
4. 어린이집·유치원에 들어가려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중
5. 기타()

※ 문4부터 문5까지는 부모의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의 (1) 인지도,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요.

항 목	(1) 인지도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 (시간차등형 보육료)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이란?

시간차등형 보육료라고도 불림.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는 36개월 미만의 자녀에게 일시적 보육을 지원하는 것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유치원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경우
시간당 이용단기 4,000원 중 2,000~3,000원을 정부기 지원

[로직 : 모든 응답자]

문4-1)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 지원에 대한 정책내용입니다. 이 설문을 받기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
2.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시간당 4,000원의 이용료 중 2,000원을 지원받는다.
4.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맞벌이의 경우 시간당 이용료 중 3,000원을 지원받는다.
5. 전화나 인터넷 예약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로직 : 보기 1은 복수 응답 불가능]

[로직 : 보기 1 화면 상에서는 제일 끝에 위치]

[로직 : 문4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4-2)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양육하며 잠깐의 휴식을 얻고 싶어서
2. 급한 용무가 있거나 자녀를 동반하기 어려운 용무 때문에
3.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보다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
4.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이용
5. 어린이집 이용 전에 자녀의 적응과 사회성을 길러주려고
6. 기타()

[로직 : 문4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4-3) 시간제 보육의 이용 빈도는 어떠합니까?

1. 주기적으로 이용(주당 _____회)
2. 필요할 때만 가끔씩 이용

[로직 : 문4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4-4) 시간제 보육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 편리성 증진
2.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늘려서 이용 접근성 증진
3. 시간제 보육에 대한 홍보 강화
4. 시간제 보육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5. 시간제보육 제공시설의 환경 개선
6.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제 보육 지원금 차등화
7. 시간제 보육 지원금 감액
8. 시간제 보육 지원금 증액
9. 기타()

[로직 : 문4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4-5) 현재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간제보육 서비스제도를 잘 몰라서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3. 영어학원 등 다른 시설을 이용
4. 이용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5.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6. 교사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7. 이용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8. 전업주부라 이용하기에 눈치가 보여서
9. 자녀가 적응하기 어려워해서
10. 필요하지 않아서
11. 기타()

문5.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종일제)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란?

소득활동, 다자녀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보미 이용비용을 지원함. 영아종일제, 시간제 등이 있음

[로직 : 모든 응답자]

문5-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책내용입니다. 이 설문을 받기 전에 알고 있었던 정책 내용을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
2.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종일제 월 130만원의 비용 중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된다.
4. 종일제를 이용하지 않고 시간제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아동 돌봄과 더불어 세탁, 청소, 조리와 설거지 등을 지원하는 종합형 서비스도 있다.

[로직 : 문5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5-2)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라 믿을 수 있어서
2.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3.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에 비해서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4. 이용하고 싶은 때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5. 기타 ()

[로직 : 문5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5-3) 아이돌봄 서비스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신청 절차 간소화
2.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3. 파견되는 돌보미의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
4. 원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5. 이용 비용 지원금 감액
6. 이용 비용 지원금 증액
7. 기타 ()

[로직 : 문5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5-4)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제도를 잘 몰라서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3.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4.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5.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6. 파견되는 도우미를 신뢰하기 어려워서
7.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에 비해 질이 좋지 않아서
8. 이용할 때마다 아이돌보미가 자주 교체되어서
9. 기타 ()

※ 문6부터 문7까지는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6.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1) 필요성,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2) 인지여부			(3) 이용여부		(4)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란?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정보, 입소대기·보육료 결제·시간제보육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

[로직 : 모든 응답자]

문6-1) 아이사랑포털에 관한 정책내용입니다. 이 설문을 받기 전에 알고있었던 아이사랑포털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
2.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지원 정책 및 기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어린이집/유치원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입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은 iseoul.seoul.go.kr)
4. 임신, 난임, 출산, 육아,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5.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정부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모바일 어플(앱)을 제공하고 있다.

[로직 : 문6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6-2) 아이사랑포털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홍보로 모르던 정책을 알게 됨
2. 입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 등 정책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3. 얻을 수 있는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4. 정책과 관련한 궁금한 점에 대해 안내와 상담이 가능한 점
5. 기타()

[로직 : 문6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6-3) 향후 아이사랑포털 이용을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중단할 의사 없음
2. 유용한 정보가 부족해서
3.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어서
4. 잘못된 정보가 많아서
5. 기타()

[로직 : 문6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6-4) 아이사랑포털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수록된 정보의 적절한 업데이트
2. 제공하는 정보 내용의 확대

3. 다른 포털(서울시보육포털 등)과의 연계 강화 또는 통합
4. 플러그인 등 설치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최소화
5. 정보 검색의 간편화
6. 기타()

[로직 : 문6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6-5) 현재 아이사랑포털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2.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3. 컴퓨터/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4.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5. 기타()

문7. 부모교육 및 상담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2) 인지여부			(3) 이용여부		(4)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부모교육 및 상담									

[로직 : 문7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7-1) 부모교육을 어떤 곳에서 제공받았습니까?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유치원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건강가정지원센터
4. 대학, 문화센터 등 민간교육기관
5. 지역사회 기관(주민센터, 복지관 등)
6. 병원/의원·보건소
7. 산후조리원
8. 온라인()
9. 기타()

[로직 : 문7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7-2) 부모교육 실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참여하셨습니까?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기관의 전화, 문자
2. TV, 신문, 잡지 광고
3. 인터넷
4. 길거리 전단
5. 지인 소개
6. 기타()

[로직 : 문7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7-3) 참여한 부모교육의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 발달 이해
2. 부모자녀 관계
3. 놀이 지도
4. 자녀의 정서/사회성 지원(문제행동 지도 등)
5. 훈육 방법
6. 바람직한 부모 역할
7. 건강, 영양, 안전 지도
8. 신생아 돌보는 방법(수유, 이유식 방법 등)
9. 자녀의 학습지도 방법
10. 초등학교 적응 준비
11. 기타()

[로직 : 문7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7-4)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해주시시오.

1. 내 주변의 부모교육 제공기관 찾기 서비스 구축
2.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교육 제공(생애주기별)
3. 부모교육의 의무화
4. 제공기관의 접근성 제고(집 가까운 곳)
5. 제공기관의 다양화
6. 교육시간의 현실화(주말, 퇴근 후 등)
7.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8. 보다 다양한 채널(온라인, 오프라인 등)
9. 기타()

[로직 : 문7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7-5) 현재 부모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떤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2.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서
3.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4. 시간이 부족해서
5. 교육 참여 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6. 필요로 하는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서
7. 믿을만한 부모교육 기관이 없어서
8. 가까운 곳에 부모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어서
9. 기타()

[로직 : 모든 응답자]

문7-6) 자녀 양육 시 필요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모교육 의무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로직 : 문7-6)의 1. 응답자만]

문7-6)-(1) 부모교육 의무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교육을 통해 부모 스스로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아서
2. 자녀를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4. 기타

[로직 : 문7-6)의 2. 응답자만]

문7-6)-(2) 부모교육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교육을 통해 부모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2.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는 부모 자신의 가치관과 방식이 중요하므로
3. 부모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자녀를 키울 때 혼란스러워서
4. 바빠서 시간을 따로 내서 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워서
5.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6. 기타

[로직 : 모든 응답자]

문7-7) 부모교육 의무화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언제 부모교육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해주시시오.

1.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2. 대학교 재학 기간
3. 혼인신고 할 때
4. 임신기간
5. 출생신고 할 때
6. 자녀 나이 만0~5세 기간
7. 기타

[로직 : 모든 응답자]

※ 최근 국가 수준에서 부모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부모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7-8) 부모학교를 시작한다면 귀하께서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무엇입니까?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매체이용	① 면대면 교육	② 개별 온라인 교육	③ TV(EBS) 등 매체를 통한 교육
(2) 집단크기	① 일대일	② 소집단(5명 정도)	③ 대집단(10명 이상)
(3) 접근방법	① 내가 찾아가서 듣는 방법	② 내게로 찾아오는 방법	
(4) 1회 적정시간	① 약 5분 정도	② 약 10분 정도	
	③ 약 20분 정도	④ 약 30분 정도	
	⑤ 약 40분 정도	⑥ 약 50분 정도	
	⑦ 1시간 이상		

문7-9) 부모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이나 정보제공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1. 자녀의 나이에 따라 구분하여
2. 양육 시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3.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분하여
4. 기타()

※ 문8은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해 직접 물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8.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분유 지원이란?

저소득층 영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구매비용(월 6만4천원)을 지원하고, 이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유식 구매 비용(월 8만6천원)을 지원하는 정책

[로직 : 모든 응답자]

문8-1)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정책내용입니다. 이 설문을 받기 전에 알고있었던 정책내용에 대해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
2.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는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원받는다.
3.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받는다.

[로직 : 보기 1은 복수 응답 불가능]

[로직 : 보기 1 화면 상에서는 제일 끝에 위치]

[로직 : 문8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8-2)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지원금액을 증액해야한다
2. 지원금액을 감액해야한다
3.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한다.
4. 기타 ()

[로직 : 문8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8-3) 현재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득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2. 제도를 잘 몰라서
3.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4. 필요하지 않아서
5. 기타 ()

※ 문9부터 문11까지는 부모의 자녀양육 시 건강과 관련한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9.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금액 중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책

[로직 : 모든 응답자]

문9-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정책내용입니다. 이 설문을 받기 전에 알고있었던 정책내용을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이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을 위해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4.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5. 소득수준과 산모건강상태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45만원에서 162만원까지 다양하다.
6. 단태아(쌍둥이가 아닌 경우)인 경우에는 10일을 이용할 수 있고, 쌍생아의 경우 15일,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산모는 2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로직 : 보기 1은 복수 응답 불가함]

[로직 : 보기 1 화면 상에서는 제일 끝에 위치]

[로직 : 문9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9-2)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라 믿을 수 있어서
2.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제공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3.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에 비해서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4. 기타 ()

[로직 : 문9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9-3)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 비용 지원금을 증액해야한다
2. 이용 비용 지원금을 감액해야한다
3.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한다.
4.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5. 이용기간을 늘려야 한다.
6.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해야한다.
7. 건강관리사의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한다.
8. 기타 ()

[로직 : 문9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9-4)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득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2. 제도를 잘 몰라서
3.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4. 민간 서비스에 비해 질이 높지 않아서
5. 필요하지 않아서
6. 소득수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7. 기타 ()

문10.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 영유아건강검진이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비용 없이 건강검진 제공

[로직 : 모든 응답자]

문10-1)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정책내용입니다. 이 설문을 받기 전에 알고 있었던 정책내용을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
2. 5세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각 월령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3. 일반건강검진 7차례에 더해 3차례의 구강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로직 : 문10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10-2) 영유아건강검진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검진 내용의 내실화
2. 아이의 월령별 건강검진 문자 알림 서비스
3. 영유아건강검진 운영하는 소아과 확대
2. 기타()

[로직 : 문10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10-3) 현재 영유아건강검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검진 내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2. 검진시기를 놓쳐서
3. 영유아건강검진 제도를 잘 몰라서
4. 기타()

문11.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국가예방접종지원									

국가예방접종지원이란?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로직 : 모든 응답자]

문11-1) 국가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정책내용입니다. 이 설문을 받기 전에 알고 있었던 정책내용을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위 내용 중 알고 있는 내용 없다.
2. 거주지와 무관하게 보건소 및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지원되는 백신은 BCG,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폐렴구균 등 16가지이다.

[로직 : 문11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11-2) 국가예방접종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현재 미지원대상 백신(경피용 결핵 백신, 로타바이러스 등)으로 확대 적용
2. 불필요한 예방접종 최소화
3. 접종 종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설명 및 안내
4. 기타()

[로직 : 문11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11-3) 현재 국가예방접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떤 예방접종이 있는지 몰라서
2. 예방접종의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3. 접종시기를 놓쳐서
4. 예방접종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 하는 게 싫어서
5. 제도를 몰라서
6. 기타()

※ 문12부터 문13까지는 부모의 자녀양육 시 이용 가능한 종합적인 서비스 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문1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는 기관(장난감/도서대여, 체험실, 부모교육/상담, 양육정보 제공 등)

문13.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지원센터란?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는 전달체계로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공동육아나눔터, 다양한 가족 통합지원, 가족문화활동을 제공함

[로직 : 문12 (2)의 '1. 이용함' 또는 문13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13-1.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자녀를 가르면서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용한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척도]

서비스의 종류	이용여부		만족도			
	이용한 경험 있음	이용한 경험 없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1	2	3	4
(1) 장난감 대여						
(2) 도서(그림책, 동화책, 육아서적) 대여						
(3) 체험 활동 및 참여프로그램 (행사, 공연 포함)						

서비스의 종류	이용여부		만족도			
	이용한 경험 있음	이용한 경험 없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1	2	3	4
(4) 부모 교육						
(5) 육아 상담						
(6) 시간제 돌봄 서비스						
(7) 육아 품앗이 지원 및 운영						
(8) 아동발달검사/치료프로그램						
(9) 공동육아나눔터(부모 간 상호교류모임)						
(10) 육아정보 제공						

[로직 : 문12 (2)의 '1. 이용함' 또는 문13 (2)의 '1. 이용함' 응답자만]

문13-2)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 지원센터가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
입니까?

1. 거주지에서 너무 먼 곳에 있다.
2. 서비스 내용이 잘 홍보되지 않았다.
3.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4. 이용시간이 다양하지 못하다.
5. 기타()

[로직 : 문12 (2)의 '2. 이용하지 않음' 그리고 문13 (2)의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13-3)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
엇입니까?

1. 이러한 기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2. 너무 먼 곳에 있다.
3. 서비스 내용이 잘 홍보되지 않았다.
4. 제공 서비스가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6. 기타()

※ 문14부터 문17까지는 부모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4. 출산 전·후 휴가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 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출산 전·후 90일 사용 가능(다태아는 120일)

문15. 배우자 출산휴가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 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 휴가로 3~5일 사용 가능하며 최소 3일 유급

문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을 근무하고 단축된 시간의 임금 60% 지원

문17. 육아휴직제도의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잘 알고 있음	들어만 봤음	모름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2	3	1	2	1	2	3	4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40%를 지급

[로직 : 문14~문17 (2)의 '1. 이용함'이 하나라도 있는 응답자만]

문17-1)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가 공통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1. 이용할 때 직장 내에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문화
2. 지원 금액 증액
3. 충분한 지원 기간 확보
4. 복직/인사고가에 불이익 최소화
5. 기타()

[로직 : 문14~문17 (2)에서 모두 '2.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만]

문17-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용하기에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인다.
2.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3.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
4. 복직이 어렵거나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받아서
5.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6. 기타()

문18. 이제까지 답하여 주신 자녀양육지원 정책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어머니의 의견을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 정부는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 아이돌봄서비스 등				
2) 정부의 양육지원정책들은 부모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3) 정부에서 마련한 양육지원정책은 이용자에게 잘 안내되고 있다.				
4) 이용해 본 양육지원정책들은 부모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다.				
5) 정부의 양육지원정책들은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하다.				
6) 정부에서 마련한 양육지원정책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 이다.				
7) 정부의 양육지원정책들이 최근 발전했음을 체감한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8) 양육지원정책은 현재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나의 양육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9) 정부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현재 보다 더 늘려야 한다.				
10) 정부의 양육지원정책들로 인해 세금이 증가한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문19. 현재 정부의 양육지원정책은 다양하나 이용자인 부모에게 경험되는 정책의 체감도는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정책 설계에서부터 수요자인 영유아부모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2.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폭넓은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여서
3.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영유아부모가 이용하기에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4. 정책마다 소관 부처와 기관이 다르고 복잡하여
5. 기타()

Ⅲ. 향후 지원 개선 방안

문1. 다음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녀양육지원정책입니다. 보기 중에서 질문에 가장 해당하는 제도를 1가지만 고르십시오.

- 1) 현재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도가 높은 제도는 무엇입니까? ()
- 2) 현재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도는 무엇입니까? ()
- 3) 현재 자녀양육지원정책 중 가장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 보기 중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정책 중에서 선택해주시시오.

보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용지원(가정 양육수당, 보육료, 교육비 지원) 2. 돌봄지원(아이돌봄서비스, 일시보육, 시간제 보육) 3. 양육정보 및 교육 지원(부모교육제공) 4. 물품지원(분유, 기저귀 등) 5. 건강관련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지원) 6. 서비스 지원(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7. 일·가정 양립 지원(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	---

문2. 다음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육지원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개선 내용은 무엇일까요? 순서대로 세 가지만 선택하여 그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정책 추진
2. 영아는 부모가 가정내 양육, 유아는 기관이용지원 활성화
3. 적정 양육수당 지원(가정양육부담 경감)
4.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이용 편리성 개선
5.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질 관리
6. 출산/양육지원 종합 안내/상담 온라인 종합포털서비스 체계화
7. 부모교육 기회 확대
8. 지원제도와 연계한 부모교육 의무화
9. 지역사회 이용가능 시설 확충(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 자녀양육지원정책을 접근성이 좋은곳에서 원스톱 안내(예: 주민센터 등)
11. 양육정보 맞춤형 제공 서비스(면대면/전화/문자 등)
12. 대안적 작은 육아문화 조성

IV. 영유아 및 가구 특성

배문1-1. 귀하의 남편의 학력을 적어주십시오.

1. 고졸
2. 2~3년제 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졸 이상
5. 남편 없음

배문1-2. 귀하의 학력을 적어주십시오.

1. 고졸
2. 2~3년제 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4. 대학원졸 이상

배문2-1. 귀하의 남편은 일을 하십니까?

1. 일 함
2. 일 안함
3. 남편 없음

[로직 : 배문1-1의 5. 남편 없음인 경우 자동체크]

배문2-2. 귀하께서는 일을 하십니까?

1. 일 함
2. 일 안함

배문3. 지난 3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세후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1. 세후 월 () 만원

배문3-1. 국민 기초 생활수급을 받고 있습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해당 하는 경우 1. 예 라고 응답해주시시오.

1. 예
2. 아니오

부록 5. 회귀분석 결과표

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역량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록 표 3〉 돌봄역량에의 영향 요인

	돌봄 역량 ¹	
	β	S.E
(상수)	2.146***	0.179
자녀수	0.085	0.023
자녀 연령	-0.005	0.011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12	0.039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34	0.049
4년제 대학 졸업	0.033	0.046
대학원졸 이상	0.217***	0.060
가구 소득 ²	0.022	0.031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29	0.031
R^2	0.027	
F	4.540***	
N	1,302	

주1: 돌봄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p<.001

〈부록 표 4〉 돌봄역량에의 영향 요인(양육 부담 추가)

	돌봄 역량 ¹	
	β	S.E
(상수)	3.246***	0.198
자녀수	0.087***	0.022
자녀 연령	-0.006	0.011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06	0.038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40	0.047
4년제 대학 졸업	0.037	0.044
대학원졸 이상	0.192**	0.058
가구 소득 ²	-0.016	0.030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36	0.030
양육 부담 ³	-0.287***	0.026
R^2	0.110	
F	17.757***	
N	1,302	

주1: 돌봄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3: 양육 부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p<.01, *p<.001

〈부록 표 5〉 지원역량에의 영향 요인

	지원 역량 ¹	
	β	S.E
(상수)	1.821***	0.187
자녀수	0.025	0.024
자녀 연령	-0.048***	0.011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102*	0.041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45	0.051
4년제 대학 졸업	0.105*	0.048
대학원졸 이상	0.204**	0.063
가구 소득 ²	0.134***	0.032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42	0.032
R^2	0.045	
F	7.692***	
N	1,302	

주1: 지원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p<.05, **p<.01, ***p<.001

〈부록 표 6〉 지원역량에의 영향 요인(양육 부담 추가)

	지원 역량 ¹	
	β	S.E
(상수)	2.970***	0.207
자녀수	0.028	0.023
자녀 연령	-0.048***	0.011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108**	0.039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51	0.049
4년제 대학 졸업	0.109*	0.046
대학원졸 이상	0.178**	0.060
가구 소득 ²	0.094***	0.031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34	0.031
양육 부담 ³	-0.300***	0.027
R^2	0.127	
F	20.871***	
N	1,302	

주1: 지원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3: 양육 부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p<.05, **p<.01, ***p<.001

〈부록 표 7〉 양육정보역량에의 영향 요인

	양육 정보 역량1	
	β	S.E
(상수)	2.541***	0.217
자녀수	0.052	0.028
자녀 연령	-0.043**	0.013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41	0.048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12	0.059
4년제 대학 졸업	0.051	0.056
대학원졸 이상	0.194**	0.073
가구 소득 ²	0.007	0.037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00	0.038
R^2	0.018	
F	2.985**	
N	1,302	

주1: 양육 정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3가지 문항의 평균값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p<.01, *p<.001

〈부록 표 8〉 양육정보역량에의 영향 요인(양육 부담 추가)

	양육 정보 역량1	
	β	S.E
(상수)	3.219***	0.249
자녀수	0.053	0.027
자녀 연령	-0.043**	0.013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44	0.047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15	0.059
4년제 대학 졸업	0.054	0.055
대학원졸 이상	0.178*	0.072
가구 소득 ²	-0.017	0.037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05	0.037
양육 부담 ³	-0.177***	0.033
R^2	0.040	
F	5.945***	
N	1,302	

주1: 양육 정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3가지 문항의 평균값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3: 양육 부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p<.05, **p<.01, ***p<.001

〈부록 표 9〉 정책인지 및 활용역량에의 영향 요인

	정책인지 및 활용 역량1	
	β	S.E
(상수)	2.241***	0.245
자녀수	0.087**	0.031
자녀 연령	-0.024	0.015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163**	0.054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37	0.067
4년제 대학 졸업	0.004	0.063
대학원졸 이상	0.056	0.082
가구 소득 ²	-0.017	0.042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35	0.043
R^2	0.018	
F	3.036**	
N	1,302	

주1: 정책인지 및 활용 정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2가지 문항의 평균값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3: 양육 부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p<.01, *p<.001

〈부록 표 10〉 정책인지 및 활용역량에의 영향 요인(양육 부담 추가)

	정책인지 및 활용 역량1	
	β	S.E
(상수)	3.066***	0.280
자녀수	0.089**	0.031
자녀 연령	-0.025	0.015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167**	0.053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33	0.066
4년제 대학 졸업	0.007	0.062
대학원졸 이상	0.037	0.081
가구 소득 ²	-0.046	0.042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40	0.042
양육 부담 ³	-0.215***	0.037
R^2	0.043	
F	6.526***	
N	1,302	

주1: 정책인지 및 활용 정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2가지 문항의 평균값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3: 양육 부담 관련 내용의 4점 척도 4가지 문항의 평균값

p<.01, *p<.001

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록 표 11〉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의 영향 요인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 ¹	
	β	S.E
(상수)	2.152***	0.158
자녀수	0.059**	0.020
자녀 연령	-0.030**	0.010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62	0.035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22	0.043
4년제 대학 졸업	0.055	0.041
대학원졸 이상	0.183**	0.053
가구 소득 ²	0.047	0.027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01	0.027
R^2	0.029	
F	4.809***	
N	1,302	

주1: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에 대한 4점 척도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p<.01, *p<.001

〈부록 표 12〉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의 영향 요인(양육 역량 추가)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 ¹	
	β	S.E
(상수)	4.087*	0.266
자녀수	0.066	0.045
자녀 연령	-0.065	0.051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19	0.013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74	0.068
4년제 대학 졸업	0.131*	0.065
대학원졸 이상	0.127	0.084
가구 소득 ²	-0.040	0.043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02	0.043
양육 역량 ³	-0.351***	0.044
R^2	0.054	
F	8.126***	
N	1,302	

주1: 부모로서 양육책임 자체에 대한 부담에 대한 4점 척도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3: 돌봄, 지원, 양육 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에 관한 양육 역량 4점 척도의 13가지 문항의 평균값

*p<.05, ***p<.001

〈부록 표 13〉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의 영향 요인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 ¹	
	β	S.E
(상수)	3.336***	0.255
자녀수	0.053	0.046
자녀 연령	-0.078	0.052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12	0.014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67	0.070
4년제 대학 졸업	0.111	0.066
대학원졸 이상	0.062	0.086
가구 소득 ²	-0.057	0.044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00	0.044
R^2	0.007	
F	1.099	
N	1,302	

주1: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에 대한 4점 척도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p<.001

〈부록 표 14〉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의 영향 요인(양육 역량 추가)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 ¹	
	β	S.E
(상수)	3.922***	0.247
자녀수	0.005	0.042
자녀 연령	-0.030*	0.047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30	0.012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61	0.063
4년제 대학 졸업	0.129*	0.060
대학원졸 이상	0.133	0.078
가구 소득 ²	-0.025	0.040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33	0.040
양육 역량 ³	-0.232***	0.041
R^2	0.037	
F	5.483***	
N	1,302	

주1: 양육 시 신체적(체력) 부담에 대한 4점 척도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3: 돌봄, 지원, 양육 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에 관한 양육 역량 4점 척도의 13가지 문항의 평균값

*p<.05, ***p<.001

〈부록 표 15〉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에의 영향 요인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 ¹	
	β	S.E
(상수)	3.425***	0.234
자녀수	-0.003	0.042
자녀 연령	-0.039	0.048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25*	0.013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56	0.064
4년제 대학 졸업	0.115	0.061
대학원졸 이상	0.090	0.079
가구 소득 ²	-0.036	0.040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31	0.040
R^2		0.013
F		2.057*
N		1,302

주1: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에 대한 4점 척도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p<.05, ***p<.001

〈부록 표 16〉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에의 영향 요인(양육 역량 추가)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 ¹	
	β	S.E
(상수)	4.424***	0.263
자녀수	0.067	0.045
자녀 연령	-0.069	0.051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08	0.013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39	0.068
4년제 대학 졸업	0.048	0.064
대학원졸 이상	-0.075	0.083
가구 소득 ²	-0.108*	0.042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45	0.043
양육 역량 ³	-0.375***	0.043
R^2		0.071
F		10.988***
N		1,302

주1: 심리적 정서적 위축감 또는 부담에 대한 4점 척도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3: 돌봄, 지원, 양육 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에 관한 양육 역량 4점 척도의 13가지 문항의 평균값

*p<.05, ***p<.001

〈부록 표 17〉 경제적 부담에의 영향 요인

	경제적 부담 ¹	
	β	S.E
(상수)	3.621***	0.253
자녀수	0.053	0.046
자녀 연령	-0.083	0.052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15	0.014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31	0.070
4년제 대학 졸업	0.026	0.066
대학원졸 이상	-0.145	0.085
가구 소득 ²	-0.126**	0.043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42	0.044
R^2	0.017	
F	2.871*	
N	1,302	

주1: 경제적 부담에 대한 4점 척도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p<.05, **p<.01, ***p<.001

〈부록 표 18〉 경제적 부담에의 영향 요인(양육 역량 추가)

	경제적 부담 ¹	
	β	S.E
(상수)	5.766***	0.237
자녀수	0.053	0.040
자녀 연령	0.055	0.045
기관 이용(기준: 이용하지 않음)	0.014	0.012
학력(기준: 고졸)		
2~3년제 대학 졸업	-0.079	0.061
4년제 대학 졸업	-0.199**	0.057
대학원졸 이상	-0.311***	0.075
가구 소득 ²	-0.287***	0.038
맞벌이(기준: 맞벌이 안함)	0.044	0.038
양육 역량 ³	-0.383***	0.039
R^2	0.164	
F	28.067***	
N	1,302	

주1: 경제적 부담에 대한 4점 척도

주2: 월평균 가구소득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주3: 돌봄, 지원, 양육 정보, 정책인지 및 활용에 관한 양육 역량 4점 척도의 13가지 문항의 평균값

p<.01, *p<.001

연구보고 2016-08

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현대아트컴 02) 2278-448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79-0 93330